

# 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교류와연 대

적자생존에서상호부조로

조세현

당시일본정부는아나키즘사상을매우위험하다고여겼으며, 러시아혁명의전파를극단적으로두려워했다. 그런분위기에도불구하고아나키즘은지식인이든노동자이든농민이든간에어떠한편견을품지않고특유의열린사상체계로접근했기에널리받아들여졌다. 한편비슷한시기하상조(河上肇)의「사회문제연구」의창간(1919년 1월)을시작으로일본마르크스주의연구의전통이구축되면서다양한마르크스주의문헌의번역이이루어졌다. 얼마후일본사회에마르크스주의자들이대거출현했다.

## 대삼영의아나키즘철학

대삼영은「근대사상」의발간시기(1912년 10월~1914년 9월)중에서사상적기초를닦았다고평가받는다. 이잡지의성공으로지식계에서높은위치를차지했으며, 점차지적자립을추구하는길로나아간다. 「근대사상」의마지막호에는그의인생관과사회관을잘보여주는구절이있다.

연구와사색은유희가아니다. 우리는일상생활에서반드시무언가를생각하고, 또그생각을끝까지진보시켜나가지않으면안된다는어떤요구에직면한다. 아무리해도방치해서는안되는어떤사실에부딪히는것이다. 우리의사색과연구는이사실에대한우리자신의어쩔수없는내적요구인것이다. 우리는자신의이내적요구를어떤다른사람의저서에따라, 즉다른사람의관찰과실험과판단에따라만족하는게으름뱅이가되어서는안된다. 만약이미받아들인어떠한판단이있다해도, 더욱스스로의관찰과실험에따라다시판단하지않으면안된다. 진실로스스로각고의노력으로뺏속까지사무치도록우리스스로의판단을정립해야만한다. 이런개인적인사색의성취에있어서우리는시작부터자유로운인간이되어야한다. 아무리자유주의를주장한다할지라도, 그자유주의가남의판단에서빌려온것이라면, 그사람은마르크스혹은크로포트킨의사상적노예일뿐이다. 사회운동은일종의종교적열광을수반하는동시에어쩌면이러한노예를만들어내는경향이있다. 우리는어떠한경우에도노예가되어서는안된다.<sup>82</sup>

대삼영은개인이자립적인존재라는사실을강조하며, “생생의확충擴充”이라는표현을통해자아의지를통해개인의인격을형성하는과정은무엇보다강조했다. 그는“생의확충에서생의최상의미를본다는이반역과이파괴에서만오늘날생의최상의미를본다”라고외쳤다. 자아가주도하는인격을강조하며신조차자신의안에있는것이라고믿었던점은마르크스주의자들이사회적환경이인간의의식을전적으로지배한다고주장하는것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sup>83</sup> 하지만동시에인격이외적환경에종속되는비자립적인측면도일부지적했다. 대삼영사상의핵심가운데하나가자유라는사실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에게자유란생과동의어였다.

2010년

<sup>82</sup> 大杉榮〈個人的思索〉, 『大杉榮』 152~53면.

<sup>83</sup> 板垣哲夫『近代日本のアナキズム思想』, 吉川弘文館 1996, 4~5면.

# 차례

책머리에   ‘적자생존’에서 ‘상호부조’로	6
<b>제 1 장 아나키즘, 동아시아 사회와의 만남</b>	<b>13</b>
1. 프랑스에서 중국으로의 전파	13
크로포트킨주의와 세계사의 성립	13
「신세기」의 아나키즘	19
2. 일본에서의 전파	25
사회주의서적번역과 러시아 허무당	25
행덕추수의 직접행동론	29
3. 일본과 중국 아나키스트의 교류	35
사회주의 강습회의 성립과 「천의」의 아나키즘	35
동아시아 최초의 반제국주의 단체: 아주화친회	41
<b>제 2 장 아나키즘,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전개</b>	<b>48</b>
1. 강향호와 중국 사회당	48
삼민주의와 중국 사회당의 창립	48
중국 사회당의 분열과 아나키즘적 사회당	51
2. 사복과 민성파	54
언행일치의 혁명가, 사복	54
사복을 둘러싼 아나키즘 논쟁	59
사복의 제자들과 신문화 운동	63
3. 일본 아나키스트의 초상: 대삼영	69
일본 아나키즘 운동의 부활	69
대삼영의 아나키즘 철학	72
중일 아나키스트의 상호 인식	76
<b>제 3 장 동아시아 아나키즘-볼셰비즘 합작과 분열: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b>	<b>80</b>
1. 러시아 혁명의 영향	80
러시아 공산당과 아나르코볼셰비키	80
러시아 혁명가와 중국 아나키스트의 접촉	83

의기초이자 새로운 사회의 초석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북풍회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실험했다.

러시아 혁명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시베리아 출병을 강행하자 일본 내에서는 계급모순이 격화되고 물가 폭등이 야기되어 이른바 쌀 폭동(1918년 7월)이 일어났다.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출병하는 과정에서 쌀을 중개하던 상인들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쌀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것이 전국 차원의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쌀 소동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상 탄압을 잠시 완화하자 노동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 수 있었다. 이에 대삼영과 화전구태랑, 근등헌이 등의 노력으로 노동 운동사 勞動運動社를 만들고 「노동 운동 勞動運動」(제 1 차 1919년 10월 ~ 1920년 6월) 창간호를 발행할 수 있었다. 창간사에서 “일본의 모든 방면에서 노동 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충실히 소개하고, 그 내용을 비평하는 것이 본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고, 〈노동 운동의 정신〉(1호)이라는 글에서는 “노동 운동은 노동자의 자기 획득 운동이자 자주자치적 생활 획득 운동이며, 인간 운동이자 인격 운동”이라고 자신들의 운동을 규정했다.<sup>80</sup> 「노동 운동」(제 1 차)은 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충실히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며, 노동자와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노동자 대중의 인격 획득에 주목했다. 특히 대삼영이 주도한 지도자 이론의 비판과 지식인 계급의 배척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행동론은 노동 조합적 아나키즘의 발달을 가져와 기존 제도를 부정하는 자치적 조직론으로 나아갔다.

일본 아나키즘 운동사에서 ‘겨울의 시대’에는 코뮌적 아나키즘과 노동 조합적 아나키즘이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그 후 노동 조합적 아나키즘의 세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영국 학자 존 컵(John Cump)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일본 아나키즘 이론의 중심이었던 크로포트킨의 위상이 혁명가들 사이에서 약화되었다.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행덕추수 시대부터 반전 反戰을 주장했던 데 반해, 크로포트킨은 제 1 차 세계 대전 때 프랑스와 동맹국을 지지했기 때문에 다소 실망한 것이다. 둘째, 일본 아나키스트들이 보기에 정부 폭력에 대해 별다른 저항 수단이 없었던 지식인들과 달리 공장과 탄광의 노동자들은 혁명적 역량과 노동 조합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에 운동의 주력으로 주목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유럽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까닭에 정보 부족이라는 변수가 노동 조합적 아나키즘의 유행에 한몫을 했다. 실제로는 프랑스 노동 총연맹(CGT)이 제 1 차 세계 대전의 와중에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프랑스 노동 총연맹의 세력이 확대일로에 있다고 착각하고 열광했다. 넷째, 대삼영의 노동 조합적 아나키즘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이 동지들을 감화시켜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다.<sup>81</sup>

<sup>80</sup> 多全道太郎, 앞의 글 56면.

<sup>81</sup> John Cump, 碧川多衣子譯 『八太丹と日本のアナキズム』, 青木書店 1996, 51~52면.

열렸고매회 30 여명이모였는데, 강연회의주제는애국심의해부와대의정치론, 생디칼리즘, 크로포트킨의사상등이었다고한다.<sup>77</sup>

대삼영은「근대사상」(1914년 9월)을스스로폐간했다. 이잡지가문단에 유명해져서자신이사회명사가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런안락함을포기하고 새로운모험속으로뛰어들었다. 그는노동자를대상으로한월간「평민신문平民新聞」(1914)을발간하고, 노동운동관련모임을개최함으로써대역사건으로침체된사회주의운동을부활시키고자했다. 「평민신문」은〈노동자의자각〉이라는창간사를통해“노동자의해방은노동자자신으로부터한다”는표어아래“노동자의노예적지위를개선하고, 이개선을방해하는일체의사회적제도에대해계급전쟁의반역을하자!”고호소했다.<sup>78</sup> 이신문은행덕추수의정신을이어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입장에서경제적직접행동을주장했으나, 아나키즘색채가치나치게선명화한탓에황천한춘같은동지들의강력한반발에직면했다. 게다가계속되는발행금지처분으로말미암아재정적어려움을겪었으며, 다시복간한「근대사상」마저단지 4 호만발간하고폐간되었다.

1917년의러시아혁명의일본의사회주의자를흥분시키기에충분했다. 혁명의발발은사회주의자로하여금연구와계몽의단계를넘어노동조합을통한실천과투쟁의길로나아가도록자극했다. 이에대삼영과이등야지(伊藤野枝), 동료인촌목원차랑(村木源次郎)·화전구태랑(和田久太郎)·구판묘지조(久板卯之助) 등은「문명비평文明批評」(1918년초)을창간하고생디칼리즘연구회도다시정기적으로열었다. 점차생디칼리즘에기초한노동운동이힘을얻었으며, 평민대학강연회의후신인노동문제좌담회를통해본격적으로노동자에게접근했다. 대삼영은동지들과함께「노동자신문」을발행했으나곧바로발행금지처분을받았고, 「문명비평」조차폐간을당했다.<sup>79</sup> 그럼에도불구하고이시기에는제1차세계대전특수말미암아일본자본주의가급속히발전한때여서노동운동은매우활성화되었다.

대삼영의좌담회는또다른단체인아나키즘연구회와연합해북풍회北風會를결성했다. 여기서‘북풍’이라는이름은이단체를결성하기직전에폐렴으로사망한아나키스트도변정태랑(渡邊政太郎)의호에서따온것이다. 대삼영과근등헌이(近藤憲二)등이이끈북풍회는‘노동운동의정신’이라는주제로강연회를개최했다. 여기서대삼영은노동운동은임금인상이나노동시간단축과같은단순한생물적·경제적요구에그칠것이아니라인간해방을목표로삼아야한다고강조했다. 그리고노동자는복종의습관과노예의생활에서해방되어야하는데, 이런해방은비단자본가의질곡에서해방되는것뿐만아니라, 노동운동지도자의권위로부터도해방되어야한다고역설했다. 노동자들의자발적의지적행동이야말로노동운동

2. 아나키즘-불세비즘합작	88
북경지역	88
상해지역	91
광주지역등	96
3. 아나-불합작의분열과논쟁	101
아나-불분열의과정	101
아나-불논쟁의전개	107

**제 4 장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의 분화와 연대 활동 112**

1. 일본 아나키즘의 분화	112
아나-불합작과 분열	112
대삼영의 죽음과 노동 운동의 분열	116
2. 중국 아나키즘의 분화	123
아나키즘 (흑기) 과 에스페란토 (녹기) 의 결합	123
국민 혁명을 둘러싼 아나키스트의 분열	128
3. 1920년대 말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대 활동	133
흑색 청년 연맹	133
상해 노동 대학과 천주 민단 훈련소	136
동방 무정부 주의 자연 맹	140

**제 5 장 한인·대만 인민족 해방 운동과 아나키즘 143**

1. 일제 하 식민지에서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	143
2. 북경 지역	150
「천고」와 재중국 조선 무정부 주의 자연 맹	150
신대만 안사	155
3. 상해 지역	158
삼이 협회와 「투보」	158
한인과 대만인의 연합 조직: 평사와 대한 동지회	160
4. 광주 지역	164
중한 호조사와 「광명」	164
대만 혁명 청년 단	166
5. 1920년대 후반 한인과 대만인 아나키즘 운동	168

**제 6 장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반파시즘 연대 투쟁과 운동의 굴절 176**

1. 파시즘 통치하의 일본인과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	176
일본 무정부 공산당의 건설과 붕괴	176
선택의 기로에 선 한인 아나키스트	181

<sup>77</sup> 近藤憲二 『私の見に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麥社 1969, 13 면.  
<sup>78</sup> 多田道太郎, 앞의 글 56 면.  
<sup>79</sup> 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47~48 면.

2. 일본의대륙침략과중국인아나키스트 . . . . .	183
<b>파급: 혁명과문학사이에서</b> . . . . .	183
<b>중국인아나키스트의항일전쟁관</b> . . . . .	188
3. 항일전쟁중의재중한인아나키스트 . . . . .	193
<b>유자명: 테러활동에서무장투쟁으로</b> . . . . .	193
<b>한인아나키스트의민족전선참가</b> . . . . .	196

책을마치며

203

었다. 이단체는유석심등이참여했으나, 식민지정부에의해핵심멤버가추방당하면서운동이잠시위축되었다. 1922년에는허주(虛舟) 등이동남아에와아나키즘활동을전개했다고전한다. 1923년에는애진(愛眞) 이등방무정부주의자동맹東方無政府主義者同盟의대표로이곳에서주의를선전했다는기록이있어흥미로운데, 그는동맹의지부를만들고아나키스트대회를개최하려다역시추방당했다.<sup>74</sup> 현재까지중국밖의화교들의아나키즘활동은별로알려져있지않다.<sup>75</sup>

### 3. 일본아나키스트의초상: 대삼영

#### 일본아나키즘운동의부활

행덕추수가대역사건으로처형되자일본의사회주의운동은암흑상태에들어갔다. 이른바‘겨울冬の시대’에서사회주의자들은글을대신써준다거나번역일을하면서생계를겨우꾸려나갔다. 몇해동안대삼영도생활고에시달리며약전고투하지않을수없었다. 대삼영과그의동료들은대역사건으로처형된동지들의시신을동경감옥에서인도받았으며, 대삼영은행덕추수를추모하는모임에서그를기리는시를낭독하기도했다.

대삼영은황천한촌(荒畑寒村) 과함께 「근대사상近代思想」(1912년 10월) 이라는잡지를만들어학생과지식인을대상으로출판사업을시작했다. 이일을한것은기존사회주의자들의어정쩡한태도에더이상만족할수없었기때문인데, 여기서그는명치시기사회주의운동의“권위주의적·정치주의적체질”에대한반역을시도했다. 이러한반역은곧대정시기사회주의운동의새로운출발을알리는것이었으며, 전국각지에흩어져있던동지들도코힘을얻었다.<sup>76</sup> 이잡지는정치적발언이어려운상황에서문예의형식을빌려개인주의를선전했다. 여기서개인주의는개인의내면을강조하는것이아니라사회의식이강렬한이른바사회적개인주의였다.

그리고대삼영의발의로생디칼리슴연구회(1913년 7월) 를열었는데, 이시도역시좋은반응을얻었다. 생디칼리슴연구회는일본인은물론중국·조선의유학생들과간담회를개최해구미의사회주의사상을선전했다. 이연구회는나날이발전하여나중에는평민대학강연회가되었다. 평민대학강연회는매월 2 회가량

<sup>74</sup> 歐西〈南洋無政府主義運動之概況〉, 「民鐘」第2卷第1期, 1927. 1. 25.

<sup>75</sup> 한연구자는비록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은최종적으로추구했던이상사회를만드는데에는실패했을지모르지만, 그들은살아있을때자신들이희망했던사회문화방면의다양한가치들이실현되는것을직접목격한승리자였다는생각을가지기도한다 (Peter Zarrow, Anarchism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258 면).

<sup>76</sup> 多田道太郎, 〈生と反逆の思想家大杉榮〉, 多田道太郎編『大杉榮』, 中央公論社 1984, 39 면.

분명한 사실은 아나키스트들이 시작한 '호조'와 '노동'의 구호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이다.<sup>69</sup>

한편 1910년대 후반은 에스페란토가 중국 사회에 활발하게 전파된 시기이기도 하다. 사복의 제작가운데 에스페란토를 열성적으로 전파한 대표 인물로는 구성백을 들 수 있다. 구성백은 광주에서 『세계어독본』(1916)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상해와 북경, 천진, 상숙, 불산, 강문 등지에서 에스페란토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로 널리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 의해 에스페란토 독서실·클럽·전파소 등도 만들어졌으며, 이런 단체들은 아나키즘의 선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sup>70</sup> 구성백은 북경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신청년」과 여러 아나키즘 잡지에 에스페란토 관련 글을 실었으며,<sup>71</sup>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에스페란토를 전파하는 주요 인물이 한 사람이 되었다.

상해에서 「화성華星」(1916년 1월)이 창간되었다. 「화성」은 순수하게 에스페란토로만 만들었는데, 성국성(盛國聲)이 주편하고 정파강인쇄를 담당했다. 이 잡지는 중국 에스페란토 잡지를 대표하며 훗날 「녹광綠光」이라고 제호를 바꾸면서 장기간 발행되었다. 그밖에 북경대학의 「자유록」<sup>72</sup>과 「북경대학 학생주간」<sup>73</sup>을 비롯해 같은 시기에 나온 「자유」「인군」「진화」「민성」 등과 같은 잡지에도 에스페란토란이 마련되었다. 이때는 이미 만국신어 萬國新語라는 용어보다는 세계어 世界語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나 볼셰비키 같은 과격파가 에스페란토를 배운다고 인식해 점차 에스페란토 운동에 대해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신문화 운동 시기에는 해외에서도 중국인 아나키스트 그룹이 출현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공여사 工余社, 일본의 홍사 紅社·인인사 人人社, 미주 지역의 평사 平社, 캐나다의 캐나다 목와업화공연합회 加拿大木瓦業華工聯合會, 동남아시아 지역의 진사 眞社(1919)·아나키동지사 安那其同志社·인쇄공동맹 印工同盟 등이 그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사복이 만든 「민성」의 씨앗이 이곳에 뿌려지면서 시작되었는데, 양빙현이 마닐라에서 「평민 平民」(1914)을 창간하고 노동자 조직을 만들었다. 얼마 후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의 아나키스트 조직 진사가 결성되

<sup>69</sup> 최근에는 5·4 시기 직업단체를 중심으로 민의 기구를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길드 사회주의 못지 않게 아나키즘의 노동관이 그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 (유용태 <5·4 운동과 직업주의의 대두>, 『중국 근현대사 연구』 제 43 집, 2009, 22면).

<sup>70</sup> 王炎, 앞의 글 548면.

<sup>71</sup> 區聲白 <通信>, 『新青年』 第 5 卷 第 2 號, 1918. 8. 15; 第 6 卷 第 1 號, 1919. 1. 15.

<sup>72</sup> 실사의 「自由錄」에는 자멘호프의 전기인 <世界語發明家 Zamenhof 博士史略> 과 계급제를 타파하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에스페란토를 노동자에게 권유하는 <世界語與無政府黨> 등이 실렸다 (『自由錄』 第 1 輯, 1917.7; 『自由錄』 第 2 輯, 1917).

<sup>73</sup> 『北京大學學生週刊』에는 노동자들이 에스페란토를 배워 전세계적인 노동자 연합을 만들어 사회혁명을 추구하자는 <世界語與工黨> 과 자멘호프의 언어가 소비에트 정부에 정식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Bolchevisme 和 Esperanto> 등이 실렸다 (『北京大學學生週刊』 第 14 號, 1920. 5. 1; 『北京大學學生週刊』 第 17 號, 1920. 5. 23).

## 책머리에 | ‘적자생존’에서 ‘상호부조’로

이 글은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주의 사상과 운동에 관해 탐색하려는 것이다. 서양의 고전적 아나키즘은 국가와 종교, 가족주의에 내재도니 권위에 반대하며 성별과 종족별, 계급별 민족간 억압의 요소들과 대항했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도 무가족과 무종교, 무정부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상을 무강권주의 無強權主義라고 요약했다. 여성해방과 민족해방, 계급해방 등에 관해서도 전방위의 투쟁을 추구했다. 19세기말 ~ 20세기초에 민족주의와 국민국가화가 두로 등장할 무렵 일본에서는 아시아주의나 국제주의도 소개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라는 범주를 가지고서 구적근대에 대항한 것은 일본의 아시주의의 뿐만 아니라 아시아라는 범주의 위로부터의 아시아주의는 무력에 의한 식민주의로 변질되면서 제국주의적 대동아공영권으로 나아가겠지만, 아나키스트들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억압에 저항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구했다. 특히 일본 중심의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를 추구하던 20세기 전반기에 일찍이 반전과 반제를 외치며 식민지 국가와 피억압 민족간의 동아시아 연대를 주장한 사실은 인상적이다.<sup>1</sup>

20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 혹은 국민국가의 시대라고 불린다. 그래서인지 다수 연구자의 관점은 민족과 근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맞추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일국사의 관점에서 서주로 민족해방 운동의 차원에서 그 운동을 정리함으로써 아나키즘 본래의 국제주의적 성격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서 저자가 다루려는 아나키

<sup>1</sup> 한국역사학계에서 민족이나 국가의 틀을 넘어서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나아가 세계사를 바라보자는 주장이나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보면서 그 역사를 재구성하자는 주장이 있다. 창비를 중심으로 한 백영서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백영서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 동아시아인의 역서서술의 성찰〉, 『역사학보』 196호, 2007. 12;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4 등 다수).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분석하면서 21세기의 동아시아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변혁에 개입하는 비판적 지역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리프딜릭의 논의가 있었다 (아리프딜릭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 — 지역구조 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창작과 비평』, 1993 봄 등). 특히 딜릭은 가장 뛰어난 중국 아나키즘 연구서를 쓴 저자이자 전자적 자본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1; 아리프딜릭, 설준규·정남영 옮김 『전자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창비 1998). 필자는 대략 이들의 주장에 기초한 동아시아 개념에 영향을 받아 이 책을 썼는데, 단지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란 추상적인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재했던 영역과 범주에 주목한다.

공검학회 留法勤工儉學會는 과거와 달리 주로 젊은 지식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단체는 화법교육회와 함께 지식인과 학생들을 프랑스로 유학시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게 하는 유명한 유법근공검학운동 留法勤工儉學運動을 전개했다. 근공검학회는 유법근공검학을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담당했고, 화법교육회는 유법근공검학회의 사무업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sup>65</sup> 1919년 중국 내에는 10여 개의 유법준비학교가 세워졌고 1920년에 이르러서는 1,000명이상의 학생이 유법근공검학회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 석증과 오치휘 등이 유법근공검학회를 통하여 근공검학운동을 추진한 것은 사복사후 강력한 구심점이 없었던 중국 아나키즘 운동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했고 실제로 많은 아나키스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sup>66</sup> 유법근공검학운동은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유학운동으로 전형적인 아나키즘 운동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아나키즘의 이상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아나키스트들은 공학주의 운동과 공독호조단 운동, 신촌 운동에도 참가해 학생들에게 일과 공부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을 신성시 하는 새로운 풍조를 일으켰다. 공학주의의 최초 창자는 아나키스트 광호생 (匡互生) 이다. 그는 북경 사범고등학교에서 「공학工學」 (1919년 12월) 잡지를 창간해 크로포트킨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결합”이나 톨스토이의 범노동주의를 실행했다. 이 운동은 근공검학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석증과 오치휘, 채원배 등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공학회 회원들 모두가 아나키스트였던 것은 아니었다.<sup>67</sup> 같은 시기 왕광기 (王光祈) 도 〈도시속의 새로운 생활〉을 「북경신보 北京晨報」에 발표하면서 공독호조단 운동을 시작했다. 공독호조단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이상 사회를 추구했다.<sup>68</sup> 주작인에 의해 제창된 신촌 운동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 신촌 운동은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촌을 건설해 모두 평등하게 노동하고 서로 도와 계급투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어떤 단체나 인물이 아나키즘인가 아닌 가 여부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지만,

<sup>65</sup> 江天蔚 〈回憶留法勤工儉學〉, 『五四運動回顧錄』 (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994면.

<sup>66</sup> 박제균 〈중국 ‘파리그룹’ (1907~1921)의 무정부주의 사상과 실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6, 15면.

<sup>67</sup> 박제균 〈「工學」 잡지와 오사시무정부주의사조〉, 『중국현대사연구』 제 1집, 1995, 34~35면.

<sup>68</sup> 일본학계에서는 오사 운동이 사실상 아나키스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환산송행 (丸山松幸) 등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학회 같은 조직이나 공독주의 工讀主義 같은 사조가 아나키즘 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坂井洋史 〈近年の中國アナキズムの研究をめぐって〉, 『中國社會と文化』, 東大中國學會 1988, 266~69면).

의소장消長〉(같은해 11월)에나타난다. 여기서그는암흑의강권론이소멸하고, 광명의호조론이연합국의승리를가져왔으며, 이에“모든사람들이신앙한다”고말했다. 게다가톨스토이나니체의사상보다크로포트킨의호조론이우월하며진화론의공리라고평가했다.<sup>63</sup> 진독수와이대조(李大釗), 주작인(周作人), 모택동(毛澤東) 등거의모든진보적인인사의글속에서도『호조론』의영향을쉽게찾아볼수있다. 상호부조의정신은중국초기공산주의자에게심각한영향을끼쳐중국마르크스주의의특징인인민주의적인정신과윤리중심적인경향에기여했다.

중국각지에서호조라는이름을붙인단체나잡지들이다수등장한사실만보다라도이새로운사상이얼마나광범한지지를받았는지알수있다. 예를들어 1917년 10월운대영(惲代英)이조직한호조사互助社와 1920년청년아나키스트들이창간한「호조互助」, 1920년대초중국인과한인유력인사들이만든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등의명칭이그렇다. 이즈음중국사회를풍미했던유법근공검학운동留法勤工儉學運動과공학운동工學運動, 공독호조단운동工讀互助團運動, 신촌운동新村運動등도호조의정신과불가분의관계가있었다.

호조말고도노동개념역시크로포트킨의“육체노동과정신노동의결합”이라는사상에다가톨스토이의범노동주의사상이결합해나타난것이다. 톨스토이는모든사람이자신의노동으로먹거리를마련해야사회적불평등과차별을없앨수있다고주장했는데, 이생각은중국인청년들에게큰공감을얻었다. 이것은구신세기파와사복의민성파가제창한“노동勞工과노심勞心の차별폐지”혹은“공공과학學의차별철폐”라는신념과맥을같이하고있었다. 실제로오치휘와청년아나키스트들이창간한「노동」(1918년 3월)에서잡지이름으로노동이라는명칭이처음나타났다. 그리고이용어는채원배의교육철학에도나타나 1918년의노동신성勞工神聖<sup>64</sup>이라는구호와어우러져널리유포되었다.

제 1차세계대전의시작과함께프랑스에서는노동력의부족현상이나타났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국에서노동자들을수입하기시작했다. 이런배경아래오치휘와이석증, 장정강, 오옥장(吳玉章) 등은프랑스에근공검학회勤工儉學會를설립했다. 이단체는본래노동자를대상으로한조직이었는데, 젊은노동자에게노동하며공부하는이른바반공반독半工半讀의방법을교육시키며동시에아나키즘사상을전파했다. 이석증등은다시화법교육회華法教育會를설립해프랑스에있던중국인노동자의교육과취업을도와주었다. 이런단체들은파리에서「여구잡지旅歐雜誌」(1916년창간)와「화공잡지華工雜誌」(1917년창간)를출판했는데, 모두“노동과학습의결합”을선전하는잡지였다.

이석증이프랑스에서중국으로귀국하면서채원배와오옥장등과더욱발전된형태의근공검학운동勤工儉學運動을구상했다. 이에따라새롭게조직된유법근

스트들, 즉한국과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인등의다양한활동은비록 20세기의시대정신에어긋난이단적행동이었기에실패했다고간단히치부해버릴수있을지는몰라도, 엄연히존재했던동아시아근현대사의중요한역사현상의하나였음은틀림없다. 이리까닭에필자는동아시아라는좀더넓은지역범주를가지고각나라의아나키스트교류와협력을정리해근현대서기의아나키즘을실감나게이해하고자한다.

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가어느정치파벌보다도민족과국경을넘어다양한교류와협력을추구한역사적사실은무척이채롭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의국제교류와연대라는주제는지금까지별로다루어진적이없었다. 기존연구는주로한국과중국, 일본등의개별국가차원에서연구가이루어졌으며, 한중과한일, 중일등국가간의아나키스트교류와협력에관한논문이몇편있다. 하지만이런방식은아나키즘의고유한특징인국제주의정신과그활동을잘드러낼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다행스럽게도최근에는동아시아라는지역범주가주목을받으면서일부에서나마동아시아급진주의연구의하나로아나키즘의초국가주의에주목하는경향이있다.<sup>2</sup> 이연구는한국과중국, 일본은물론대만과일부러시아의경우를포괄한다국적차원의형식과내용을갖추어한국가나민족에제한되지않고전방위의교류와협력이있었다는사실을밝힐것이다. 국제주의를표방한공산주의운동조차동아시아사회에서광의의민족주의범주내에포섭된사실을기억한다면, 아나키스트의연대정신은 20세기를설명하는또다른사례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동아시아아나키즘의역사적의미를적극적으로평가하는한연구자는동아시아사회주의의첫단계에서아나키즘은주도적인이념이었고, 20세기초반 20년간전파되어급진주의적세력이출현하도록만들었으며, 이사상은당시사회다원주의에근거한제국주의합법화에또다른선택이있을가능성을제시했다고한다.<sup>3</sup> 아울러아나키스트는단순히정부의폐지만을주장한것은아니며, 사회각기관내의권력을분산시키려했다고보았다. 그리고다른연구자는“동아시아의경우에한중일아나키스트들이서로긴밀하게협력하면서‘민족’과‘국가’의경계를무너뜨리려애썼다는점에서공산주의의국제성을그대로답았다. 그러면서도그들은개인적자율문제나‘지도부로부터의대중의독립성’문제를제기하는등사상적스펙트럼이급진적인부분에서공산주의자들의중양집권적운동이이루어내지못한바를

<sup>2</sup> 황동연은 20세기초동아시아급진주의자(특히아나키스트)들이서구의‘아시아’가아닌초민족적이며세계주의적전망을찾는새로운아시아를창안했다고지적한다. 그리고동아시아개념과관련해구미오리엔탈리즘과미국지역연구를통해만들어진동아시아라는지역명칭을비판하고, 지역시각과초국가적관점을통해동아시아를대체할‘동부아시아’란지역명칭을제안하면서, 동부아시아란개념을염두두고 20세기전반급진주의자의역사를재구성할것을주장한다(황동연〈20세기초동아시아급진주의와‘아시아’개념〉, 『대동문화연구』 50호, 2005; 〈지역시각, 초국가적관점, ‘동부아시아’지역개념과‘동부아시아’급진주의역사의재구성서론〉, 『동방학지』 145호, 2009).

<sup>3</sup> 阿里夫德里克(Arif Dirlik)〈東亞的現代性與革命 — 區域視野中心的中國社會主義〉, 『馬克思主義與現實』, 2005年第3期, 9면.

<sup>63</sup> 蔡元培〈歐戰與哲學〉, 『新青年』第5卷第5號, 1918. 11. 15; 蔡元培〈黑暗與光明消長〉, 『蔡元培全集』第3卷, 204~18면.

<sup>64</sup> 蔡元培〈勞工神聖!〉, 『新青年』第5卷第5號, 1918. 11. 15.

이루어냈다”<sup>4</sup>고 높이 평가했다. 아나키즘의 의의와 더불어 그 한계를 지적한 또 다른 연구자는 20세기 전반 동아시아 아나키즘에서 민간차원의 지역연대가 나타난다고 보면서도, 이런 시도는 일반민중의 일상생활속의 실감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단명에 끝났다고 보았다. 즉 근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국, 망종한다는 위기의식이 아나키즘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sup>5</sup> 이처럼 변혁이론으로서의 동아시아에 주목하는 연구자에게 20세기 전반기 아나키스트의 동아시아 연대 사례는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은 민족주의 사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이 두드러진 특색이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주의를 추구한 사상이다. 운동의 초창기인 1900년대에 아주화친회(亞洲和親會, The Asiatic Humanitarian Brotherhood)나 사회주의 강습회(社會主義講習會) 활동 등에서 이미 나타난다. 특히 1907년은 상징적인 해로 일본과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이 직접 교류를 시작할 때이다. 당시 행덕추수(幸德秋水)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동경에 거주하던 외국인 혁명가들이 이에 호응했다. 그 결실의 하나로 중국인 혁명가들은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아주화친회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아시아 각 나라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혁명가 연합단체를 결성하고자 했는데, 동아시아 사회에 최초로 등장한 반제국주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했으나, 인도와 조선, 월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혁명가들도 참여했다고 전한다. 20세기 동아시아 사회주의 수용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아나키즘이 마르크스주의보다 먼저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를 점했든가 다투어 이곳의 아나키스트들은 상호부조론(互助論)과 에스페란토를 매개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강력한 비판자가 될 수 있었다.

1910년대에 일본은 행덕추수가 대역사건(大逆事件)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정부가 가혹한 사상 탄압으로 말미암아 ‘겨울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중국은 ‘중국 아나키즘의 초상’이라 불리는 사복(師復)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사복은 해외 아나키스트와의 교류를 시도했으며, 일본 아나키즘 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하던 대삼영(大杉榮)과도 연락을 맺었다. 사복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생들은 꾸준히 운동의 영향력을 넓혀 갔으며, 1910년대 말부터는 시베리아나 연해주 등지에서 건너 온 러시아 아나키스트들과도 교류가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볼셰비키의 등장은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에게는 새로운 강력한 도전자가 출현했음을 의미했다. 이 세계적 사건은 동아시아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한·중·일 사회주의 운동의 대립과 분열을 가져왔으며, 아나키즘—볼셰비즘 논쟁을 촉발시켰다. 반드시 이 논쟁 때문에 아나키즘 운동이 쇠락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논쟁을 전후해 운동이 급격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sup>4</sup> 박노자 <반란자들의 동아시아를 위하여>, 『우리가 물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2007, 18면.

<sup>5</sup> 백영서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2000, 59면.

당시 시대의 화두라면 윤리에 있어서의 ‘호조( 상호부조)’, 인간의 본능에 있어서의 ‘노동’이라 말할 수 있다. 사복이 널리 제창한 호조와 노동은 진보적 지식인이라 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로 인식된 것이다.<sup>57</sup>

중국 사상계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을 사회진화론과 상호부조론의 대결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인지 생존경쟁과 상호부조의 우열을 가리는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sup>58</sup> 구성백이 『민풍』에 호조론을 다시 소개한 것을 비롯해 『북경대학 학생주간』 『학휘(學彙)』 『민중(民鐘)』 등에 여러 차례 번역문들이 실렸으며, 『자유록』 『진화』 등은 공개적으로 상호부조주의를 자신들의 종지로 삼았다.<sup>59</sup> 이 새로운 진화론적 해석은 아나키스트를 비롯한 진보적 청년들에게 군벌정권과 제국주의 문제를 넘어 설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해 주었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크로포트킨 관련 서적이라면 천진 아나키스트 그룹 진사(眞社)에서 출판한 『크로포트킨의 사상』(1920)을 들 수 있다.<sup>60</sup> 그 가운데 『호조론 대강』은 『호조론』의 내용을 25쪽 분량으로 요약한 것이다. 경쟁과 호조를 비교해 호조의 우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황릉상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할수록 완전한 민주주의 목적에도 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sup>61</sup>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반대해 공산주의자와 갈등을 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레닌의 러시아 혁명과 크로포트킨의 공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주장도 폈다. 그 밖에 『크로포트킨의 사상』에는 크로포트킨의 여러 저서와는 문들이 부분 번역되어 실렸다.

신문화 운동 시기에 호조라는 개념은 아나키스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채원배는 크로포트킨의 호조론을 전통적 중용과 대동론을 매개로 수용하면서 호조론을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보다 높이 평가했다. 그는 ‘호조’란 개념이 이석종의 번역과 소개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sup>62</sup> 채원배의 호조론에 대한 가장 자세한 언급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촉발된 두 강연, 즉 <유럽 전쟁과 철학> (1918년 10월)과 <암흑과 광명

<sup>57</sup> 이석종의 『互助論』이 여러 잡지에 소개되어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는데, 본 인도 『互助論』의 전반부 내용을 다시 번역해 『東方雜誌』 제 16권 제 5~10호 (1919년 6~10월)에 연재했다.

<sup>58</sup> 대표적인 글로는 三無(克魯泡特金主義之評論), 『東方雜誌』 제 17권 제 12호, 1920. 6. 25; 周建人(生存競爭與互助), 『新青年』 제 8권 제 2호, 1920. 10. 1; 愈之(克魯泡特金與無治主義), 『東方雜誌』 제 18권 제 4호, 1921. 2. 25 등이 있다.

<sup>59</sup> 『自由錄』 제 1輯 (1917년 7월)에는 화림의 <與克魯泡特金氏相見記>가 실려 있어 채로우며, 『進化』 제 1~3권 (1919년 1~3월)은 매호마다 크로포트킨의 저서와 근황, 체포 소식에 대해 전하고 있다.

<sup>60</sup> 이 책에는 크로포트킨의 초상화를 포함해 주요 사상 및 저작에 대한 요점이 고루 소개되었는데, <克魯泡特金略傳> <克魯泡特金藝術觀> <克魯泡特金文學觀> <無政府黨의 道德> <無政府主義及其發展의 力士> 등의 글을 비롯해 『빵의 쟁취』 <무정부공산주의> <임금제도> 『농장·공장·작업장』 <현대과학과 무정부주의> 『호조론』 『청년에게 고함』 등의 요약문이 담겨 있다(天津眞社 『克魯泡特金의 思想』, 1920, 72면).

<sup>61</sup> 兼生(克魯泡特金의 道德觀), 『解放與改造』 제 1권 제 6호, 1919. 11. 15.

<sup>62</sup> 蔡元培(五十年來中國之哲學), 『最近五十年』, 申報館 1923.

향했다. 여성해방은단지여성만의과제가아니라사회적과제라는것이다.<sup>52</sup> 그녀는중국의청년들과편지를주고받으며여성해방운동에큰영향을미쳤을뿐만아니라, 러시아혁명의실상을이해하는데도도움을주었다. 이잡지에는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조선과대만의독립운동가및일본사회주의자와연합해일본을건제해야한다는글도실려있다.

그리고주검지(朱謙之)와역가월(易家鉞)등을중심으로분투사奮鬪社라는조직이만들어져「분투奮鬪」(1920년 1월)를발간했는데, 이들은중국에서는독특하게도개인적아나키즘을선전했다. 이잡지는허무주의색채를띠며볼셰비즘과코민적아나키즘양자를모두비판했다. 또한주검지와황릉상, 구성백등에의해편집된「북경대학학생주간北京大學學生週刊」에는크로포트킨뿐만아니라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인막스슈티르너와관련된논문들도종종재제되었다. 아마도주검지라는열혈청년의영향때문이었을것이다. 같은시기북경에는호조단互助團같은아나키스트단체나「사회운동社會運動」같은아나키스트잡지도연이어출현했다.<sup>53</sup>

얼마후실사는민성사民聲社와평사平社, 군사群社등다른아나키스트단체들과연합해진화사進化社를만들었다. 황릉상은진화사의기관지「진화進化」(1919년 1월)의창간사에서「신세기」에서언급한“Revolution(혁명)은 Re-Evolution(진화의연속)이다”라는표현을재인용하면서자신들잡지의정체성을소개했다.<sup>54</sup> 실사나진화사같은조직은신문화운동시기대표적인코민적아나키즘단체였다.

신문화운동이전개되면서북경의「자유록」「분투」「북경대학학생주간」「사회운동」말고도상해에서는「진화」「자유自由」, 광주에서는「민풍民風」「민성民聲」, 복건에서는「민성閩星」, 산서에서는「혁명조革命潮」「태평太平」, 사천에서는「반월간半月刊」, 천진에서는「신생명新生命」, 남경에서는「인군人羣」등과같은아나키스트잡지들이쏟아져나왔다. 불완전한통계에따르면, 이시기에아나키즘선전잡지는 80 여종, 단체는 50 여개에다다랐다고한다.<sup>55</sup> 신문화운동시기는중국아나키스트가사회주의운동의주도권을가지고있던때로, “각파의사회주의사상가운데무정부주의가우세를점하고있었다”<sup>56</sup>라는기록을곳곳에서확인할수있다.

<sup>52</sup> 이윤히 <아나르코-페미니즘의이론적지평 — 엠마골드먼을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호, 2003, 271 면.

<sup>53</sup> 魏定熙 『北京大學與中國政治文化』, 北京大學出版社 1998, 161~62 면.

<sup>54</sup> 黃凌霜 <本志宣言>, 葛懋春·蔣俊·李興芝編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上), 北京大學出版社 1984, 379~82 면.

<sup>55</sup> 蔣俊·李興芝 『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 山東人民出版社 1991, 80 면.

<sup>56</sup> 梁漱溟 『憶往談舊錄』, 中國文史出版社 1987, 41 면; 許德珩 『五四運動回憶錄』(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212~13 면; 張國燾 『我的回憶』 際 1 卷, 東方出版社 1991, 40~41 면 참조.

1920년대초에는중국인뿐만아니라일본인아나키스트의국제활동도두드러진다. 한예를들자면, 1920년 10월대삼영은극동사회주의자회의極東社會主義者會議에참석해달라는한인동지의연락을받고상해로잡행했고, 이때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연합문제를논의했다. 그리고다시대삼영이중국에간것은 1922년말로, 다음해베를린에서열릴예정인국제아나키스트대회에출석하기위해일본을탈출하는과정에서였다. 이두차례의중국행을통해두나라아나키스트의교류는심화되었고, 결국대삼영의주도아래일본과중국, 조선, 인도등의아나키스트들은상해에서국제조직을결성할계획을세웠다. 하지만 1923년관동대지진당시대삼영이군부에의해무참히살해되면서이계획은유명무실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20년대후반일본과중국에서의아나키스트연대활동, 즉흑색청년연맹黑色青年聯盟, 상해노동대학上海勞動大學, 천주민단훈련소泉州民團訓練所,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의결성등은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연대활동이꾸준히지속되었음을말해준다.

1930년대이후일본제국주의의대륙침략, 즉만주사변과중일전쟁의발발은아나키즘운동은물론동아시아역사전개과정을크게왜곡시킨불행한사건이었다. 일본은천황제강화와군국주의성장을거쳐대외팽창으로나아갔고, 전쟁상황은국내적으로사상운동의통제를가져왔다. 중국은일제의대륙침략에다른위기감으로정치적민족주의가대두됨에따라국민당과공산당의양당구도로재편되면서아나키즘운동의입지가좁아졌다. 한국과대만도일제에의해전시동원체제로재편되면서일제의사상운동이말살되었다. 당시국제연대활동은주요항일운동의차원에서이루어졌다. 예를들어 1931년에는한중아나키스트간에공동전선이제기되어항일구국연맹抗日救國聯盟을결성했고한인과중국인뿐만아니라일본과대만의아나키스트도참여했다.<sup>6</sup> 이시기민족주의의고양과국민국가의건설이라는시대조류앞에서아나키스트들이점차궁지에몰렸다.

고전적아나키즘의이상주의에대한비난은정부와국가에의해끊임없이반복되었다. 주로아나키즘을테러리즘, 허무주의, 공상주의등과일치시키려는부정적인평가가그런것들이다. 하지만탈민족주의와탈국가주의시대를맞이해아나키즘적상상력에대한적극적인평가가필요한때가아닌가싶다. 민족주의와국민국가의신화가붕괴되는현재상황과관련해이제는어떻게민족과국가의존재를무시하고우리가생존할수있는가라는현실논리에따른반복적인질문을하기예앞서민족과국가가도대체우리에게어떤의미를가지는가라는더욱근본적인질문을던져야할때인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몰락과자본주의가신자유주의라는이름을빌려전지구적으로확산되는현실과관련해아나키즘이그대항논리를제공할가능성이높기에더욱그렇다. 예를들어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이가장선호했던크로포트킨사상은인간의무절제한욕구에대한비판에서부터친환경적공동체의건설에이르기까지여전히풍부한상상력을제공하고있다.

<sup>6</sup> 졸고 <동아시아아나키즘, 개인의절대자유꿈꾸>,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09. 1 참조.

지금우리는민족주의의과잉으로말미암아파생되는국가주의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법세계적협력의필요성을되새길필요가있다. 그런의미에서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들이내셔널리즘의시대조류에맞서드물게나마국경을넘어동아시아평민연대를주장한것은무척인상적이다. 비록중앙집권적권력의출현에대한적절한대안과청사진을제시하지못하고원리원칙을고집한것이운동의패인으로종종지적되지만, 그래도그들이제시한이상주의적전망은오늘날여전히유효한듯하다. 왜냐하면그들이던진본질적인문제들에대해우리는아직도그해답을찾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어쩌면망각되어가는한세기전의과거속에서현재의대안적희망을찾을수있을지도모른다.

이책에서는 1900년대초반부터 1940년대중반까지시기를제한해시간의추이에따라여섯장으로나누어개별주제를다룰것이다.

제 1 장에서는 1900년대아나키즘이동아시아사회에수용되는과정을다룰것이다. 프랑스아나키스트와중국인유학생의교류를통해세계사世界社가성립되고「신세기新世紀」가출판되는과정과일본에서사회주의서적이번역되는과정, 행덕추수가미국여행을통해직접행동을받아들이는모습, 일본아나키스트의영향아래재일중국인의사회주의강습회가만들어지고이들을중심으로동아시아최초의반제국주의단체인아주화친회가결성되는내용을서술할것이다. 제 2 장에서는 1910년대중국과일본에서아나키즘이정착하는과정을다룰것이다. 우선중국에서강항호(江亢虎)의중국사회당中國社會黨성립을통해아나키스트세력이결집되고독자적인‘아나키즘’적사회당을만드는과정과사복이코윈적아나키즘을선전하고그의제자들이신문화운동시기에전성기를구가하는모습을묘사할것이다. 그리고일본에서대삼영이행덕추수를이어받아아나키즘운동을부활시키고중일아나키스트간교류하는내용을서술할것이다.<sup>7</sup>

제 3 장에서는 1920년대초중국의‘사회주의자동맹’사태를중심으로동아시아아나키즘 — 불세비즘합작과분열과정을다룰것이다. 여기서는러시아혁명가들이중국인과접촉하는과정과중국공산당창립시기의아나 — 불분열과논쟁의내용을그레고리보이틴스키(Gregory Voitinsky) 일행의행적을따라가는방식을통해정리할것이다. 제 4 장에서는우선 1920년대중반일본에서의아나 — 불합작과분열, 그리고대삼영의죽음에따른노동운동의분열을소개하고, 중국에서의국민혁명을둘러싼아나키스트내부분화를다룰것이다. 그리고 1920년대

<sup>7</sup> 필자는아나키즘에관해『清末民初無政府派的文化思想』(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과『동아시아아나키즘, 그반역의역사』(책세상 2001)을출판했다. 앞의책은필자의박사학위논문이며, 뒤의책은한중일아나키즘을일반독자에게간단하게소개하기위해쓴문고판이다. 대체로제 1장과제 2장의내용은이두권에실린내용에기초해작성했다. 그리고국제주의와관련한상호부조론과에스페란토문제를다루기위해별로로쓴논문으로는〈동아시아 3 국(한중일)에서크로포트킨사상의수용 — ‘상호부조론’을중심으로〉(「역사와경계」 63 호, 2007)이있다.

적인저작들은모택동을포함한중국의진보청년들에게영향을미쳤으며, 그의논조는진독수가창간한「신청년」에도반영되어다음시대를풍미하기에이른다.

## 사복의제자들과신문화운동

1910년대후반북경리아나키즘의선전장이라면, 상해는아나키즘의신경중추에해당하며, 광주는그실천의장이라고말할수있다. 사복의민성파가광주와상해를중심으로활동하던중, 사복의갑작스러운죽음은잠시중국아나키즘운동을침체에빠뜨렸다. 상해에서다시「노동勞動」(1918년 3월)이출판될때까지 3년동안청년아나키스트들은북상하여북경및천진으로학업이나취업의길을찾아나섰다. 그들이북상한배경에는구신세기파의오치휘와이석중등이원세개사후다시귀국해북경에자리잡고활동을재기했기때문이다. 특히채원배의북경대학교장취임(1917)은신문화운동의출발과더불어젊은아나키스트에게새로운활력의장을제공했다. 이시기의북경은중국아나키즘운동의새로운중심이었으며, 그가운데에서도북경대학은그중심의중심이었다.<sup>50</sup>

채원배가북경대학에자리를잡자이석중을생물학교수로, 오치휘를학감으로초빙했다. 이들의영향력아래아나키즘은북경대학에서유행했는데, 사복의제자였던황릉상과구성백도북경대학학생이었다. 대학내에는구신세기파의진덕회나사복의심사의영향을받은또다른진덕회가발족되었다. 채원배는경사대학당시절의나쁜습관을타파하고개인의도덕을향상시킬목적으로이단체를만들고과거진덕회규약과유사하게갑·을·병세가지종류로계열을나누는뒤개인의사에따라참여하도록권장했다.<sup>51</sup>

북경대학내학생조직으로청년아나키스트를중심으로실사實社(1917년 5월)가조직되어부정기간행물「자유록自由錄」을출판했다. 이잡지의주요필자는새로운세대로분류될수있는황릉상과원진영(袁振英), 구성백, 화림등이었다. 이들은크로포트킨사상을기본이념으로삼았으며, 사복의민성파를이어받아“도덕을진보시키고지식을습득하는것”을목적으로삼았다.

실사의「자유록」은처음으로미국의여성아나키스트엠마골드만(Emma Goldman)의저작을중국사회에소개했다. 황릉상은〈애국주의〉〈무정부주의〉〈조직론〉같은글을번역했고, 원진영은〈결혼과연애〉와골드만의편지를번역게재했다. 본래골드만은해방대상을여성으로만국한하지않고남성과여성이모두해방된사회에서살아야한다는전망을가지고있었다. 이런믿음을토대로가부장제와자본, 국가라는삼중의억압을뛰어넘는남녀협동의공동체사회를지

<sup>50</sup> 路哲『中國無政府共產主義史稿』, 福建人民出版社 1990, 185 면.

<sup>51</sup> 진덕회는갑종은기녀·도박·첨을금지하고, 을종은앞의세가지이외에국회의원관리가되는것을금지하고, 병종은앞의다섯가지이외에술·담배·고기를금지했다.

에 대해 비판할 때 기본적으로는 동류이파(同類異派)의 우호적인 관점을 취했지만 방향적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사복이 구신세기 파아나키스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아나키즘의 원칙을 충실히 고수하여 중화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가 정치와 권력을 거부하고 더욱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세개의 독재는 물론 순문의 국민당이 나강 항호의 중국사회당을 비판한 것이다.

사복은 1914년 무렵부터 생디칼리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무정부주의의 도덕은 노동과 호조일뿐이며, 이 두 가지는 모두 인류의 본능”<sup>46</sup>이라고 즐겨 말했다. 이것은 코뮌적 아나키즘에 생디칼리즘이 결합하면서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음을 암시한다. 그는 “코뮌적 아나키즘을 목표로, 생디칼리즘을 수단으로” 삼아 광주에 초보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다. 보통 프랑스 아나키즘 운동사에서 1894년부터 1914년까지를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시대라고 말한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개인적 아나키즘이나 테러리즘은 소수파가 되었고, 코뮌적 아나키스트와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가 주류가 되어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이 자본주의가 조금씩 발전하던 중국에도 도달한 것이다.<sup>47</sup> 하지만 제 1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유럽 아나키즘 운동에 심각한 충격을 주어 많은 조직들과 잡지들이 해체되고 폐간되었다.

사복은 1915년 초 폐병을 얻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었고, 그해 3월 27일 3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병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민성」을 편집하는 일과 에스페란토 저작을 번역하는 일에 매달렸다. 마지막 유언이 담긴 〈사복군이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문명과 과학은 본래 부자들의 전리품일 뿐이다. 톨스토이가 탄핵해 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민성’은 위기를 맞이하여 어찌면 끝날지도 모른다. 내가 민성을 걱정하는 것은 병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욱 심하다. 아! 만약 민성이 어찌 된다면, 나 또한 진실로 폐결핵을 치료할 수 없다면, 사복은 장차 무정부주의와 함께 중국의 황토에 묻힐 뿐이다.”<sup>48</sup>라고 비장하게 쓰고 있다.

사복의 제자 황릉상(黃凌霜)은 “선생의 주의를 어떠한 주의인가? 간단히 말하면 무정부 공산주의이다. 상세히 말하면 세계 어주의이며 종교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sup>49</sup>라고 요약했다. 사복 사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양빙현과 정패강이 「민성」을 이어받았으나 1916년 11월 결국 정간되었다. 하지만 사복과 그의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신문화 운동 시기 이전에 아나키즘은 사회주의 단체로서는 중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자적인 세력을 갖출 수 있었다. 사복의 급진

<sup>46</sup> 上海無政府共產主義同志師〈無政府共產黨之目的與手段〉, 「民聲」第19號, 1914. 7. 18.

<sup>47</sup> David Berry, A History of the French Anarchist Movement 1917 to 1945, AK Press 2009, 28면.

<sup>48</sup> 「民聲」, 1915. 5. 5.

<sup>49</sup> 黃凌霜〈師復主義〉, 「民聲」, 1919. 3.

후반 일본의 흑색 청년 연맹, 중국의 상해 노동대학과 천주인 단련소, 동방 무정부주의 자연맹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연대 활동을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sup>8</sup>

제 5 장에서는 한인과 대만인의 민족해방 운동과 아나키즘과의 관계를 교류와 비교의 방식을 통해 다룰 것이다. 1920년대 초 양국의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 1920년대 중반 중국 대륙에서의 재조선 무정부주의 자연맹과 신대만안사(新臺灣安社)를 시작으로 한인과 대만인의 연합 조직인 평사(平社) 등을 소개하고, 1920년대 말 양국의 아나키즘 운동을 기술하는 순으로 정리할 것이다. 제 6 장에서는 우선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의 일본인과 재일한인의 반파시즘 투쟁을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파금(巴金)과 유자명(柳子明)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과 이에 따른 항일 무장 투쟁 중의 교류와 연대를 소개할 것이다.<sup>9</sup>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을 정리하면서 21세기 아나키즘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sup>10</sup>

필자는 중국 근현대사 전공자로서 비록 한국과 일본 등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동아시아 아나키즘이라는 주제의 연구서를 고집하는 까닭은 적어도 아나키즘과 같은 국제주의 사상은 국가보다 좀더 넓은 지역 범주를 가지고 파악해야만 균형감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과 개별 국가의 범주를 적절히 결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다소 목차가 깔끔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책은 번잡함을 무릅쓰고라도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아나키즘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나키즘을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아나키즘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필자의 능력을 넘어선 이런 과욕이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길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왜 동아시아 적 시각에서 볼 때 아나키즘은 복원될 가치가 있는 지 혹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나키즘은 어떤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지 등을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sup>8</sup> 제 3 장은 〈보이틴스키의 중국 방문과 「社會主義者同盟」〉(『중국사연구』 제 36 집, 2005); 〈중국 5·4 운동 시기 아나키즘 — 불세비즘 논쟁〉(『역사비평』 2000 가을)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최근 이 주제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불세비키 및 친인사 사회주의자와의 관계에 대해 쓴 글로는 〈중국 공산당 창립에 영향을 미친 친인사 사회주의자들〉(『한중관계 2000년 — 동행과 공유의 역사』, 책세상 2008) 이었다. 제 4 장은 〈일본 아나키스트의 초상 — 대삼영(大杉榮)〉(『한일연구』 15호, 2004) 등을 참조해 새로 작성했다.

<sup>9</sup> 제 5 장은 〈1920년대 전반기 재중국한인 아나키즘 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35호, 2003); 〈1920년대 중대만인의 아나키즘 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52 집, 2007)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아울러 대만 내의 아나키즘 운동을 알아보기 위해 〈1920년대 대만 내 아나키즘 운동에 대한 시론〉(『동북아 문화연구』 13호, 2007)을 썼다. 제 6 장을 작성하기 위해 시론적 성격의 논문 〈1930년대 한중 아나키스트의 반파시즘 투쟁과 국제연대 — 바금과 유자명을 중심으로〉(『동북아 문화연구』 17호, 2008)를 썼다.

<sup>10</sup> 이 책은 서남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로, 필자가 지금까지 진행한 동아시아 아나키즘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는 의미를 지닌다. 앞에서 열거한 논문 중에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이나 부경대학교 등의 지원을 받은 논문들이 있다.

덧붙이자면이책의출판역시세상의다른책들과마찬가지로주변사람들의따뜻한관심과격려를받아비로소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여기서도움받은분들을일일이열거하지않는것은필자의부족한글로말미암아그분들의명성에혹시나누를끼치지않을까염려해서이다.

좀더나은글을쓰기위해분투하겠다는약속으로감사의마음을대신전한다.

2010년 12월

부경대연구실에서

조세현

구신세기파아나키스트들이정치참여한것에크게실망한사복은이전의온건한모습을버리고중국사회당에대해서도공격적인태도를취했다. 사복은강항호의사회주의정책에대신랄하게비판했는데,<sup>43</sup> 중국사회당이토지와자본의국유를주장하면서도기존의정치기구를이용하자는것은어불성설이고, 토지세만을징수하겠다는정책도단지사회의불평등을해소하려는개방적인수단이지혁명적인방법은아니라고했다. 나아가중국사회당의여덟가지당의강령역시사회정책에불과하지사회주의정책은아니라고문제삼았다. 그들이주장하는사회주의정책이라는것들은기본적으로개인의사유제를부정하지않으므로진정한사회주의라고볼수없다는것이다. 이런비판은손문을추중하는국가사회주의자에게도향해졌다. 사복은손문의민생주의가국가권력의성격을구조적으로파악하는인식이결여되었다고판단해, “손문이말하는국유화정책을사회주의라한다면청조정부와원세개정부의국유화정책도사회주의라고부를수있지않겠는가?”라고비아냥거렸다.<sup>44</sup> 그의비판은사회당내아나키스트조차사회주의의개념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며질타하고나섰다.

「민성」에는사회당원의질문과사복의답변형식으로사회당원의사회주의에대한무지를지적하는기사가있다. 한예로사복과태허(필명樂無)간의사회주의개념에관한편지왕래를들수있다. 태허가무정부주의를‘무강권주의’라는말로바꾸자고제안한것에대해, 사복은답장에서사회당의명칭문제를화제로삼았다. 여기서그는사회주의는사회에대한학설이지정치에대한학설은아니라면서정치에대한학설은아나키즘이라고했다. 따라서사회당이라는명칭이적절하지않다고했다. 나아가지금의사회당이일반정당과유사한정강과조직을가진것은잘못되었으며, 지도자중심의당운영은적절하지않고, 사회당강령의세부적인내용에모순이많다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을지적했다. 이에대해태허는사회란“가족이상, 국가이하”의조직으로, 사회당원이주장하는무정부의목표는국가를폐지하는것이며, 공산의목표는가족을폐지하는것이라고했다. 사복은즉각반론을썼는데, 인류역사를보면사회가성립한이후에가족과국가가출현하므로가족과사회, 국가라는세가지개념은동등한개념이아니라고반박했다. 사복은사회당인이아나키즘을전통사상과결합하려는태도에대해서도비판했다.<sup>45</sup> 당시중국인가운데사회주의이론에가장정통해있던사복의지적은비교적예리한것이었지만현재의관점에서보면이해하기어려운점도없지않았다. 그가중국사회당이나사회당

<sup>43</sup> 師復〈孫逸仙江亢虎之社會主義〉, 「民聲」第6號, 1914. 4. 18. 〈答江亢虎〉, 「民聲」第8號, 1914. 5. 2; 〈論社會黨〉, 「民聲」第9號, 1914. 5. 9; 〈驗江亢虎〉, 「民聲」第15號, 1914. 6. 15; 〈江亢虎之社會主義〉, 「民聲」第17號, 1914. 7. 4 참조.

<sup>44</sup> 師復〈孫逸仙江亢虎之社會主義〉, 「民聲」第6號, 1914. 4. 18.

<sup>45</sup> 師復〈答樂無〉, 「民聲」第7號, 1914. 4. 25; 〈答樂無(續)〉, 「民聲」第9號, 1914. 5. 9; 〈答樂無〉, 「民聲」第13號, 1914. 6. 6; 〈答樂無(續)〉, 「民聲」第15號, 1914. 6. 20 참조.

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동지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치휘가 장계에 계참의 원칙을 사퇴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했다.<sup>36</sup> 이런 사복의 비판에 대해 장계를 대신해 오치휘가 그를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정치 참여를 둘러싼 아나키스트 진영 내부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논쟁은 사복의 질서 신에 대한 오치휘의 입장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회명록」에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오치휘는 답장에서 “민국은 만청 정부와는 달리 공공의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난동과 파괴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 체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7</sup> 공화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제도이며 사회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는 단도 직입적으로 민국의 정치에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나 정당이 미래에 자연스럽게 소멸되더라도 현재의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sup>38</sup>는 것이다. 이처럼 오치휘는 정당을 정부가 존재하는 시대의 필요악으로 해석하여 아나키즘의 사상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당 활동 허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다.<sup>39</sup> 사복은 다음 같은 말로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최근 반면적 半面的 사회주의를 종계 말하는 자는 왕왕 정치의 능력을 빌어 사회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거짓 주장은 사회주의의 오점이기에 족하다. 장계와 오치휘는 모두 중국에서 무정부주의를 일찍이 선전한 사람들로 수년간 「신세기」에서 전개한 논쟁은 격렬했다. 그러나 장계는 이미의원이 되고 오치휘도 국민당의 주변을 맴돌며 정당에 날로 접근하고 있으니 사회당·무정부당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 무정부부를 주장하는 자가 유정부의 전투를 주장하는 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다. 기자(사복)는 무정부를 위하여 비통을 금할 수 없다.<sup>40</sup>

사복과 오치휘의 논쟁에 대해 이석증은 일절말이 없었으며, 따라서 비판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석증은 손문의 프랑스 공사직 요청을 거절하고 이른바 관직에 나가지 않는 ‘불관주의 不官主義’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석증과 사복 사이에 오고 간 서신은 주로 운동의 실천 방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었다. 이석증은 사복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 조합을 성급하게 조직하기보다는 먼저 노동자에 대한 교육에 착수할 것을 충고했다.<sup>41</sup> 사복은 이에 대해 동의 하면서 이석증을 선구적 아나키스트로 높이 평가하고 “선생(이석증)은 최근 과학 교육과 주의 선전을 하는데 노력한다”<sup>42</sup> 고 우호적으로 소개했다.

# 제 1 장 아나키즘, 동아시아 사회와의 만남

## 1. 프랑스에서 중국으로의 전파

### 크로포트킨주의와 세계사의 성립

아나키즘 Anarchism 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 제도나 국가 조직을 부정한다. 게다가 권력의 교체에 불과한 정치 혁명에는 반대하며 더욱 근본적인 사회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 정치 사상으로서는 아나키즘은 개념 정의에서부터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아나키즘 자체가 다양한 색깔의 주장을 담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나키스트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아나키즘은 국가와 종교, 가족주의의 내재된 권위에 반대한다든지, 혹은 성별, 종족별, 계급별, 민족별 차이에 내재된 억압의 요소들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운동을 위해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나 폭력 수단의 사용 여부 등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무정부주의 無政府主義’라는 번역어로 더욱 익숙한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아나르코스 anarchos 라는 어원에서 출발한다. 이 개념은 ‘지배자가 없다’ 혹은 권력이나 정부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아나키스트의 여러 파벌이 공유하는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자면 무정부주의보다는 강요된 일체의 권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무강권주의 無強權主義’가 좀더 그럴싸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강요된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태도는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평등과 민주, 자유연합, 국제연대, 다양성 등의 특징은 무정부주의라는 범주에 모두 담을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개념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아나키즘의 올바른 이해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된다.

근대 서양의 아나키즘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출현했다가 19 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피에르 프루동 (Pierre J. Proudhon), 미하일 바쿠닌 (Mikhail Bakunin), 표트르 크로포트킨 (Pyotr Kropotkin), 에리코 말라테스타 (Errico Malatesta) 등이 대표 인물들이다. 이

<sup>36</sup> 師復 〈再致吳稚暉書〉(〈致吳稚暉書〉), 같은 책.

<sup>37</sup> 吳稚暉 〈書某報短評後〉, 「民立報」 1912. 6. 24.

<sup>38</sup> 吳稚暉 〈致江亢虎討論政黨函〉, 같은 곳.

<sup>39</sup> 吳稚暉 〈續政府問題〉, 「民立報」 1912. 7. 26.

<sup>40</sup> 師復 〈再致吳稚暉書〉, 「晦鳴錄」 第 2 號, 1913. 8. 27.

<sup>41</sup> 李石曾 〈眞民先生與師復書〉, 「民聲」 第 5 號, 1914. 4. 11.

<sup>42</sup> 師復 〈眞民先生與師復書〉(師復附識), 「民聲」 第 5 號, 1914. 4. 11.

들은모두‘사회적아나키스트’로분류할수있다.<sup>1</sup> 프루동은사유제와공산제를넘어개별생산단위들이중앙권력없이연합체를결성하는‘상호부조적’아나키즘을, 바쿠닌은카를마크스와의논쟁을통해노동자의자발성과자유로운연합에근거한‘집산적’아나키즘을, 크로포트킨은진화론의새로운해석인 이른바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에기초한‘코뮌적아나키즘 (Anarco-Communism, 無政府共產主義)’을주장했다. 어떤아나키스트는노동자의혁명역량에주목해아나키즘과생디칼리즘을결합한‘노동조합적아나키즘 (Anarco-Syndicalism, 無政府工團主義)’을주장했다. 이런사회적아나키즘은‘개인적아나키스트’로분류하는윌리엄고드윈 (William Godwin) 이나막스슈티르너 (Max Stirner) 등과는어느정도구별된다. 사회적아나키즘은사회문제의공동체적해결과사회에대한공동체적비전을가지고있는데반해, 개인적아나키즘은사회문제의개인주의적해결과사회에대한개인주의적비전을갖고있다.<sup>2</sup>

국제아나키즘운동의출발점이자주요무대였던프랑스는 19 세기중반이래프루동과바쿠닌, 크로포트킨등이폭넓게활동했고, 20 세기로넘어오면서이곳의아나키즘운동은생디칼리즘사조와결합해새로운형태로표현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 세기후반부터말라테스타를중심으로‘봉기를통한직접행동’을전개해혁명은말보다는행동으로성취되는것임을강조했다. 아나키스트들은 1905 년과 1917 년의러시아혁명에도깊숙이개입했으나크론슈타트수병의봉기와우크라이나에서마흐노운동이불세비키에의해진압되면서쇠퇴했다. 1930 년대후반스페인내전에서아나키즘의이상이자주관리의형태로부분적이나마실현되었으나프란시스코프랑코 (Francisco Franco) 의반혁명에의해소멸되었다. 그리고미국경우에마골드만 (Emma Goldma) 과알렉산더버크만 (Alexander Berkman) 이유명한데, 그들은페미니즘운동과동성애해방운동, 반전운동, 언론자유운동에깊숙이개입했다.

위에서열거한서양의아나키스트들가운데동아시아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친인물로는크로포트킨을꼽을수있다. 크로포트킨의코뮌적아나키즘은유럽사회뿐만이아니라동아시아에서도상징적인지위를가진다. 한중일의대표적인아나키스트 — 일본의행덕추수 (幸德秋水) 나대삼영 (大杉榮), 중국의이석중 (李石曾) 이나사복 (師復), 한국의신채호 (申采浩) 나유자명 (柳子明) 등 — 들이모두크로포트킨의자라는사실에서도쉽게알수있다. 왜크로포트킨사상이동아시아사회에강력한영향을미쳤을까라는문제는약간의이해를필요로한다.

<sup>1</sup> 서양아나키즘의사상과운동에대한개괄적인소개로는조지우드코크, 하기락·최갑룡옮김『아나키즘』(사상편/운동편), 형설출판사 1989/1994 참조.

<sup>2</sup> 사회적아나키즘과개인적아나키즘은이런차이에도불구하고‘개인의자유를극대화하고, 자본주의적착취와권위주의적국가를폐지하기를바라는반국가주의와반권위주의, 반자본주의입장’을고수하는점에서는같은입장에서있다 (안상현『아나키즘르네상스』, 백용식옮김『아나키즘』, 개신 2009, 284 면).

## 사복을둘러싼아나키즘논쟁

중국사회당이분열되었을때, 사감은사복에게새롭게만들어질사회당에가입할것을희망한적이있었다. 이때사복은완곡하게사양하면서도중국사회주의운동이유아기이므로사회주의자들이어느파벌에속하든자신은그들을변호할것이며, 상대방을비난하는행위는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 그러던사복이오치휘가정치에접근하고장계가의회에진출하자큰충격을받고태도가돌변했다. 그는장계와오치휘에게각각편지를보내아나키스트가정치에참가한사실을비판했으며, 오치휘가장계를변호하는글을발표하자곧두사람사이에서공개편지의형식을빌려논쟁이일어났다.<sup>33</sup>

오치휘와이석중의중화민국에대한우호적인태도는원론에충실한점은아나키스트들의반발을사기에충분했다. 이들혈기왕성한아나키스트로서는도덕계몽운동이나유학을통한인재양성같은평화적인방법으로혁명의목표를성취하기에턱없이부족해보였다. 사복은일찍이“우리는오치휘선생이무정부주의의선봉장으로무정부주의를선전하길기다렸으나평담을일삼고적극적이고취미를하지않으니실망하지않을수없다”<sup>34</sup>고하여강한불만을타낸바있었다. 그는진덕회나유법검학회留法儉學會같은소극적운동만으로는아나키즘의이상을이룰수없다고보았다. 구신세기파아나키스트와논쟁하게된직접적인도화선은청말일본과프랑스에서아나키스트로활동하던장계가정계에진출한사건때문이었다.

신해혁명시기누구보다과격한혁명파의한사람이었고, 민국초진덕회의발기인이자유법검학회를지원하던장계가정치에참여한배경에는원세개정부를견제하려는의도가있었다. 당시그는아나키즘이지나치게이상주의적이어서중국현실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고있었다. 장계가참의원회에참가하여의장으로취임하자이사건은곧바로사복의반발을불러일으켰다. 장계에게보낸글에서“무정부주의는정치라는것이사회에유용하지않다는것을기본신념으로한다. 선생은과거에무정부주의를주장한사람으로알고있는데, 지금홀연히정계에투신한것은과거의사상을버리고변절한것이아닌가?”라고비판하고, “선생은진덕회의발기인이자병중丙種회원으로관리나원이되지않겠다고맹세했다. 그런데지금중화민국참의원의장이된것은결국스스로진덕회의병중회원자격을포기한것이아닌가?”라고질문하여이에대한해명을요구했다.<sup>35</sup>

사복은장계뿐만아니라오치휘에게도편지를보내장계의정치참여를비판했다. 여기서“장계가참의원회에참가해의장으로취임한것은아나키즘의뜻에배치되며진덕회의규약에도어긋난다”고지적하면서, “장계선생은곧바로참의원직에서사퇴해야하며 … 아나키스트라는사실을부인하고변절했으니스스로진덕회

<sup>33</sup> 師復〈致吳稚暉書〉;〈再致吳稚暉書〉;〈致張繼書〉,『師復文存』,革新書局 1927, 131~38 면.

<sup>34</sup> 師復〈答道一書〉,「民聲」第 3 號, 1913. 12. 20.

<sup>35</sup> 師復〈再致吳稚暉書〉(〈致張繼書〉),「晦鳴錄」第 2 號, 1913. 8. 27.

동도에스페란토로번역해해외로발송했다. 그리고에스페란토의역사와문학, 단체를간략히소개하거나각국의에스페란토단체와잡지교환상황을알리는글들을 실었다. 사복이쓴 〈세계어와무정부당〉은영국아나키즘잡지에실린글을일부번역한것이다. 여기서“세계어를사회당이나무정부당이제창하므로세계어를공부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은가”혹은“세계어의목표는평화이나무정부당의목표는파괴이므로서로융합할수없지않은가”라는한중국인의질문을게재하면서에스페란토는국제간의교류에편리하며중립적인문자이므로배우는데두려움을가질필요는없고, 아나키스트도평화를추구하는사람들이라는사실을설명했다.<sup>32</sup>

사복은원세개정권의탄압을피해이곳저곳을전전하다가 1814년 7월상해프랑스조계의한사무실에세계어강습소라는간판을내걸고아나키즘활동을재개했다. 이때만들어진단체가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無政府共產主義同志師이다. 이조직은국내아나키스트와의연락은물론외국과도교류를시도했다. 대표적인사례로세계무정부당만국대회(1914년 8~9월)가런던에서개최되자사복은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명으로만국대회에편지를보냈다. 여기서는중국에서의아나키즘현황을설명하고, 대회에서다섯가지건의안을제출했다. 즉 (1) 만국기관을조직할것, (2) 동아시아에의전파에주목할것, (3) 노동단체와연계하여운동을진행할것, (4) 세계적규모의총파업을할것, (5) 에스페란토를채용할것등이그것이다. 그의활동은해외아나키스트의주목을받아크로포트킨과르클뤼, 골드만, 대삼영등으로부터편지가왔다고한다. 이와같은사복의국제교류에대한관심은주목할만하지만, 기본적으로그는중국의현실을감안해국내에서의아나키즘선전에주력했다.

제 1차세계대전이일어나자크로포트킨을비롯한르클뤼와그라브등은아나키즘의반전주의의원칙을버리고영국과프랑스, 러시아의연합국을지지했으며독일과오스트리아의동맹국을비판했다. 독일의군국주의가유럽의사회운동을위협한다는이유에서였다. 이에대해말라테스타를비롯한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은그들이전쟁의정당성을인정한사실을비난하고나서떠나뉘었다. 본래아나키스트에게전쟁이란자본가들이권력과이권을위해대중을총알받이로삼은행위로인식되었다. 그렇다면중국의아나키스트는어떤태도를취했을까? 원세개정권의탄압을피해마침유럽에망명해있던구신세기파는크로포트킨의입장을지지했는데, 이사실은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얼마나크로포트킨의에총실했는가를잘보여준다. 사복의경우는어떠했을까? 그가쓴마지막글에는크로포트킨의연합국지지에대해다소당혹스러운모습을보이며유보적인태도를취했다. 하지만그의감작스러운죽음으로최종적인입장을알수없다. 요컨대사복의가장뚜렷한특징이라면생각과행동이일치하는비타협적인혁명가라는점이다. 이런사실은그를둘러싼몇차례의논쟁에서도잘나타난다.

우선크로포트킨의코뮌적아나키즘이당시국제적으로가장광범하게유행한아나키즘이론이자운동이었다는사실을지적할수있다. 따라서동아시아인들이그의이론을손쉽게접할수있었을것이다. 특히피압박자의국제적연대주장은군국주의로나아간일본뿐만아니라, 전제군주제가유지되던중국이나심지어일본의침략에시달리던한국에서도고루이용될여지가있었다. 다음으로사상의친근성을들수있다. 러시아의풍토에서배태한크로포트킨의사상은동아시아의정치문화환경과친근해받아들이기가쉬웠다. 예를들어그의윤리학중심의사회주의이론은전통적으로윤리정치를추구한동아시아의정치사상과가까운것이었다. 게다가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에는유럽중심주의색채가적었다. 끝으로크로포트킨의이른바‘과학적’아나키즘은사회변혁을위한새로운방향을제공했다. 사회진화론의적자생존발상은약자인동아시아지식인들에게심각한위기감을불러일으켰는데, 상호부조론에기초한사회혁명의방향제시는그들이론적근거에서빠져나올수있는돌파구를마련해준참신한사상이었음이틀림없다.<sup>3</sup>

특히크로포트킨의명저인『상호부조 — 진화의요인』(1902)은동아시아아나키스트에게경전의지위를가진다. 이책은찰스다윈(Charles Darwin)의『종의기원』같이거의전편이사실의나열이며, 책의제목에서나타나듯생물계진화의요인으로서생존경쟁과함께상호부조원칙이었다는것을실증한연구서이다.<sup>4</sup> 어쩌면좀지루해보일수도있는이런책의출현에왜동아시아의급진주의자들은열광했을까? 진화론의창시자다윈은주로자연계의진화만이야기했을뿐, 인류사회의진화문제는언급하지않았다. 그후‘다윈의불독’임을자처한토마스헉슬리(Thomas Huxley)는적자생존의생존경쟁을인류사회에까지적용했다. 헉슬리는〈생존경쟁과그것이인류에게미치는영향〉(1888)에서인간사회의생존이란피도눈물도없는투쟁이라는주장을 폈다. 그에따르면투쟁은비단진보의조건으로서바람직할뿐만아니라또한불가피한것이다. 그리고‘종합철학’의주창자허버트스펜서(Herbert Spencer)도생존경쟁의의미를서로다른종의동물간의싸움뿐만아니라같은종끼리의생존을둘러싼격렬한싸움으로이해했다. 그런데헉슬리나스펜서의사회진화론의이면에는우생학적편견과더불어제국주의를정당화하는논리가숨어있었다. 우월한백인의제국주의가다른지역과인종을식민지배하는것은당연하다는논리로작용한것이다.

헉슬리가〈생존경쟁과그것이인류에게미치는영향〉을발표했을때, 크로포트킨은헉슬리를비롯한사회진화론자들을근본적으로반박하기로마음먹었다. 이에따라 1890년부터 7년간다섯차례에걸쳐영국의「19세기」라는잡지에일련의논문을연재했다. 그제목을열거하면동물간의상호부조, 원시인의상호부조, 고대인의상호부조, 중세도시의상호부조, 근대사회의상호부조등이다. 이

<sup>3</sup> 줄고 『동아시아아나키즘, 그반역의역사』, 책세상 2001, 41~42 면.

<sup>4</sup> 상호부조론에관한국내번역서와해설서로는표트르크로포트킨, 김영범옮김 『만물은서로 돕는다 — 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 르네상스 2005; 하승우 『세계를뒤엎든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참조.

<sup>32</sup> 師復案語 〈世界語與無政府黨〉, 「民聲」, 1914. 4.

논문의내용들을보완해몇년후 『상호부조』라는제목으로출판했다.<sup>5</sup> 책의내용에따르면인간사회는동물사회든간에상호부조없이사회생활을영위할수없으며, 모든사회제도의주변에서상호부조를발견할수있다고했다. 여기서기억할점은상호부조원칙을진화의주요한한요소로서인간의삶에결정적인역할을수행한다는사실을주장했지만, 진화의유일한요소라고주장한것은아니라는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들은불변의진리로인식되던잔혹한‘적자생존’의원리대신인류의연대의식에기반을둔따뜻한‘상호부조’라는가치를발견할수있었다. 그리고이새로운사상으로제국주의와구체제에대항할수있는무기를마련했다.

『상호부조』에서제시한원리는크로포트킨의또다른저서『빵의쟁취』(1892), 『전원·공장·작업장』(1899) 등에서그러진코뮌적이나키즘의사상체계를구성하기위한기반을제공하고있었다. 그렇다면코뮌적이나키즘이란무엇인가? 이것은 1880 년대이레크로포트킨과엘리제르클뤼(Élisée Reclus) 등으로대표되는사상으로, 국가를초월해개인의자유에기초한상호부조의정신으로만든사회를확립하려는혁명이론이다. 단순히보면아나키즘의국가폐지주장과공산주의의생산수단, 사회적생산물의공유주장을중합한것으로볼수있지만, 그역사적과정은좀복잡하다.<sup>6</sup> 크로포트킨의『빵의쟁취』는코뮌적이나키즘의과학적기초를제공한책으로알려져있는데, “모든것은모든사람을위한것이다”라는유명한말이담겨있다. 그리고“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소비한다”는구호처럼생산에서소비로흐르는기존의경제체제를뒤집어, 소비를기준으로생산을결정하는시스템을구상했다. 『근대과학과아나키즘』(1903)에서는‘사회생리학’이라는이름으로이를설명했다. 크로포트킨은임금제도의폐지를통해노동소외를극복하고산업의부산을추구했는데, 중세도시의길드조직을모범으로삼았고농업을중시했다. 그는초기에는노동자조직에관심을갖지않다가점차노동조합의발전해주목했다.

크로포트킨은지리학자출신이어서자연과학의귀납법적방법론을군계민었으며, 자신의사상을과학적이나키즘이라고주장했다. 그래서크로포트킨을전통적이나키즘에근대과학의해석을적용시켜아나키즘이론을집대성한인물로평가하거나, 혹은바쿠닌의정신을이어받으면서도그의파괴이론을건설의논리로바꾸어놓았다고평가한다. 크로포트킨은적자생존이라는사회진화론자의개념은물론계급투쟁이라는마르크스주의자의개념에도동의하지않았다. 마르크스주의를‘권위적’사회주의라고비판하는과정에서“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정신노동과육체노동의결합”등과같은유명한명언들이쏟아져나왔다. 마르크스의최후대표작이『자본론』이라면크로포트킨의최후대표작은『윤리학』

<sup>5</sup> 克魯泡特金, 李平瀾譯『相互論』, 商務印書館 1963, 序文.

<sup>6</sup> John Crump, 碧川多衣子譯『八太丹と日本のアナキズム』, 青木書店 1996, 15 면.

회명학사가성립한후부터「회명록晦鳴錄」이창간(1913년 8월)될때까지 1년여동안사복은주로「신세기」에연재된글들을모아땀땀을만들어출판하는일에중사했다. 회명학사에서펴낸『무정부주의명저총간』(1913년 4월)에는〈크로포트킨학설〉〈법률과강권〉『청년에게고함』〈질서〉등이실려있었다. 자칭철두철미한크로포트킨주의자를자부했던사복은“크로포트킨학설이야말로실로우리당의위대한경전”<sup>27</sup>이라고극찬했다. 그는코뮌적이나키즘을“첫째, 경제상의자유로일체의자본세력의속박을벗어나공동노동의생산물을자유롭게취하는것이다. 둘째, 정치상의자유로정부의속박에서벗어나각종노동조합과단체를자유롭게조직하는것이다. 셋째, 도덕상의자유로종교의도덕속박에서벗어나의무와제재가없는자유에도달하고사회생활을호조의정신으로유지하는것이다”<sup>28</sup>라고요약했다. 그리고아나키즘의도덕은‘노동’과‘호조’라는두단어로압축할수있다고했다.<sup>29</sup> 사복은「회명록」의제목을바꾸어「민성民聲」을발간했으며, 여기서크로포트킨사상을널리소개하면서, 동료양빙현(梁冰弦)과함께『빵의쟁취』를직접번역해몇차례실기도했다. 이번역은그가말년에노동조합적이나키즘에관심을가지는계기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민성파활동을보면아나키즘과에스페란토와의결합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사복은에스페란토를보급하고아나키즘을선전하기위해광주서관西關華林寺안애평민공학(1912년여름)을만들면서세계어야학을부설했다. 여기에는청년아나키스트구성백(區聲白)과황존생(黃尊生), 정피안, 정패강등 60여명이학생으로참가했으며, 프랑스에서유학하고돌아온허론박(許論博)이교수가되어가르쳤다. 그해가을, 사복은허론박과함께광주동제東堤동원東園에서광주세계어학회를만들었는데, 허론박이회장을사복이부회장을각각맡았다. 이단체회원들은광주고등사범학당내세계어강습반을만드는등여러학교에서세계어강습반을만들었다.<sup>30</sup> 사복은「회명록 La Krio de Koko」과「민성 La Voco de la Popolo」에별도로에스페란토란을두었다. 이잡지의한회 16쪽가운데 4쪽가량이에스페란토로꾸며졌는데, 중국어는사복이, 에스페란토는허론박이각각담당했다.<sup>31</sup> 기사중에는에스페란토운동을전세계의금주및채식운동과함께소개한것이적지않다.

사복이에스페란토를주목한까닭은다른아나키스트처럼공제주의정신에따라언어의통일을희망해서였겠지만, 다른한편으론에스페란토를이용해전세계에중국사회의실상을알리고자한목적도있었다. 실제로사복과그의동료들은에스페란토기사를통해세계혁명소식을꾸준히중국에소개하는한편, 자신들의활

<sup>27</sup> 師復〈克魯泡特金之爲人及其言論〉, 「民聲」第 8 號, 1914. 5. 2.

<sup>28</sup> 師復〈克魯泡特金無政府共產主義之要領〉, 「民聲」第 17 號, 1914. 7. 4.

<sup>29</sup> 上海無政府共產主義同志社〈無政府共產黨之目的與手段〉, 「民聲」第 19 號, 1914. 7. 18.

<sup>30</sup> 王炎〈無政府主義與世界語〉, 『廣州文史資料』第 5 輯, 1962, 547~48 면.

<sup>31</sup> 侯志平『世界語運動在中國』, 中國世界語出版社 1985, 24 면.

등을중지했다. 그는 1912년봄암살단을해체하고아나키즘을전파하는데주력했다.

신해혁명으로마침내청조가전복되자잠시동안낙관적인정서가 지배했다. 아나키스트역시새롭게건립된공화정부를부정하기보다는일단신임하는태도를보였다. 그들은폭력행위를자제하고개인도덕의수양을통한새로운사회도덕의창출을추구했다. 1912년 2월구신세기파의오치회와이석증(李石曾), 저민의(褚民誼), 장정강(張靜江) 등은해외로부터귀국한후오랜동지인채원배, 장계등과함께진덕회進德會나육불회六不會같은개인도덕을수양하는단체를조직했다. 이런활동이전형적인아나키스트의모습이라고단정하기에는약간무리가있었지만유럽의아나키스트들사이에도청교도적금융주의는널리퍼져있던전통이었고사복도이들에대한적극적인지지의사를밝혔다. 그리고자신도 1912년 7월광주에서뜻을같이하는동료들과함께진덕회와유사한심사心社라는단체를조직했다. 그는구신세기파의도덕계몽운동에동참하면서갓태어난공화정부에대해노골적인비판을제기하진않았다.

사복은 1912년 5월광주에서사회혁명을선전하기위해회명학사晦鳴學술을만들었는데, 유석심(劉石心) 과정피안(鄭皮岸), 정패강(鄭佩剛), 여창인(黎昌仁) 등이가입했다. 그들은함께노동하고함께학습하는공동생활을하면서아나키즘선전을자신들의사명으로삼았다. 이조직은중국내에서아나키즘을전문적으로선전한최초의단체로, “몇년전에「신세기」에서뿌린종자가(마침내)회명학사를통해가꾸어지고성성한것”<sup>24</sup>이었다. 이때사복은본래의이름유사복에서성씨를없애고사복이라부르기시작했다. 당시가족주의와종족주의를반대하는의미에서성씨를폐지하는것은중국아나키스트의한가지특징이었는데, 민족국가이상을버리고철두철미한아나키스트가되고자한것으로볼수있다.

회명학사와심사의성립은중국내아나키즘운동이새로운단계에진입했다는표지였다. 이두단체의활동범위와임무는구별되는데, 전자가대외활동에비중을두었다면후자는개인의도덕수양에주력했다. 회명학사는 (1) 공산주의, (2) 군국주의반대, (3) 생디칼리즘, (4) 종교주의반대, (5) 가족주의반대, (6) 채식주의, (7) 언어통일, (8) 만국대동<sup>25</sup> 등여덟가지강령을내세웠다. 이에비해심사는 (1) 육식을하지않는다, (2) 음주를하지않는다, (3) 흡연을하지않는다, (4) 용역을부리지않는다, (5) 가마나인력거를타지않는다, (6) 결혼하지않는다, (7) 족성族姓을쓰지않는다, (8) 관리가되지않는다, (9) 의원이되지않는다, (10) 정당이가입하지않는다, (11) (해군과육군과같은) 군인이되지않는다, (12) 종교를믿지않는다<sup>26</sup> 등열두가지규약을제출했다. 이양자를비교하면종교주의와가족주의를반대하는것은공통적이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

<sup>24</sup> 師復〈致無政府社會黨萬國大會書〉, 「民聲」第 16 號, 1914. 6. 27.

<sup>25</sup> 師復〈編輯緒言〉, 「晦鳴錄」第 1 號, 1913. 8. 20.

<sup>26</sup> 師復等〈心社趣意書〉, 「社會世界」第 5 期, 1912. 11. 15.

이라는말이었다. 이것은코뮌적아나키즘이도덕과윤리를중시하는특징을잘보여주는데, 『상호부조』도일종의윤리학교과서라고말할수있다. 현대의진화생물학에서인간의본성이‘이타적유전자’로구성되었는지, 아니면‘이기적유전자’로구성되었는지하는해결되지않은오랜논쟁의초기모델이크로포트킨과마르크스사이어나타나는것이다. 어쨌든자본주의가충분히발전하지않은동아시아사회에서크로포트킨의경제와관련한몇몇주장들은이해하기곤란했지만정치문화같은다른맥락에서는매우신선하게받아들여졌다.

19세기말유럽에서풍미했던암살풍조가쇠되고새로운세기를맞이하면서크로포트킨의코뮌적아나키즘이크게유행했다. 특히프랑스에서는크로포트킨의절친한친구이자동지인르클뤼와장그라브(Jean Grave)가아나키즘운동을주도하고있었다. 20세기초는프랑스아나키즘운동의전성기로파리한곳에만적어도수십종의아나키즘관련신문잡지들이출판되었다. 이런신문잡지야말로국경을넘어전세계적인차원에서정보의공유를가능케했다.

르클뤼는사회주의의거대한흐름속에서아나키즘이분리되어나오던 1870년대부터유럽아나키즘운동에큰공헌을한인물이다. 그는저명한지리학자로『인간과대지』『세계신지리』『진화와혁명, 아나키즘이상』같은저서를 썼으며, 크로포트킨과함께코뮌적아나키즘의이론적토대를세웠다.<sup>7</sup> 르클뤼의글들은여러나라언어로번역되었으며, 특히그의고매한성품은많은추종자들을만들었다. 그는크로포트킨이「반역자」에기고했던글들을모아『반역자의말』(1885)이라는제목으로편집출판했으며, 크로포트킨의명저『빵의쟁취』프랑스어판서문을쓰기도했다. 일설에는‘코뮌적아나키즘’이라는용어를처음만든인물이바로르클뤼라고도한다.<sup>8</sup> 르클뤼는대표저서『진화와혁명, 아나키즘이상』에서“진화는곧혁명”이라는관점에서서혁명은진화를전제로하며진화가곧혁명을만든다고해석했다. 그는과학의진보에대한신뢰가무한했으며, 평생채식주의를실천한청교도적혁명가였다.<sup>9</sup>

그라브는프랑스아나키즘운동을대표하는잡지「신세기 Les Tempa Nouveaux」의편집자였다. 이잡지는크로포트킨이 1879년부터스위스제네바에서발행하던「반역」을 1885년에파리로옮겨와발행하면서「반역자」로개칭했으며, 다시 1895년에잡지명을「신세기」로개칭한것이다. 그라브는크로포트킨의코뮌적아나키즘을선전하는것말고도새롭게대두되던노동조합적아나키

<sup>7</sup> 엘리제르클뤼의아나키즘에대해서는 Marjie Fleing, The Anarchist Way in Socialism—Elisee Reclus and Nineteen-Century European Anarchism, London: Croom and Helm 1979 참조.

<sup>8</sup> 石川三四郎〈日本無政府主義の由來〉, 『日本無政府主義運動史』第 1 卷, 黒色戦線社 1979, 1 면.

<sup>9</sup> 막스네틀라우, 하기락움김『전세계인민해방전선전개 — 아나키즘약사』, 형설출판사 1993(1932), 175~82 면.

즘을 지지하여 잡지의 논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신세기」는 장기간발행하다  
가제 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정간되었다.

사실상 1902년부터 1908년까지 프랑스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의 영향력은 그 정점에 이르렀다.<sup>10</sup> 이 사상은 정당과의 회정치를 믿지 않  
고, 중앙집권보다 연합조직을 선호했으며, 조직 형태를 중시한 것이 기존의 아나키  
즘과는 달랐다. 19세기 말 아나키스트는 테러와 봉기를 선호해 통치자나 자본가를  
암살해서 대중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한다는 ‘행동을 통한 선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1890년대 프랑스 등지에서 아나키스트의 적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시민봉  
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을 자초했다. 그런 배경 아래 생디칼리즘에서  
의 노동조합 모델이 아나키즘의 새로운 출로로 인식된 것이다. 프랑스 아나키스트  
의 영향력은 노동총연맹 CGT 이선언한 아미앵선언(1906)에서 나타난다. 이선  
언에는 첫째, 노동계급의 해방 투쟁은 경제 투쟁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오늘의 경  
제 투쟁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생산과 분배의 주체이다, 셋째, 총동맹 파업  
은 경제 투쟁의 유일한 수단이다, 넷째, 노동조합은 정당이외에 독립적으로 노동운  
동을 영도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미앵선언을 통해 노동총연맹은 기존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직접 행동에 의한 사회혁명 실현, 노동조합에 의한 생산과 분배  
의 조직을 주장했다. 비록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반대했지만 그라브 등은 노동조합의 혁명성을 인정  
했다.

르클뤼와 그라브가 해석한 크로포트킨 사상은 파리에 거주하던 중국인 유학생  
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파리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던 이석  
증이라는 청년이다. 이석증에게 아나키즘을 처음 소개한 인물은 엘리제 르클뤼의  
조카인 폴 르클뤼(Paul Reclus)였다. 이석증 연보에 따르면, “당시 이석증이  
파리 숙소 주변의 식당에서 우연히 지리학 대가 르클뤼를 만났다. 그는 크로포트킨  
의 호조론, 라마르크(J. B. Lamarck)의 생물호조병존론, 마리장귀유(Raire  
Jean Guyau)의 자연도덕론 등을 소개했는데, 이를 듣고 즐거워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sup>11</sup> 이것은 중국인 청년급진주의자와 프랑스 아나키스트의 상징적인 만  
남이었다. 이석증은 르클뤼로부터 상호부조론 같은 아나키즘 사상은 물론 개인적  
인감화도 받았다. 그는 르클뤼의 청교도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자신도 채식주  
의를 실천했다. 얼마 후 이석증은 영국에 거주하던 망명객 오치휘(吳稚暉)를 만나  
사상 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오치휘는 소보안 蘇報案에 연루되어 영국으로 망  
명온 후 진화론과 고인류학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석증의 권유로 프랑스로  
건너왔다. 이석증과 오치휘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유학생 저민(褚民誼)  
와 유럽에서 사업하던 장정강(張靜江)을 끌어들이어 조직을 결성했다. 그 결과 중국

명했다. 이처럼 그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은 사상의 변화 과정과 일치한다.<sup>20</sup> 광둥향  
산출신으로 어린 시절 전통 학문을 공부했으며 15세 때 수재가 되었다. 그러나 과  
거를 통해 관리가 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던 그는 과거의 길을 포기하고 사회활  
동에 참가해 1901년 고향에서 연설사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유학 시절 러시아 혁  
무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암살 활동에 매료되어 러시아인으로 부터 폭  
탄제 조 기술을 배웠다고 전한다. 사복은 귀국한 지 오래지 않았고 고향에서 여자 학교  
를 세워 교육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이 여성 운동에 관심 가지는 것  
은 흔한 현상이었다. 1907년에는 청조의 고위 관리 이준(李准)을 암살할 것을 계  
획했다. 그는 폭탄을 제작하던 중 실수로 폭약이 터져 왼쪽 손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고 체포되어 향산감옥에 수감되었다.

사복은 감옥에서 불교 관련 서적과 아나키즘 잡지들을 읽었다.<sup>21</sup> 하지만 그의 의  
식에는 강렬한 민족주의 열망이 충만해 여전히 배만 혁명론자에 가까웠다. 옥중 생  
활 가운데 여러 편의 글을 썼으며, 「향산순보香山旬報」를 창간하는 데 일조했다.  
이 신문에 투고한 글을 보면 강렬한 남녀평등과 도덕의식, 불교에 대한 심취와 유학  
에 대한 불만, 문자학과 사회학에 대한 관심 등을 읽을 수 있다. 사복은 철저한 남녀평  
등론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조자造字시대의 남녀평등관〉이나 〈불교  
의 남녀평등관〉에서는 문자학과 불교 지식을 활용해 남존여비의 봉건 사상과 봉건  
예교 때문에 여성들이 속박당하는 것을 비판하며 남녀평등의 정당성을 역설했다.<sup>22</sup>  
특히 사복이 불교에 관심을 나타낸 것은 청말 지식인들이 불교에서 사회적 출로를 찾  
던 경향과 관련 있는 듯하다.

출옥한 후부터 신해혁명 전까지 사복의 주요 활동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신세  
기」에서 선전한 아나키즘을 연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살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이다.<sup>23</sup> 그는 1910년 봄 홍콩에서 일체의 강권을 타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암  
살단 支那暗殺團을 조직했다. 이 무렵부터 중국 동맹회에서 이탈해 아나키즘의 신  
념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준지격사건(1911년 6월)과 봉산(鳳山) 장군  
폭살사건(1911년 9월)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받은 사복도 동료들과 함께 섭정  
왕재풍(載灃)을 암살하기 위해 북경으로 향했다. 상경도중에 무창봉기가 일어나  
고 신해혁명이 성공하자, 목표로 삼았던 전제 정부가 전복되었다고 판단해 암살 활

<sup>20</sup> 사복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Edward S. Krebs, Shifu, Soul of Chinese Anarchis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이 있다. 여기서는 사복의 초기 암살 활동이나 불교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사후 신문화 운동에 의 영향까지 고루 다루고 있다.

<sup>21</sup> 文定〈師復先生傳〉, 『師復文存』, 革新書局 1927 1~8 면.

<sup>22</sup> 師復〈造字時代之男女平等觀〉, 「香山旬報」1908. 10; 〈佛敎之男女平等觀〉, 「香山旬報」1908. 10(張磊整理『師復集外文(一)』, 『中國哲學』第12輯, 1984, 507~508 면).

<sup>23</sup> 사복의 혁명 활동은 동맹회 시대(同盟會時代향산감옥수감시기), 지나혁명단시대(支那革命團時代, 출옥 후 암살 활동을 하던 신해혁명시기), 민성시대(「民聲」時代, 암살단 해산 후 「民聲」을 통해 아나키즘을 선전하던 시기) 등 세 시기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石川洋〈師復と無政府主義—その理論と價值感を中心に〉, 『文學雜誌』第102卷第8號, 1993. 8, 143 면).

<sup>10</sup> 路哲『中國無政府主義史稿』, 福建人民出版社 1990, 82~86 면.

<sup>11</sup> 박제균, 〈중국 ‘파리 그룹’(1907~1921)의 무정부주의 사상과 실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40 면.

‘정치꾼’의 이미지로 추락시켰다. 그래서인지 국내에 남아있던 중국 사회당원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길을 찾아나섰다.<sup>19</sup>

강항호는 미국에서 공부하다 1920년 여름 잠시 귀국했으며, 다시 1921년 3월 러시아 혁명이 한창이던 소련을 1년 넘게 여행한 후 1922년 8월 완전히 귀국했다. 그런데 그는 소련의 현실에 실망하여 ‘신민주주의 新民主主義’(그는 모택동보다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다)와 ‘신사회주의 新社會主義’라는 새로운 이론을 들고 정계에 복귀했다. ‘선민참정 選民參政’ ‘입법일권立法一權’ ‘직업대의 職業代議’를 내용으로 하는 신민주주의와 ‘자산공유 資產公有’ ‘지세귀공 地稅歸公’ ‘노동보수 勞動報酬’를 내용으로 하는 신사회주의가 그것이다. 1920년대의 강항호는 여전히 사복과 채원배(蔡元培), 오치휘, 진독수(陳獨秀) 등과 더불어 혁신파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나, 그의 어정쩡한 태도는 곧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강항호는 중국 사회당을 재건(1924년 6월) 하고 곧이어 중국 신사회민주당 中國新社會民主黨으로 개명(1925년 1월) 하면서 이런저런 강령과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어 아나키스트와 경쟁하며 세력을 확산하는 상황에서 그의 말은 더 이상 호소력이 없었다. 게다가 북경 정변에 따른 선후회의 善後會議(1924년 10월)와 관련된 단든지, 이른바 갑자복벽 甲子復辟(1925년 8월)의 추문에 연루되면서 정객으로 낙인찍혔다.

## 2. 사복과 민성파

### 언행일치의 혁명가, 사복

사복의 본래 이름은 유소빈(劉紹彬)이다. 민족주의자 시절에는 만주족을 타도하고 광복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유사복(劉思復)으로 개명했고, 아나키스트 시절에는 봉건적 가족주의를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아예 성씨를 없애고 사복으로 개

<sup>19</sup> 강항호가 쓴 〈한족 韓族에 대한 감상〉(1922)이라는 글은 조선문제에 대한 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부기해둔다. “한족 韓族은 실은 한족 漢族이다. 따라서 한인 韓人이 망국한 것은 한인 漢人으로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인 韓人이 일인 日人에게 망국한 것은 한인 韓人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다. 아마도 한인 漢韓日 세 개의 민족은 그 혈통과 문화가 같고, 그 이해관계역시 같다. 일인 日人은 한인 韓人을 없앨 수 없으며, 잠시 겸병한 것뿐이다. 이 세 개의 민족은 결코 융합되어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기에, 한인 韓人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일인 日人이 고만에 빠지지 말고, 한인 韓人이 굶주림에 허덕이지 말며, 한인 漢人은 한인 韓日의 일을 잊지 말기 바란다. 모두 함께 융합하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고, 영원히 겸병의 고통을 피하도록 하자.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3국 공동의 복리이다”(江亢虎, 같은 책 188면).

최초의 아나키스트 그룹의 하나인 신세기파(新世紀派, 혹은 파리그룹)가 탄생했다.<sup>12</sup>

중국인 급진주의자들은 1906년 말 파리에서 세계사 世界社를 조직하고 사상 전파를 위해 인쇄소를 차렸다. 그리고 다음해에 「세계 世界」와 「신세기 新世紀」라는 두 가지 출판물을 간행했다. 「세계」는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중국에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화보집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호화판 인쇄물이었다. 그러나 겨우 두 권만을 간행하고 정간되었다. ‘세계’와 ‘세계사’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은 세계주의를 추구했다. 또한 「신세기」는 아나키즘을 선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신세기」는 1907년 6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주간지(후에 월간)로 시작했고, ‘라템포노바 La Tempo Nova’라는 에스페란토 부제를 달고 간행되었다. 1910년 5월 21일 정간될 때까지 무려 121회 발행했다. 아나키즘 사상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세계 각국의 혁명 상황을 잡지에 게재하여 중국 지식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신세기」를 출판한 인쇄소의 중국어 명칭은 ‘중화인자국 中華印字局’이었고, 프랑스어 명칭은 ‘라리베라트리스(La Lieratrice, 자유)’였으며, 주소는 파리의 브로카로 4번지였다. 이 주소는 다음 아닌 그라브가 발간한 ‘레템파누보(신세기)」가 인쇄된 곳과 같은 장소였다. 이와 같이 신세기파의 인쇄소가 프랑스 아나키즘 기관지를 출판하는 곳과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혁명가들과 그라브를 비롯한 프랑스 아나키스트 간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신세기」의 프랑스어 제호가 ‘레템파누보’여서 그라브의 그것과 같다는 사실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 「신세기」의 아나키즘

「신세기」는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기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이나 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잡지는 오치휘와 이석증, 저민의가 편집을 맡았고, 장정강이 재정을 담당했다. 오치휘는 연燃·연료 燃料·이夷·사무 四無 등, 이석증은 진眞·진민 眞民 등, 저민 의는 민民·천야 千夜 등의 필명으로 글을 썼다. 필명을 사용한 까닭은 혁명파의 간행물이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인물들이 투고한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신세기」의 특징이라면 과학주의를 보편의 진리로 인식하고 진화론을 무기로 삼아 중국의 봉건주의와 전통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데 있었다.

<sup>12</sup> 1910년에 작성한 프랑스 정보 문서에는 “4년 전부터 파리가 중국인 지식인들의 집결지로 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혁명의 전위대임을 자처하는 진짜 아나키스트들이다”라고 쓰여 있다(吳章煥 〈在佛中國無政府主義運動(1903~1907)〉, 『박영석 교수 학감기념 — 韓國史學論叢』(下), 1992, 1190면).

<sup>13</sup> 같은 글 1187면.

우선 「신세기」에 실린 유럽 아나키스트들의 저작 관련 번역문을 살펴보면, 프루동이나 바쿠닌의 글이 불과 몇 차례 소개된 것과 달리 크로포트킨의 글은 〈크로포트킨의 학설〉을 비롯해서 수십 차례 소개된 것 같다.<sup>14</sup> 이런 간단한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세기파는 크로포트킨주의 자임을 이 잡지에 소개된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은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점이라 하였다. 특히 이석중은 〈크로포트킨의 학설〉(1907년 9~10월)이라는 글을 통해 중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크로포트킨을 소개했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중국 사회에 처음 번역 소개한 것도 이석중이다.<sup>15</sup> 『상호부조』의 전반부 내용을 번역해 〈호조론互助論〉이라는 제목으로 「신세기」(1908년 1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16회)에 실었다. 그는 번역서문에서 “크로포트킨은 생물학과 화학으로서 인류의 사회를 논증했다. 러시아 박물학자 카를 카이슬러(Karl Kaisler)의 호조론을 넓혀 진화의 원인으로 삼아, 다윈의 생존경쟁의 결함을 보완했다. 이것은 실로 과학의 새로운 이치이자 사회의 정수이다.”<sup>16</sup>라고 극찬했다. 이 잡지에서는 기존의 사회진화론은 인류를 포함한 동물계의 진화법칙이 생존경쟁이라고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관점을 인용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나아가 생존하면서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존경쟁이기보다는 상호부조라고 주장했다.<sup>17</sup>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세기파의 아나키즘에는 르클뤼가 재해석한 크로포트킨주의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르클뤼의 ‘진화혁명론’을 받아들여 진화란 사물의 점진적 변화 과정을 말하며, 혁명이란 점진적 변화의 중단이자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진화와 혁명이란 동일한 과정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라는 것이다.<sup>18</sup> 그래서 이석중은 개량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 혁명은 돌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혁명은 곧 진화를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혁명의 어원을 해석하면서 ‘revolution’을 ‘Re’와 ‘Evolution’으로 나누어 ‘Re’는 ‘다시’ 혹은 ‘더욱’을 의미하고 Evolution은 ‘진화’를 의미하므로, 혁명이란 모든 사물이 더욱 새롭게 되는 ‘급

<sup>14</sup> 「新世紀」에 크로포트킨의 글은 〈克若泡特金學說〉(眞譯, 4 회), 〈互助進化之大原因〉(眞譯, 16 회), 〈法律與強權〉(無譯, 6 회), 〈國家及其過去之任務〉(眞譯, 23 회), 〈萬民安樂〉(『뺑의 쟁취』 제 2 장, 反譯, 4 회), 〈獄中與逃獄〉(『크로포트킨 자서전』 제 1 편, 眞譯, 7 회), 〈俄羅斯凶惡〉(夷譯, 6 회) 등 적어도 66 회 이상 소개되었다. 그 밖에도 민족주의에 반대한 에르베(G. Herve)의 〈反對祖國主義〉(眞譯, 2 회), 군국주의에 반대한 프라탈(Pratalle)의 〈徵兵之悲境〉(眞譯, 4 회) 등도 실렸다.

<sup>15</sup> 신세기파의 상호부조론 인식에 대해서는 박제균, 앞의 글 37~48 면 참조.

<sup>16</sup> 眞譯 〈互助論〉, 「新世紀」第 31 號, 1908. 1. 25.

<sup>17</sup> 「新世紀」와 동시에 발간한 「新世紀叢書」에서는 세계 7 인의 아나키스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크로포트킨을 뽑고, 그의 『互助論』을 『告少年』이나 〈秩序〉라는 글과 함께 소개했다(李石會 〈革命〉, 「新世紀叢書」第 1 輯, 1907).

<sup>18</sup> Élisée Reclus, 畢修勺譯 『進化與革命』, 平明書店 1947, 5 면.

유사하며, 근대 서구 아나키즘이 중국 사회에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이다.<sup>15</sup>

하지만 전통적 이상 사회와 아나키즘을 동일시하는 태도가 사회당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 등에 발표된 또 다른 글에서는 종교나 미신을 격렬히 비판하며 전통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인의 절대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봉건 문화의 잔재인 강상윤리와 중법관계의 타파를 역설하면서 종교를 부정했다. 반전통주의자의 글로는 노애명(魯哀鳴)의 이상 세계 소설인 『극락지極樂地』(1912)가 유명하다. 이 책은 정부에 반항하다 실패해 해외로 표류한 부부가 우연히 압박과 착취가 없는 극락 세계를 방문한다는 줄거리를 담은 공상적 사회주의 소설이다. 주인공은 사회 빈부와 불평등의 원인을 금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성인이란 만세의적”으로 성인들이 만든 삼강오륜과 같은 거저도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천부의 자유를 상실하고 인권이 불평등하게 되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인에 대한 우상 숭배를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소설의 주인공은 “무법無法·무천無天·무군無君·무성인無聖人”의 반역자였다.<sup>16</sup>

사회당은 중국 사회당으로부터 독립한 후 장강 남쪽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지부를 건설했으나, 불과 1 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세개(袁世凱) 정부에 의해 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회당의 지도자 사감은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1913년 8 월 정부에 체포되어 결국 처형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당의 활동은 정지되고 「양심」도 폐간되었다. 정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아나키스트들이 뒤에서 언급할 사복의 민성파에 합류했다.<sup>17</sup> 사회당의 또 다른 지도자인 태허는 사감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절간에 들어가 장기간 침묵하다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편 중국 사회당의 진익룡(陳翼龍)과 중화민국 공당의 서기문(徐企文) 등과 같은 진보 인사들도 북경과 상해에서 각각 체포되어 처형당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중국 사회당도 정부의 명령으로 해산되었고 강항호는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 쓴 어편글에서, “사회주의는 반드시 대동주의여야 하며, 대동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아니다. 만약 국가 사회주의가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아나키즘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모두 대동주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다.”<sup>18</sup>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대동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 사회당 시절 자신이 주장한 세계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애매 모호한 개념에 불과했다. 강항호의 말잔치는 ‘혁명가’로 화려하게 출발한 그를 한 날 우유부단한

<sup>15</sup> 딜릭은 도교와 불교 같은 전통 사상이 아나키즘과 유사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과거의 영향이 20 세기 전 반 중국 사회에 아나키즘의 유행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阿里夫德里克 『中國革命中的無政府主義』,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中文版序).

<sup>16</sup> 蔣俊 〈略語『極樂地』的政治思想和社會意義〉, 「近代史研究」, 1991 年第 1 期 참조.

<sup>17</sup> 사복이 「民聲」(1914)을 출판하자 사회당원 성국성(盛國聲)이 민성파에 들어와 에스페란토 관련 업무를 주관한 것이 한 사례이다(鄭佩剛 〈無政府主義在中國的若干史實〉, 葛懋春·蔣俊·李興芝編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46 면).

<sup>18</sup> 江亢虎 〈將來之中國社會黨〉, 『江亢虎文存初編』 149 면.

손문의암묵적인영향아래중국사회당내국가사회주의자가결집되었듯이 중국사회당내아나키스트들은신세기파의영향을받고있었다. 예를들어오치휘(吳稚暉)는프랑스에서귀국한후중국사회당에호감을보이며, 중국사회당강연회에도나가아나키즘을선전했다. 그는여기서군벌주의와군국주의에반대하는연설을했고, 아나키즘사회의실현을위해교육개혁의필요성을주장했다. 한잡지에 실린오치휘관련기사에는“예전에강항호군과만났을때, 그는나에게‘사회당을 정당으로개조하는것이어떻겠느냐’라고물었다. 그때나는개조할필요가없다고 했다. 우리당이비록구체적이고명확한주장이없는듯보이지만자연의취향에따르면반드시무정부로돌아갈것이다”<sup>12</sup>라고답했다는내용이실려있다. 이처럼 오치휘는중국사회당이일반정당이아니라아나키즘을선전하는단체이기를희망했으며, 이런생각은아나키스트당원들의지지를받았다.

당시중국사회당잡지인「사회세계」(사감편집)와「인도주보」(서안진편집)의논조변화를보면당내아나키스트들이결집하는움직임을포착할수있다. 중국사회당본부간사였던사감이나서안진(徐安眞)이강항호의대변자를포기하고아나키즘입장을분명히한것은아나키스트들이독자적인세력을구축했다는사실을보여준다. 그들은독자적인사회당을만든다음에「양심良心」(1913년 7월 20일)이라는기관지를출판했다. 이잡지는중국내에서발간한최초의아나키즘잡지로평가받는다. 그런데사회당의아나키스트들도개인마다출신성분이달라서인지이색적인주장들이난무했다. 실제로사회당원은중소학교원과자유직업인, 인쇄업자, 노동자, 유학생, 상공업자, 회당, 신군, 승려등다양한직업을가지고있었다.

불교식아나키즘은사회당의한가지특색인데, 사회당원태어나화림이자주사용하는양심良心이나극락極樂이라는용어에서알수있다. 특히승려출신인태허의사상은불교와아나키즘의결합이라는측면에서사상사적의가높은데, 아나키즘과불교간에소통가능성이있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이미청말장병린(章炳麟)의〈오무론〉에서도불교의영향이엿보이며, 같은시대의초기사복(師復)의사상에도불교의흔적이강하게남아있다. 불교말고도유가의대동과평균관념을아나키즘과결합하거나도가의노자, 장자, 포경언을중국고대의아나키스트로보려는생각들이나타났다. 아나키스트들은『예기禮記』(〈예운편禮運篇〉)에실린대동사회를빌려미래의아나키즘이상사회를묘사하곤했는데, 사회당원도마찬가지였다.<sup>13</sup> 심지어어떤사람은유교의대동, 불교의극락, 기독교나이슬람교의천당과사회주의이상은사실상같은것으로, 사회주의와종교간의관계는서로밀접해서대립적인요소가없다고까지주장했다.<sup>14</sup> 이것은천의파의경우와

<sup>12</sup> 〈吳稚暉之社會主義談〉, 「社會黨月刊」第3號, 1912. 8.

<sup>13</sup> 〈社會黨綱目說明書〉, 「良心」第1號, 1913. 7. 20.

<sup>14</sup> 菜鑄九〈社會主義述古〉; 病俠〈說平等親愛自由〉; 唐仲彪〈社會黨之觀察〉, 「社會世界」, 1912. 4. 15.

격한진화’의한형태라고설명했다.<sup>19</sup> 「신세기」에는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이나르클뤼의진화혁명론말고도다윈의진화론이나라마르크의유전설등도일부 소개되었다.

신세기파의오치휘는아나키즘에대해“무정부주의란민민의공덕심公德心을환기시키는것이며, 개인과사회의호조를중시하는것으로, 일체의권리를버리고공동의행복을도모하는것”<sup>20</sup>이라고정의했다. 또한“사람들마다진리와공도公道에따르면통치자와피치자가없게되는데, 이를무정부”라면서, “무정부사회란도덕이있을뿐법률은없고, 각자능력에따라일하지만의무가아니며, 각자필요에따라소비하지만권리를말하는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sup>21</sup> 그리고이석중도아나키즘이론의특징을자유와평등, 박애, 대동, 공도, 진리, 개량, 진화등의다양한개념으로묘사하면서아나키즘사회를“각자능력에따라일하고각자필요에따라소비한다(各盡所能各取所需)”는여덟자로요약했다.<sup>22</sup>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은아나키즘의이상을실현하기위해먼저기존질서에대한저항을호소했는데, 그구체적인공격대상으로군국주의, 조국주의(= 애국주의), 가정주의, 사산주의(= 사유재산주의), 종교주의라는오대주의五大主義를내걸었다. 그들은잡지를통해이런다섯가지주의를비판할것이라면서이것들을다시‘강권주의強權主義’라는말로요약하고, ‘강권주의반대’가자신들의아나키즘이라고선언했다.<sup>23</sup> 이에따라기존국가와정당에대해서는반군국주의와반조국주의를, 기존전통과풍건에대해서는반가정주의와반종교주의를, 사유재산제도와관련해서는이를부정하는반사산주의反私產主義를각각주장했는데, 당시중국사상계에서는가장급진적인주장을담고있었다.

신세기파는정부와국가의관계에대해“정부란대동세계의최대장애”혹은“어떤형태든지모든정부는자유와평등의적”<sup>24</sup>이라면서, 이것은인민의대표기구가아니라소수특권층이조직한단체에불과하며, 특권층스스로자신에게이로운법률을마음대로제정하여사회를운영하는데, 이를국가라고했다. 따라서국가는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기관에불과하며, 정상적인사회를파괴하는근본원인으로인식되었다.<sup>25</sup> 자본주의에대해서도같은맥락에서비판하고있다. 즉자본주의란자본가가노동자를착취하고강한종족이약한종족을지배하는구조이며, 이를비

<sup>19</sup> 李石曾〈혁명〉, 앞의책.

<sup>20</sup> 吳稚暉〈各盡所能與各取所需〉, 「新世紀」第49號, 1908. 10. 24.

<sup>21</sup> 吳稚暉〈談無政府之問天〉, 「新世紀」第49號, 1908. 5. 30.

<sup>22</sup> 李石曾〈革命〉, 앞의책.

<sup>23</sup> 신세기파는「新世紀」의광고에서자신들은종교와전통, 가족, 방종, 엘리트, 통치, 군벌, 국가를반대할것이며, 자유와과학, 인도, 혁명, 공산, 국제등을찬성할것이라고했다(〈木館廣告〉, 「新世紀」第52號, 1908. 6. 20).

<sup>24</sup> 李石曾〈來書附答〉, 「新世紀」第6號, 1907. 7. 27.

<sup>25</sup> 李石曾〈答軍魂氏第二次書〉, 「新世紀」第8號, 1907. 8. 10.

호하는기관이정부가고정부는곧국가를대표하므로결국국가와정부는특권층의 이익을보호하고인민을해치는‘만악萬惡의근원’이라는것이다.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이타도해야할국가혁명의첫번째대상은바로청조淸朝라는황제체제였다. 그들에게있어배항혁명排皇革命, 즉청조의전복은아나키즘혁명의시작을알리는것이며, 배항혁명은배만혁명排滿革命보다우월하며, 사회혁명은배만혁명을포괄한다고믿었다. 「신세기」에는황제는물론황실귀족과고위관료들의정책에대한비판기사, 황족의무능과부패를조롱하는기사들을자주볼수있다. 아울러청조에대항하여봉기를시도하다처형된혁명가들, 예를들어서석린(徐錫麟) 과추근(秋瑾) 등을찬양하는기사에많은지면을할애했다. 이런논조는표면적으로신해혁명辛亥革命시기에해외에서발간된여러혁명파선전물과큰차이가없어보인다. 하지만신세기파의배항혁명론의출발점이공화파혁명가들처럼중주의적정서, 즉배만혁명론에입각했다기보다는전제군주제라는국가체제에대한반발심리에서출발했다는점에뚜렷한차이를드러낸다. 다시말하면만주족의지배에대한한족의분노와증오의산물로서청조의전복을주장한것이아니라, 왕조라는전근대적전제군주제에대한부정이라는맥락에서혁명을주장한것이다. 그들이군주제를반대한까닭은이제도야말로인간의자유를억압하는가장아만적인체제라고보았기때문이다.

신세기파는정당정치와의회제도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부정하는입장을보였다. 심지어대의제를군주제못지않은나쁜제도라고 폄하했다. 군주제가절대소수에의한절대다수의지배구조라면, 대의제는다수의지배계급이평민들을지배하는구조이므로결국평민은더욱압박받는다는논리를 폄했다. 그래서저민은“소위민권民權이라는것은사실상부권富權이다. 민주가최고의평등이고공화가최고의자유라고여기는것은자유가부유한자의자유이며평등이부유한자의평등임을모르기때문이다. 빈민이공경에처했는데자유평등이어디에있단말인가?”<sup>26</sup>라고했다. 이것은대의제선거를통해뽑은의원들은가난한인민의이익을위해서가아니라돈과권력이있는자들을위한것이라고본것이다. 따라서대의제정치는오히려사회의불평등만가속화한다고생각했다.<sup>27</sup>

그런데청조라는봉건왕조의지배아래있던중국은전제국가로아직까지정당정치나의회정치를경험하지않았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 따라서그들이비판한대의제는실제로중국사회에는존재하지않았으며, 단지서구아나키즘을받아들이는과정에서선전차원에서혹은공화파와의경쟁속에서이론적으로만제기된것이다. 유럽의아나키즘운동이대의제정치의모순을경험하면서전개된것과달리초기중국인아나키스트는이를겪지않고막연히반대했다. 같은맥락에서파리그룹의자본주의경제체제에대한비판도아직까지산업화가이루어지지않은중국

<sup>26</sup> 褚民誼〈伸論民族·民權·社會三主義之異同再答來書論「新世紀」發刊之趣旨〉, 「新世紀」第6號, 1907. 7. 27.

<sup>27</sup> 李石曾〈與友人論種族革命黨及司誨革命黨〉, 「新世紀」第8號, 1907. 8. 10.

대외적으로중국사회당은일본과영국, 러시아같은세계여러나라의사회당과연대를모색하면서만국사회당구락부라는모임을만들어교류를증진했다.<sup>8</sup> 그들은중국사회당의선언서와강령등을에스페란토나외국어로번역해해외사회당에발송했으며, 국제사회주의자조직인제2인터내셔널에도가입하려고노력했다. 이에대해제2인터내셔널은비록중국사회당의가입을곧바로승인하지는않았으나그들의활동을예외주시하고있었다. 중국사회당에참여한아나키스트화림(華林)은각국사회당과연락하기위해유럽을경유해러시아로건너갔다. 여기서러시아허무당의환영을받았다는편지를보내왔다. 일부외국사회주의자들도개별적으로나마중국사회당에호감을나타내어그들의집회에참여했다. 예를들어일본의아나키스트석천삼사랑(石川三四郎)이유럽을향하던중상해의중국사회당본부를방문해서강항호를만났다는기록과, 당시과장된수치로보이나 100 여명의국제사회주의자들이중국에건너왔다는정부측의첩보내용등이남아있다.<sup>9</sup>

## 중국사회당의분열과아나키즘적사회당

중국사회당내국가사회주의자들이결집하자이에대항하여순수사회주의를추구할것을주장하는사람들이나타났다. 그런인물들가운데는아나키즘을신봉하는사람들이많았다. 아나키스트들은평소강항호가현실정치에접근하는태도에불만을가지고있었다. 그러던중중국사회당제2차연합대회(1912년 10월)가열리자국가사회주의자와아나키스트간에당의주요진로, 즉정치활동여부나여성참정권문제등을놓고팽팽한대결이벌어졌다. 강항호는이른바당내민주黨民主黨과무치당無治黨의갈등이고조되자절충안을내놓았고, 그의제안은표대결에서 37 대 14 로부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의주장을당의강령에삽입하자이에분노한사감과태허등은극단사회주의를표방하며중국사회당노선에대한분명한반대를선언했다.<sup>10</sup>

비록강항호가기존정당을개조해보통정당을만들려는국가사회주의자의입장에반대했지만, 아나키즘경향의당원들은당과결별하고‘중국’두글자가빠진독자적인‘사회당’을만들었다. 중국이라는국가명을제외한것은새로운사회당이국제주의를추구한다는사실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당시중국사회당의분열을마치제1인터내셔널의마르크스파와바쿠닌파의분열처럼이해하려는경향이있었는데, 정부의존폐여부에따라국가사회주의자그룹은마르크스파로, 아나키스트그룹은바쿠닌파로각각인식한것이다.<sup>11</sup> 그리고이런사회주의자의분열은몇해전일본사회당의의회정책파와직접행동파로분열한사례를연상시켰다.

<sup>8</sup> 〈萬國社會黨上海俱樂部成立記〉, 「中華民國報」1913. 7. 17.

<sup>9</sup> 〈中英社會黨之握手〉, 「人道週報」第3期, 1913. 2. 16; 〈石川先生汗漫遊〉, 「人道週報」第7期, 1913. 3. 16.

<sup>10</sup> 刺虎來稿〈江亢虎之荒謬〉, 「社會世界」第5號, 1912. 12.

<sup>11</sup> 太虛〈社會黨與中國社會黨之八面觀〉, 「社會世界」第5號, 1912. 12.

중국사회당은대략세가지파벌로나눌수있었는데,<sup>5</sup> 첫째는강항호중심의세계사회주의파로개인을사상의중심에놓고교육과선전을주요하는방식을추구했다. 그들은정치에참여하더라도권력장악에연연하지않고, 국가나정부를거부하는무모한행동도하지말자고주장했는데, 자신들이진정한다수파라고생각했다. 둘째는국가사회주의파로기본적으로중국사회당의원칙에는동의하지만, 의회정치나정당정치에도적극참여해선거를통한권력장악을시도하자는부류로, 손문의영향을받은은인(殷仁) 과채정성(蔡鼎成) 등이있었다. 셋째는아나키스트로공개적으로반강권주의의기치를내걸고국가정부로부터완전히탈하여직접투쟁을통해사회혁명을실현하자는부류로, 신세기파의영향을받은사감(沙澗) 과태허(太虛) 등이있었다.<sup>6</sup>

이정당은처음부터정치파벌이뚜렷하게구분되었던것은아니다. 강항호의세계사회주의의애매모호함에불만을품은당원들이아나키스트와국가사회주의자로각자분리되어나갔다고보는것이적절하다. 강항호는세계사회주의야말로개인주의와국가주의의장점을흡수한것이라고자랑했지만, 실은아나키즘과국가사회주의를어정정하게결합한것으로논리에는자기모순이많았다. 그가세계사회주의에대한어떠한체계적인저술도남기지않은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사회주의에대한이해가깊었던것은아니다. 비록강항호가남긴글들이대부분강연록이라는특성을감안하더라도기본적으로는공명심많은개인적인성격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사회주의라는간판을빌리지만사유재산제도를불정하지않거나, 심지어자본주의체제를암묵적으로승인한태도에서잘나타난다. 당내아나키스트역시사회주의와아나키즘간의개념적지름은흔선이있었다.

중국사회당은이념과조직이모두산만하고활동도단시간에그쳐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했지만국내외적으로일정한영향이있었다. 대내적으로중국사회당이펼친진보적인사회정책과민족정책, 평민학교의개설과에스페란토선전, 노동자와농민에대한개방적태도, 여성참정권요구, 신문과잡지를통한다양한선전활동등은민국초기에서사회주의의확산에기여했다. 그들은만주족과몽고족, 회족, 장족지역을내지와분리하여자치를실시하고영구중립지대로만들자는신선한주장을펴기도했다.<sup>7</sup> 중국사회당의민족정책에희망을품은한인독립운동가를비롯한피압박민족의대표가찾아와협조를부탁하는일도있었다. 한편으로는특정지역을선정해무정부주의의시험장을만들자는제안도있었다. 중국사회당은「사회성社會星」 「사회잡지社會雜誌」를비롯한자신들의기고나지에「신세기」의기사나크로포트킨과관련된글들을적지않게실었다.

<sup>5</sup> 중국사회당내파벌을정치가만능萬能이라고믿는마르크스주의를받아들인‘국가사회주의파’와정치가만능萬能이라고믿는바쿠닌주의를받아들인‘세계사회주의파’로나누어구분한글이있다(安眞〈社會主義根本之探討〉, 『人間週報』 第2期, 1913. 2. 2).

<sup>6</sup> 社會黨月刊編輯部〈中國社會黨主張社會主義之派別比較表〉, 『社會黨月刊』 第3號, 1912. 9.

<sup>7</sup> 江亢虎〈社會黨籌邊策〉, 『洪水集』, 上海社會性出版社 1913, 97~102 면.

사회에서는다소설득력이떨어지는것이였다. 사실그들이아나키즘을수용한배경에는창조라는군주제를타도하기위한이론적무기의성격이강했으며, 대의제나자본주의에대한비판동기는상대적으로미약했다.

「신세기」의가장뚜렷한특징이라면중국의전통문화에대한신랄한비판에있었다.<sup>28</sup> 창조타도라는국가혁명의 1 차목표는중국사회의낡은전통과봉건사회에대한비판과도깊은관련을맺고있었다. 그래서인지여기서는교육보급과부녀해방, 가족해방, 노동중시등의사상을열심히전파했다. 국수國粹에대한신세기파의반대나물질문명에대한찬양은반전통주의자혹은서구화론자로서의전형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그런데엄격히말하면이들이수용한아나키즘은서양아나키즘의전체가아니라자신들의현실적필요에따라선택한것들이다. 키워드를열거하자면서양의아나키즘가운데테러와노동, 무정부, 무국가, 반제등의논리보다는상대적으로교육과도덕, 과학, 진화, 반전통등의논리를주로받아들였다. 게다가그들에게있어서의서양문화란주로프랑스의지적전통과관련된것들이었으며, 일부는다소왜곡된것들도있었다. 물론그들역시중국의전통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었겠지만, 당시로서는전통의굴레로부터가장멀리벗어나있었다. 이때문에「신세기」를신문화운동시기에발간한「신청년」의기원가운데하나라고평가한다.

이석증은크로포트킨의〈역사에서국가의역할〉을번역하면서후기에서말하기를, “크로포트킨은전통학문에지나치게빠져, 그런관념들이이책의곳곳에나타나는데, 실로그의약점이다”<sup>29</sup>라고했다. 이구절은크로포트킨주의자를자처했던신세기파가거의유일하게크로포트킨의생각을비판한대목이다. 이석증은철두철미한반전통주의의입장에서서아나키즘은옛날부터있었던것이아니라최근사회진화의산물이라고굳게믿었다. 그래서인지크로포트킨의역사학적접근방식에약간의의문을제기한것이다. 하지만이런과학주의신앙역시실제로는크로포트킨의철학에서기원한것으로볼수있다.

아나키스트는자신들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의하나로언어의장벽을무너뜨리고국경을철폐하는데기여할에스페란토에대해열렬한지지를표시했다. 아나키즘과더불어국제에스페란토운동의중심은역시프랑스였다. 이곳파리에서활동했던신세기파도중국에가장먼저그리고가장열심히만국신어萬國新語를소개했다. 여기서만국신어란바로에스페란토의최초의한역명칭으로발음에따라애사불난독愛斯不難讀이라고표기하기도했으며, 같은시기일본에서는세계어世界語혹은세계신어世界新語라고번역했다. 「신세기」가간행된지오래지않아이미에스페란토를소개하는글을발견할수있다. 여기서오치히나이석증등이한자를폐지하고에스페란토를수용하자고주장한것은그들의반전통주의를

<sup>28</sup> 신세기파의전통문화비판은曹世鉉, 『清末民初無政府派的文化思想』,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제 3 장참조.

<sup>29</sup> 克若泡特金, 眞譯〈續國歌及其過去之任務〉(附記), 『新世紀』 第81號, 1909. 1. 23.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 이런 과격한 주장은 국학자인 장병린(章炳麟)과의 논쟁으로까지 발전했다.

파리의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나 정부 말고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이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 등에 대한 혁명도 주장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제관계에 기초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것과 차이점이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급 투쟁을 중심에 놓고 가족이나 종교 문제를 여기에 종속시켰다면, 아나키스트들은 계급은 물론 종교와 전통, 가족, 국가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선후경중의 차별을 가지지 않고 근본적인 비판을 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혁명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차이점은 발견된다.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즘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 인간의 도덕을 향상시키는 비폭력적인 수단과 테러, 총동맹 파업, 무장봉기 같은 폭력 수단 사이에 서갈등했다. 중국의 아나키스트들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비폭력과 폭력의 두 방법 가운데 전자의 방법이 중국 혁명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혁명 방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장이 오치휘의 〈무정부주의는 교육으로 혁명을 이루는 실〉이라는 글이다. 여기서 그는 “중국에서 사회혁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혁명 사상을 선전해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전파하면 사람들은 마다 사회혁명의 필요성을 자각할 것이다”<sup>30</sup>라고 했다. 다른 여러 편의 글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글에서는,

무정부주의 혁명이라는 교육으로 혁명을 제창하는 것이요, 교육으로 혁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즉 (교육으로) 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 상 매일 매일의 교육이 매일 매일의 혁명이다. 교육의 효과가 적어서 사회의 작은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이는 작은 혁명인 것이다. ... 교육의 효과가 커져서 전체적으로 낡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 곧 큰 혁명인 것이다.<sup>31</sup>

라고 했다. 신세기파는 사회변혁의 방법과 변혁 주체의 창출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혁명이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을 조금씩 개량하는 과정에서 준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아나키즘 사회를 추구하려는 온건한 태도는 신해 혁명이 발발하여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부가 성립하자 이를 부정하지 않고 과도기적 체제로 인정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신세기파의 세계사는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에도

추수, 계리언(堺利彦) 등과의 교류를 통해 알았으며, 장계(張繼)와 유사배(劉師培) 등의 사회주의 강습회와도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고록에서 중국에 아나키즘을 처음 소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힌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2</sup>

강항호가 사회주의에 심취한 시기는 다시 관비의 지원을 받아 1910년 3월부터 1911년 봄까지 유럽을 1년간 여행한 때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지를 유람하면서 사회주의가 “20 세기에 가장 유행할 사조”임을 감지했고, 따라서 이주의를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유럽 각국의 사회주의자들과 접촉했으며, 제 2 인터내셔널에서 개최한 정치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귀국 전에는 자신이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가 되어 중국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들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강항호가 유럽에 체류할 때 파리의 신세기파와 교류한 사실이다. 그는 이미 일본 유학 시절에 (서)안성(徐安城)이라는 필명으로 〈무가정주의 無家庭主義〉(자유영업관견 自由營業官見)이라는 두 편의 글을 「신세기」(제 93호, 제 97호)에 투고한 인연이 있었다.<sup>3</sup> 특히 〈무가정주의〉라는 글에서는 가정과 종교,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른바 삼무주의를 제창했다.

삼무주의는 무종교, 무국가, 무가정의 세 가지 주장을 합쳐 부른 것으로, 무가정론에서 가족보다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중국의 전통과 대립한 것으로 곧바로 여성해방론과 연결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되었다. 기본적으로 사회와 문화의 혁신 주장에서는 아나키즘 색채가 농후했으나, 정치경제적 문제의 해법에서는 오히려 개량주의에 가까웠다. 강항호가 비록 개인주의와 경제자립 및 유산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여성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의 사회주의의 핵심은 반가정주의이지만 자본주의는 아니었다.<sup>4</sup> 따라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서토지세와 유산의 공유화를 선전하는 선에서 그쳤다.

강항호는 귀국 후 사회주의 연구회를 만들어 사회주의 선전에 앞장섰으며, 얼마 후 중국 사회당을 만들어 상해 본부의 책임자가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강소 성과 절강성 등 동남부 지역의 여러 성과 북경, 천진에 지부를 설립했다. 한때 중국 사회당은 52만여 명의 당원을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급성장했지만, 사회주의 이론에 정통한 당원은 거의 없었다. 당의 규약에 따르면, 당은 우두머리를 두지 않고, 당원은 단지 사회주의를 미래의 이상이라고 신앙하면 된다고 했다. 더구나 각종 사회주의 주장에 대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느슨한 규정 때문에 창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 내에는 자연스레 몇몇 정치파벌이 형성되었다.

<sup>2</sup> 江亢虎〈中國無政府主義之活動及余個人之意見〉, 『江亢虎文存初編』, 上海中華書局 1932(1914), 124 면.

<sup>3</sup> 江亢虎, 같은 글 123 면.

<sup>4</sup> Arif Dirlik & Edward S. Krebs, “Socialism and Anarchism in Early Republican China”, *Modern China*, 1981. 4, 131 면.

<sup>30</sup> 吳稚暉〈無政府主義以教育爲革命說〉, 「新世紀」 제 65 호, 1908. 9. 19.

<sup>31</sup> 吳稚暉〈各盡所能與各取所需〉, 「新世紀」 제 70 호, 1908. 10. 24.

## 제 2 장 아나키즘, 동아시아사회에서의 전개

### 1. 강항호와 중국사회당

#### 삼무주의와 중국사회당의 창립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황제체제가 무너졌으나 곧 이은 군벌정권의 출현으로 공화제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뒤범벅된 가운데 사회주의가 중국내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이 시기 잡지에 실린 사회주의 관련 글들은 청말에 소개된 문장을 다시 게재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 사회주의 관련 잡지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공산주의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중화민국 초기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사회주의를 대동주의와 삼무주의(三無主義, 광의사회주의, 협의사회주의, 순수사회주의, 극단사회주의(極端社會主義), 무치주의, 무강권주의, 세계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했다. 대체로 일반인에게 사회주의란 최신서양사조로서 그냥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sup>1</sup> 이런 사상적 혼란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불리는 중국사회당(中國社會黨)에서이다.

중국사회당은 강항호(江亢虎)를 중심으로 혁명이 한창이던 1911년 11월 5일 상해에서 창립되었다. 창립자인 강항호의 전력을 살펴보면 이 정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항호는 손문(孫文) 못지 않게 해외여행을 많이 한 인물로 유명하다. 1907년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 유학생 대표 신분으로 일본사회당 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때 일본에서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다. 또한 그는 다른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일본 사회주의자의 저서나 번역서를 읽으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 갔다. 미국 사회주의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저작을 통해 토지 공유제나 단세설(單稅說)에 흥미를 느꼈으며, 독일 사회민주주의자이자 제 2인터내셔널 지도자인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의 저작을 통해 여성해방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베벨이 쓴 『부녀와 사회주의』는 강항호가 가장 즐겨 읽은 책 가운데 하나인데, 아마도 행복추수(幸德秋水)가 번역한 책일 것이다. 그는 아나키즘을 행력

<sup>1</sup> 〈吳稚暉之社會主義談〉, 『天義』 第 1 輯, 1912.

또다시 국내에 조직되어<sup>32</sup> 교육(유학) 운동을 중심으로 아나키즘 활동을 재개했다.

### 2. 일본에서의 전파

#### 사회주의서적번역과 러시아허무당

일본에서는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서구화 과정에서 다양한 서양서적을 번역했다. 그 가운데가 등홍지(加藤弘之)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소개하면서 스펜서 철학의 자유주의적 측면보다는 보수주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른바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신화를 만들어낸 인물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는 사회주의를 비판할 목적으로 아이라니하게도 일본에 사회주의를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다.<sup>33</sup> 보통가 등홍지의 저서 『진정대의眞政大意』(1870)에서 처음으로 'Socialism'이라는 용어를 '사회주의'라고 번역했다고 전한다. 사회진화론을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조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수용되었다. 1898년에는 촌정지지(村井知至)와 행덕추수등에 의해 사회주의 연구회가 만들어졌고, 다시 1900년에는 사회주의 협회로 개칭했다. 1901년에는 편산잠(片山潛)과 행덕추수등에 의해 사회민주당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초기 사회주의는 단순히 신사상의 하나로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운동차원의 사회주의는 아니었다.

이 시기 일본 학자들이 서양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는 무척 많은데, 사회주의 말고도 '사회진화론\*상호부조론\*무정부주의' 등이 모두 일본식 번역어였다. 이런 번역어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사회에 널리 보급되면서 중요한 문화적 현상을 일으켰다. 여기서 중국의 경우를 잠시 언급하자면,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중국인 잡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01년 재일 중국 유학생 잡지인 「역서휘편(譯書彙編)」에 유하장웅(有賀長雄)의 책 『근세정치사』가 번역 연재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리고 양계초(梁啓超)가 "사회주의가 곧 인군주의(人羣主義)"라고 하면서부터 이 용어는 재일 중국인 사회를 넘어 중국 대륙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촌정지지의 『사회주의』를 비롯하여 여러 권의

<sup>32</sup> 1912년 신세기파는 상해에서 세계사를 다시 조직해 교육문화방면의 사업을 전개했다. 그후원 세계의 북벽으로 중국을 탈출해 프랑스 파리로 망명한 이들은 1915년 파리에서 또다시 세계사를 조직했다. 당시 세계사의 규정을 보면, 출판·연구·유학·선전의 네 분야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李石曾〈世界社之簡章〉,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編『李石曾先生文集』(上), 中央文物供應社 1980, 218~19면).

<sup>33</sup>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역, 이수정 옮김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나무 2001, 222면.

일문사회주의관련서적이중국국내에번역소개되었다.<sup>34</sup> 같은시기에상해를중심으로진보적인출판물인「정예통보政藝通報」「대륙보大陸報」「국민일일보國民日日報」「아사경문俄事警聞」등에서도사회주의를소개하는글들이연재되었다. 이처럼일본사회에서만들어진번역어를재일중국인유학생이나혁명가들이자신들의간행물에서인용하고다시본국에전파했다. 단지잇지말아야할점은중국이일본보다먼저개항했고, 양무운동을거치면서중국인들이고안한적지않은번역어가일본에전파된사실이다.

동아시아사회주의의전파과정에서주목할사실은일본이나중국모두러시아의나로드니키 Narodniki 운동과허무당虛無黨활동을활발히소개했다는점이다. 허무당과허무주의의소개는아나키즘의수용과정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왜냐하면동아시아사회에아나키즘이처음수용될때에는러시아에서풍미하던테러리즘이나허무주의가아나키즘과거의같은의미로받아들여졌기때문이다. 아나키즘을테러리즘이나허무주의와동일시하는습관은지금까지도남아있다. 이것은 19 세기후반유럽사회에풍미했던각종테러와암살활동을벌인사람들에대해유럽의언론이그들의정치성향을나로드니키와니힐리스트, 아나키스트등으로명확하게구분하지않고마구잡이로섞어쓴버릇에서기인한것이다. 흥미로운점은본래러시아에는허무당이라는이름의조직은없었으며, 실제로는나로드니키를비판하기위해만들어진용어에불과했다는사실이다. 그소개과정에서허무당인을아나키스트와동일시한것은착오이지만완전히잘못된사실만은아니었다. 왜냐하면허무당인의범주에는바쿠닌주의자로분류할수있는아나키스트도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sup>35</sup>

일본사회는서구의사회주의와러시아의허무당을소개하면서아나키즘을수용했다. 허무주의와허무당인을아나키즘과아나키스트같은것이라는인상을남긴대표적인저작은연산전태랑(煙山專太郎)의『근세무정부주의』(1902)를 꼽을수있다. 이책은전후 2 편으로구성되었는데, 전편은〈러시아허무주의〉라는제목으로러시아허무주의계통을차례로소개했고, 후편은〈구미열강에서의무정부주의〉라는제목으로구미의대표적인아나키스트를소개하고개별국가의사상운동현황을소개했다. 당시동경제국대학학생이던작자가이책을저술한본래목적이나나키즘을보급하는데있었던것이아니라오히려비판하려는데있었다는사실은아이러니하다.<sup>36</sup> 어쨌든『근세무정부주의』는널리유통되어사회적영향력이비교적컸으며, 우리가아나키즘을‘무정부주의’라고부르게된것도바로이책의제목에서비롯되었다고보는것이통설이다.<sup>37</sup> 그렇다고해서연산전태랑

을촉진하고, 특히월남과인도, 미얀마, 조선간의단결을촉진”하는것이였다. 그런데월남이프랑스식민지였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 어쩌면반패주의활동이전에월남사회에프랑스인들에의해아나키즘이소개되었을가능성도없지않아보인다.

<sup>34</sup> 村井知至, 羅大維譯『社會主義』, 上海廣智書局 1902. 4; 幸德秋水, 趙必振譯『長廣舌』, 商務印書館 1902. 11; 福井準造, 趙必振譯『近代社會主義』, 上海廣智書局 1903. 2; 西川光次郎, 周子高譯『社會黨』, 上海廣智書局 1903. 3 등이대표적이다.

<sup>35</sup> 路哲, 앞의책 44 면.

<sup>36</sup> 嵯峨隆『近代中國の革命幻影 — 劉師培の思想と生涯』, 研文出版 1996, 241~42 면.

<sup>37</sup> 小松隆二『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青木書店 1972, 23~62 면.

을 암살한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해 2 월 사형판결을 받자마자 곧이어 3 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겉으로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에 따라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19 세기 말 유럽 사회에서 유행하던 권총과 폭탄을 이용한 암살이라는 새로운 혁명수단이 동아시아의 혁명가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20 세기 초 러시아 아나키스트 그룹 ‘검은 깃발’은 차르 체제를 붕괴시키고 사회혁명을 촉발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테러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

행덕추수는 감옥에서 마지막 저서인 『기독교말살론 基督抹殺論』(1911)을 저술해 자신의 무신론 사상을 정리했다. 이 책은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존재에 대해 부정했는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란 후대인이 조작한 것이며, 기독교의 교리도 잡다한 생각의 혼합물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기독교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이자 부도덕으로 정의하면서, 결국 기독교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덕추수는 옥중 생활에서도 자신의 변호보다는 아나키즘에 대한 옹호를 푸는데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역사건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고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덕추수를 비롯한 열두명은 간단한 재판 절차를 거쳐 사형 언도 6 일 만인 1911 년 1 월 24 일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일본 초기 아나키즘 운동의 지도자였던 행덕추수는 어처구니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역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즈음 적기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대삼영은 아직 감옥에 있었다. 형무소 안에서 대역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감옥에 있었던 관계로 탄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는 1910 년 11 월 출소했다. 그러나 대역사건 후 일본인들은 사회주의자를 공포와 증오의 감정으로 대대히 이설자리는 거의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주의 운동은 이른바 ‘겨울冬の시대’에 들어가는 침묵에 빠져들었다.

덧붙이자면 중국과 일본 아나키스트의 합작은 월남에 아나키즘을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 있다.<sup>92</sup> 20 세기 초 재일본 월남 급진주의자 반패주는 중국과 일본의 급진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때 받아들인 반제국주의적 사상은 그로 하여금 월남 인민의 해방을 위한 반프랑스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반패주의 국수주의적 경향은 중국 아나키스트의 국수주의와 유사했다. 그 후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발전은 월남 아나키즘의 발흥에 자극을 주었는데, 반패주가 중국 남방으로 이주했을 때 중국 아나키스트 사복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사복은 경제적으로 그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 활동을 제안했다. 그 결과 진화흥회 振華興亞會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단체의 목적은 “중국과 아시아 식민지 국가의 단결

<sup>92</sup> 阿里夫德里克 (Arif Dirlik) 〈東亞의 現代性與革命 — 區域視野中的中國社會主義〉, 『馬克思主義與現實』, 2005. 3, 11~12 면.

이 무정부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은 아니다. 1900 년에 쓰양계초의 논문에서도 이미 ‘무정부당’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 세기 말 일본에는 무정부주의라는 번역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번역어가 중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널리 통용됨에 따라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해졌다.

『근세 무정부주의』가 출판되자마자 일본에 있던 중국인들은 이 책 (주로 전편)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번역 소개했으며, 중국내의 신문잡지에도 여러 차례 실렸다.<sup>38</sup> 그리고 김일 (金一)은 『자유혈自由血』(1904)이라는 제목으로 의역 출판했다. 이 번역본은 전편만을 번역했기 때문에 구미의 아나키즘보다는 러시아의 허무주의를 주로 소개했다. 김일은 서문에서 “허무당이란 무엇인가? 자유의 신이요, 혁명의 급선봉이자 또한 전제정치적”이라면서, “내가 허무당을 번역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 투쟁할 바를 알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sup>39</sup> 이처럼 이 책은 원래의 저술 의도와 달리 중국인들에게 허무당에 대한 동경과 아나키즘에 대한 계몽 효과를 불러왔다.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전제군주국이라는 유사한 정치문화적 환경이 중국인에게 더욱 호소력이 있었던 듯 싶다. 중국내 급진주의자들이 만든 상해의 「소보蘇報」나 「경종일보警鐘日報」에는 허무당 관련 기사들이 적지 않은데, 여기서는 중국에서도 허무당원의 출현을 기대하는 바람과 더불어 허무당원이 아나키스트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런 까닭에 1903 년의 소보안蘇報案을 기점으로 중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나키즘이 유행했다거나 「경종일보」가 중국 아나키즘의 원류의 하나라는 견해가 있다.

행덕추수도 일본 사회에 아나키즘을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출판한 정치평론집 『장광설長廣說』(1902)은 모두 32 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무정부당의 제조〉라는 글에서 아나키즘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행덕추수는 “무정부주의가 성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국가 사회에 대해 절망했기 때문이며, 전제정부가 말로 무정부주의의 제조창”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구절은 한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 책도 출판되자마자 같은 해 말 상해 상무인서관에서 『광장설廣長說』이라는 약간 바뀐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당시 그는 아직 아나키스트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중국인에게 아나키즘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무정부당의 제조〉라는 글은 실은 테러리즘을 소개한 것이며, 그것도 테러리즘 자체보다는 테러리스트가 등장한 사회적 요인, 즉 “국가 사회에 대한 절망”에 대해서였다.<sup>40</sup> 허무주의와 아나키즘이 혼합된 것과 유사한 현상인 것이다.

<sup>38</sup> 『近世無政府主義』는 「大陸」「童子世界」「浙江潮」「國民日日報」「警鐘日報」등에 부분 번역되어 실렸다. 장계 (張繼)가 번역한 『無政府主義』(1903)와 진랭 (陳冷)이 번역한 『虛無黨』(1904)도 이 책을 기초로 만들었다고 한다. 참고로 중국에서 최초로 아나키즘 학설을 소개한 것은 마군무 (馬君武, 필명獨立之個人)가 번역한 『俄羅斯大風潮』(廣智書局 1902)이다.

<sup>39</sup> 金一譯 『自由血』, 東大陸圖書譯印局 1904, 序文 2 면.

<sup>40</sup> 嵯峨隆, 앞의 책 245~46 면.

다음해행덕추수는명치시기최고의사회주의저작이라고평가받는 『사회주의신수社會主義神髓』(1903)를펴냈다.

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가처음에는신선하게들렸는지모르지만, 이용어는머지않아동아시아사회에서아나키즘에대한잘못된이미지를각인시켜적지않은문제를초래했다. 이번역어가널리유통되는과정에서아나키즘은테러리즘과허무주의와동일시되어원래의의미가심각하게왜곡되었을뿐만아니라, 일체의정부나조직을부정하는혼란과폭력의대명사가된것이다. 게다가무정부주의라는어휘에담긴부정적인이미지가그들의경쟁자에게쉽게이용되어불리하게작용하는경우가많았다. 그래서무정부주의라는신조어가만들어진지오래지않아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사이에서는무강권주의無強權主義나무치주의無治主義같은새로운번역어로바꾸려는시도가있었다. 하지만한번통용된개념은쉽게바뀌지않는법이다.<sup>41</sup> 본래아나키스트는폭력과파괴를맹목적으로선호하지않는다. 오히려아나키스트가운데비폭력주의자들이 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도무정부주의와‘무정부상태’를동일시하는편견은아나키즘에대한가장잘못된오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20세기에들어오면서일본은동아시아급진주의자의주요활동무대가되었다. 아시아각지에서유학생과망명객이모여들었는데, 특히동경은사상계가비교적개방되어서아시아의혁명가들에게피난처를제공하고있었다. 서양서적의상당수가이미일본어로번역되어있어서이들은번역서를통해자국에서는접하기어려운급진적인사조를자유로이읽을수있었다. 예들들어크로포트킨에관한정보는19세기말부터소개되었는데, 현재까지알려진바에따르면자유민권운동이한창이던시절에서하통철(西河通徹)이나궁기몽류(宮崎夢柳) 등이주관한「자유신문」에서크로포트킨이처음소개되었다고한다.<sup>42</sup> 하지만이때까지만해도앞서언급했듯이허무당이나허무주의와뒤섞여소개되었다. 실제로일본사회에서크로포트킨사상을본격적으로수용한시기는프랑스의신세기파와비슷한것으로보인다.<sup>43</sup>

아나키즘의전파와관련해프랑스와러시아의영향을강조하는견해와달리최근의한연구에서는필리핀의민족주의운동이아나키즘을비롯한유럽의급진적운동과쿠바를비롯한식민지의저항적민족주의가서로결합해진행되었다는주장과함께그런흐름이일본과중국에도전파되었다는견해가제기되었다. 필리핀의대

<sup>41</sup> 아나키즘이라는용어가‘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로오역되어말썽을일으킨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무정부주의란역사용어를쉽게폐기할수는없다. 왜냐하면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자체가생명력을얻어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역사적작용을했기때문이다.

<sup>42</sup> 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名事典編輯委員會『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名事典』, 株式会社ぼる出版 2004, 233 면.

<sup>43</sup> 중국사회에서처음으로크로포트킨이라는이름이소개된것은청말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에서편찬한『西國近事彙編續編』(1882)에서이다. 재일중국인아나키스트장계가쓴『無政府主義』라는소책자에서도‘가락파도금哥樂波度金’이라는이름으로크로포트킨을소개한사례가보인다(坂井洋史·嵯峨隆編『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別冊), 綠陰書房 1994, 122 면.

반천황제를주장하면서아시아문제에주목했다면, 중국인으로서유사배는반만민족주의에서출발해민족해방을주장하고, 그것이외연적으로확대되어아시아와반제국주의문제로나아갔다고볼수있을것이다.

1907년이라는상징적인해는중일아나키스트들의교류가매우활발한시기였다. 그런데그해말미국에서사회혁명당을조직한암좌작태랑(岩佐作太郎)이천황제를반대하는글을일본각지에배포해정부를긴장시켰다. 게다가러일전쟁후국내통합이라는시급한문제에직면하자일본정부는사회주의운동에대한적극적인탄압에나서면서상황이돌변했다. 1908년 1월 17일에열린제 20차금요강습회에서경찰이해산명령을내리자분노한군중들이가두행진을벌이고다시회의장옥상에올라가연설을하는등소란을피웠다. 이옥상연설사건으로말미암아대삼영을비롯해계리언과죽내선석등은치안경찰법을위반한혐의로체포되어동경감옥에투옥되었다. 이때중일아나키스트의교량역할을담당하던장계에대해서도체포령이떨어졌는데, 당시그는청조로부터혁명파의우두머리로지목되어현상금 3천금이걸려있었다. 비록장계는일본동지들의도움으로프랑스파리로망명하는데성공했지만, 그가사라지면서중일아나키스트간의연대는급속히와해되었다.<sup>90</sup> 그후장계는파리의신세기파와합류해활동했고, 구미의아나키스트들이만든이상촌을방문하기도했다.

일본아나키즘운동을더욱위축시킨것은 1908년 6월 22일에일어난적기사건때문이었다. 산구고검(山口孤劍)이라는한사회주의자의출옥환영회가금회관錦輝館이라는곳에서열렸는데, 이모임은분열된사회당외·우파의화해를목적으로마련된자리였다. 그런데경찰이환영회를진압하려들자대삼영을비롯한일부사회주의자들이‘무정부’‘무정부공산’‘혁명’이라쓰인적기를휘두르며경찰과난투극을벌였다. 이유명한적기사건으로말미암아대삼영을비롯한다수의일본아나키스트들이또다시체포, 투옥되었다. 사회적충격이적지않아이사건의책임을지고내각은총사퇴했으며일본정부는더욱보수화되었다.<sup>91</sup> 적기사건을계기로일본의사회주의운동이침체에놓이자아주화친회나사회주의강습회도이들과운명을같이했다.

1910년은대역사건大逆事件이일어나행덕추수를비롯한다수의사회주의자가체포된해이다. 평민사를들락거리던궁하태길(宮下太吉) 등몇몇젊은이들이천황제를노골적으로비판하다가그가운데일부가천황암살을꿈꾸었다. 결국그해 5월에궁하태길이폭발물제조혐의로체포되는것을시작으로무리 26명이나되는사람들이당국의올가미에걸려기소되었다. 그가운데에는이사건과무관한행덕추수와그의처관야수하자(菅野須賀子)도있었다. 그보다몇달전인 1909년 10월동양평화론을주장한안중근(安重根)이이등박문(伊藤博文)

<sup>90</sup> 아주화친회의좌절은그주요원인이가장열성적인조직가이자연설가였던장계가프랑스로망명가고, 적기사건후각국의동지들이흩어졌기때문이라고한다.

<sup>91</sup> 小松隆二, 앞의책 52 면.

아주화친회의이념과관련해유사배가쓴 〈아주현세론亞洲現勢論〉(1907년 11월 30일)이라는장문의글이「천의」에실려있어참고할만하다.

동경에거주하는(조선과월남) 학생에게사회주의를이야기하면모두기꺼이찬성한다. 사회주의의진흥은이들이그효시가될것이다. … 페르시아, 중국, 조선에서의암살사건도역시무정부주의자의존재를암시하는것이다. … 수년안에사회주의와무정부주의는반드시아시아에서큰세력을가지게될것이다. 만약아시아식민지의인민과구미및일본의민당이상호연대하게될경우, 민당의혁명은식민지독립의기회가되고식민지의독립은또민당혁명의기회가된다. 아시아인민이이사실을이해하고이러한방책을실행하게된다면전세계적으로식민지에행해지고있는강권이나인민을속박하고있는정치가모두동시에전복되어인류의자유를실현시킬수있을것이다.<sup>86</sup>

〈아주현세론〉에서는아나키즘에가까운중국에서시작해아시아약소국가와연락하고구미의아나키즘정당과연대해백인의강권과정부를전복하자는논리를전개한다. 특히아나키즘혁명을실현하기위해서는자국의통치자뿐만아니라외국의제국주의도반대할것을주장하면서, 아시아약소민족이서로연대하여투쟁할것을역설했다. 여기서백인종뿐만아니라침략정착을떠던일본정부역시‘아시아의공적’으로본것은흥미롭다. 즉일본을아시아에서강권을행사하던백인종의일원으로본것이다. 작자는세계정세와아시아정세, 중국정세를분석하는과정에서조선과월남, 인도등의식민지망명객과접촉한것으로보인다. 아시아약소국의동시독립과정부의폐지를역설한다든지, 아시아약소민족의독립을서로돕고나라의독립후에는아시아연방을결성한다든지, 아시아혁명에서세계혁명으로나아가는혁명프로그램을제시한것등은당시로서는매우놀라운내용이었다.<sup>87</sup> 이글은아시아인민의연대를통한반제국주의를주장한점에서아주화친회의정신과맥을같이하고있었다. 같은시기「민보」에도아주화친회의주장과유사한논조의글이실려역시관련있는것으로보인다.<sup>88</sup> 이처럼아시아주의가반제민족해방운동을향한국제연대로나아가간것은획기적인일이었다.

한편행덕추수는일본의제국주의화에반대하는동아시아사회주의자및식민지민족혁명가들을규합해‘동경사회주의자유지회결의’명의로일본의조선강제합병을강력히비판하는글을「대판평민신문」(1907년 7월 21일자)에실기도했다. 여기서“우리는조선인민의자유독립자치의권리를존중하고, 이에대한제국주의적방책은만민평민계급공동의이익에반하는것으로간주한다. 따라서일본정부는조선의독립을보장해야한다는언질에충실할것을바란다”<sup>89</sup>고했다. 대체로일본인으로서행덕추수는대외적으로반제국주의를중시하고대내적으로

<sup>86</sup> 유사배, 박제윤김 〈아시아현정세와연대론〉, 『동아시아인의‘동양’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145~46, 158면.

<sup>87</sup> 劉師培 〈亞洲現勢論〉, 「天義」第 11~12 合冊, 1907. 11. 30.

<sup>88</sup> 〈亞洲和親之希望〉, 「民報」第 23 號, 1908. 8. 10.

<sup>89</sup> 김명섭 『한국아나키스트의독립운동 — 일본에서의투쟁』, 이학사 2008, 49면재인용.

표적인민족주의자호세리잘 (Jose Rizal) 과이사벨로데로스레예스 (Isabelo de los Reyes) 는일찍부터아나키즘과매우밀접한관계를맺고있었으며, 특히스페인아나키스트나유럽에서의반제국주의선전및암살활동에영향을받았다고한다.<sup>44</sup> 이런견해를받아들인다면적어도사상의전파에서다양한루트의가능성을열어놓아야할것이다. 만일그렇다면당시일본이나중국의지식인들은세계정보교차하는동경에서필리핀에서전해오는여러가지운동소식에영감을얻었을것이다.

## 행덕추수의직접행동론

일본아나키즘의출발을알기위해서는행덕추수의움직임에주목해야한다. 그는 1901년 「만조보萬朝報」 에글을써서자신이사회의자라고선언했으며, 그해『20세기의괴물제국주의』를서서제국주의와군국주의에대한예리한비판을전개했다. 이책은영국인로버트슨의『애국심과제국』(1899)에근거해쓴것이라고하는데, 일본에서출판한다음해중국어로곧바로번역되었다. 여기서계리언(堺利彦) 과함께처음제국주의적침략전쟁을반대하는비전론非戰論을주장했을뿐만아니라, 최초로천황을논리적으로비판했다. 『사회주의신수』에이르러본격적으로사회주의를선전하기시작했다. 그런데행덕추수는피압박민족의민족해방운동에대해서는단순한민족주의나애국주의로이해해부정적으로보는한계를드러냈다. 예컨대그는평민사平民社시절이전까지만해도조선을일본의세력권에편입시켜야한다고생각했다. 아마도조선에대한정보가부족해서일본이조선을침범한침략자라는사실을파악하는데시간이걸린것으로보인다.<sup>45</sup> 하지만평민사에참가한후에는일본의조선침략정책을격렬하게비판했다.

행덕추수는평민사에서발행한「평민신문平民新聞」(주간지, 1903년)을중심으로러일전쟁(1904~1905)을준비하는정부에대항해반전운동을전개했다. 이신문은전쟁의무모함을반대하고정부의군국주의정책을비판하면서계급차별을타파하고모든압제와속박을제거하기위한평민주의, 생산·분배·교통수단의공유를위한사회주의, 군비반대와전쟁근절을위한평화주의등을주장했다.<sup>46</sup> 러일전쟁이일어나자세상이온통전쟁의열기로들떠있었으나, 「평민신문」만홀로모든전쟁을부정하는반전의논리를 폈다. 그들은러일전쟁의배경에는정치가와자본가의음모가숨어있으므로전세계의평민들은국제적으로연대해반전운동을펼쳐야한다고주장했다. 실제로평민사의동인들은러시아사회주의자들

<sup>44</sup> 필리핀의민족주의운동에아나키즘이영향력을발휘할수있었던것은아나키즘이민족주의에대해이론적편견을품지않은열린사상이기때문이라고한다(베네딕트앤더슨, 서지원옮김 『세깃발아래에서 — 아나키즘과반식민주의적상상력』, 도서출판길 2009, 해제).

<sup>45</sup> 石坂浩一 〈朝鮮認識における幸徳秋水〉, 「史苑」第 46(1~2) 號, 1987, 153~54면.

<sup>46</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編)』, 형설출판사 1978, 59면.

에게군국주의를반대하기위한반전연대투쟁을제의해큰충격을던졌다. 1904년 3월행덕추수는러시아사회민주당에편지를보내국제연대를통해전쟁을막자고 제안했다.

러시아와일본양국정부는제국적욕망을달성하기위해전쟁을개시했다. 그러나사회주의자의안중에는인종과지역, 국적의구별이없다. 제군과우리는동지이다. 형제자매이다. 결코싸울이유가없다. 제군의적은일본인이아니라이른바애국주의, 군국주의이다. 우리의적은러시아인이아니라이른바애국주의, 군국주의이다. 그렇다. 애국주의와군국주의는제군과우리의공동의적이다.<sup>47</sup>

당시스위스에망명중이던게오르기 V. 플레하노프 (Georgii V. Plekhanov) 의러시아사회민주당은기관지「이스크라」를통해행덕추수의편지에호응했다. 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서열린제 2 인터내셔널제 6 차회의 (1904년 8월 14일) 에서일본사회당대표편산잠과러시아사회민주당대표플레하노프가반전의약수와포용을나누는극적인일이벌어졌다. 행덕추수는이사건을〈일러사회당의약수〉라는제목으로「평민신문」에실어“이약수는실로세계당발전역사에영원히대서특필될중대사건”이라고높이평가했다.<sup>48</sup> 평민사회원들이반전을급히지않자당국은 1905년 1월신문을폐간하는것으로응수했다.

행덕추수는「평민신문」의폐간직후에일어난한필화사건에연루되어약 5개월가까이감옥생활을했다. 감옥에서크로포트킨저작을읽었는데, 훗날이때를 회고하며“나는마르크스파의사회주의자로서투옥되었으나출옥할때는과격하나키스트가되어돌아왔다”<sup>49</sup>고말했다.

비슷한시기구울견결촌 (久律見厥村) 이라는인물이『무정부주의』(1906)라는책에〈크로포트킨의특색〉이라는글을썼다. 이글이크로포트킨에대해처음으로자세히소개한문장으로알려져있다. 여기서크로포트킨사상의특징을과학적귀납방법론과상호부조론이라고설명하면서프루동이나슈티르너의사상과비교했다고전한다.<sup>50</sup> 그런데『무정부주의』라는책자는곧발매금지처분을받았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은잘알려지지않다. 구울견결촌은“나는일본유일의아나키스트”라고선언할만큼아나키즘이론에밝았다고전해지지만, 개인중심의철학적허무주의색채가강해크로포트킨주의자라고보기에곤란하다는평가가있다.<sup>51</sup> 일본초기아나키즘운동의두지도자로꼽히는구울견결촌및행덕추수와관

<sup>47</sup> 幸徳秋水〈與露國社會黨書〉, 「平民新聞」1904. 3. 13(박양신〈메이지사회주의자의반전론 — 고토쿠슈스이의비전론을중심으로〉, 『반전으로서의동아시아』, 혜안 2008, 112면 재인용).

<sup>48</sup> 小松隆二, 앞의책 31면.

<sup>49</sup> 路哲, 앞의책 4면재인용.

<sup>50</sup> 이글은재일중국인유학생왕공권 (王公權) 이번역하여〈苦魯巴特金之特色〉이라는제목으로「天義」第3號(1907. 7. 10)에실었다. 재일중국동맹회의기관지「民報」에도요중개 (廖仲愷) 가구울견결촌의『歐美의無政府主義』와연산전태랑의『近世無政府主義』를부분번역해게재했다.

<sup>51</sup> 小松隆二, 앞의책 23~26면.

의에는게리언·산천군·수전유추 (守田有秋)·죽내선삭 (竹內善朔), 인도인·중국인·월남인들이, 유일신교의교당에서열린제 2 차회의에는게리언·삼근운평 (森近運平)·대삼영·죽내선삭, 월남인·중국인·인도인·필리핀인들이참석한것이확인된다.<sup>80</sup> 이단체의회원들은일본제국주의의침략저지와아시아민족의독립을논의했으며, 고립된혁명은성공하기어려우므로식민지민족해방을넘어혁명적민중의국제적연함로나아갈것을구상했다. 대삼영은이모임에참석해비군비주의非軍備主義를고취했다고한다.

사회주의감습회가공개적인조직이었던것과는달리아주화친회는비공개적인조직이라는인상이있다. 왜냐하면이들의활동에대한구체적인기록이거의남아있지않기때문이다. 어쩌면재일외국인들이아시아연대를주장하는일이위험했을수도있고, 아니면잠시존재했다가사라져버렸기때문인지도모른다. 하지만이단체의존재는 20세기초에이미일정한규모로동아시아차원의국제연대가이루어지고있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일본인과중국인, 인도인등다양한국적의인물들이서로를동지로인식하고제국주의에대항해공동보조를취한것은분명대단한사건이었다. 그래서아주화친회는아나키즘의국제연대정신을가지고열린민족주의를추구하고, 이를초민족적사고로발전시키면서아시아인의해방운동에세계주의적전망을불어넣었다고높이평가하는견해가있다.<sup>81</sup> 비록약자의연함이라오래버티지는못했지만그연대의정신은계속이어졌다.

아주화친회에한인이참가했는지는분명치는않으나조소앙 (趙素昂) 등일부유학생이참여했을가능성이높다.<sup>82</sup> 대삼영의회고에“7~8년전에일본, 중국, 조선, 월남, 필리핀, 인도등의동지가서로계획하여아주화친회를설립했던일이있다. ... 이미 2~3회의회합을갖고여러종류의확실한활동을이루려했으나적기사건赤旗事件때문에일본의동지들이감옥에투옥되자아무런효과도거두지 못하고해산하고말았다”<sup>83</sup>라는내용이남아있다. 그리고당시베트남유학생반패주 (潘潘珠) 의기록에는아주화친회의참가국으로조선을첫번째로지명하고있고, 한인조소앙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sup>84</sup> 중국인다음으로한인유학생이많았으므로일본사회주의자와교류가잦았을터이지만, 어쩌면한인들은일본인들이주로아시아문제혹은중국문제에만관심을가지고식민지조선의해방문제에대해관심이적은데에불만을가졌을수도있다.<sup>85</sup>

<sup>80</sup> 玉川信明『中國の黒い旗』, 晶文社 1981, 61면.

<sup>81</sup> 황동연〈20세기초동아시아급진주의와‘아시아개념’〉, 『대동문화연구』50호, 2005, 154~55면.

<sup>82</sup> 죽내선삭의회고에따르면, 한인은일본인이참가할경우불참하겠다고하여모임에출석하지않았다고했다. 거꾸로이기록은한인과아주화친회와의일정한관련성을암시하는대목으로도읽을수있다(竹內善作〈明治末期における中日革命運動の交流〉, 「中國研究」第5號, 1948. 9).

<sup>83</sup> 大杉榮〈事實と解釋〉, 「近代思想」, 1915. 11.

<sup>84</sup> 李京錫〈平民社における階級と民族 — 亞洲和親會との關聯を中心に〉, 『帝國を撃て』, 論創社 2005, 104~110, 113~14면.

<sup>85</sup> 嵯峨隆, 앞의책 139면.

범주였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금요강습회의 일본인과 사회주의 강습회의 중국인, 특히 유사배와 장계가 주축을 이루었지만 회원은 인도인과 월남인, 필리핀인, 말레이시아인, 한인(?) 등이 고루 참가했다고 전해진다. 단체 성립 후 몇 차례의 모임을 가졌으며 장병린의 이름으로 작성된 선언문 〈아주화친회약장〉은 1907년 가을 무렵에 발표되었다. 장계와 유사배가 이 단체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장병린이 선배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선언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약장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본회는 ‘아주화친회’라고 이름한다.

목적: 본회의 중지는 제국주의에 반항하여, 아시아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들이 각자 독립하도록 한다.

회원: 아시아인으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를 막론하고 모두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

(1)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외래인에 의해 침략당해 어육이 되었거나, 이 민족의 지배를 받아 노예가 되었거나, 그 비참함이 매우 심하다. 본회의 의무는 서로 협력해서 각자 독립과 자유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2) 아시아 여러 나라 중 만약 약한 나라에 혁명이 있으면 나머지 나라의 회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모든 능력껏 돕도록 노력한다. ...

조직:

(1) 회원들은 반드시 매월 한 차례 모임을 갖는다.

(2) 각 회원들은 반드시 전체 회의의 명부에 주소를 남긴다. 개회할 때 신입 회원을 명부에 가입하고 각 회원들에게 소개한다. ...

(3) 본회에는 회장과 간사의 직이 없고, 각 회원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각자 친목평권의 정신을 가지므로 서로의 능력을 다해 본회의 뜻에 부합한다.

...79

이 약장에 따르면, 아주화친회는 반제국주의 입장이 선명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나아가 아시아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연합을 결성하고자 했다. 또한 “아시아인으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를 불문하고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침략적 민족주의자를 제외한 진보세력의 연합을 추구했다. 그리고 규약 중에 “본회에는 회장과 간사의 직책이 없고, 각 회원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대목은 아나키즘의 영향을 추측케 한다. 본래 아나키스트 조직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한 특색이다.

아주화친회는 매달 1 회 모임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07년 여름에 개최된 두 번의 모임뿐이다. 인도회관에서 열린 제 1 차 회

<sup>79</sup> 〈亞洲和親會約章〉(湯志鈞 〈關於亞洲和親會〉, 『辛亥革命叢刊』 第 1 輯, 中華書局 1980, 148 면 인용).

련한 단편적 기록에 근거한다면 적어도 1906년 무렵 일본 사회에 크로포트킨의 원서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행덕추수는 출옥한 후 1905년 11월에 미국 방문의 길을 떠나 다음 해 6월에 귀국했다. 불과 반년에 불과한 외국 여행이었지만 인본만 아니라 일본 아나키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사상을 좀더 심도 있게 접하게 되었다. 먼저 크로포트킨의 코뮌적 아나키즘이다. 행덕추수가 탐독한 『빵의 쟁취』를 비롯한 크로포트킨의 여러 영문본 저작들은 앞으로 일본 사상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다음으로 미국 체재 기간 중에 현지의 아나키스트, 특히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와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당시 구미의 아나키즘 운동은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즉 생디칼리즘과 결합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었다. 본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생디칼리즘은 권력을 정당 손에서 노동자 단체로 옮기고자 한 사조인데, 프랑스 노동총연맹의 아미앵 대회에서 아나키스트와 생디칼리스트의 연합 강령이 채택되었다. 이런 새로운 사조가 미국의 급진적인 노동단체인 세계 산업 노동조합 IWW 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집회에 참석한 행덕추수가 자연스레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의 이른바 ‘직접 행동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서 직접 행동론이란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통해 혁명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었다. 끝으로 행덕추수는 정치적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귀국하기 전까지 미국인 아나키스트 말고도 러시아 망명객들과도 교류했는데, 러시아 혁명가들의 혁신적인 테러 활동을 들으면서 사상의 깊이를 더해 갔다.<sup>52</sup>

그런데 행덕추수가 미국에 체류 중일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지진(1906년 4월 18일)이 일어났다. 온 시내가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혹자는 이 혼란 속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강렬한 현대의식을 보고 행덕추수가 아나키스트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sup>53</sup> 이런 재해 상황을 이상적으로 보았을 리는 없지만 혼란 중에 겪은 어떤 경험이 변신의 계기로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귀국한 영회(1906년 6월 28일)에서 행덕추수는 일본 아나키즘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직접 행동 선언’을 했다. 이유명한 연설 내용을 담은 〈세계 혁명 운동의 조류〉에서 보통 선거와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혁명 수단으로 총파업을 제안함으로써 아나키스트임을 자처했다. 다음해 「평민신문」(1907년 초)을 일간지로 복간하고 여기에 〈나의 사상의 변화〉라는 글을 발표하여 “보통 선거와 의회 정책으로는 결코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오직 일차 단결한 노동자의 직접 행동에 의지해야 한다”라며 좀더 구체적으로 직접 행동론을 소개했다. 그는 총파업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데 가장 극적인 수단이자 진정한 사회혁명의 매개체로 주목했다.

<sup>52</sup> John Crump, “The Anarchist Movement in Japan”, ACE Pamphlet, No.8, Pirate Press 1996, 4면

<sup>53</sup> 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23~25면.

행덕추수와함께활동했던편산잡은 〈사회당운동의방침〉을써서행덕추수의직접행동론을비판하면서의회정책을병행하며노동자의훈련과교육에주력할것을주장했다. 이에대해행덕추수는민주주의는사실상금권정치로노동자에게참정권이주어지더라도정당은자신들의이익을대변하는후보들을뽑지도노동자들의의회로불러들이지않을것이라고했다. 게다가개인의자유지와권리를빼앗는대의정부는필연적으로권위주의적이될것이라보았다. 이들의대립은일본사회당의분열을가져와온건한의회정책파인편산잡과강경한직접행동파인행덕추수를지지하는그룹으로나누어졌다. 본래유럽에서도 19세기말부터아나키스트는마르크스주의자가의회와선거에집착하는것을비난하고거부했는데, 제2인터내셔널의회주의노선에반대한것이그것이다.

일본사회당제2차대회(1907년2월)에서직접행동파가압도적우세를보이자일본정부는사회당을해산하고「평민신문」도폐간시켰다. 그후의회정책파는사회주의동지회를만들고「사회신문」과「동경사회신문」을창간했으며, 직접행동파는금요강습회金曜講習會를만들고「평민신문」과「대판평민신문」을창간해각자독자적인길을걸었다. 그런데행덕추수는귀국후얼마동안정당정치와보통선거에대한뚜렷한입장표명이없었다. 게다가아나키즘의근본을이루는국가권력의부정에서도다소불분명한태도를취했다. 아마도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의분기점인혁명에서의과도기문제, 즉프롤레타리아독재에대한명확한이해도달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행덕추수는크로포트킨의『빵의쟁취』를번역하는과정에서코뮌적아나키즘에더욱접근했으며, 이를통해이론적모호함을극복할수있었다.<sup>54</sup>

『빵의쟁취』는앞서언급했듯이크로포트킨이유럽에서활동하던시절아나키즘잡지「반역」등에게제한원고들을1892년에단행본으로출판한것이다. 여기서그는개인재산을만민에게반환할것과경제제도를소비위주로재편할것을주장하면서코뮌을그물망처럼연결해국가를대체하는조직으로만들자고제안했다. 행덕추수는크로포트킨의승낙을얻은후1907년부터『빵의쟁취』에대한번역에착수하여그일부를「평민신문」과「웅본평론熊本評論」에발표했다.<sup>55</sup> 그후병치료를위해고향으로돌아온후, 현지에서번역을계속한끝에1908년7월에작업을완료했다. 『빵의쟁취』는비록책의일부가압수되는우여곡절을겪기도했으나, 일본에크로포트킨주의가수용되는전기를마련했을뿐만아니라얼마지나지않아아나키즘의경전이되었다.

행덕추수는생디칼리슴의대표적인텍스트가운데하나인아널드롤러(Arnold Roller)의『사회적총동맹파공론』(The Social General Strike, 1907년5월)을크로포트킨의저서보다먼저일본어로번역했다. 이책은미국에

<sup>54</sup> 이번역은대삼영과산천균(山川均)이할계획이었으나대삼영이적기사건赤旗事件으로투옥되자행덕추수에게인계된것이라고한다(John Crump, 앞의책 44면).

<sup>55</sup> 幸徳秋水 〈麵麴の略取〉, 『幸徳秋水』, 中央公論社 1984, 譯者引 497면.

명론에흥미를느꼈다. 그는여성문제전문가인게리언을만나도록주선하여이문제에대해토론하도록제안했다. 하지만하진은게리언을만나후에도일본사회주의자들이인류의완전한‘자유’를실현하는것을추구하는데비해, 자신은인류의완전한‘평등’을이루는데뜻이있으므로서로입장이다르다고고집했다.

중국의아나키스트들은가정이란‘만악萬惡의근원’이라주장했으며, 한걸음더나가결혼제도야말로‘만악의근원의근원’이라는독특한관점을가지고있었다. 이에따라어떤사람은전통적혼인제도에굴종하는것은역사의노예가되는것이라고말했고, 심지어어떤사람은연애문제에서남녀쌍방이모두애정의만족을느끼기위해서는반드시남녀공동연애를실행해야한다고까지주장했다. 이들은자유주의경향의지식인들과는달리대가족제뿐만아니라소가족제조차부정했다. 아울러혼인제도가폐지된후자녀문제에대해서는공공기관에서공동양육할것을제안했다. 지나치게과격하게보였던결혼제도폐지문제는5·4운동을전후해서는이미아나키스트의주장을넘어당시진보적인사들의화두가되었다.

### 동아시아최초의반제국주의단체: 아주화친회

행덕추수가아나키즘을받아들이기전에는민족문제에대한정확한인식이결여되어있었다. 사회주의자시절에그는서양의제국주의와군국주의를비판하는과정에서피압박민족의민족주의경향을모두부정함으로써민족해방운동이론으로서의사회주의의의를출시했다. 하지만아나키즘을받아들인후제국주의가애국심과군국주의를무기로삼아세계로확산될것을경계하면서, 중국과조선에대한일본정부의군국주의정책에반기를들었다. 그래서일본에게주하던중국인관한인들에게우호적인태도를보인것이다. 특히중국의혁명가들과긴밀한협조관계를구축하고자한행덕추수는「평민신문」에글을실어중국혁명가와일본사회주의자가서로합작할것을제안했다. 이에호응한장병린과장계, 유사배등은동아시아각국의혁명가를규합하여1907년에아주화친회亞洲和親會를만들었는데, 이단체가조직된구체적인시기는논란이있으나대체로사회주의강습회가결성된시점과비슷한것으로보인다.<sup>78</sup> 우선4월경중국인과인도인망명객을중심으로설립을준비했다가사회주의강습회를통해중일사회주의자와각국활동가들의교류가심화되자여름에본격적인출발을한듯싶다.

아주화친회는동아시아사회에서처음으로만들어진반제국주의단체이기때문에그활동기간이짧았음에도불구하고역사의의가매우높다. 여기서아시아라는지역은일국차원의혁명을넘어세계혁명으로나아가기위해일차적으로설정된

<sup>78</sup> 아주화친회의성립시기에대해탕지균(湯志鈞)은1907년4월경(18개월정도활동했다고추측), 부전승(富田昇)은봄과여름사이, 석무전정은7월20일경, 죽내선삭(竹內善朔)은여름경, 옥천신명(玉川信明)은사회주의강습회가발족한지2개월후만들어졌다고서로다른주장을했다.

당시사회주의자들이에스페란토를공부한것은운동의국제화에편리했기때문인데, 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다수가에스페란토를운동의한방편으로배운것도여기에서출발한다. 「천의」의후반부에실린에스페란토기사중에는대삼영이중국인에게에스페란토를전파하는대목이었다. 그리고 「천의」의후속편인「형보衡報」(1908)에실린에스페란토기사는좀더구체적으로대삼영과중국인아나키스트의교류를보여준다. 「형보」의〈대삼영군의세계어 Esperanto 강습회개회연설사〉에따르면,<sup>76</sup> 1908년대삼영은중국인을위해에스페란토강습회강사로일했으며, 유사배의에스페란토지식도그와의교류를통해얻은것임을알수있다. 「형보」에는에스페란토도있어서이신문이아시아최초의에스페란토를제창한간행물이라는설이있다. 1908년상해에서유사배가세계어전습소世界語傳習所를설치했다는주장도있으나분명하지않다.

앞서언급했듯이 「천의」는아나키스트잡지인동시에진보적인여성잡지였다. 따라서일본의「사회주의연구」「독립평론」「신시대보」같은사회주의잡지기사가번역연재된것말고도「세계부인」「부인문제」「가정잡지」등과같은여성계몽지의기사가소개되었다. 특히「천의」는「세계부인」의영향을많이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잡지는초기동아시아여성해방운동과아나르코-페미니즘Anarco-Feminism의특징을읽을수있어서무척유용하다. 대체로서양의페미니스트들이남성적권위가제도화된가부장제의종식을추구했다면, 국가폐지야말로제도화된가부장제의대행자를폐기하는것으로인식했다. 이런점들은자유주의자의정치혁명론이나마르크스주의자의계급투쟁론과도구별되는것이였다.

동아시아의전통적가족제도는남자를중심으로한대가족제였다. 그특징이라면가장권위의절대화로설명할수있으며, 부자·부부·장유의혈연관계를기초로어느한쪽이다른한쪽을강요하여일방적인복종을요구한다는것이다. 과거에는이런가족제도가법률이나관습의형태로굳어져여성들을철저히지배할수있었다. 그래서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에게가족제도란공리公理에대립하는강권強權의기초로인식되었다. 그들이비판한가족이란단가족성원간에압제와복종이이루어지는곳일뿐만아니라, 나아가국가와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반사회적인존재였다. 동아시아의아나르코-페미니즘운동은서양의경우처럼처음에는정치운동과어우러져진행되었으며, 점차정치운동이발전함에따라더욱심층적인변혁즉사회혁명으로나아갔다. 이때남녀교육의평등과여성의노동참여, 여성참정권획득등이주요화제로떠올랐다.

그런데「천의」에서는극단적인수준의남녀간절대평등을요구해서흥미롭다. 예를들어하진은“초혼의남자는초혼의여자와결혼하고, 재혼할남자는단지재혼하는여자와결혼할수있고, 여자가재혼할경우에도단지재혼하는남자와결혼할수있다”<sup>77</sup>는당돌한주장을 폈다. 행덕추수는잡지에실린이런하진의남녀혁

서구입한영문판을기초로번역한것인데, 『경제조직의미래』라는제목의소책자로등사되어관현의논을피해비밀리에배포했다.<sup>56</sup> 이작업을담당한삼강영치(森岡榮治)라는인물은얼마후적기사건赤旗事件에연루되어감옥에들어갔다가출소후사망했지만, 그가비밀리에인쇄한이책자는몇사람의손을거쳐대정大正시대로전해졌다. 그후일본사회주의운동에중요한영향을미쳤으며, 특히노동조합적이나키즘의발전을가져온초석이되었다. 그런데일본사회에서코뮌적아나키즘과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대표저서인『뺑의쟁취』와『사회적총동맹파공론』이『상호부조』보다먼저완역되었다는사실은나름의상징성을가지지않을까싶다. 아마도일본이중국보다자본주의가발전하여노동자계급이어느정도성장했기때문에가능했던일인지도모른다.

한편행덕추수의동료인산천균(山川均)이〈동물계의도덕〉(1908)을번역했는데, 이것이현재까지알려진『상호부조』의최초일본어절역본이다. 이번역은‘평민과학’출서(6책)시리즈의하나로계획되었으며, 본래행덕추수가담당하기로했다가산천균에게인계된작업이였다.<sup>57</sup> 비록『상호부조』의완역본은아니지만, 그래도이책의번역이일본아나키즘운동의초기에나타난다는사실은그사상적비중을다시금집작케한다. 행덕추수는『상호부조』번역에직접참가하지는않았으나이미1906년8월「광光」에실은글에서“누가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가오늘날생물학상, 사회학상일대발견이자일대저술이라고하지않겠는가”<sup>58</sup>라며칭찬을아끼지않은바있다.

일본학계에서는행덕추수가활약한이시기를직접행동파의시대라고부르기도한다. 이때는격렬한투쟁을통해국가권력에맞섰고, 비밀출판이하나의특색을이루었으며, 평민을통해역사를만들려고한시기라고묘사한다. 일본에서아나키즘수용과정의특징이라면우선아나키즘이마르크스주의등과같은다양한사회주의이론과뚜렷한구분없이동시에받아들여졌다는점이다. 이런특징은중국인신세기파프랑스에서코뮌적아나키즘을수용하면서마르크스주의와뚜렷이거리를둔것과는차이를보인다. 다음으로크로포트킨주의를받아들일때에도생디칼리즘과혼합된상태로수용되었다. 아마도자본주의가어느정도발전한일본사회에서는노동운동을전개할수있는토양이마련되어서곧바로생디칼리즘이받아들여졌지만, 자본주의가성숙하지않은중국사회에서는노동자계급이충분히형성되지않아생디칼리즘에대한관심이부족하지않았나싶다.

<sup>56</sup> 『社會的總同盟罷工論』의번역과정에대해서는田中ひかる〈『社會的總同盟罷工論』成立前史〉, 『初期社會主義研究』第15號, 2002, 235~57면에자세하다.

<sup>57</sup> 이총서의제1편인〈인간발생의역사〉는게리언이담당하고, 제2편인〈식물의정신〉을산천균이담당했다. 그리고제5편인〈동물계의도덕〉은행덕추수가담당해『상호부조』의〈동물의상호부조〉(제1장)를번역해실을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변경되어산천균이담당하게되었다. 제6편인하워드무어(Haward Moore)의〈萬物의同根一族〉이라는진화론논문은대삼영이번역했다(山川菊榮·向坂逸郎編『山川均自傳』, 岩波書店1963, 286면).

<sup>58</sup> 幸徳秋水〈無政府黨鎮壓〉, 『平民主義』, 隆文館1907(『幸徳秋水』(平民社百年記念), 論創社2002, 73면에서재인용).

<sup>76</sup> 〈大杉榮君世界語 Esperanto 講習會開班演說詞〉, 「衡報」第2號, 1908. 5. 8.

<sup>77</sup> 〈幸徳秋水來函〉, 「天義」第3號, 1907. 7. 10.

일본어나키즘운동의차세대지도자가될대삼영은행덕추수가미국에체류중이던 1906 년초전차요금인상을반대하는시민대회에참가했다가체포되어그해 6 월에서야풀려났다.<sup>59</sup> 이사건은평생계속되는옥중생활의서막이었다. 그는프랑스의한어나키즘신문에실린〈신병제군에게드림〉(1906 년 11 월) 이라는글을「광光」에기고했다가문제가되어기소되었으며, 다시크로포트킨의『청년에게고함』(1907 년 3 월) 을「평민신문」에일부번역해실었다가또다시기소되어몇달간복역했다. 특히『청년에게고함』이라는짧은팸플릿은크로포트킨의저작가운데가장많이읽힌글이자일본내가장일찍번역된크로포트킨의글가운데하나다. 얼마후「평민신문」에〈유럽사회당운동의대세大勢〉라는글을 6 회에걸쳐번역게재해유럽사회당과노동운동을소개하기도했다. 앞의기사들이대부분유럽어나키스트의글이라는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대삼영은이미어나키스트투사로바뀌고있었다.<sup>60</sup> 그런까닭에그는행덕추수의어나키즘을가장빨리받아들이는사람가운데하나로별다른갈등없이직접행동론을열렬히지지할수있었다.

대삼영은청년시절부터여러차례감옥에들어갔는데, 자칭감옥대학안에서어나키즘이론은물론이학공부에열중하여자신만의사상적기초를마련해나갔다. 그는옥중생활을매우중시했는데, 자서전에서도“감옥생활은넓은세상생활의축소판”이라며자신에게미친영향을자세히언급했다. 대삼영은“일범일어一犯一語”라는유명한말을남겼다. 이뜻처럼한번투옥될때마다감옥에서한가지외국어를배우고나와서나중에는 10 여가지의외국어를할수있다고자부했다. 특히그는에스페란토에대해남다른열정을가지고있었다.

에스페란토는폴란드의안과의사라자루스루드비크자멘호프 (Lazarus Ludwig Zamenhof) 가만든‘희망’이라는뜻을가진세계공용어로, 일본사회에서는세계어라고불렸다. 일본에스페란토운동사에따르면『진화론강화』(1900) 를쓴구천차랑 (丘淺次郎) 이독일유학도중에에스페란토를배워일본에처음으로소개했다고전한다.<sup>61</sup> 그런데대삼영이에스페란토에대해큰감명을받고감옥에서배운후출옥하면서일본에스페란토역사의첫페이지를장식하는인물이되었다. 그는에일본에스페란토협회(1906 년 6 월) 가설립되자창립대회에서직접에스페란토로글을낭독하기도했으며, 일본최초의에스페란토학교를만드는데참여해강의도했다. 일본사회에에스페란토가수용되는데공헌을한또다른인물은인쇄공출신인산록태치 (山鹿泰治) 가있다. 대삼영과산록태치두사람은에스페란토를매개로평생을함께하는동지가되었으며, 특히지식인의전유물이었던에스페란토를노동자들에게확산시키는공헌을했다.<sup>62</sup> 여기서우리가 주목할점

<sup>59</sup> 多田道太郎〈生と反逆の思想家大杉榮〉, 多田道太郎編『大杉榮』, 中央公論社 1984, 25~26 면.

<sup>60</sup> 鎌田慧『大杉榮自由への疾走』, 岩波書店 1997, 94 면.

<sup>61</sup> 大島義夫·宮本正男『反體制エスペラント運動史』, 三省堂 1975, 6~7 면.

<sup>62</sup> 向井孝『山鹿泰治, 人とその生涯』, 青蛾房 1974 참조.

대목에서그의독특한면모를읽을수있다. 여기서나타나는서학수용방식의한가지특징이라면, 서양의근대를초월하려는지나친‘조급성’을들수있을것이다.

「천의」의후원자이자유사해보다더욱민족주의성향이강했던장병린에게서도구분진화론俱分進化論이라는독특한해석이엿보인다. 그는상해시절부터사회진화론의문제점을자각하여도덕에서선善과악惡이함께진화하고, 경제에서도낙樂과고苦가함께진화한다는구분진화론을주장한바있다. 일본에건너와서는행덕추수, 대삼영등과교류하면서상호부조를받아들였는데, 이를통해진화वाद덕의이율배반적인모순을해결하는데도움을받았다. 〈오무론五無論〉(1907 년 9 월), 〈국가론國家論〉(1907 년 10 월) 등에서이런영향이나타나는데, “백이(伯夷)의행동은오늘날톨스토이와같고, 도척(盜跖)의행동은바쿠닌과같다”는식의주장을 폈다. 하지만그에게있어서서양에서건너온진화론은오래지니고있을사상이아니었다. 실제로장병린은신세기파의오치휘와개인적인불화가있었으며, 그래서인지〈사혹론四黑論〉(1908 년 7 월)에서는한걸음물러나크로포트킨주의를비롯해일체의진화론에대해비판적인태도를취했다.

장병린의경쟁자였던순문에게서도상호부조의영향이나타나흐미롭다. 그는상호부조의진화론으로사회진화론에내재된우승열패와약육강식의논리를비판할수있다고믿었다. 일체의악은모두인류의몹속에남아있는동물성에서기원한다면서, 일체의선이나인의도덕은인류의호조라는천성에서기원한다고보았다. 그는인류의도덕진화는부단히동물성을극복하고호조의인성을증진하는과정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크로포트킨이상호부조가모든생물의본성과본능으로본데반해, 순문은“생물계는경쟁을원칙으로하고, 인류는호조를원칙으로한다”는절충적인주장을펴서약간의차이를드러냈다.<sup>75</sup>

「천의」는〈사회혁명대풍조〉라는항목을만들어만국사회당대회와관련된소식은물론외국의노동운동농민운동을소개하는글을자주실었다. 특히마르크스의『공산당선언』이나프리드리히엥겔스의『가족·사유재산·국가의기원』등을절역해실은것은이채롭다. 파리의〈신세기〉에서는거의찾아볼수없는마르크스주의에대한관심은일본사회주의자의영향을보여주는대목이다. 프랑스어나키스트는바쿠닌및마르크스와의논쟁이후마르크스주의자와는분명한선을그은반면, 일본어나키스트는마르크스주의에대한반감이별로없었다. 특히톨스토이의글이일본사회에소개되자유사배는큰관심을가졌는데, 아마도서양자본주의를비판하고중국의전통적농업사회를찬양하는내용이흥미를끈듯싶다. 「천의」에는일본사회당의분열소식이나금요강습회, 사회주의강습회의기사및광고들도실렸다. 특히행덕추수관련기사는자주발견되는데, 그의강연내용을잡지예신는것은물론〈행덕추수선생연설고〉라는제목을달아별도로제본해출판했다.

<sup>75</sup> 참고 〈동아시아 3 국 (한중일) 에서크로포트킨사상의수용 —‘상호부조론’을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 39 집, 2005, 246 면.

건에 대해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중국 동맹회의 분열은 혁명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천의파를 지지했다.

동경의 「천의」에서 소개한 아나키즘도 기본적으로 파리의 「신세기」와 마찬가지로 크로포트킨 사상에 바탕을 두었다. 이 잡지에는 크로포트킨의 〈유쾌한 노동〉(『빵의 쟁취』 제 10 장), 〈미래 사회 생산의 방법과 수단〉(『빵의 쟁취』 제 8 장 제 2 절), 〈빵의 약탈〉(『빵의 쟁취』 제 1 장 1~3 절), 〈아나키즘의 철학 과 이상〉 등을 번역 소개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천의파는 주로 행덕추수의 『빵의 쟁취』 일역분에 근거하여 중국어로 다시 번역 게재했는데, 신세기파처럼 크로포트킨 저작에 대해 두 번 번역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사배는 「천의」에 〈크로포트킨 학설 요약〉을 두 차례 연재해 그의 사상을 소개했는데, 『상호부조』에 대해서는 “크로포트킨 학설 가운데 가장 핵심은 『호조』”<sup>73</sup>라고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스펜서나 허슬리의 사회진화론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하나임을 비판하고, 상호부조를 핵심으로 하는 크로포트킨 사상이 가장 원만한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천의파는 바쿠닌과 슈티르너, 톨스토이의 아나키즘에도 흥미를 보임으로써 다른 유럽 아나키스트 이론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가득 찬 모습을 보였으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절대평등을 최고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국학자 출신의 유사배가 소개한 크로포트킨주의는 이른바 전통과 혁명이 결합된 것으로, 철저한 반 전통주의를 내세운 신세기파의 그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유사배는 아나키즘이 근대 서양의 산물이나 아니라 중국의 전통 사회에도 있다고 보아 노자(老子)를 중국 최초의 아나키스트라고 평가했으며, 이탁오(李卓吾)를 러시아 아나키스트 바쿠닌과 비교했다. 이석증이 과학자로서 이 크로포트킨을 높이 평가했다면, 유사배는 크로포트킨의 귀납적 역사 방법론에 관심을 보였다. 결국 ‘국수國粹’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두 잡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sup>74</sup>

국수주의와 아나키즘은 외면상 하나는 민족주의와 전통주의의 색채가 짙고 다른 하나는 국제주의와 반 전통주의 색채가 농후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듯하지만, 동아시아 사회에 거는 동시대에 등장한 이 두 사조는 실제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한 인물에게서 이 두 가지 사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천의파의 유사배를 들 수 있다. 그가 해석한 ‘중국식’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는 유가적 평균(平均)사상이나 도가적 무위(無爲)사상 같은 전통적 요소를 듬뿍 지닌 것이며, 루소의 사회계약설이나 크로포트킨의 새로운 진화론 같은 서구적인 이론의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유사배에게 있어서 아나키즘이란 국학(國學)의 부흥을 위해 선택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중국의 전통 사회를 “유정(政府)이 나실은 무정부와 다름이 없다”면서 중국이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서구적 근대화의 단계를 초월하여 아나키즘 사회의 실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

은 아나키즘 운동과 에스페란토 운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삼영의 청년 시절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자서전』이 남아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 생활을 지나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대략 1906년부터 1910년까지 그의 초기 사상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 대삼영은 세 가지 일에 열중했다고 말한다. 첫째는 에스페란토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이고, 둘째는 비군비론(非軍備論)을 적극 지지한 것이며, 셋째는 직접 행동론에 공감한 것이다. 그는 서양의 아나키즘을 흡수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을 확립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서양의 아나키스트가 도달한 결론을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결론에도 달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확인하려는 충동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 3. 일본과 중국 아나키스트의 교류

#### 사회주의 강습회의 성립과 「천의」의 아나키즘

행덕추수의 영향으로 일본 사회당 제 2 차 대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접 행동파가 기존의 회정(會政)파를 압도했다. 그들은 1907년 9월 금요 강습회를 만들어 매주 금요일 강연회를 개최하며 사회주의 세력을 결집해 나갔다.<sup>63</sup> 행덕추수가 아나키스트로 전환한 소식은 일본인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던 동아시아 급진주의자들에게도 아나키즘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행덕추수의 우호적인 태도는 재일 중국인 유학생과 망명객에게 강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일본에 유학 온 중국인 학생은 1만여 명에 다다랐으며,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동경은 사회주의 운동이 왕성하던 도시였다. 중국 동맹회 회원들도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집회에 자주 참석했고, 일본 사회주의자들도 중국인들의 조직과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런데 행덕추수의 관심을 끈 것은 중국 동맹회의 지도자 손문(孫文)이 아니라 동맹회 내에서 새로운 사상적 출로를 탐색하던 장계(張繼)와 장병린 등이었다. 그가 중국인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음은 다음 같은 기사에서 알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에 유학 중인 청년들과 망명 중인 혁명파 대다수가 이미 만주인을 배척하고 중국을 회복하며 헌정을 창립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공화정(共和政)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른바 민생주의, 즉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더욱 급진적인 사람들은 공산적(公産的) 무정부주의를 주장한다. 청년들은 심지어 열성적으로 개

<sup>73</sup> 申叔 〈苦魯把特金學術述略〉 2, 「天義」 第 13~14 合冊, 1907. 12. 30.

<sup>74</sup> 曹世鉉 〈二十世紀初의 ‘反對國粹’ 和 ‘保存國粹’〉, 「文史知識」, 1999 年第 11 期 참조.

<sup>63</sup> 금요 강습회에 대한 중국인의 기록으로는 경매구의 회고기가 남아 있다 (景梅九 『罪案』, 國風日報社 1924. 4, 906~907 면).

인적무정부주의를제창한다. 그들은수만권의잡지나소책자를비밀리에계속해서본국으로수송하고있다.<sup>64</sup>

중국최초의아나키스트로평가받는장계는 1899 년일본으로건너와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에서정치경제학을공부하다혁명파가되었는데, 당시재일중국인유학생가운데가장과격하인물로알려졌다. 그는일찍이『무정부주의』(1903 년말) 라는책을번역, 출판한바있었다.<sup>65</sup> 1906 년말동경에다시왔을때북일회(北一輝) 의소개로행덕추수를알게되었고, 다음해 3 월행덕추수에게편지를써서교류를희망했다. 장계는행덕추수를만나면서그의학문에탄복했고, 그의사상을받아들였다. 이만남은중일아나키스트의교류의시작을알리는상징적사건이었다.<sup>66</sup> 장계는행덕추수로부터롤러의『사회적총동맹파공론』을빌려『총동맹파공總同盟罷工』(1907 년 11 월) 이라는제목으로번역해생디칼리슴을중국사회에소개했다. 혹자는행덕추수의일역본을중역한것이라고도한다. 다음해에는 1903 년에출판한책과제목은같지만내용이다른『무정부주의』(1908 년 2 월) 를번역했다. 이책은이탈리아아나키스트말라테스타가쓰것으로원래제목은『아나키 Anarchy』인데, 백류수호(白柳秀湖) 의일역본을중역한것이다.<sup>67</sup> 말라테스타의책은아나키즘이자유의실현을추구하는사상임을설명한계몽적성격의글로「신세기」나「천의天義」에도번역게재될정도로유명했다.<sup>68</sup>

장계는 1907 년 4 월경자신의선배격인장병린과일본으로갓건너온유사배(劉師培), 하진(何震) 을행덕추수에게소개했다. 이만남에서전통학문의대가였던장병린과유사배는“유학자였다가사회주의를받아들인”행덕추수에강한동질감을느낀듯하다. 그후행덕추수와대삼영등이주도하던금요강습회에자주참석해야나키즘에대한인식의지평을넓혀나갔다.

1907 년봄부터교류를시작한그들은같은해 6 월초중국인급진주의자를중심으로금요강습회와비슷한사회주의강습회社會主義講習會를만들었다. 제 1 회강습회가 8 월 31 일에열린것을기준해이날정식성립되었다고본다. ‘강습회’라는명칭에서도쉽게알수있듯이이모임은일본의금요강습회영향아래조직되었으며, 주로일본사회주의자들이강사로초빙되었다. 사회주의강습회는 (1) 아나키즘과사회주의이론, (2) 아나키즘의역사, (3) 중국의민생문제, (4) 사회학등을다루겠다면서스스로아나키스트단체임을자부했다. 당시유사배의처하진은여자복권회女子復權會를조직하고 1907 년 6 월 10 일「천의」라는여성잡지를

<sup>64</sup> 幸徳秋水〈病中放語〉, 「高知新聞」1908. 1. 1(福田昇〈社會主義講習會と亞洲和親會〉, 「東洋學集刊」第 64 號, 1990, 239~40 면재인용).

<sup>65</sup> 석무전정(石母田正) 은장계가진정한코뮌적아나키스트가아니라고본다(石母田正〈辛亥革命與幸徳秋水〉, 「國外中國近代史研究」第 2 號, 1981, 339 면).

<sup>66</sup> 竹內善作〈本世紀初日中兩國革命運動の交流〉, 같은책참조.

<sup>67</sup> 嵯峨隆, 앞의책 254 면.

<sup>68</sup> 말라테스타의이책은「新世紀」에〈工人之無政府主義談〉이라는제목으로, 「天義」에〈無政府共產主義之工人問答〉이라는제목으로부분번역되어게재되었다.

간행하기시작했는데, 아나키스트들은이여성지를자신들의기관지로삼았다. 따라서「천의」는진보적인여성잡지인동시에아나키즘잡지라는이중적인성격을 띠게되었다. 동경의「천의」는파리의「신세기」보다약간빨리발간되었는데, 보통잡지의이름을빌려천의파(天義派, 혹은동경그룹) 라고부른다. 마치프랑스의저명한아나키스트르클뤼나그라브의영향아래신세기파가만들어졌듯이일본의대표적인아나키스트행덕추수, 대삼영등과의교류를통해천의파가만들어진것이다.<sup>69</sup>

사회주의강습회에는행덕추수와계리언, 대삼영등이정기적으로참석해강연했다. 강습회의첫모임에는 90 여명이참석했고행덕추수가연사로나와강연했다. 그당시의상황이「천의」에자세히기록되어있다. 여기서행덕추수는아나키즘의기원과다른사회주의파별과의차이점을강연했으며, 행덕추수의안전을위해기사에는그의이름을표기하지않고기호로처리했다. 이강연기사는지구반대편에있던파리의「신세기」에도두차례에걸쳐연재되어서로간의연대의식을과시했다. 강습회에는대삼영도여러차례강연(5, 6, 8 회) 한것으로나타나는데, 강연주제는‘바쿠닌의연방주의’였다. 현재남아있는자료에따르면사회주의강습회는대략 8 차례열린것으로보인다.<sup>70</sup>

얼마후사회주의강습회가경찰의압력으로열수없게되자강습회회원들은 1908 년 4 월 12 일부터제민사齊民社라고단체명을바꾸어강연회를계속열었다. 제민사의이름으로열린강연회는대략 5 차례였던것으로보인다.<sup>71</sup> 특히제 1 차강습회에서대삼영이‘프랑스반란의정신’이라는제목으로연설하면서동양자유평화동맹을만들자며아시아의연대를주장한사실은인상적이다.<sup>72</sup>

이시기장병린과유사배등은일본아나키스트의도움을받아중국동맹회의동경본부를접수하여새로운조직으로만들려고시도했다. 그과정에서손문의영도권을쟁탈하기위한갈등과대립이일어났고중국동맹회의분열로이어졌다. 이사

<sup>69</sup> 마틴버널의지적에따르면, 천의파와신세기파의출현은 1905 년이후노동조합적아나키즘을추구하던국제적운동의흐름과관계가있다고한다. 그는 1906~1907 년사이의중국사상계는아나키즘이마르크스주의보다주류를이루고있다고보았다. 그리고동아시아아나키즘의수용과정에서재일러시아혁명객의영향을지적했다(Martin Bernal, Chinese Socialism to 1907,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참조).

<sup>70</sup> 제 1 차사회주의강습회(1907 년 8 월 31 일) 에서행덕추수강연, 제 2 차강습회(1907 년 9 월 15 일) 에서계리언강연, 제 3 차강습회(1907 년 9 월 22 일) 의강사는알수없고, 제 4 차강습회(1907 년 10 월 6 일) 에서산천균강연, 제 5 차강습회(1907 년 11 월 10 일) 에서대삼영강연, 제 6 차강습회(1907 년 11 월 24 일) 에서대삼영강연, 제 7 차강습회(1907 년 12 월 8 일) 에서산천균강연, 제 8 차강습회(1907 년 12 월 22 일) 에서대삼영강연등이있었다(富田昇, 앞의글 236 면).

<sup>71</sup> 제민사는제 1 차강습회(1908 년 4 월 12 일), 제 2 차강습회(1908 년 4 월 26 일), 제 3 차강습회(1908 년 5 월 10 일), 제 4 차강습회(1908 년 5 월 17 일) 등 5 차례의회의를열었다(蔣俊·李興芝『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 山東人民出版社 1991, 40 면).

<sup>72</sup> 이강연은「天義」의후속잡지인「衡報」第 1 號에서소개되었다(富田昇, 앞의글 243~44 면).

는고군우(高君宇)와유인정(劉仁靜), 하맹웅(何孟雄) 등중국학생이외에도 한인청년김가봉(金家鳳) 등이참가했다는기록이있다. 그리고조선사회당에소속된한인청년김일학(金一鶴)과김상지(金尙志) 등 7 인은평소이대조의글을 읽고흠모해자주왕래가있었으며, 그들이이대조의지시에따라향산에파견되어 비밀공작에참여했다고한다. 또한조선사회당소속이자북경대학청강생이던중국국적의한인왕동명(王東明, 본명王申憲) 도이대조는물론북경대학의중국인이나키스트와교류하고, 상해임시정부와도왕래하면서한글선전물을전달하는일을맡았다고전한다.<sup>2</sup> 그렇다면현재이름이확인되는한인청년 — 김가봉, 김일학, 김상지, 왕동명 등 — 들은아나키스트일까아니면초보적공산주의자일까?

저명한한인독립운동가장지락(張志樂) 의회고에따르면 1920년대초북경에는약 800여명의한인이있었고, 그가운데학생이 300여명에다다랐다고한다. 그리고 1924년무렵에는 1천여명정도가거주했다고기록했다. 당시한인학생들의자유와민주주의에대한강한충동이아나키즘에흥미를느끼도록만들었으며, 장씨자신도이시기에는마르크스주의에대해잘모르고레닌주의에대해선전허물랐다고한다. 이런회고에따르다면앞서열거한한인학생들은아나키즘경향이농후한학생일가능성이높다.<sup>3</sup> 더구나이대조가북경대학내에만든마르크스주의연구회(1920년 3월)에한때초보적공산주의자나길드사회주의자보다아나키스트가더욱많은수를차지했다는사실을기억한다면그가능성은더욱높아진다. 이렇듯이대조주변의한인청년들은적어도아나키즘과초보적공산주의사상이뒤섞인사상을가지고있었으리라 짐작되며, 그가운데김가봉이라는인물은아나키스트라고말할수있다. 왜냐하면얼마후상해의활동과정에서아나키스트라는분명한기록이나타나기때문이다.

상해에서도아나키즘사조가유행하는가운데때마침이곳에대한민국임시정부가수립되었다. 상해공공계당국의보고에따르면, 임정수립이되기직전인 1919년 3월에는 300여명에불과하던한인의숫자가임정수립시기인 4월에는 700여명으로급증했는데, 이가운데상당수가조선으로부터온망명객이었다고한다. 더욱이조선총독부경무국자료에는 700여명가운데 200여명이독립운동세력이었다고기록하고있다. 이런통계수치는한인독립운동가의급증에따라자연스레중국인아나키스트와접촉가능성이높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그리고이시점은중국공산주의운동의출발시기와일치하므로한인독립운동가들이아나키즘과공산주의에관한지식을함께접하는계기를마련해주었을것이다.

일본에거주하던한인유학생들은중국보다이른 1910년대중반부터일본인아나키스트와의교류를통해아나키즘을수용한것으로보인다.<sup>4</sup> 아마도대삼영

위의구절처럼사상의노예가되는것에반대하여크로포트킨조차반성대상으로삼는것이아말로대삼영의아나키즘사상의특징가운데하나였다. 그리고그것은일본아나키즘의새로운장이열리는것을보여준다.<sup>84</sup>

그는자아가개인의바깥에있는외적환경및개인의내부에있는내적환경의속박에서모두벗어나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했다. 대삼영에게정부와자본가, 지주 등의정치적·경제적지배로나타나는외적환경의속박에대한투쟁은중심적인과제였다. 하지만이에못지않게개인의내적환경속에자리잡고있는풍속과습관, 종교, 이데올로기의속박에서탈피하는것도무척중요했다.<sup>85</sup> 당시가족사상이나부부사상의발달을사회의적으로믿은사실이나, 상식적인남녀관계를나쁜인습으로인식해부정하고극단적으로자유로운남녀관계를주장한것도이런맥락에서다. 그래서인지평소에밥을먹을때나글을쓸때도전혀남의식하지않았고, 선후배에게아무렇게나말을하는등철저히예의범절을무시하는것이보통이었다.

〈사회적개인주의〉(1915)라는또다른논문에서는제목그대로사회적개인주의라는역설적인표현을썼다. 일반적인상식으로사회주의와개인주의는대립적인구도이다. 그런데대삼영은사회주의의계급철폐와국가소멸말고도개인의노예근성으로부터의해방과권위에대한반항을동시에주장했다.<sup>86</sup> 일단이것은민중적개인주의의미하는것으로, 공리주의자의개인과는구별되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그렇게간단히규정하기에개인적사회주의는여전히해석하기어려운문제가남아있다. 어쩌면대삼영이독학으로공부했기에사상의상식으로부터자유로웠을수있고, 개인과사회라는대립적인두개념을하나로통일하려는지향성을보여줬다고도설명할수있다.<sup>87</sup> 훗날그가쓴 〈노동운동의이상주의적현실주의〉라는논문(1922년 12월)에서도다시한번이런역설의논리가나타난다.

대삼영은아나키즘사회화가과정과관련해다음같이말한다.

오늘날자본가사회는그경제제도의필연적인결과로, 이를테면사회적생산과개인적분배의모순이더욱증대됨에따라서마침내어떤근본적인개혁을해야만하는필요에부딪히게된다. 이개혁은오늘날사회제도에따라어떤특권이나이익을누리고있는자들에의해서가아니라, 그것때문에가장불이익을받는자들에의해서계획되고실행되어야한다. 그리고노동자는이러한위치에놓여있으며동시에사회의원동력을생산하는것을손아귀에쥐고있다. 그들은오직가지려고만하면되는것이다.<sup>88</sup>

여기서그는혁명방법으로의회활동이아닌노동자조직의자주적행동을강조한다. 노동자조직을사회전체의조직으로확대하려는직접행동론을주장하는것이다. 이때직접행동론이란의회등기존정치기구나제도를이용하는것이아니라,

<sup>84</sup> 小松隆二 『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青木書店 1972, 76 면.

<sup>85</sup> 板垣哲夫, 앞의책 10 면.

<sup>86</sup> 多田道太郎, 앞의글 41~42 면.

<sup>87</sup> 大澤正道 『大杉榮集』, 筑摩書房 1974, 解説 418~19 면.

<sup>88</sup> 大杉榮 〈勞動運動と個人主義〉, 『大杉榮集』, 筑摩書房 1974, 205~206 면.

<sup>2</sup> 楊昭全等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下), 遼寧民族出版社 1987, 1481 면.

<sup>3</sup> 김산·남웨일즈 『아리랑』, 동녘 1984, 89, 113 면.

<sup>4</sup> 재일본한인아나키스트의활동에대한연구로는김명섭 『한국아나키스트들의독립운동 — 일본에서의투쟁』, 이학사 2008 이있다.

총파업과공장점거, 무장봉기등에의해직접적으로체제를파괴, 변혁시키려는것을말한다. 대삼영은여러가지사회운동에비중을매기고계열화해정치운동을첫번째로놓는사고방식에정면으로반발했다. 정치혁명과경제혁명을합쳐사회혁명이라불렀으며, 문화혁명을동시에추진하는전체혁명이야말로진정한혁명이라보았다.<sup>89</sup> 이런관점을대삼영식혁명론의독창성으로설명하기도한다. 그가이처럼노동자의자주성을중시하고노동자이외사람들의간섭행위를배제한사실은얼마후러시아의볼셰비키정부가노동조합을통제한사실을강력히비판하는이론적근거로도작용했다.

보통 1918 년을전후해대삼영의사상이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의색채를벗어나생디칼리슴에더욱가까워진다고본다. 1919 년한해는대삼영으로서는가장정력적으로활동한시기이며, 다음해인 1920 년에도불경기로말미암아노동쟁의가빈번해지자여전히바빴다. 그는「노동운동」(제 1 차) 중간호에서반권위주의의입장에서각개인의실험적·실증적자세로모든문제에대해주체적으로대처할것을요구하면서백지주의白紙主義라는유명한말을남겼다. 인생은백지의책과같으며, 노동자는백지의책에노동문제라는인생문제를한자한줄한장씩써내려가는과정이라고했다.<sup>90</sup>

대삼영은프래그머티즘의번역어인실제주의實際主義라는용어를약간변형시켜자신의생각을드러내기도했다. 그는생디칼리슴이야말로실제주의에서의인식과이론의좋은사례라고생각했다.<sup>91</sup> 어떤글에서“생디칼리슴은그오랜역정속에서무정부주의의영향을받고있지만, 동시에다른사회적학설의영향도받고있다. 그렇지만생디칼리슴은그런영향을받아형성되었다기보다오히려노동자가단지살아가려는본능을좃아오른쪽으로혹은왼쪽으로가거나, 앞으로가고혹은뒤로가서, 마침내그들의생활의자각과경험을통해끊임없는변화를거쳐창조한것이다”<sup>92</sup>라고썼다. 기본적으로행위의결과를끊임없이평가하여인식을심화시키고이론을추출하는것말고도, 행위를한후에인식하고이에따르는방식을주장한것이다.

대삼영은노동자의투쟁이라는물질적인이익을얻으려는목적과함께인격적인만족을얻으려는최후의수단이라고생각했다. 비록물질적인이해득실에서패배하더라도그싸움속에서느끼는인격적인만족이있다는것이다. 자신의힘을시험해보는유쾌함과동료들간의연대감에서느끼는유쾌함, 적과우리를확실하게

<sup>89</sup> 大澤正道 『大杉榮集』, 앞의책解說 426 면.

<sup>90</sup> “인생은결코사전에결정된, 이를테면완성된한권의책이아니라, 각개인이한글자한글자씩써내려가는백지의책이다. 인간이살아가는것, 그것이바로인생인것이다. 노동자라는것이무엇인가라는문제도역시마찬가지다. 노동문제는노동자의인생문제다. 노동자는노동문제라는백지의거대한책에노동에대해한자또한자, 한줄또한줄, 한장또한장씩써내려가는것이다”(大杉榮 〈社會的理想論〉, 앞의책 222 면).

<sup>91</sup> 板垣哲夫, 앞의책 20~21 면.

<sup>92</sup> 大杉榮 〈個人主義者と政治運動〉, 앞의책 193~94 면.

## 제 5 장한인 · 대만인민족해방운동과 아나키즘

### 1. 일제하식민지에서아나키즘운동의출발

러시아볼셰비키혁명은해외에거주하던한인들에게사상적으로큰영향을준역사적사건이었다. 비록이혁명과맞물려아나키즘의수용을보여주는자료는별로없으나적어도한인들이사회주의에흥미를갖는데결정적인전기를마련한것은틀림없다. 예를들어이동휘(李東輝) 와김립(金立) 등을중심으로연해주지역에서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1918년 4월) 이창설되었다는사실은그런분위기를말해준다. 한인사회당은러시아볼셰비키와우호적인관계를맺었으며, 어느정도아나키즘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한인사회당은다소맹목적인계급투쟁만을강조하고민족해방운동에대한명확한인식이부족해서볼셰비즘에기초한러시아공산당조직이라고보기는곤란하다.<sup>1</sup> 여기서는중국과일본, 국내의순으로한인아나키즘운동의초기상황을소개하겠다.

1919년 3·1 운동이일어나전국적으로반일운동이전개되자민족주의의확산은물론사회주의의수용을가져왔다. 당시중국의대표적인신문「신보申報」나잡지「매주평론每週評論」등에서도조선의 3·1 운동을대서특필했다. 그가운데에는신문화운동의지도자이자얼마후중국공산당의대표가될진독수(陳獨秀) 의글도있었다. 그는「매주평론」에〈조선독립운동의감상〉이라는시론을실어 3·1 운동을세계혁명사의신기원을이룬것이라고높이평가했다. 불과두달후중국에서도항일운동의성격을띠 5·4 운동이일어났다. 그런데바로이시점은중국아나키즘운동의전성기였기에그들의잡지에서도 3·1 운동관련기사들을쉽게찾아볼수있다.[396] 이운동이중국인아나키스트들에게조선문제에관한동정과관심을불러일으킨계기였을것이다.

이때주목할만한사건은북경대학도서관장이던이대조(李大釗) 가사회주의와마르크스주의를공부하던시절, 그의주변에한인사회주의청년들이나타난다는사실이다. 조선사회당소속이라는한인청년들이바로그들이다. 이대조는북경대학생및북경지역의진보적청년들과정기적으로토론회를열었다. 이토론회에

<sup>1</sup> 반병률 〈한국근현대사상의지평을확대한아나키즘연구 — 『한국의아나키즘(사상편)』〉, 『역사와현실』 46 호, 2002, 260~61 면.

동아시아아나키스트연대의불꽃을지폈던유서의말에따르면,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결코명령기관이나혁명의총사령부가아니며“과대망상의광적인공허한거대조직을요구하지않았다”면서, 자유연합제도를기초로하는평등한조직을추구했다고한다. 여기서자유연합주의란“어떤종류의권위에의해서건위로부터아래로향하는조직이아니라밑으로부터위로, 주변에서중심으로향하는자유로운연합”을말한다. 본래바쿠닌은개인과단체의자유로운연합과마찬가지로자유로운이탈을가장중요한권리로규정했고, 이것이없다면중앙집권제에불과하다고보았다.<sup>95</sup>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제국주의침략에대한반대는물론코민테른의독재에반대하는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자유연합적연대기구라고말할수있다.<sup>96</sup> 1907년아주화친회의전통을잇는반제국주의단체였던것이다.

덧붙이자면, 유서의또다른선언문〈약소민족의혁명책략〉이얼마후대만에서발견되었다. 여기서는혁명단체의조직을역설하면서“(1) 결코적들과타협해서는안된다, (2) 결코제국주의정부가승인한정당(노동당과무산당을포함) 과합작하거나타협해서는안된다, (3) 철저하게계급의식을지녀야한다, (4) 독립정신을갖추어야한다, (5) 주의를일치시키고, 책략을일치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sup>97</sup> 그리고“제국주의에억압받는약소민족이해방되려면그운동은반드시경고한조직에의존해야한다. 약소민족의자유해방은결코의회운동이나제국주의의자선에의존해달성될수없으며, 오직혁명단체에의지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sup>98</sup> 민족해방운동의전략을기술한그의글은아나키즘의순수성에집착한일본아나키스트의입장과는묘한대비를이루어여운을남긴다.

구분하는유쾌함, 자신의인격이향상되는것에서느끼는유쾌함등이있다는것이이다. 그는“이상운동의전방에있는것이아니다. 운동그자체에있는것이다. 운동의과정중에모양을새겨나가는것이다. 자유와창조는미래의우리가동경하는이상이다. 우리는우선이것을현실속에서포착해야하고, 우리자신속에서획득해야만한다.”<sup>93</sup> 고역설했다. 대삼영은반역자에게는고정된사회적진리가따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그런진리란생성해나가는것이라고믿었다. 그래서실패를해도조금도뒤우치지않았으며, 오히려새로운모험을계획했다. 이를사람들은대삼영의도박근성賭博根性이라고말한다.

일본사회주의운동의암흑기를거치면서일부소개되었던『상호부조』는1917년에대삼영에의해완역되었다.<sup>94</sup> 대삼영은청년시절부터자연과학이론가운데진화론에깊은관심을가졌으며, 생물학에관한연구와번역에몰두했다. 이미다윈의『종의기원』을완역한바있으며,<sup>95</sup> 나중에는파브르의『곤충기』(1922) 등생물학과진화론에관한저작들을번역했다. 그는어린시절처음진화론을접하면서“무엇이든변하지않는것은없다. 오래된것은쓰러지고새로운것이솟아나는것이다. 지금권위를세우고있는것따위가무엇인가. 하루빨리그것을무덤속에묻어버려야하는게아닌가?”<sup>96</sup> 라며새로운세계에눈을떴다. 대삼영은인간을생물계의한종으로보았고, 인간사회의현상을생물계의한현상으로보면서관찰했다. 동물계에서진화의선두에선종족은투쟁보다는협동을선호한다는사실에주목해인류가오늘날동물계의선두에선까닭도이처럼이해했다. 그는인간사회내부의협동이아말로진보의원동력이라고굳게믿었다.

대삼영은기존에발표한몇편의논문모아『크로포트킨연구』(1920)라는책을출판했다. 이책에는〈크로포트킨총서〉〈크로포트킨의생물학〉〈크로포트킨의사회학(상)〉〈크로포트킨의사회학(하)〉〈크로포트킨의경제학〉(이등야지의글), 〈크로포트킨의교육론〉(이등야지의글) 등이실려있다.<sup>97</sup> 이가운데〈크로포트킨의생물학〉에서는상호부조설을생존경쟁에대한새로운학설이라면서다윈주의의올바른해석이자보충이라고설명했다. 그리고크로포트킨이상호부조설의창시자는아니지만젊은시절부터이미다윈주의의생존경쟁설에의문을품었다고소개했다.

<sup>93</sup> 大杉榮 〈生の創造〉(板垣哲夫, 앞의책 25~26 면재인용).

<sup>94</sup> クロポトキン, 大杉榮譯 『相互扶助論』, 春陽堂 1917. 이책은후에『クロポトキン全集』에다시실렸는데, 부록과주를모두번역해실었다(山泉進 〈大杉榮著書目録〉, 『初期社會主義研究』 第 15 號, 2002, 171 면). 대삼영은크로포트킨의저서 가운데『뺑의쟁취』『상호부조』『한혁명가의회상』을가장중요한저작으로꼽았다.

<sup>95</sup> Charles Darwin, 大杉榮譯 『種の起源』, 新潮社 1614~15.

<sup>96</sup> 오스기사카에, 김응교·윤영수 옮김 『오스기사카에자서전』, 실천문학사 2005, 201 면.

<sup>97</sup> 『クロポトキン研究』는『大杉榮·伊藤野枝選集』(黒色戦線社 1986) 의제 1 권으로나왔다. 이책은당시『大杉榮叢書』의하나로혜림(惠林) 이번역해중국에도소개되었다(大杉榮, 惠林譯 『克魯泡特金研究』, 1924). 국내에도이책의편역본이나왔다(이지활편역 『아나키즘의생물학·사회학·교육학·경제학』, 형설출판사 1979).

<sup>95</sup> 김명섭, 앞의책 245 면.

<sup>96</sup> 김명섭 〈한일아나키스트들의사상교류와반제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49 집, 2006, 53~54 면.

<sup>97</sup> 楊碧川 『日據時代臺灣人反抗史』, 稻鄉出版社 1988, 172~7 면이문건은재중국대만무정부주의자연맹에서발행한〈六一七臺灣島恥紀念宣言〉(1931. 6. 17) 과함께발견되었다.

<sup>98</sup> 王乃信等譯, 앞의책 41~51 면.

이 논문집에서는 『상호부조』 말고도 『농장·공장·작업장』 같은 저서를 통해 아나키즘의 경제학에 대해 소개했고, “두뇌운동과 근육운동과의 조화”를 핵심으로 하는 크로포트킨의 교육론도 언급했다.<sup>98</sup> 얼마 후 대삼영은 청년 시절 감옥에서 탐독하던 크로포트킨의 『한혁명가의 회상』(1920) 도완역, 출판했다. 마치 중국의 문학가이자 아나키스트인 파금(巴金)이 1930~40 년대에 크로포트킨의 주요 저작을 대부분 번역했듯이 일본의 대삼영도 『빵의 쟁취』를 제외한 『상호부조』 『한혁명가의 회상』 및 『청년에게 고함』 등 크로포트킨의 주요 저작을 모두 번역했다. 그 번역 수준이 뛰어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대삼영은 청년 시절 크로포트킨을 우상시하다가 적기 사건으로 투옥된 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크로포트킨 저작을 왕성하게 번역할 때, 역설적이게도 크로포트킨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일본 아나키즘 운동에서 크로포트킨의 위상이 다소 약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삼영은 사회적 개인주의를 생디칼리즘의 목표와 수단에 잘 결합해 노동조합을 통해 크로포트킨의 추상적인 이론을 명료화·구체화했으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노동 운동을 이끌었다. 비록 크로포트킨주의가 경전이었던 중국 사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크로포트킨의 저작들은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다.

대정 시기에 크로포트킨 사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이라면 이른바 삼호사건 森戶事件을 들 수 있다. 동경 대학 경제학 부조교수인 삼호진남(森戶辰男)은 학부의 학술지 「경제학 연구」 창간호에 〈크로포트킨의 사회사상의 연구〉(1920)를 발표했다가 학내 우익 교수 및 단체들에 의해 불온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잡지가 회수되었으며 삼호진남은 휴직 처분을 받았다. 그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삼호진남과 편집 발행인을 기소했으며, 몇 차례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두 사람은 동경 대학에서 해직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 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잡지에 그의 논문이 번역 소개되었다.<sup>99</sup>

## 중일 아나키스트의 상호 인식

1910년대는 중국과 일본 모두 자국에 아나키즘이 뿌리 내리는 시기로, 양국 간 교류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비록 중일 사회주의자의 교류는 정체되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복이나 대삼영은 꾸준히 상대방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두 나라의 잡지를 보면 독특한 연대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겠다.

<sup>98</sup> 山泉進, 앞의 글 163 면.

<sup>99</sup> 森戶辰男, 于樹德譯 〈克魯泡特金社會思想之研究〉, 「建設」第2卷第3號, 1920. 3; 森戶辰男 枕江譯 〈克魯泡特金之社會思想研究〉, 「解放與改造」第2卷第9~16號, 1920.

여기서 동방 무정부주의 자연맹과 비슷한 명칭으로 그보다 조금 앞서 만들어졌다는 이른바 ‘A 동방연맹’에 대해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화암의 회고에 따르면 1927년 9월에 광둥의 아나키스트 진건(秦健)의 발의로 중국과 대만, 조선, 일본, 베트남, 인도 등 6 개국 대표 120 여명이 무정부주의자 동방연맹을 조직했다면서, 이를 흔히 A 동방연맹이라고 불렀다고 회고했다.<sup>89</sup>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채호는 동방 무정부주의자연맹 활동의 하나로 1928년 4월 무정부주의자 동방연맹(A 동방연맹) 북경 회의를 열고, 〈조선혁명선언〉을 이은 또 다른 동아시아 민중의 연대혁명을 선포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천진 회의의 열고 신대만 안사 新臺灣安社에서 활동했던 대만 동지 임병문(林炳文) 과 협의해 일제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한 폭탄 제조소의 설치를 결의했다고 한다. 이때 신채호가 참가한 이 조직이 앞의 연맹과 동일한 단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단체인지 혹은 예비적 성격의 단체인지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기억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같은 단체인 것으로 보인다.<sup>90</sup>

동방 무정부주의자연맹은 각 민족의 자주성과 각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적 사회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고, 서기국 위원으로 중국인 모일파와 왕수인, 일본인 적천계래, 한인 이정규 등을 선출하고 「동방東方」(1928년 8월 20일)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아나키즘을 선전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한다.<sup>91</sup> 이 잡지에는 〈동방 무정부주의자에 게 고함〉라는 글을 게재했다. 연맹은 “첫째, 본래 이상사회는 어떤 형식의 국가 권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 조직의 뿌리는 인간과 인간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국가 권력이 인간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위대한 인간의 본질에 근거하여 자유평등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sup>92</sup> 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과 대만 지배,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 영국의 인도 지배 및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중국 오지에 아나키즘 근거지를 설치하자는 등 신선한 주장을 제기했다.

조선에서 이석규가 조선 대표로 파견되었으나 상해에도 착했을 때에는 이미 회의가 폐회된 뒤였다. 일본에서도 대표를 파견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고 한다.<sup>93</sup> 동방 무정부주의자연맹의 구체적인 활동은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곧바로 탄압을 받고 1931년 무렵에는 활동이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sup>94</sup>

스트들이 주축으로 한 반제연합선언이었다고 한다 (김명섭 〈한일 아나키스트들의 사상 교류와 반제연대 투쟁〉, 「한국 민족 운동사 연구」 제 49 집, 2006. 12, 51~53 면).

<sup>89</sup> 이정식 면담,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개정판), 민음사 2005, 334~35 면.

<sup>90</sup> A 동방연맹에 조선 대표로 참여한 신채호가 대만 아나키스트 임병문과 별인 국제위체 사건에 대해 당시 ‘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同志被害’라는 소제목으로 소개한 잡지기가 있기에도 조직은 동일한 단체로 보인다 (〈內外消息〉, 「黑色青年」第6期, 1930).

<sup>91</sup>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 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199 면.

<sup>92</sup> 玉川信明, 앞의 책 272 면.

<sup>93</sup> 오장환, 앞의 책 142 면.

<sup>94</sup>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290 면.

서유학한인물들이 많았으며, 일본과 조선, 대만의 망명객도 참여했다. 여명고중이나 평민중학은 상해 입달 학원 과도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천주아나키즘 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선과 대만, 일본의 운동가들이 대거 참가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데 있었다.

##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대삼영의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대 주장과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중국 아나키스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대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연대 활동을 촉진했다. 한인 아나키스트 유서는 〈동아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할 것을 주장함〉(1926년 말)이라는 글을 발표해 식민지인 인도, 조선,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의 민중 운동이 협소한 민족주의 운동에 그치고 있음을 비판하고, 애국의 광풍을 넘어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대 회를 가질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대삼영 동지가 일찍이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그의 죽음으로 이 중대한 제의도 무형중에서 사라졌다”<sup>85</sup>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맹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일본 동지들의 파괴 운동은 매번 실패했는데, 그 원인은 파괴의 수단 및 조직이 결여된 데 있다. 중국 동지들은 그들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선, 대만 동지들은 그들과 합작하여 파괴 운동에 착수할 수 있다”<sup>86</sup>면서 합작을 희망했다. 이런 그의 바람은 얼마 후 실현되었다.

1920년대 말은 동아시아 차원의 아나키스트 연합 단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당시 대표적인 조직이었던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보가 남아 있다. 1928년 5월(혹은 6월) 상해 이매로 李梅路 화광병원 華光病院에서 중국인과 한인, 일본인 등 5개국 대표가 모여 동방 아나키스트 대회를 열었다. 회의가 열린 화광의원은 상해 아나키즘 운동의 주요 연락처로 등몽선이 일본에서 귀국한 후 개원한 병원이다. 중국인 아나키스트는 물론 대삼영, 암좌작태랑, 산록태치 등의 일본인과 다수의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드나든 곳이었다.<sup>87</sup> 여기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그해 6월(혹은 7월) 남경(로)에서 중국과 조선, 일본, 대만,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을 대표하는 200여명(혹은 120여명)의 아나키스트들은 자유연합의 조직원이라래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는데 성공했다.<sup>88</sup>

<sup>85</sup> 柳絮 〈主張組織東亞無政府主義者大聯盟〉, 「民鐘」第 16 號, 1926. 12. 15.

<sup>86</sup> 같은 글.

<sup>87</sup> 玉川信明 『中國の黒い旗』 186 면.

<sup>88</sup> 정화암의 『이조국어디로갈 것인가』에서는 1928년 5월로, 이정규의 『우당이 회영약전』에는 1928년 7월로 쓰여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28년 6월 14일 상해 프랑스계에서 유기석과 이정규 등은 적천계, 모일파, 왕수인, 등몽선 등과 화광의원에서 회합을 갖고 6개국 대표와 동방 아나키스트 대회를 개최해 정식으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동방 A 연맹?)을 결성했는데, 한중일 아나키

중국인 경우, 신해혁명 직후부터 중국인들의 눈에 대삼영은 이미 일본을 대표하는 아나키스트로 비치고 있었다. 사복생전에 「민성」에는 대삼영 관련 기사 제 4호, 제 17호, 제 18호, 제 21호에 걸쳐 네 차례 소개되었다. 「민성」 제 4호에 실린 〈일본무정부당의 근황〉에서는 행덕추수의 피살 및 일본 정부의 탄압 상황과 더불어 “대삼영과 몇몇 동지들이 「근대사상」이라는 잡지를 출판했는데, 은어와 암시의 방법으로 무정부주의를 선전”한다고 소개했다.<sup>100</sup>

「민성」 제 17호에는 “일본의 대삼영은 행덕추수의 옛 친구로, 그는 행덕추수의 운동에 모두 참가했다. 일찍이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최근에는 「노동자」라는 새로운 잡지를 창간해 직접 노동 혁명을 제창하고 세계 어딘가에도 가입하려 한다. 일본 정부가 사회주의 아나키즘을 적을 금지 지역 압하는데, 유난히 이 신문 하나만은 출판하려고 해서 분명 금지 당하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대삼영을 질시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친구들이 말리지만 대삼영은 여전히 그 계획에 뜻을 두고 있으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마도 뜻을 세워 희생하려 하기 때문이다”<sup>101</sup>라고 했다.

「민성」 제 18호에는 대삼영이 새로운 신문인 「노동자」를 출판하려 했으나, 같은 제목의 간행물이 있어서 「평민신문」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판할 계획이며 10월 출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덧붙여 「평민신문」은 과거 행덕추수가 창간한 적이 있다면, 지금 대삼영이 권토중래한 것은 실로 일본 동지들의 쾌거라고 했다. 사복은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을 온건파의 안부기웅과 마르크스파의 계리언, 직접 행동파의 행덕추수로 나누고, 행덕추수의 죽음이 후 그를 잇는 것이 대삼영이라고 소개하면서 “직접 행동파에서 나아가 무정부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오늘날 우리당의 걸출한 장수”라고 칭찬했다.<sup>102</sup>

「민성」 제 21호에서는 대삼영의 「평민신문」출판 상황을 다시 소개하면서 “이 잡지의 제 1호 인쇄는 끝났으나, 곧 경찰에 의해 몰수되었다”면서 일본에서 온 편지와 함께 일본 경찰의 억압 상황을 소개했다.<sup>103</sup> 다른 글에서는 비록 「평민신문」이 몰수 당했지만 비밀리에 그 한부를 얻었다고 했다. 이 신문은 “노동자 혁명 운동의 기관지”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신문의 일부는 에스페란토로 나머지 일부는 일본어로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는 첫호의 기사 제목들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들의 각오〉라는 기사의 일부를 번역 게재했다. 이처럼 사복의 민성파는 대삼영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도 대삼영의 「근대사상」(제 2권 제 4호)의 편집 후기에는 사복과 민성파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서 사복 측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민성」에 글을 기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삼영은 생디칼리슴 연구회가 열렸을 때(1915년 1월 15일) 회원들에게 “중국 상해에 아나키스트 모씨가

<sup>100</sup> 〈日本無政府黨之近況〉, 「民聲」第 4 號.

<sup>101</sup> 〈「勞働者」之創刊〉, 「民聲」第 17 號.

<sup>102</sup> 〈「平民新聞」復活〉, 「民聲」第 18 號.

<sup>103</sup> 〈「平民新聞」之厄運〉, 「民聲」第 21 號.

발행하는잡지 「민성」에는 〈크로포트킨의전쟁관〉이라는기사가있다”고언급했다. 또한민중연설회 (1915년 4월 16일)에서는한일본인이사복의죽음을애도하는내용을발표했고, 대삼영도중국아나키즘운동의근황과사복의죽음을애도하는담화를발표했다.<sup>104</sup>

사복과대삼영간의교량역할을담당한인물은바로대삼영과에스페란토운동을함께전개한인쇄발자공출신인산록태치 (山鹿泰治)이다. 대삼영은 1914년봄대련만철발전소에서검정관으로일하던산록태치에게편지를보냈다. 여기서그는“중국의동지사복이상해에잠입하여에스페란토-중국어혼용아나키즘운동지 「민성」을발간하기시작했다. 응원하러가지않겠는가?”라면서사복의「민성」출판을돕도록제안했다. 이에산록태치는비밀리에상해로가서「민성」의발간을 6개월가량도왔다. 훗날산록태치는자신의일생에서가장영향을끼친인물은대삼영과사복이라고말할정도로상해에서사복과의함작이산록태치에게강한인상을남겼다.<sup>105</sup> 산록태치는평소에중국인동료들과에스페란토를사용해대화를나누었으며, 그래도불분명하면한자로필담을나누었다고전한다. 이처럼에스페란토는아나키스트의국제교류와연대를가능케하는언어적도구로이용되었다. 그후그는대삼영이「근대사상」(월간)을창간하고「평민신문」(일간)을복간하자, 대삼영을돕기위해일본으로귀국했다.<sup>106</sup> 사복은산록태치와이별할때, “무정부주의는무강권이존란이아니다 (크로포트킨의말). 재산은장물이고자본주의는도적이다 (프루동의말). 친애하는벗산록을위해, 사복”이라고쓰글을기념으로선물했다.<sup>107</sup>

이만남을인연으로산록태치는중일아나키스트의교류에큰발자취를남겼다. 예를들어 1922년산록태치는대삼영의위조여권을만들기위해중국에건너와북경과상해에서활동했다. 북경에서는주작인의집에머물며경매구 (景梅九) 등과접촉했으나여권구입은실패했다. 다시상해로내려온그는화광병원의등몽선 (鄧夢仙) 과접촉했다. 이때중국아나키스트그룹무정부주의자동맹 (AF, 1922년 4월)에가입하거나아나키즘성향의대동당 (大同黨, 혹은홍아사나구국단과같은유사단체)이라는조직에가입한기록이남아있다.<sup>108</sup> 그리고산록태치는 1927년상해노동대학의초청에응해에스페란토교원자격으로다시참행했다. 이런단

<sup>104</sup> 樋口進 〈巴金和無政府主義〉, 『巴金研究在國外』, 湖南文藝出版社 1986, 268면 재인용.

<sup>105</sup> 大島義夫·宮本正男 『反體制エスペラント運動史』, 三省堂 1975, 32~34면.

<sup>106</sup> 近藤憲二, 앞의책 18면.

<sup>107</sup> 玉川信明 『中國アナキズムの影』, 三一書房 1974, 93면.

<sup>108</sup> 산록태치의중국회고는「平民新聞」第 49 號 (1947. 11. 21) 부터상해의민성사, 대삼영의여권, 동지경매구, 삼무주의, 동양의해방등의제목으로몇차례실렸다. 또한「自由聯合」第 97 號 (1964. 4. 1) 부터몇차례대삼영과관련한회고록이실렸다.

동과정신노동의결합을강조하면서공독주의를실천하도록했다. 입달학원도교육으로사회를개조하려는이상을실천에옮긴학교라고말할수있다. 이곳은노동대학에비해자유로운분위기여서암좌작태랑과석천삼사랑, 유자명 (柳子明), 유서 (柳絮) 등이교원이나손님자격으로체류한바있다.

북경성천주秦州는 1920~30년대중국아나키스트의활동거점의하나로, 특히 1920년대후반에이곳은국민당좌익의수중에있던까닭에전국각지의아나키스트들이위험을피해모여들었다. 오랫동안천주지역은아나키스트의무릉도원이라고불렸다. 1927년 5월초진망산 (秦望山) 은천주에농민협회를조직하고농민자위대를건립해무장투쟁의본거지를만들고자했다. 그는토비와공산주의자로부터농촌을차지적으로방위하기위해서간부급인재를양성할필요를느꼈다. 이에상해로올라와동지들에게응원을요청했다. 오극강과양용광, 암좌작태랑, 이정규, 이을규등은천주를지원하기로결정하고, 이사업을노동대학일과병행하기로의견을모았다.<sup>83</sup> 이에따라만들어진민단훈련소는토비의피해를막기위해청장년을훈련시켜고향을스스로지키도록만든다는목표로출발했다. 실제로는중국과조선, 일본의아나키스트가중심이되어아나키스트투사를양성하던생활공동체이자군사학교의성격도가지고있었다. 훈련소의중심인물은진망산이었고, 이을규·이정규형제가참모소장으로있었다.

암좌작태랑은천주에무장근거지를확보한후‘동아무정부주의자대동맹’을조직하여동아시아각국의아나키스트와함께공동투쟁하기를희망했다. 그래서징병에반대해중국으로탈출한식자공출신의아나키스트적천계래 (赤川啓來) 와함께천주로내려와민단훈련소에안주했다. 이들의실험은비적들의대규모공격과지역군벌의방해로실패하고 10여개월만에해산할수밖에없었다. 결국 1928년 5월초, 암좌작태랑, 적천계래등두명의일본인과이을규, 이정규, 정화암 (鄭華岩) 등세명의한인은상해로돌아갔다. 그런대상해도착후곧바로적천계래는일본영사관경찰에체포되어일본으로압송되었고, 곧이어이정규도일경의함정에빠져국내로압송되는불운을겪었다.<sup>84</sup>

1928년이후에도천주에서는여전히아나키스트활동이이어졌다. 교육운동의예를들자면, 여명고중黎明高中과평민중학平民中學의사례가주목할만하다. 진망산과양용광, 범천균 (范天均) 등이여명고중을만들어활동을전개했다. 여기에는중국인아나키스트위혜림 (韋惠林)·진범여 (陳范予)·주세 (朱洗), 한인아나키스트유자명·유서, 대만인채효건·정영백 (鄭英伯) 등이교사로있었다. 여명고중은파급도방문한적이있었는데, 여기서파급은프루동의『소유란무엇인가』를일부번역했다. 얼마후다시소추도 (蘇秋濤) 가평민중학을만들었는데, 여명고중과교육이념이같은자매학교였다. 이학교의교원은프랑스와일본에

<sup>83</sup> 정화암 『몸으로쓰는세사』, 자유문고 1992, 78~79면.

<sup>84</sup> 秦望山 〈조선과일본아나키스트들이천주에피난하여일으킨사건들〉 (박환, 앞의책 104~12면) 참조.

도매일 3 시간노동실습을했다.<sup>81</sup> 필수과목에 에스페란토와 프랑스어가 포함된 것이 특징의 하나이며, 사회문제와 관련한 과목들도 무척 많았다. 노동대학에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통한 사회 개혁을 주장한 것은 크로포트킨의 교육철학은 물론 구신세기파의 교육을 통한 혁명이라는 주장과 동일 맥상 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럽의 노동대학과의 뚜렷한 차이라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대학이 아니라, 삼민주의를 매개로 아나키즘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상 아래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만든 대학이라는 점이다.<sup>82</sup> 이곳은 신문화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아나키즘 교육 이상을 무려 5 년 가까이 실천한 곳이라는 점에서 그의 의의가 높다.

노동대학에 참여한 암작태랑은 본래 이 대학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가 비판한 요지는 이석증과 오치휘, 채원배 등은 이미 국민당의 원로로 타락한 아나키스트들이라는 점,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노동대학은 공현실정치와 타협해 반동 세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 아나키스트가 노동대학에 참여하면 결국 국공분열 같은 상황을 맞아야 하는 아나키스트가 희생될 것이라는 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등몽선과 심중구, 오극강 등은 이석증과 오치휘가 주장하던 “연성자치, 분치합작”은 아나키스트의 자유연합적 사회 조직과 유사하고, 권력과 타협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나 친원칙주의가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오히려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기관을 만들어 혁명 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정규 등도 순수한 아나키즘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할 것에 동의하며 설득에 나섰다.

당시 장개석의 국민 정부는 공산당의 노동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아나키스트를 이용하고자 했다. 국민 정부는 노동대학을 국민당의 필요에 맞게 개조하려 했고, 대학 내 아나키스트들이 이에 저항했다. 특히 대학원제의 실패와 교육부의 알력은 오랜 친구였던 이석증과 채원배 간의 우정에 금이 가도록 만들었고, 노동대학 총장 인역배기와 교육부장 몽린 간의 갈등도 점차 깊어졌다. 게다가 노동대학 내부의 불만은 학내분규로 표출되었다. 노동대학은 상해사변(1932년 여름)이 발발하자 일본군에 의해 교사가 소실되었고, 다시 회복했으나 국민당은 학내분규를 이유로 폐교시켰다. 이 대학은 사실상 1920년대 말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의 집결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노동대학 주변에는 5·4 운동 때 활약한 아나키스트 광호생(匡互生)이 설립한 입달학원 立達學園이 있었다. 이 학원은 노동대학처럼 학생들에게 육체노

<sup>81</sup> 畢修勺 〈我信仰無政府主義的前前後後〉,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22~38면.

<sup>82</sup> Ming K. Chan & Arif Dirlik 의 앞의 책에 대한 한서평에서는 중국 혁명가들이 공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한 것은 유교적 전통에서 교육을 중시하던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면서, 노동대학의 실패 원인을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한 사실에서 찾는다 (박제균 〈서평: Ming K. Chan & Arif Dirlik, School into Fields and Factories—Anarchists, the Guomindang, and the National Labor University in Shanghai 1927~1932〉, 『동아시아 역사 연구』 제 5 집, Duke University Press 1991, 159~60면).

편적인 기록들은 중일 아나키스트 간의 연대 정신이 행덕추수의 시대를 이어 대삼영의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09</sup>

사복 이후에 출간된 「민성」에도 일본 관련 기사는 계속 실렸다. 행덕추수의 일생을 다룬 번역문과 「평민신문」이 2, 3 호 계속 인쇄되고 있다는 기사, 일본 에스페란토 협회의 주장에 대한 소개가 연재되었으며,<sup>110</sup> 중국에 온 한 일본인 아나키스트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도 있었다.<sup>111</sup>

신문화운동 시기 중국 아나키스트의 소식은 「노동운동」 등을 통해 일본에도 전해졌다. 「노동운동」(제 2 차) 복간호에는 1920 년을 전후한 중국 사회의 변화상을 다룬 기사와 대만의 자치 운동을 다룬 기사, 조선인의 독립 운동을 다룬 기사 등이 실렸다.<sup>112</sup> 이런 기사를 쓰고 진정도(高津正道)는 중국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중국에서의 무정부주의 운동〉이라는 기사도 썼다. 여기서는 1912 년 광둥에서 유사복이 혁명학을 만든 것을 중국 아나키즘의 출발로 잡아 1919 년 5·4 운동을 전후해 아나키즘이 중국 사회에 큰 호소력을 얻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황릉상과 구성백 등의 아나키스트가 활동 중이고 여러 지역에 아나키스트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사회 운동의 양대 세력이 불세비즘과 아나키즘이라고 했다.<sup>113</sup> 그는 “산업 발전이 늦은 중국에서 혁명도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라며, 본인은 애국심이 불세비즘과 결합하는 중국의 변화에 크게 주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노동운동」(제 3 차) 복간호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진춘배(陳春培)의 〈중국의 무정부주의〉라는 장문의 글이었다. 신문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하는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허무주의 사상과 신세기파의 사상, 사복의 혁명학 사상으로 중국 아나키즘을 소개했다. 특히 사복의 「민성」 잡지와 그의 죽음, 심사의 계율 등을 설명하고, 사복의 죽음 후 광주에서의 노동 운동과 기타 지역의 상황을 간략히 소개했다.<sup>114</sup> 이 글은 일본에 중국의 아나키즘 운동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대표적인 기사이다.

<sup>109</sup> 川上哲政 〈大杉榮のみた中國〉, 『初期社會主義研究』 第 15 號, 2002 참조.

<sup>110</sup> 〈幸徳秋水君行畧〉, 〈最近日本黨人舉動〉, 〈日本之無政府黨世界語會〉, 『民聲』 第 25 號, 1915. 6. 1.

<sup>111</sup> 〈日本無政府黨一瞥〉, 『民聲』 第 29 號, 1916. 12. 28.

<sup>112</sup> 高津正道 〈新支那の勃興〉, 『勞動運動』 第 1 號, 1921. 1. 25; 〈臺灣の自治運動〉, 『勞動運動』 第 3 號, 1921. 2. 10; 〈朝鮮人とその獨立運動〉, 『勞動運動』 第 4 號, 1921. 2. 20.

<sup>113</sup> 高津正道 〈支那に於ける無政府主義運動〉, 『勞動運動』 第 8 號, 1921. 4. 3.

<sup>114</sup> 陳春培 〈支那の無政府主義〉, 『勞動運動』 第 11 號, 1923. 2. 10.

# 제 3 장 동아시아 아나키즘-볼셰비즘 합작과 분열: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1. 러시아 혁명의 영향

### 러시아 공산당과 아나르코볼셰비키

동아시아 사회는 20세기 초반에 각종 사회주의 사조를 수용했는데, 아나키즘 이마르크스주의보다 먼저 조직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사복(師復) 과대삼영(大杉榮)은 신문잡지의 발행을 통해 아나키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조직망까지 구축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는데, 여기서 마르크스주의란 엄격한 의미에서 마르크스 본래의 사상이라기보다는 레닌의 볼셰비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주의를 지향한 아나키스트나 공산주의자 모두 일국차원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혁명의 범주로 삼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과 일본에 처음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한 급진주의자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아나키스트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서양의 각종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엥겔스의 『가족·사유재산과 국가의 기원』 등을 인용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번역했다. 물론 아나키즘이 마르크스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소개가 이루어졌으나 마르크스주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후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른바 초보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등장한 다음에도 아나키스트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얼마간 우호적인 눈길을 보냈다.<sup>1</sup> 실제로 아나키즘은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유재산제도의 폐지와 생산수단의 공유, 사람의 개성과 자유 회복, 착취계급과 반동정부의 타도 등이 그렇다. 뚜렷한 차이점이라면 투쟁 방식에 있을 것이다. 이때문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의 합작(이하 아나-볼합작)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sup>1</sup> 아리프딜릭은 중국의 급진적 지식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받아들이는데 호조와 노동을 강조하는 아나키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나키즘은 중국 공산주의의 기원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1, 196~230 면).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이때 오치휘와 이석증은 근공검학운동과 유사한 방식을 먼저 식과 노동의 결합을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그 결과 상해 노동대학의 건립이 결정되었다. 이 대학은 신문화 운동 시기부터 전개된 공독호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국 내에서 최초로 건립된 정식 대학이었다. 본래 노동대학은 유럽 노동자들이 만든 사회주의 대학을 모방한 것으로, ‘학교의 농장과 공장화, 농장과 공장의 학교화’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꿈꾸었다.<sup>79</sup> 전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이석증과 채원배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대학은 단시일만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노동대학은 1927년 9월 상해 강만江灣에서 개학했는데,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학비는 무료였다. 이 대학을 세우는데에 구신세기파가 앞장섰기 때문에 다수의 중국인 아나키스트가 교원으로 담담했으며, 외국인 아나키스트도 적지 않았다. 대학교장은 이석증과 인연이 깊은 역배기(易培基)가 임명되었으며, 오치휘와 논쟁을 벌였던 「자유인」의 주필 심중구가 노동대학 소속의 노공농학원(勞工農學院)의 원장을 맡았다. 그밖에 교원으로서는 오극강 등과 같은 중국인인 물론, 프랑스인 자크르클뤼, 미국인 해리 하워드, 일본인 암좌작태랑·석천삼사랑·산록태치, 한인 이을규·이정규 등이 참여했다. 노동대학 사업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혁명주보」에는 이 대학에 대한 기사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인 〈노동대학의 목적과 사명〉에는 다음 같이 적고 있다.

노동대학은 장차 중국 농공(農工)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곳의 목적과 짝어 진 사명은 전 중국의 농공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대학은 장차 일체의 자산계급 호신부인 사상을 없애고, 농공으로 하여금 노동의 진가를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대학은 장차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을 해부하여 농공으로 하여금 격렬한 혹은 온건한 방법으로 기존 사회를 뒤집고, 비교적 합리적이고 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조직을 다시 만들 것이다. 노동대학은 장차 노동운동의 방향을 지도하고 노동자의 이상을 선양하며 노동자의 지식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단체 생활을 훈련시켜 노동자를 자치적인 인간으로 양성할 것이다. 이를 보자면 이곳의 목적과 사명은 지극히 위대하다. 노동대학이 제창하는 교육은 새로운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인데, 첫째 노동교육, 둘째 생활교육, 셋째 혁명교육, 넷째 전인(全人)교육이다.<sup>80</sup>

이 대학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조화\*평민교육\*교육과 정치의 분리’ 등과 같은 아나키즘 교육원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대학이었으며, 실제로 정규 수업 이외에

<sup>79</sup> 상해 노동대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서로는 Ming K. Chan & Arif Dirlik, *Schools into Fields and Factories—Anarchists, the Guomindang, and the National Labor University in Shanghai 1927-1932* (Duke University Press 1991) 가 있다. 이 책의 서문에는 노동대학의 의의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sup>80</sup> 碧波 〈勞働大學의 目的與使命〉, 「革命週報」 第 1 冊 合本, 1927. 7, 265~66 면.

은국내외에자신들이처한현재의혼란상태에도불구하고순수한이론의철벽을유지하고있으며, 일체의순수하지않은행동에참가하지않고, 한뜻으로무정부주의의목적을향해전진중이라고표명했다.”<sup>75</sup>라고실려있다. 그리고이들은국민당에가입한아나키스트에대해서는비판적인태도를보인다고도했다.

중국에서흑색청년연맹이만들어진것은분명해보인다. 왜냐하면 1930 년중국흑색청년연맹명의로발행한 「흑색청년」(제 6 호) 이남아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중국흑색청년연맹사천지부에서대삼영의죽음 7 주년을기념하는선언과중국흑색청년연맹이군국주의에반대하는선언등이담겨있다. 그밖에도바쿠닌의사상과농민운동및선전물문제제에대하기사가있다.<sup>76</sup> 잡지의소식란에는동지들간에연락이원활하지않다고말하고있지만사천지부라는명칭이있는것으로보아다른지역에도흑색청년연맹의지부가있었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연맹에서 1930 년 10 월 10 일자로발행한 〈중국흑색청년연맹삼십절경축선언〉도남아있는데, 여기서는국민당을신군벌로규정하면서어떠한정치수단도믿지않는다고선언했다.<sup>77</sup>

위의내용을종합해볼때, 흑색청년연맹은일본을그출발지로하는동아시아아나키스트연대조직으로볼수있다. 특히일본의식민지였던조선과대만에별도로연맹을조직하려는사실은분명하다. 이연맹의존재는일본아나키즘운동사에서도중요하지만대삼영사후동아시아차원의연대조직을추구했다는사실은그역사적의미가남다르다. 하지만연맹은조직내의의견차이로 1928 년을전후로코뮌적아나키스트와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로분열되었다.

### 상해노동대학과천주민단훈련소

중국대륙에서는아나-불논쟁이진행되던 1920 년전후만해도아나키스트의노동운동이전혀마르크스주의자에위축되지않았으나, 국공합작이이루어지고국민혁명이전개되는과정에서힘의열세현상이뚜렷해졌다. 이러한위기에대응해서새롭게출현하던젊은아나키스트들사이에서는사상의순수성을강화하려는경향이두드러졌고,<sup>78</sup> 다른한편으로는국민당과의결합을통해세력을만회하려는시도가가타다났다.

국민정부에참가한구신세기파는교육을통한아나키즘의확산에관심이많았는데, 상해노동대학의건립과정에서확인할수있다. 1927 년 4 월중순이석증과오치휘, 필수작등은상해에서집회를갖고“아나키즘을청년들에게어떻게선전할

<sup>75</sup> 〈支那同志及團體の近況〉, 「黑色青年」第 10 期, 1927. 7. 5.  
<sup>76</sup> 中國黑色青年聯盟「黑色青年」第 6 期, 1930(坂井洋史·嵯峨隆編『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第 8 卷, 綠蔭書房 1994).  
<sup>77</sup> 坂井洋史·嵯峨隆編『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別冊), 綠蔭書房 1994, 65 면.  
<sup>78</sup> 坂井洋史 〈二十年代中國安那基主義運動與巴金〉, 『巴金的世界』, 東方出版社 1996, 208 면.

러시아혁명이일어나자아나키스트가운데일부는최우선의과제가볼셰비키와의일시적인동맹을통해서라도백군의위협으로부터혁명을수호하는일이라고생각했다. 그래서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은백군에포위당할볼셰비키정권을지지했으며, 심지어아나키스트들중에는적군에복무하면서레닌정권과운명을같이한인물도있었다. 따라서이시기에는아나-불합작이활발했으며, 어떤의미에서는러시아혁명자체가아나-불간의합작품이었다. 혁명직후갈등시기가있었으나, 제국주의열강의간섭으로내전이시작되자다시양자간합작이이루어졌다. 레닌조차 1919 년 8 월내전이절정기에다다랐을때아나키스트들을이용할목적에서, 그들이야말로희생정신이가장풍부한사람들로“소비에트권력을가장헌신적으로지지하고있다”고치켜세웠다.<sup>2</sup> 러시아볼셰비키는국외의아나키스트에대해서장기간단결합작의방침을세우면서, 그들은가장좋은동지이자친구이며가장아름다운혁명가라고칭찬했다. 특히코뮌적아나키스트와의합작을환영했는데, 실제로이러한우호적인분위기에따라이른바‘아나르코볼셰비키’들이나타났다. 러시아에돌아온만년의크로포트킨도코뮌적아나키스트와국가주의적집산주의자(즉마르크스주의자)와의심각한갈등요소를잘알고있었지만일정한수준에서연합할수있다고믿었다.<sup>3</sup>

동아시아사회에공산당이창립되기전에아나키즘이초보적마르크스주의자에게상당한영향을미쳤다는주장은이미정설이되었다.<sup>4</sup> 그리고 1920 년을전후한시기에아나키스트와초보적마르크스주의자사이연합시기가있었다는사실도알려졌다. 양자의연합은전세계적으로나타난현상인데, 중국이나일본은물론이고조선과대만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여기서는중국의사례에제한해아나-불합작과분열및논쟁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sup>5</sup>

1917 년혁명이일어났음에도불구하고 1920 년초까지러시아공산당은시베리아지역을정치적군사적으로완전히장악하지못했다. 1920 년초이후에점차안

<sup>2</sup> 폴애브리치 『러시아아나키스트 1917』, 예문 1989, 121 면.  
<sup>3</sup> 李丹陽 〈AB 合作在中國個案研究 — 眞(理)社兼及其他〉, 『近代史研究』, 2002. 1, 68~69, 71 면.  
<sup>4</sup> 딜릭은 1917 년러시아혁명부터 1921 년중국공산당의창당까지를집중탐구하여기존의입장과는다른새로운해석을제시했다. 그는창당배경에관해러시아혁명과코민테른의영향을강조하는외부적요인보다는기본적으로중국내의움직임을중시했다. 하지만내부적요인을강조하면서도중국학계와는전혀다른관점을취하고있다. 즉이대조(李大釗)와진독수(陳獨秀)의역할을강조하기보다는 1917 년 10 월혁명이전부터널리퍼져있었던아나키즘과인민주의같은사회주의사조에주목했다. 특히그는아나키즘이야말로신문화운동의문화혁명론에큰영향을미쳤을뿐만아니라, 5·4 운동을거치면서사회주의가중국의새로운출로로비치자아나키스트의주장이더욱부각되었다고한다. 이런전제아래딜릭은중국공산당의창당은광의의사회주의자조직에서부터시작되었고, 코민테른의영향은결정적이지않았으며, 오히려아나키즘의영향이중요하다는결론을내린다(Arif Dirlık, The Origins of Chinese Commu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이병주 <최근美學界의중국사연구동향〉, 「大邱史學」 제 38 집, 1989, 381~85 면참조).  
<sup>5</sup> 아나키즘-볼셰비즘합작(ab 합작)은쌍방의공동목표와계급투쟁대상말고도러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의책력이중요한동인이었다(李丹陽, 앞의글 56 면).

정을 찾아 중국에 대한 불세비즘 선전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인지러시아 공작원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타난 시점은 1920년 4월이다. 하지만 그전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내정에 관한 첩보를 탐문하는 자도 있었고, 러시아 공산당 당내의 소속은 불분명하나 손문(孫文) 등 반군벌 정치세력에 접근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자도 있었다.<sup>6</sup>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중국 공작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러시아 공산당계 통과외교인민위원회계통, 코민테른계통 등이 있었다. 다가 1920년 4월에 러시아 극동 지역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완충 목적으로 성립한 극동 공화국 계통도 있었다. 이렇듯 러시아의 여러 기관에서 동아시아 혁명을 추진할 조직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했다.<sup>7</sup> 우선 러시아 공산당의 중앙 직속 기구로 1918년 12월 성립한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국과 극동 공화국 국경내에 1920년 3월 성립한 러시아 공산당 극동 주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동 주위는 성립 초기에 시베리아국의 하급 기관이었으나 얼마 후 개조하여 시베리아국과 동급 기관인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동국이 되었다. 시베리아국은 1920년 8월에 이르쿠츠크에 동방 민족처를 설립했다. 그런데 동방 민족처는 극동 공화국 정부가 휘하하는 원동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극동 공화국이 비록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독립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극동 공화국의 정식 외교 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린(M. I. Yurin) 대표단이 대표적이다.<sup>8</sup> 러시아 공산당이나 코민테른의 자금과 정보가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극동 공화국의 경내(치타 등)를 경유하지 않으면 곤란했다. 이 두 조직의 경쟁 관계는 코민테른의 결정에 의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극동 서기처를 극동 지역에 만들려 했으나, 시베리아국 동방 민족처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이르쿠츠크에 극동 서기처가 겨우 성립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sup>9</sup>

여기서는 러시아의 시베리아국이나 원동국 내에도 아나키즘적 경향이 농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원동국은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의 색채가 매우 강했다고 전한다. 예를 들어 극동 공화국 지도자이자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동국 위원장인 크라스노시코프(A. Krasnoshchikov)는 미국 망명 시 아나키즘 계열의 IWW 회원이었으며, 레닌의 지지에 힘입어 극동 지역의 실력자가 되었다. 그는 1918년 이동휘(李東輝)를 도와 한인사회당 韓人社會黨(1918)을 탄생시킨 공로자이기도 하다. 극동 공화국 교통부장도 지명한 아나키스트 샤토프(B. Shatoff)였다. 그는 아나키스트이면서 불세비키 정부를 지원한 대표적인 인물로

<sup>6</sup> 서상문 『프로메테우스의 별』, 백산서당 2003, 199면.

<sup>7</sup> 劉孝鐘 〈コミンテルン極東書記局の成立科程〉, 『初期コミンテルンと東アジア』, 不二出版 2007, 20면.

<sup>8</sup> 유린사절단에 대해서는 寺山恭輔 〈革命ロシアからの密使と中國〉, 『初期コミンテルンと東アジア』, 不二出版 2007, 193~99면 참조.

<sup>9</sup> 石川禎浩, 袁廣泉譯 『中國共產黨成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80~83면 〈中國共產黨成立史〉, 『一大'前後』 第3卷, 人民出版社 1984, 153~54면.

를 내 “단지 무정부주의 사상을 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자의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sup>71</sup>

대만의 경우, 흑색 청년 연맹이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이 존재했다. 대만 흑색 청년 연맹을 만든 인물은 대만에 거주하던 일본인 소택일(小澤一)이다. 그는 대만彰化에서 태어나 대북 제일 중학을 졸업하고, 동경에 건너가 수의 학교를 다녔다. 1925년 6월 잠시 대북 臺北으로 돌아왔을 때 대북 무산 청년 臺北無產青年 소속의 왕만득(王萬得) 과彰化 무산 청년 彰化無產青年 소속의 오창주(吳滄洲) 등 과 접촉을 가졌다. 당시 대상영의 죽음에 대만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소택일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다 구류에 처해 진경험이 있었다. 그 후 일본에서 노동 운동 勞働運動社에 참가하고, 동경 흑색 청년 연맹의 근등헌이, 암좌작태랑 등 과 접촉하면서 아나키즘 연구에 몰두했다. 1926년 말 군입대를 위해 다시 대북으로 돌아왔을 때 대북 무산 청년의 왕만득, 주화성(周和成), 왕시량(王詩琅), 홍조종(洪朝宗) 및彰化 무산 청년의 오창주, 채정상(蔡禎祥) 등 과 대만 흑색 청년 연맹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결국 연맹은 1926년 11월 17일(혹은 12월 17일) 대북시대정공원 大正公園에서 만들어졌는데, 대만에서 조직된 최초의 아나키즘 조직이라고 평가받는다.<sup>72</sup> 얼마 후 발표한 〈대만 흑색 청년 연맹 선언〉에서는,

모든 국가는, 공산주의자들이 숭배하는 소비에트 러시아조차도 단지 권력을 가진 국가일 뿐이다. 권력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이 있기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났다. 권력은 인류의 자아를 말살시켜 하나의 기계로 만들고 노예로 만든다. 이런 사실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최근의 예로는 비참한 지옥이 된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 자유란 주지는 물건이 아니라 마땅히 빼앗아야 하는 물건이다. 인류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직접 행동의 수단으로 폭력도 가능하며 암살, 폭행, 테러 행동이 가장 좋다. 우리들은 흑기아로서 죽을 것을 맹세한다.<sup>73</sup>

라고 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표시하고, 폭력 행위를 정당하게 받아들인 점은 이전의 대만 사회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대북 지역,彰化 지역, 가의嘉義 지역 책임자를 정하고 활동을 개시하려던 차나 동경 흑색 청년 연맹의 근등헌이 가 보낸 편지가 발각되면서 연맹의 존재가 드러났다. 일경은 전연 검거에 나서 44명을 체포했으며, 최종적으로 소택일을 포함한 네 명이 구형을 받으면서 조직은 와해되었다.<sup>74</sup>

한편 중국의 경우, 민봉사 民烽社 성원들이 1928년에 만들었다는 흑색 청년사 黑色青年社가 일본의 흑색 청년 연맹과 어떤 관계였는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지만, 「흑색 청년」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상호 관련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신문에는 “사상 단체로 상해에 순수한 무정부주의 민봉 연맹이 있다. 그들

<sup>71</sup> 布施辰治 〈朝鮮眞友聯盟事件〉, 『勞働運動』, 1927. 8, 24면.

<sup>72</sup> 王乃信等譯 『臺灣社會運動史—1913~1935年』 第4冊, 16~17면.

<sup>73</sup> 〈臺灣黑色青年聯盟宣言〉, 같은 책 18면.

<sup>74</sup> 같은 책 20면.

면서코빈적어나키즘이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흐름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련의 노선으로 이어졌다.<sup>66</sup> 「흑색청년」은 중국 관련 기사가 많은 것이 또 다른 특징이었다. 주로 중국 혁명을 지지하는 동시에 일본의 중국 출병을 반대하는 기사들로, 국공분열을 전후해 일본 사회의 중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관심은 중국 현황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직접 중국 대륙으로 건너와 중일 연합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허련은 일본을 넘어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등에도 지부를 조직하려고 했으며,<sup>67</sup> 중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보여 동아시아 규모의 국제조직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일한인이나키즘 단체 후우회 黑友會는 흑색청년 연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몇몇 회원이 연맹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연맹의 후원으로 조선문제 강연회를 개최해 일본 동지가 강연하기도 했다. 특히 팔태주삼은 후우회가 개최한 연구회에 자주 참여해어나키즘 이론을 강의했는데, 여기서는 사회혁명에 소극적인생디칼리슴을 비판하고 코빈적어나키즘을 소개했다. 육홍근과 김정근(金正根)은 일본의 흑색청년 연맹의 위원회에 후우회 대표로 참석해 한일간의 공동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활동은 후우회가 흑색운동사(1926년 5월)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얼마 후 흑색전선 연맹(1926년 11월)으로 다시 개칭하면서 곧바로 일본의 흑색청년 연맹에 가입했다. 심지어 흑색전선 연맹을 흑색청년 연맹이라고 기록한 자료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8</sup>

조선 국내의 경우 192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대표적인이나키즘 단체로는 후기 연맹 黑旗聯盟(1925년 3월)과 진우 연맹 眞友聯盟(1925년 9월)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본 유학 출신의 학생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한 것으로, 일본 흑도회 黑濤會와 조선 흑로회 黑勞會의 사상적 맥을 잇고 있었다. 후기 연맹은 동경 흑색청년 연맹에 가입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전 조선이나키스트 대회를 조직하려다 모두 체포되어 일찍 와해되었다. 후자의 경우 일본 유학생 김정근 등에게 해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학술연구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은 박열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그의 옥중 투쟁에 깊이 개입했다.<sup>69</sup> 진우 연맹은 김자문자의 장례식 문제로 대삼영 그룹의 일원이자 박열과도 인연이 있던 울원 일웅(栗原一雄)을 초청했다. 당시 울원 일웅은 흑색청년 연맹의 창립 취지와 통신문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략 1926년 4월 12일경 일본의 흑색청년 동맹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도 암살 파괴단을 조직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모두 검거되어 김정근은 옥사하고 울원 일웅은 징역 4년형에 처해지면서 와해되었다.<sup>70</sup> 당시 일본의 흑색청년 연맹은 조선 총독부 동경 출장소를 찾아가 공식 항의서

1919년 가을 적군 장교의 신분으로 백군의 침입에 대해 페트로그라드 방어를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0년 크라스노시코프의 요청에 따라 국공화국으로 건너왔는데, 그는 아나키스트가 '혁명의 낭만주의자'들이라면 인간은 이상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혁명파를 패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sup>10</sup>

## 러시아 혁명과 중국 아나키스트의 접촉

중국의 급진주의자와 러시아 볼셰비키와의 접촉은 우선 천진 지역에서 나타난다. 1919년 여름 장차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가 될 북경대학교 교수 이대조(李大釗)는 천진에 가서 보트만(N. Bortman)이라는 러시아인을 만났다. 보트만은 러시아 공산당원으로 1919년 3월 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천진으로 와 활동하고 있었으며, 훗날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 국동방 민족주의 임의인물이다. 이때 그는 이대조에 게리시안 공산주의와 노동운동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러시아 볼셰비키와 중국 초기 공산주의자와의 첫 번째 접촉이라고 알려진 사건이다.<sup>11</sup> 그렇다면 이대조가 만난 보트만이 정말 최초로 접촉한 러시아 혁명가였을까? 그리고 보트만이 하필이면 천진이라는 도시에서 이대조를 만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당시 천진은 중국 최대의 구황 러시아 조계가 있던 지역으로 여러 부류의 러시아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공산당원은 물론 아나키스트도 있었다. 북양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천진에서 러시아 과격당이 기관을 설치하고 활동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18년부터 천진에서 활동한 천진 대학교 수인 폴레보이(S. Broway 또는 S. Polevoy)나 북경에서 활동한 북경대학교 교수인 이바노프(A. Ivanof) 등 몇 사람이 그런 과격당의 일원일 것이다.<sup>12</sup> 러시아 공산당은 보트만을 파견하기 전에 이런 재중국 러시아 교민을 통해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 연구자의 고증에 따르면, 이바노프야말로 이대조와 최초로 접촉한 러시아 혁명가라고 한다. 이바노프는 코빈적어나키즘과 노동조합적어나키즘 사상을 가진 인물로 1907~17년 사이 프랑스에서 크로포트킨과 함께 활동했다고 전한다. 그는 1917년 2월 혁명 후 러시아로 돌아온 다음, 같은 해 9월 프랑스에서 배운 중국어 실력 때문에 케렌스키 정부의 외교 대표로 북경에 파견되어 러시아 공사관에서 통역으로 일했다. 이바노프는 중국 문화를 연구하는 한 학자이자 재북경 프랑스 어사

<sup>10</sup> 폴애브리치, 앞의 책 121~23면. 크라스노시코프는 1921년 모스크바로 소환되었고 1924년 공금 명령죄로 총살되었다.

<sup>11</sup> 당시 중국에 와서 활동했던 러시아 공산당원 물러(A. A. Muller)의 회고록에서 언급한 사실이다. 그가 1919년 9월 천진에 왔을 때 이미 이곳에 와 있었던 보트만이 천진과 북경 일대의 진보 청년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다수가 중국 아나키스트였으며 그중 이대조도 있었다는 것이다(李丹陽, 앞의 글 52면).

<sup>12</sup> 馬連儒 『風雲際會 — 中國共產黨創始錄』,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63면.

<sup>66</sup> John Crump, 碧川多衣子譯 『八太舟と日本のアナキズム』, 青木書店 1996, 90~94면.

<sup>67</sup> 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173, 176면.

<sup>68</sup> 김영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 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2008, 174~76면.

<sup>69</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185면.

<sup>70</sup> 近藤憲二, 앞의 책 62면.

회주의잡지 「북경보」의편집주필이었다. 러시아에서 10 월혁명이일어나자혁명열렬히지지했으며 1919 년 9 월부터북경대학에서러시아어와프랑스어를강의했다. 이무렵까지만해도중국에는아나키스트말고는사회주의를선전하는세력이별로없었다. 따라서이바노프같은러시아인의영향아래북경대학에재직했던이대조가마르크스주의를이해했을가능성이높다.<sup>13</sup>

그런데주목해야할또다른인물은바로천진에있던폴레보이다. 그도여러단편적인기록에서러시아공산당원이자아나키스트로묘사되고있다. 천진의구러시아조계에거주했기때문에자연스레이대조와보트만이만나는데중개인역할을했다. 폴레보이는이바노프처럼러시아한학자로중국고전문학특시 『시경』을연구하고있었다. 그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중국인들과왕래하며중국어를배웠고1918 년후반에천진대학교수로부임했다. 폴레보이는천진의영자신문 「화북명성보」와관련있다고알려져있다. 얼마후이대조와알게되어그의소개로북경대학러시아어강사를하며천진과북경을오가며중국상황을파악했고, 일부급진적인중국인들과꾸준히접촉했다. 그는러시아공산당원이북경에오기위해서거치는중요한연락거점이자영향력있는소개인이었다.<sup>14</sup> 폴레보이는이대조에게모스크바에서보내온마르크스주의관련소책자를건네주었고, 청년들이러시아로유학을가는문제를상의해주었다. 특히중국아나키즘관련자료를검토하다보면산발적이거나그의존재가자주나타난다. 이러한사실은보트만과이대조의만남이전에러시아혁명이와중국급진주의자와의접촉이이미있었음을알려준다.<sup>15</sup>

우리가주목할사실은러시아볼셰비키와중국아나키스트의직접적인접촉이늦어도 1919 년이전부터시작했으며, 천진아나키스트그룹진사眞社의강반약(姜般若)이라는인물이아마도중국에서가장일찍볼셰비키와접촉한인물일것이라는점이다.<sup>16</sup> 실제로 1918 년천진에는진사라는아나키스트단체가출현했으며, 다음해여름과가을사이에 「신생명新生命」이라는잡지를출판했다. 이단체는천진에서활동하던강반약이남경의아나키스트그룹군사群社의양지도(陽志道), 허진풍(許眞風) 등과함께처음조직했으며, 북경의아나키스트그룹실사實社의황릉상(黃凌霜) 도천진에와서 「신생명」을편집하는데참여했다. 그렇다면천진의진사는천진과남경, 북경의아나키스트들이연합한단체로도볼수있다. 이청년들이러시아혁명이와일찍부터접촉했을가능성은매우높다.

<sup>13</sup> 李丹陽 〈最早與李大釗接觸的蘇俄代表 — 伊万諾夫〉, 『中共黨史研究』, 1999. 4, 88~90 면.

<sup>14</sup> 馬連儒, 앞의책 82 면.

<sup>15</sup> 폴레보이는천진에온보이틴스키를만나중국공산주의운동의현황과진보인사들을소개했으며, 두편의중국상황에관한보고문을썼다. 1920 년부터 1921 년사이에중국공산당창당공작에참여하여코민테른(임시) 동아서기처북경혁명국의중요인물이된다(張國燾 『我的回憶』 第 1 卷, 東方出版社 1991, 85 면; 寺山恭輔, 앞의글 199~203 면),

<sup>16</sup> 李丹陽, 앞의글 45~46, 53 면.

한편 1920 년대후반오치휘는여전히삼민주의로국민당을건설하는것이아나키즘사회로나아가기위한교량이라고믿고있었다. 그는삼민주의의핵심은민생주의에있으며, 민생주의가충실히실행되어생산력이고도로발전하면무정부대동사회에다다를것이라고말했다. 오치휘는‘전체인민의혁명’을제기하면서,<sup>63</sup> 손문의“혁명이란한두계급에의해서가아니라지식인, 노동자, 농민, 상인계층을포함한전체인민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라는말을자주 인용했다. 그의주장은국민당좌파의계급투쟁론을공격하기위한것이었으나, 이른바‘전체혁명론’은아나키즘운동을통제하는자기모순의요소를안고있었다.

### 3. 1920 년대말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연대활동

#### 흑색청년연맹

일본에서는 1925 년초부터프롤레타리아계급정당을만들려는기운이거셴다. 프롤레타리아의정치운동에반대하던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들이정당운동을하는것을저지하기위해최초의전국적인연합단체인동경흑색청년연맹을만들었다. 동경흑색청년연맹은 1926 년 1 월 31 일관동지방의 17 개의아나키즘단체와 7 개의노동단체가연합해 700 여명의대표로만든조직이다. 창립대회후제 1 회연설회를개최했는데, 경찰이통제하자이에반발해가두시위를벌이다일곱명이투옥되기도했다.<sup>64</sup> 이들은“노동자의해방은노동자 자신의손으로해야한다”는슬로건아래행덕추수와대삼영의유지를이어받아의회중심의정치운동이아니라노동자의경제적직접운동에따른순정아나키즘을표방했다. 그리고정치에참가하려는프롤레타리아계급의정당운동은민중을죽음으로몰아넣는행위이자인류에대한최대의죄악이라면서, 일체의해방운동은개인의생명력으로부터나온경제적행동이여야한다고주장했다.<sup>65</sup>

이연맹은전국적인조직을추구하여관서흑기연맹과중부흑색연맹이차례로결성되었고, 일본의북해도와동북지역등일본전역에지부가조직되었다. 1926 년 4 월부터기관지로 「흑색청년」을발행했는데, 초기기사는주요계급투쟁에초점을맞추고있었고자신들은혁명적소수자라는인식을가지고노동쟁의에깊이관여했다. 그런데 1927 년여름무렵팔태주삼의이론이후련黑聯에영향을미쳐기존의노동조합적아나키즘경향을비판하고단시간내에순정아나키즘으로바뀌

<sup>63</sup> 1929 년오치휘는아나키즘이상사회의실현을위한삼대혁명三大革命을제창했는데, 교육혁명과물질혁명, 생육혁명이그것이다. 그는삼대혁명을완성시키기위한전제로과학의발달을강조했다(吳稚暉 〈讀料汪先生分共以後的噉言〉, 『吳稚暉先生文粹』 第 1 冊, 117~18 면).

<sup>64</sup> 近藤憲二, 앞의책 64~65 면.

<sup>65</sup> 警保局保安課 〈黑色青年聯盟二關スル調〉, 『アナキズム』(續-現代史資料 3), みず書房 1988, 537~38 면.

이석증의 〈나의정치철학중당파관〉에서는중국의학파를법가와유가, 도가의세가지로분류했다. 그의주장에따르면법가는패도정치이자강권정치를말하는데, 중국의경우이사상상양, 진시황, 서양의경우파시스트나러시아공산주의의전제주의에각각비유할수있다고보았다. 유가는왕도정치이자평화정치로규정했다. 과거중국의요순, 공자나서양의민주주의정신이이러한것들이고, 현재에는순문의삼민주의와루소의정신이이와유사하다고보았다. 그리고도가는인도정치로무치를말하는데, 중국고대의아나키즘, 즉노장사상과비슷하다고보았다. 오늘날에는서양의톨스토이나르클뤼의사상에비유될수있다고주장했다. 이석증은유가와도가의합작을통한법가의극복을희망했다. 이것은전통의재해석에따라혁명이론을재구성한것이다.<sup>59</sup> 결국이글은공산주의는나쁜것으로, 삼민주의는비교적좋은것으로, 아나키즘은가장이상적인사상으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는세계혁명이란프루동주의의마르크스주의타도, 중국혁명이란삼민주의의공산주의타도라는구도를설정하고, 아나키즘과삼민주의의합작으로공산주의에공동대항할것을주장했다.

이석증의이런논조는「신세기」시절부터 1920년대말까지파리아나키스트가해석한아나키즘이론의최종적인결과물로볼수있다. 신세기시절의격렬한반전통주의가이시기에이르러크게퇴색한사실은보면무척놀랍다. 하지만그의주장은공산당과국민당좌파는물론당중심의국가통합을추구하는국민당우파어느쪽에게도불만스러운것이였다. 점차아나키즘활동이국민당의강령아래놓이게되면서아나키스트의계급투쟁에대한반대는오히려국민당내아나키스트의활동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sup>60</sup>

젊은아나키스트들은「혁명주보」의선전을그대로받아들이기에어려웠다. 당시프랑스에있던파공은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간행되던「평등」이라는잡지를빌려첨예하게비판했다. 그는혁명주보사편집자에게직접편지를보내“나는「혁명주보」의주장을반대했으며, 지금도반대한다. … 비록나도무정부주의자이지만”<sup>61</sup>이라고했다. 그리고일본의흑색청년연맹에서출판한「흑색청년」에서도“중국의청년아나키스트들은자신들과남경정부내에기생하는이석증, 장계일파의프루동주의와는어떠한관계도없다고성명했다. … 이석증은자칭프루동주의를신봉한다고하는데, 이것은단지공산당식의노동운동을쫓아내려는남경정부의교활한책략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sup>62</sup> 이처럼원론에충실한아나키스트는국민당에가입한이른바정당파아나키스트에대해급지않은시각을보내고있었다.

<sup>59</sup> 李石曾 〈政治哲學中之黨派觀〉, 「革命週報」第 24 號, 1927. 10. 9.

<sup>60</sup>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1, 276~78 면.

<sup>61</sup> 〈寄‘革命週報’編者的信〉, 「革命週報」第 34 期, 1927. 12. 18.

<sup>62</sup> 〈海外飛報. 世界的運動 一支那〉, 「黑色青年」第 15 期, 1927. 12. 5.

1920년 2월중순황릉상이대조와진독수를데리고천진에왔는데, 일단경찰에쫓기는진독수를선박을이용해상해로피신시킨후, 어느날저녁폴레보이를방문했다. 이때폴레보이의제안과이대조의동의아래황릉상과강약반, 장지, 호유헌등이‘사회주의자동맹社會主義者同盟’결성을논의해합의에이르렀다고한다. 이것이나나-불합작의상징인사회주의자동맹이라는조직명칭이중국공산당사에처음등장하는시점이다.<sup>17</sup> 중국학계에서는이동맹의결성을통해이대조와진독수가중국공산당창립을위한탐색을시작했으며공산주의(사회주의)소조의출발점으로해석한다. 그래서중국공산당사에널리알려진“남진북이南陳北李, 상약건당相約建黨”이라는말이생겨났다. 하지만엄격히말하면사회주의자동맹은러시아인폴레보이의제안으로중국아나키스트및진보인사들이함께만든연합조직으로, 이대조와진독수가주동적으로만들었다고보기는힘들다.

동아시아급진주의자의거점이던국제도시상해도천진과북경처럼러시아조계지를중심으로다수의러시아인들이거주하고있었는데 1920년무렵에는수천여명에다다랐다는통계가있다. 당시러시아인들은기차를통해합이빈哈爾濱과천진등을거쳐상해로오거나혹은선박을통해블라디보스토크에서상해로곧바로올수있었다. 상해는블라디보스토크는물론일본을연결하는다양한항로가있어러시아인은물론한중일혁명가들의주요활동무대가되였다. 북경지역에이바노프나폴레보이가있었던것처럼상해지역에는더욱많은러시아혁명가들이활동하고있었다. 이가운데주목할만한인물로는리제로비치(Lizerovitch)와포포프(M. G. Popov), 포타포프(A. S. Potapov), 세메슈코프(Semeshkov) 일행, 아가레프(A. F. Agareff) 등이있다.

영국출신유대계러시아인리제로비치는 1917년부터상해로와서생활하고있었다. 그는 10월혁명후소비에테정권을옹호하면서상해를오고가던포포프, 아가레프등여러혁명가와연락했다. 실제로러시아혁명가들은상해에장기거주한리제로비치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는데, 그는중국인급진주의자나한인독립운동가들과두터운친분이있었다.<sup>18</sup> 리제로비치는비록볼셰비키는아니었지만공산주의를선전한것은물론영국제국주의를반대하는운동에심혈을기울이면서한중혁명의지지를이끌어내려했다.

1918년 5월러시아적군소속포포프라는밀사가러시아외교인민위원회의지시를받아정보수집을목적으로상해에왔다. 이때그가가명으로〈한러시아무산자로부터의호소〉라는글을한영문잡지에실었는데, 이것이러시아가중국에서 10월혁명을선전한최초의문헌이라고한다. 1920년봄다시상해에왔는데, 이때그는블라디보스토크의러시아학생이중국과한인학생에게보내는글을휴대하고있었다. 당시포포프는중국인친구이자저명한아나키스트인장묵지(張

<sup>17</sup> 章志 〈關於馬列主義在天津傳播情況〉, 北京大學圖書館·北京李大釗研究會編『李大釗史事綜錄』, 北京大學出版社 1989, 544 면.

<sup>18</sup> 李丹陽 〈紅色俄僑李澤洛維奇與中國初期共產主義運動〉, 「中山大學學報」, 2002. 6, 61~62 면.

墨池) 와 경매구(景梅九) 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장목지는 중국 공산당의 하나 인지나 공산당 支那共產黨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한인 혁명과 친분이 깊었던 사람이며, 경매구 역시 청말 일본 유학 시절부터 아나키즘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sup>19</sup> 포포프는 중국 공산당 창립과 관련이 깊은 「上海俄文生活報」 편집에도 참여했다.<sup>20</sup> 실제로 그는 중국에서 정보국을 세울 계획이었으며, 상해에 거주하던 손문을 만났고, 나중에는 장주漳州에 있던 ‘사회주의 장군’ 진형명(陳炯明) 도 만났다. 뿐만 아니라 상해의 여러 사회단체의 책임자 및 국민당의 고위 인사들과 관계를 맺어 그들에게 러시아 공산주의를 선전했다. 포포프는 아나키즘적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일본 사회주의 운동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고 전한다.

1919년 12월 상해에 온 러시아 공산당 당원이자 해군 중장인 포타포프 장군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1</sup> 그는 한인사회당의 한형권(韓馨權) 을 상해 임정의 사절단으로 레닌 정부에 소개해 거액의 모스크바 자금을 받도록 주선한 사람이기도 하다. 일본 당국으로부터 추방되어 상해로 건너와 러시아 혁명 기념 콘서트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포타포프는 상해에 체류하던 몇 달 동안 손문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당 인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1920년 4월 말에는 여운형(呂運亨), 포포프 등과 함께 진형명이 장악한 장주에 내려가 레닌의 친서를 전달하고, 소비에트 정부에 대해 소개했다.<sup>22</sup>

1919년 4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상해로 세메슈코프와 호도로프(Hodoroff), 클라싱(Klasing), 톨스토프(Tolstoff) 등 네 명의 볼셰비키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들은 상해에도 착하자마자 그해 9월경 세메슈코프를 중심으로 「상해아문생활보」라는 신문출판에 참여했다.<sup>23</sup> 러시아 공산당 블라디보스토크 책임자로 새로 부임한 빌렌스키 시비라코프(V. Sibiryakov)<sup>24</sup>와 상해의 세메슈코프는 협의 후 3천불에 이신문사를 전격 인수해 볼셰비키의 신문으로 만들었다. 신문사의 사무실을 거점으로 러시아 볼셰비키들이 잦은 왕래를 가지며 동아시아

<sup>19</sup> 장목지와 경매구는 조선 독립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장목지는 한때 「新大韓獨立報」의 기자를 역임한 바 있으며, 경매구는 박은식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포포프와 이 두 사람은 항일 운동에 매개로 상해 임정의 한인 독립 운동가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李丹陽·劉建一 〈英倫航稿—早期來華的蘇俄重要密使〉, 『中共黨史研究』, 1998. 5, 92면).

<sup>20</sup> 李丹陽·劉建一 〈早期來華的蘇俄重要使者—波波夫〉, 『檔案與史學』, 2002. 6, 54~56면.

<sup>21</sup> 포타포프는 1903~1904년 동안 한성주재 러시아 공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에 참여한 후 시베리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한인들과 교류했다. 그와 친분이 있던 한인 가운데 이름이 확인되는 사람은 이동휘와 안창호, 한형권, 장건상, 문창범, 이광수, 여운형, 김복동이다. 당시 국내의 「독립신문」(1920년 3월 1일자)에는 포타포프 회견기가 실려 있다(이해숙 〈상해 임시정부 참여 세력의 대소교섭〉, 『역사와 현실』 32호, 1999, 6면).

<sup>22</sup> 石川禎浩 『中國共產黨成立史』, 78면.

<sup>23</sup> 「上海俄文生活報」에 관해서는 李丹陽 〈「上海俄文生活報」與布爾什維克弔旗在華活動〉, 『近代史研究』, 2003. 2 참조.

<sup>24</sup> 본명은 블라디미르 드미트리예비치 빌렌스키로, ‘시비라코프’라는 가명으로 더 알려져 있다(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198면).

럽에는 오치휘를 대신하여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오치휘는 장개석에게 지나치게 접근해 있었고, 공산주의 노동 운동 탄압에 적극 참여했기에 국민당 내의 아나키스트에게조차 고상정성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당 가입을 거부하던 아나키스트에게 이들은 모두 거짓 아나키스트로 비치고 있었다.<sup>57</sup>

국민당 내 아나키스트들은 안국합작이 본격화되면서 청년에게 아나키즘을 전파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혁명주보」(1927년 5월)를 창간했다. 이 잡지는 이석증이 국민당의 자금으로 만들었으며 초대 주필은 한때 국민당과의 합작을 비판했던 신중구였다. 「혁명주보」는 아나키즘과 삼민주주의의 관계를 사회혁명과 국민혁명의 관계로 파악하고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의 필요성을 선전했다. 점차 국민당 보수파의 언론 자유 통제 정책에 반대하여 전면적인 아나키즘 선전을 시도했다. 이 잡지는 금지와 복간을 반복하다 1929년 9월에 제 110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비록 소책자 형식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호수를 발간한 잡지였다.

이석증은 「혁명주보」에 〈현재혁명의의의〉나 〈나의 정치철학 중당파관〉 등을 발표하여 아나키스트의 삼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을 정의하고, 국민당 내 아나키스트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현재혁명의의의〉에서 역사상 혁명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 단계인 군주혁명은 1898년의 변법 운동으로 달성된 혁명이다. 두 번째 단계인 민주혁명은 서구의 경우 미국·프랑스 혁명으로, 중국의 경우 신해혁명으로 각각 성취되었다고 보았다. 세 번째 단계인 계급혁명은 레닌의 러시아 혁명과 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중국의 경우 무한정부의 러시아화 정책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민생혁명이 바로 현재 진행 중인 혁명인데, 서구의 경우 프루동이 주장한 ‘신세기’ 혁명이며, 중국의 경우 손문이 주장한 삼민주주의 혁명이 민생혁명이라고 보았다.<sup>58</sup>

그런데 이석증이 프루동주의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주의, 중앙집권제 등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크로포트킨의 호조론도 프루동의 호조주의에 기원한다”고 설명한 대목은 중요한 사상적 변화를 보여준다. 그가 프루동의 새로운 정치 조직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크로포트킨의 총체적인 사회변혁을 이룩하자는 주장보다 중국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프루동이 정치가였다는 사실이 국민당원인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석증의 논리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퇴보적인 세력으로 규정되는데, 왜냐하면 혁명은 이미 3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혁명에서 아나키스트는 삼민주주의자와 연합하여 공산주의자에 대항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p>57</sup> 中國少年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 〈中國少年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聲明書〉,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811~12면.

<sup>58</sup> 李石曾 〈現今革命之意義〉,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編 『李石曾先生文集』(上), 中央文物供應社 1980, 236~48면.

주의를주장했으나반제의성공여부는민족주의가아닌자본주의의붕괴를통해가능하다고판단했다. 그는‘단계설’을반대하면서세상에는본래역사발전의필연성이라는것이존재하지않으며, 국민혁명과아나키즘혁명은서로아무런필연적인관계가없다고주장했다. 따라서오치휘가민주주의로부터노동자독재로가는것이아나키즘으로향한단계의하나라는주장에동의하지않았다. ‘공동적인실’역시반대하면서아나키스트에게는군벌뿐만아니라자본주의국가역시적일뿐이며국민당이혁명정당이라는사실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했다. 아나키스트는원래어떤형식의정부에도반대하므로국민당정부도아나키즘혁명의타도대상에넣어야한다고역설했다.

심중구는오치휘의안국합작주장에대해조목조목비판했을뿐만아니라, 더 나아가국민당과삼민주의를공격했다. 국민당에대해서는“국민당의전신인동맹회는혁명정당으로그목적은전제제도의전복에있었으므로민국의간판이라고말할수있었다. 그러나민국성립이후국민당은이미혁명성을상실하여군벌간의이권쟁탈에빠졌다”라고부정적으로평가했다. 오늘날의국민당은권력과재물을탐하는정당에불과할뿐만아니라, 국민당개조이후성립된국민당의조직은진정한민주원칙에위배된다면서국민당영도의국민혁명에반대했다. 삼민주의에대해서도손문의독창적인이론임을부정하고, 국민당의민족주의가동맹회시기에는실질적으로배만혁명론식의배타적인민족주의에불과했다고비판했다. 이러한민족주의가당시에는실현될수있었으나현재로서는부르주아계급에유리하고평민에게는아무것도좋은것이없다고보았다. 심중구의이런주장은오치휘가“동맹회의혁명정당성격을국민당이이어받았다”거나, “삼민주의는아나키즘과큰차이점이없다”고주장한것과대조를이룬다.

이논쟁은아나키스트에게던져진문제, 즉“원칙에충실할것인가아니면상황에따라진보세력과합류할수도있는가?”라는문제를표면화한사건이었다. 나아가이논쟁은중국아나키즘운동의향방을결정지은사건이었다. 오치휘는젊은아나키스트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안국합작의주장을견지하여적지않은아나키스트를국민당과의합작에끌어들였다. 논쟁의당사자가운데한사람인심중구조차 1927년무렵에는본격적으로국민당에협력하기시작했다.

이상을견지하여국민당에불참하느냐현실을인정하여국민당에참여하느냐의선택의문제는얼마후북벌의개시에따라국민혁명이본격화되자일부아나키스트들에의해다시금‘아나키즘과실제문제’라는토론으로발전했다. 북벌과정에서장개석(蔣介石)의쿠데타로국공분열(1927년 4월 12일)이일어나고, 최종적으로북벌의성공에따라국민정부가들어서자정치상황이급변했다. 국민당과공산당의양당구도로재편되면서아나키스트의입지가크게좁아졌다.

당시이석증은“삼민주의를수단으로무정부주의를목표로한다”는안국합작의주장으로아나키스트의국민당가입을권유하고있었다.<sup>56</sup> 특히 1927~28년무

아공산주의운동과관련한공작을진행했다. 예를들어 1920년 3월하순이신문에는중국과일본, 조선의운명은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모두외국의간섭을받고있다는내용의기사가실렸다. 같은시기여운형이주편을맡았던「신한청년新韓青年」에도“조선, 중국과소비에트러시아인민들이긴밀하게단합하여제국주의일본에대항하자”는기사가실렸는데, 이것은우연의일치라고보는힘들다. 실제로이런기사들이실린지오래지않아러시아인과한중일인사이에중일아한사국연합회中日俄韓四國聯合會라는단체가조직되어군벌을타도해자유와평등, 호조, 행복의목표에도달하자라는주장을 폈다고한다. 이사국연합회에누가참여했는지불분명하지만, 적어도러시아측에서포타포프와스테파니(V. A. Stepany) 등이참석했다는사실은확인된다.<sup>25</sup> 한편「상해아문생활보」에서출판한각종선전물은한중일언어로번역되어동아시아각도시에보급되었다.

세메슈코프일행중의호도로프는러시아재중동신사수석대표이자동신원신분으로활동하며중국에러시아동신사를설립하는사명을맡았다. 그는북상하여천진에서동신사를세웠으며천진과북경의건당공작에주력했다. 톨스토프는재상해러시아군관을대상으로한사업을, 클라싱은극동공화국에서북경정부에파견한유린사절단의대중국교섭업무를각각맡았다. 이들의노력으로만들어진신문사와통신사는중국공산당창립을위한근거지를제공했다.

1920년초부터재상해러시아볼셰비키의활동이두드러지는데, 특히아가레프라는인물을주목할만하다. 그는학생시절부터혁명운동에참여했으며, 한때블라디보스토크시장을역임한인물이다. 아가레프는리제로비치, 이한준(李漢俊), 여운형등과면식이있었으며, 「상해아문생활보」의편집도담당했다. 특히그는앞서언급한호도로프, 세메슈코프, 클라싱등과함께상해주재러시아총영사의일을대행할임시위원회를만들고자신이위원장이되었다. 아가레프등은러시아혁명을경축하는콘서트(1920년 3월 15일)를개최해소비에트러시아정부에대한충성을맹세했다. 아마도이무렵아가레프는리제로비치를통해한인독립운동가를소개받은듯싶는데, 결국이런인연이앞서언급한사국연합회의결성으로이어진것이다.<sup>26</sup>

위에서간략하게소개한바와같이중국에거주하던러시아혁명가들은그레고리보이틴스키(Gregory Voitinsky) 일행이중국에오기전부터나름대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었으며, 이런배경아래중국공산당창립공작이진행되었다.

<sup>25</sup> 〈過激派在滬活動之查禁 — 在滬組織中日俄韓四國聯合會〉, 「新聞報」(上海), 1920. 5. 5(李丹陽, 같은글 17~18면재인용).

<sup>26</sup> 1920년봄상해에서한인혁명가들이러시아인, 중국인과함께삼이협회三二協會라는아나키스트단체를만들어선전작업을했다고한다. 이단체가사국연합회四國聯合會와어떤관련이있는지현재로서는불분명하다(이호룡 『한국의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150~51면).

<sup>56</sup> 陳登才 〈房門范天均先生的紀錄〉,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43면.

## 2. 아나키즘-볼셰비즘합작

### 북경지역

중국사회에서아나-불합작의 상징인사회주의동맹의실체와그활동을밝히기 위해 1920 년한러시아인일행의행보를따라중국을여행하는방식으로기술할것이다. 그들은다음아닌중국공산당을만드는데결정적인공헌을한보이틴스키일행이다. 보이틴스키일행이처음도착한북경에서부터상해를거쳐광주이동하는일련의여행과정과그들을둘러싼여러움직임을관찰하다보면우리는중국에서아나-불합작의의미를읽을수있다.

중국에대한공작은러시아공산당이코민테른보다더일찍착수했다.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은 1919 년 9 월극동에서의정보수집을포함한혁명업무를전담할대표를파견했는데, 빌렌스키시비라코프가바로그인물이다. 정치국은러시아공산당원동국산하블라디보스토크분회를빌렌스키시비라코프에게맡겼고, 이분회를모태로삼아해외공작처라는기관을설립했다.<sup>27</sup> 해외공작처는반지하조직상태에있었던원동국의유력인물인쿠슈나레프 (Kushnarev) 와사하야노바 (Sahyanova) 가중국혁명가들과연락을맺겠다는구상을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에보고하고그비준을요청한결과 1920 년 2~3 월중국동의블라디보스토크에설립된조직으로서실상중국공작전담기구였다.

같은시기북경에서는폴레보이의소개로하하로푸친이라는러시아인이이대조를만나공산주의조직건설을제안했다. 그의요청에대해이대조가진독수에게편지를쓰고진독수가이에동의하자, 하하로푸친은이소식을러시아로돌아가보고했다. 빌렌스키는해외공작처의업무를말자마자중국에대표단을보내기로결정하고, 대표단의책임자로젊은공산당원보이틴스키를선발했다. 빌렌스키는보이틴스키에게중국에서활동하는다양한국적의사회주의자들을중국부와조선부, 일본부를만들어흡수하고이를통괄하는‘중앙기관’을설치하라는사명을내렸다. 이중앙기관을빌렌스키는임의로‘코민테른 (임시) 동아서기처’라고불렀다.<sup>28</sup>

1920 년 4~5 월경보이틴스키일행은러시아기자단신분으로위장해천진을거쳐북경으로왔다. 보이틴스키에게주어진임무는“중국국내의상황을이해하고, 중국의진보세력과관계를맺으며, 동시에상해에코민테른동아서기처건립여부를고찰하는것”이었다. 여기서“중국의진보세력과관계를맺는다”는부분은러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이 1920 년초부터중국에서공산당창당과통일전선형성이라는두가지임무를동시에전개했다는역사사실과관련시켜볼때, 이들이중국에서의합작대상을물색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상해에코민테른동아서

둘째, 단계설段階說로, 아나키즘사회는곧바로실현되지않으며그사이에는몇단계과정을거쳐야한다는것이다. 아나키스트는모든혁명단계마다혁명의목적을잃지말고이를지원해야하는데, 군주제에서공화제로올아가는것은한단계이며, 현재는민주주의에서노동자독재로나아가는단계라고보았다. 아나키즘혁명은오랜시간이걸리므로혁명적순수성을지키면서현재의국민혁명단계에발맞춰국민당의혁명노력을지지하면점차혁명의진보를가져와아나키즘에한걸음더나아갈것이라는주장이다.

셋째, 공동적인설共同敵人說로, 아나키스트와국민당은공동의적, 즉군벌이있다는것이다. 양자가단결하여공동의적을타도하는것이바로국민혁명의임무이며이것은모든혁명가들에게유리하다고보았다. 오치휘는 1920 년대의국민당은새로운국민당이며혁명에공감하는정당으로인식했다. 만일훗날국민당이진보적요소를잃으면그때대항해도충분하다고설명했다. 오치휘는이것을“독으로독을공격하는법”이라는말로묘사했다.

오치휘대오치휘의답장은자신들의국민당참가는개인적인행동이아니라아나키스트집단의행동이며, 국민당개조를기점으로다른아나키스트도국민혁명에참여하자는것이였다. 국공합작의실현은오치휘로하여금안국합작의아이디어를발아시킨것으로보인다. 이서신논쟁을기점으로중국아나키스트내부에분열이일어나국민혁명찬성파와반대파로나누어졌다.

오치휘의국민혁명참가주장에대해적지않은아나키스트가반대하고나섰다. 당시노검파·모일파 (毛一波) 등의 「민봉」 과삼중구·오극강 (吳克剛) 등의 「자유인」 이대표적인아나키스트그룹이였다. 그중삼중구의 「자유인」 은프랑스에서나온잡지 「공여」 와합병한잡지로, 아나키스트와국민당의합작을반대하는 입장을취했다. 그들은자신들의잡지에여러편의글을실어오치휘의주장을반박했다. 철조 (鐵鳥) 라는필명으로쓴 〈무정부주의자와국민당〉 에서는오치휘가아나키스트라는사실자체에의문을제기하면서, 작자는“오치휘는 「신세기」 시절부터오늘날까지지정한아나키스트활동을했다고볼수없다”<sup>53</sup>라고극언했다. 가유 (賈維) 라는인물도오치휘를“무정부주의이론에문외한”<sup>54</sup>이라며비난을퍼부었다.

특히삼중구는 〈무정부주의자가국민당에가입할수있는가?〉 라는글을통해오치휘의주장에대해체계적인비판을가했다.<sup>55</sup> 삼중구는오치휘의 ‘강국설’ 을반대하면서, 국가를강력하게만드는것은아나키즘혁명에있어강력한적을만드는것이므로국가건설에참여하는것을반대했다. 1920 년대중반중국에서는민족주의가고조되고있었으나아나키스트는민족주의를평민을둘러싸고있는장벽으로인식하여적대적인태도를취했다. 아나키스트역시국민당과마찬가지로반제국

<sup>27</sup> 서상문, 앞의책 201~202 면.

<sup>28</sup> 〈威廉斯基 — 西北利亞科夫致共產國際執行委員會的信〉, 모스크바 1920 년 9 월 1 일 (李玉貞譯 『聯共·共產國際與中國 (1920~1925)』 第 1 卷, 大東圖書有限公司 1997, 8~9 면).

<sup>53</sup> 鐵鳥 〈無政府主義者與國民黨〉,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 (下), 763~64 면.

<sup>54</sup> 賈維 〈吳稚暉的無政府主義〉,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 (下), 790~94 면.

<sup>55</sup> 沈仲九 〈無政府主義者可以加入國民黨嗎?〉,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 (下), 771~89 면.

## 국민혁명을 둘러싼 아나키스트의 분열

신해혁명이 일어났을 때 장계(張繼)의 정치참여를 둘러싸고 사복과 오치휘의 서신논쟁이 있었다. 그 후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을 때, 구신세기파는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 즉 안국합작(安國合作)이라는 명분으로 대거 국민당에 가입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아나키스트의 정치참여 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1924년 1월 20일 광주에서 중국 국민당제 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려 국민당 개조(國民黨改組)가 실시되었다. 손문(孫文)은 오치휘와 이석증, 장계 등 5인을 중앙감찰위원으로 임명하고, 채원배 등 5인을 중앙후보감찰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장정강(張靜江)은 호한민(胡漢民)과 왕정위(汪精衛), 대계도(戴季陶) 등 24인의 중앙집행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은 젊은 아나키스트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저명한 아나키스트 오치휘와 이석증이 정당에 가입했고, 아나키즘 성향이 강한 채원배와 장정강, 장계 등이 집단적으로 현실 정치 무대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의 원론적인 정당관은 부정합한 이 사건은 곧바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논쟁은 화림의 서신에 대한 오치휘의 반박에서 비롯되었고, 심중구(沈仲九)의 비판 등이 이어졌다.

화림은 장계에게 글을 써서 “당신이 아나키스트라면 어떻게 국민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그리고 오치휘에게도 글을 써서 호한민이 “오치휘와 이석증, 장계 등이 아나키스트로서 국민당에 가입한 것은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이다”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sup>51</sup> 오치휘는 화림의 편지와 자신의 〈화림에게 보내는 글〉을 공개적으로 상해의 「국민일보」에 연재하여 화림의 비판에 대응했다. 그는 국민당에 가입한 것이 ‘주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목적은 아나키즘 혁명의 실현에 있다고 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 오치휘는 불이나 재가 되어도 국민당원이요, 동시에 나는 불이나 재가 되어도 무정부주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오치휘는 아나키스트가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하루빨리 다른 아나키스트들도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우선 국민혁명을 완성시킨 후에 아나키즘 혁명을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sup>52</sup>

오치휘의 〈화림에게 보내는 글〉에 나타나는 주장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국설(強國說)로, 아나키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업의 발전, 교육의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제국주의가 시행하는 현재의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며 강력한 정부 통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혁명이 성공하여 정치혁명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강대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져서 아나키즘 혁명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sup>51</sup> 吳稚暉〈致華林書〉, 王有立主編『吳稚暉先生文粹』第4冊, 上海全民書局 1929, 213면.

<sup>52</sup> 吳稚暉, 앞의 글 213~21면.

기처건립 여부를 고찰한다”는 부분은 코민테른이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하나로 한·중·일 3국에서 사회주의 선전 조직을 만들려는 것과 관련해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려던 것이다. 그들은 중국 국내의 상황을 파악한 후 대략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공산주의 소조를 건립하는 것에 협조해 장차 이러한 소조들을 모아 공산주의(사회주의) 정당을 수립한다. 둘째, 지식 분자 조직을 통해 노동자와 관계를 맺는다. 셋째, 각 혁명 파벌의 활동에 협조하는데, 여기에는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을 포함한다” 등이다.<sup>29</sup>

보이팅스키 일행이 북경을 방문할 즈음 신문화 운동이 한창이었으며, 아나키스트의 활동도 매우 활발했다. 이 시기 중국의 아나키스트 단체는 전국적으로 90여개, 잡지는 70여종에 다다랐다는 불완전한 통계가 있다. 그 가운데 북경의 경우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실사와 분투사 등 여러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 북경대학의 이대조역시 대학내 청년 아나키스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보통 이대조의 초기 사상에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아나키즘적 경향은 일본 유학 경험 말고도 북경대학에 있던 이바노프 같은 러시아 교수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sup>30</sup> 그래서인지 이대조가 1920년 3월 마르크스 학설 연구회(馬克思學說研究會)를 만들어 학생들과 공부할 때 어떤 사회주의 파벌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sup>31</sup> 보이팅스키 일행은 천진에도 도착해 중국 동북 레보이와 접촉해 중국 상황을 파악했으며, 그와 이바노프의 도움으로 북경의 이대조를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이대조의 주선으로 학생들과 좌담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북경의 진보적인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자료 부족으로 천진과 달리 북경 지역 사회주의 자동맹의 건립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북경의 이대조, 황릉상, 화림(華林), Broway 등”이 북경 사회주의 자동맹 공작을 담당하는 주요 인물이라는 단편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결성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sup>32</sup> 하지만 북경의 사회주의 자동맹과 이미 천진에서 결성되었던 사회주의 자동맹이 어떤 관계인지는 불분명하다. 어쩌면 천진과 북경의 지리적 근접성과 회원의 중복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같은 단체였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자동맹이 비슷할 시기 이대조가 만든 북경 공산주의 소조(이하 북경 소조)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얼마 후 장신부(張申府)가 북경대학 총장 채원배(蔡元培)를 따라 프랑스로 유학가자 북경 소조는 이대조와 장국도(張國燾) 두 명밖에 남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이때 돌연 여성 명의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북경 소조에 가입했다. 즉 황릉상과 진덕영(陳德榮), 원명

<sup>29</sup> K. E. 舍維廖夫〈中國共產黨成立史〉, 『‘一大’前後』第3卷, 人民出版社 1984, 155면.

<sup>30</sup> 李丹陽, 앞의 글 89~90면.

<sup>31</sup> 북경대학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에 대해서는 羅章龍〈回憶北京大學馬克思學說研究會〉,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室編『五四運動回憶錄』(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참조.

<sup>32</sup> 鄭佩剛〈無政府主義在中國的若干事實〉, 葛懋春·蔣傑·李興芝編『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61면.

웅(袁明熊), 장백근(張伯根), 화림(華林), 왕경림(王景林)(혹자는다섯명이라고함) 등이그들이다. 이청년들은프롤레타리아독재조항에는반대하지만프롤레타리아계급의혁명에는찬성한다는취지아래가입했다. 이로써사실상북경소조는아나키스트를중심으로여덟명으로확장되었다가, 다시모택동(毛澤東)의친구인나장룡(羅章龍) 과운대영(惲代英)의후배이자 5·4 운동을촉발시킨유인정(劉仁靜)이추가되었다. 그런데사회주의자동맹의구성원명단에황릉상과화림등의이름이있었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북경동맹과북경소조는매우밀접한관계를맺고있었음에틀림없다.<sup>33</sup>

당시북경대학에는아나키스트가마르크스주의자보다훨씬많았다. 아나키스트는자신들이마르크스주의자와서로다르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으나, 부르주아정권을타도한다든지자본주의체제를전복시키는사회혁명에대해서는서로공감하고있었다. 그런데나장룡과유인정등이북경소조에가입해마르크스주의적색채가강화되자아나키스트와의입장차이가두드러졌다. 결국진덕영을제외한나머지아나키스트들이북경소조에서탈퇴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흥미로운점은아나키스트들이소조에서물러날때에도별다른충돌없이화기애애하게탈퇴했다는사실이다. 그후아나키스트들은(무정부당) 호조단互助團이라는모임을중심으로모였고, 북경소조는중국공산당북경지부(1920년 11월말)로바뀌게되며, 곧이북경사회주의청년단北京社會主義青年團도만들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의개인적인우의는얼마가유지됐는데, 서로독자적인모임을가지면서도경우에따라당밖에서는협력했다. 예를들면북경대학의아나키스트들이정양문에서군벌정부를반대하는전단을살포하다가북경당국에몇사람이체포되자, 이소식을전해들은마르크스주의자들이적극적으로구명활동이나선경우가있다.

북경사회주의자동맹과(무정부당) 호조단의관계도서로밀접해보이나동일한조직인지여부는현재로서는확인하기어렵다. 게다가그들의활동이북경소조나사회주의청년단의활동과혼재되어있어명확한구별이힘들다. 이런복잡한상황은상해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중국의아나키스트가러시아인들이주도한사회주의자동맹에별다른충돌없이손쉽게가입할수있었던까닭은무엇때문일까? 그들은당시레닌의소비에트정부에대해아무런반감이없었던것일까? 우리는천진진사에서출판한『크로포트킨의사상』(1920)이라는번역서의서문을통해청년아나키스트들의생각을일부나마읽을수있다.

우리들은러시아의사회혁명에대해무산계급이전쟁(제1차세계대전)에대응한첫번째소리가지만중국혁명의선구라고생각한다. 그것은 19세기이래사회주의에대한의문에한가지해답을주었다. ‘소비에트정부 Soviet Government’

<sup>33</sup> 장국도의회고가북경소조내의아나키스트상황을이해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張國燾, 앞의책 105~106면).

로센코를통해에스페란토를배웠다고하며,<sup>46</sup> 그의글은국내「동아일보」에도실렸다.<sup>47</sup> 에로센코는 1923년볼러시아로영구귀국했다.

북경에서에스페란토와관련해주목할만한사건이라면, 전국세계어연합대회(1922년말)가북경대학에서열려무려 2천여명이참가한가운데세계어전문학교설립안이통과된일이다. 다음해, 북경대학의책임아래세계어전문학교가북경맹단학교孟端學校내에정식성립했다. 채원배(蔡元培)가겸임교장이었고, 이사로는채원배와노신, 에로센코등이있었다.<sup>48</sup> 이학교는의욕적인출발에도불구하고, 오래지않아학내분규로인해채원배교장과교사책임자인마서륜이사직하면서폐교되었다. 학내분규는부교장이자아나키스트였던경매구와교무를담당하던진곤산(陳昆山) 간의정치적갈등에서비롯되었는데, 이곳학생들은아나키스트와국민당, 공산당을지지하는학생들로나뉘어있었다.

1920년대에도욱활발해진에스페란토운동은파금(巴金)이라는걸출한아나키스트문학가를낳았다. 어린시절파금은「신청년」에실린에스페란토관련 기사를읽고처음흥미를느껴에스페란토를배우기시작했다.<sup>49</sup> 1924년무렵남경에서에스페란토를본격적으로공부할무렵, <대삼영저작연표>와<대삼영연보>를각각발표하면서아나키스트의길로들어섰다. 특히 1928년파리유학중에는호유지를알게되어영원한우의를맺고중국에스페란토운동의새장을열었다. 파금은“세계어는현실이지이상아니다. 그것은스스로성장하며꽃을피운다. 우리세계어학자들은선전가들이아니라생명을퍼뜨리는사람들이다. 문학은바로이러한생명을퍼뜨리는데필요한도구”라면서에스페란토가반드시인류공동의언어가될것으로믿는다고했다. 그는상해세계어학회이사를맡았고, 학회잡지「농광」의편집에도참가했다. 파금은에스페란토관련글들을꾸준히저술혹은번역하여중국에스페란토운동의상징적인인물이되었다.<sup>50</sup>

덧붙이자면양방현과유석심, 화림(華林) 등이활동했던남양지역에선허주(虛舟)가남양아나키동지사南洋安那其同志社(1922)에서활동기록이있고, 동방아나키스트동맹(1923)명의로아나키즘을선전한기록도있다. 게다가 1924년에는말레이반도에서아나키스트대회를개최했다고도전해져궁금하지만현재로서는구체적인상황을알수없다.

<sup>46</sup> 안중수 『에스페란토, 아나키즘그리고평화』, 선인 2006, 98면.

<sup>47</sup> 에로센코 <세계의평화(1), (2), (3)>, 「동아일보」 1924년 10월 13일자, 20일자, 27일자. 중국에서활동하던또다른러시아에스페란토주의자인노센트세리셰프의글도여러차례「동아일보」에실렸다(박환 『식민지시대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24~25면재인용).

<sup>48</sup> 侯志平主編, 앞의책 111면.

<sup>49</sup> 1920년부터한인고자성(高子性, 본명柳林)이성도고등사범학교에세계어반을개설하여에스페란토를가르쳤다. 이때파금은그로부터잠시나마에스페란토를배웠다.

<sup>50</sup> 許善述編 『巴金與世界語』,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참조.

전국각지에 에스페란토 학회가 만들어졌지만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곳은 바로 상해 세계어 학회였다. 이 학회의 활동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 같은 것들이었다. 먼저, 에스페란토 전문지인 「화성華星」이 「녹광綠光」(1922년 1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다시 출판되었다. 이 잡지 광고에는 “무력에 반대하고 평화를 제창하는 세계어 잡지로 매월 한 차례 발행하며, 논설·독본·소설·시가·소식·통신 등의 내용이 있다. 매호마다 에로센코와 성국성(盛國馨)의 격작이 실린다. 이 두 사람은 세계어 작가이자 인도주의자로 그들의 문장은 우리들에게 애독되고 있다”<sup>44</sup>라는 선전문구가 남아 있다. 그 후 「녹광」은 무려 10여 년 가까이 출판되면서 중국 에스페란토 운동사에서 상징적인 잡지가 되었다. 다음으로, 상해 세계어 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판 활동이 있었다. 학회는 에스페란토 도서관이나 서점을 열었는데, 진조영(陳兆瑛)이 유럽에서 가져온 에스페란토 서적으로서점을 연 일 이유명하다. 그리고 에스페란토 사전 출판에 힘을 기울여 『세계어-한문신사전』이나 왔으며, 성국성 편저의 『세계어 강의』도 보급되었다. 그 밖에도 상해 주변 여러 지역에 에스페란토 강습반을 만드는 데 공헌했다.

상해 국민대학에 있던 노검파(盧劍波)는 중국 공학의 장신(蔣新)과 1924년(혹은 1925년)에 에스페란토주의자를 중심으로 국제조직인 ‘국제무국가의 세계어 연맹 國際無國家主義世界語聯盟’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 연맹은 “무국가·무강권주의자, 아나키스트,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가운데 에스페란토가 가능한 자들이 건립한 국제적 조직”이라고 하며, 「자유노동자」라는 잡지를 출판했다고 전한다. 또한 상해 지역의 몇몇 학교에는 에스페란토 과목이 개설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학교로는 아나키스트들이 다수 교수로 재직하던 남양중학과 노동대학 등이 있다. 이 학교들은 에스페란토가 필수 과목이었다.

북경 지역의 경우, 경매구(景梅九)가 주관하던 「국풍일보 國風日報」는 국내 아나키스트의 주요 연락처이기도 한데, 이 신문의 부간인 「학회學彙」에는 크로포트킨과 대삼영의 저작이 다수 실렸으며 에스페란토 선전에 힘썼다. 그리고 진정번(陳廷璠)이 관계하던 세계어 전문 학교도 아나키스트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전국제 7 차 교육회의의 결정에 따라 북경 대학에서는 가장 먼저 에스페란토 과목을 신설하고 상해에 있던 에로센코를 초빙했다.<sup>45</sup> 이때 에로센코는 북경에 올라와서 노신(魯迅)과 돈독한 우정을 쌓았으며, 노신도 그의 동화를 번역해 『에로센코 동화집』이라는 제목으로 상무인서관에서 출판했다. 에로센코는 북경 대학에서 에스페란토를 강의하면서 같은 학교 교원이던 전현동(錢玄同), 주작인(周作人) 등과 교류했다. 이때 한인청년 이정규(李丁圭), 이을규(李乙奎) 형제도 에

는 ‘노동자 정부 Government of Workers’ 이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정부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공산주의로, 세계의 평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모두가 방향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담하게 선언하노니 강권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Dictatorship of Proletariat’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평등하고 불철저한 혁명이므로 당연히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개인 자유의 경향에도 위배된다.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는 본래 혈연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들은 러시아의 새로운 조직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형제처럼 바라본다. 러시아의 새로운 조직이 무정부 혁명의 선구라고 믿는다. 새 조직이 빨리 현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이상에도 달하길 희망한다.<sup>34</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아나키스트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 아나키즘 혁명의 선구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자유공산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동시에 비록 러시아 혁명이 불완전한 혁명이지만 소비에트 정부가 하루빨리 발전해 자유공산주의의 이상에도 달하기를 희망했다. 이 처럼 레닌의 볼셰비키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은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의 만남을 가능케 했다. 러시아 볼셰비키가 중국 아나키스트에게 사회주의자 동맹을 만들자고 건의한 시기는 러시아 혁명이 일단락되고 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아시아의 혁명 세력과 연계하기를 희망한 것이다. 사회주의자 동맹의 출현은 이런 배경 아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해 지역

1920년 4월 말 보이틴스키 부부와 통역 양명재(楊明齋) 등은 진독수를 만나러 상해로 내려왔다. 보이틴스키는 「상해 아문 생활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러시아인들의 도움을 받아 신문 기자 신분으로 이곳에 안착했다. 그는 진독수를 만나 러시아 공산당과 코민테른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을 포함한 사회주의자들의 연합 단체 혹은 공산주의 소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진독수는 보이틴스키 접촉 이후에야 비로소 공산주의에 심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1920년 여름 쯤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신앙하게 되었다는 설은 근거가 있다. 동시에 보이틴스키 일행은 아나키스트 정파 강, 장목지, 원진영, 위극수, 비철문(費哲文), 황벽훈 등과도 교류했다. 이런 와중에서 상해에서 중국 최초의 공산주의 소조(이하 상해 소조)가 만들어졌다.

상해 소조는 처음에는 ‘사회당’이라 불렀다가 나중에 진독수가 북경의 이대조와 상의한 끝에 ‘공산당’으로 바꾸었고, 곧이어 다시 ‘중국 공산당’으로 고쳤다. 이대조는 젊은 시절 중국 사회당에 가입한 적이 있었고, 강항호(江亢虎)가 조직한 이 정당 이용 두 사미 끌로 몰락했기 때문에 사회당이라는 명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지

<sup>44</sup> 「互助」第1號, 1923. 3. 15.

<sup>45</sup> 王炎, 앞의 글 552면.

<sup>34</sup> 眞社譯 『克魯泡特金的思想』, 天津眞社出版社 1920, 編輯同人的旨趣 3면.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러시아가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사회당보다는 공산당이라는 명칭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sup>35</sup> 그들의 기관지가 「공산당」이거나 그들의 선언문이 「중국공산당 선언」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상해소조가 중국공산당이라고 명칭을 결정 한 후에도 광주공산주의소조(이하 광주소조)는 광주공산당(혹은 광주공산당지부), 북경소조는 공산당소조(후에 북경공산당지부), 호북소조는 무한공산당지부 등으로 일관성 없이 따로 불렀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이나 키스트의 회고에는 상해 사회주의 자동맹의 활동과 앞의 상해소조 창립과 관련한 여러 활동이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예를 들어 보자.

(1920년 여름) 어느 날 밤 우리들은 어양리 1호 진독수의 집에서 사회주의 자동맹회의를 열어, 코민테른의 정신을 소개하고 사회혁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문제를 토론했다. 출석자는 Stromisky, 양명재, 진독수, 이한준, 위극수, 원진영, 유수송(兪秀松), 김모(金某 - 조선인), 그리고 한 인도인과 나였다. 회의의제가 매우 많았는데, 주로 선전공작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자동맹은 마땅히 자신의 인쇄소와 선전거점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먼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인쇄소를 만들 것을 결해해가 전체 책임을 위탁받았다. Stromisky 군은 진군을 통해 나에게 2천원을 주어 인쇄소 준비금으로 삼도록 했다. 공작편의와 자력갱생을 위해 인쇄소는 공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외부의 주문을 받았지만 비밀리에 사회주의 동맹의 책자, 문건, 전단 등을 인쇄했다.<sup>36</sup>

기왕의 고증에 따르면, 회고에서 등장하는 Stromisky는 보이틴스키이고, 김모라는 한인은 김가봉(金家鳳)이며, 인도인은 엽천저(葉天底)라는 사실은 거의 틀림없다. 여기서 보이틴스키 일행과 진독수를 제외하면 모두 아나키스트이거나 아나키즘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인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마르크스주의 연구회(1920년 3월)나 사회주의 청년단 성원과도 중복된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결의한 인쇄소의 설치와 사회주의 관련 서적의 발행 문제는 보통 상해 사회주의 청년단의 활동(혹은 상해소조의 활동)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대대체 상해의 사회주의 자동맹과 공산주의소조 및 사회주의 청년단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것일까? 우선 아나키스트를 비롯한 각종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체로 사회주의 자동맹을 결성하고, 그 가운데 러시아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입장을 따르는 인물들을 골라 공산주의소조를 성립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아나키스트는 모임에서 탈퇴했고, 다른 일부 아나키스트는 잔류했던 것이다.

상해 사회주의 자동맹이 성립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 인 조직과 정은 알 수 없다. 게다가 상해의 아나키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의 활동이나 공산주의소조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주의 자동맹의 활동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른바 초보적 공산주의자들은 이 과정을 중국공산당 창립 활동으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

중국 에스페란토 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황준생은 한때 광주에서 사복과 함께 허론팅(許論博)에게 에스페란토를 배운 인물로,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어전습소를 운영해 에스페란토 인재들을 배양했다. 그는 1922년부터 1925년까지 매년 국제 에스페란토 대회에도 참가했다.<sup>40</sup>

그리고 아나키스트 오대광(伍大廣)이 광주시 교육국장을 맡아 광동성 제 6차 교육회의(1926)를 열자 당시 광동 대학에 재임하던 황준생이 회의 중 두 가지 문제를 제안했다. 첫째, 에스페란토 강습을 위한 연구 전문 기관의 설립, 둘째, 전성의 중소 학과정에 에스페란토 과목을 증설하는 것이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서 그 해 여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 광주시립 사범 학교 내에 세계어 사범 전습소가 설치되어 황준생이 소장이 되었다. 얼마 후 황준생이 남경으로 이주하고, 오대광 조차 미국으로 건너가자 또 다른 아나키스트 구성백이 이 업무를 이어받았다. 주변 지역과 학교에 에스페란토 수업이 개설되면서 광주의 에스페란토 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sup>41</sup> 당시 광주시에만 무려 20여 곳이상의 대학과 중학에 에스페란토가 선택 과목이었다고 한다.

상해 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에스페란토를 전파하던 러시아 아나키스트 스테파니(V. A. Stepany)가 1921년 봄의 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스테파니가 죽은 그 해 가을 또 다른 러시아 아나키스트가 상해로 와서 중국 에스페란토 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바로 러시아 망인 시인이자 에스페란토 작가인 에로센코<sup>42</sup>가 그 사람이다.

에로센코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회주의 동맹 회의에 참석하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본 정부에 의해 추방되었다. 그는 러시아 입경을 거절당하자 호유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해로 와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쳤다.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성한 활동은 중국인은 물론 일본인이나 한인 아나키스트에게도 깊은 감명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에로센코는 “모든 사회주의자는 에스페란토주의자여야 한다. 또 모든 에스페란토주의자는 사회주의자여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sup>43</sup> 에로센코가 상해에 있을 때 에스페란토 동화 『고엽잡기 枯葉雜記』를 썼는데, 호유지는 곧바로 이 글을 중역해서 「동방잡지」에 실었다. 당시 「동방잡지」에는 에스페란토에 관한 기사들이 꾸준히 실렸으며, 호유지가 주편한 「학생잡지」에도 에스페란토란이 증설되었다.

<sup>40</sup> 侯志平主編『世界語在中國』, 中國世界語出版社 1999, 71면.

<sup>41</sup> 王炎〈無政府主義與世界語〉,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548~49면.

<sup>42</sup> 에로센코는 우크라이나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네 살 때 실명했다. 1914년부터 인도와 미얀마, 일본 등을 유랑했다. 1921년 5월 그는 동경에서 5·1절 시위와 일본 사회주의 동맹제 2차 대표 대회에 참가했다가 일본 당국에 체포되어 추방당했다. 경찰에 의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압송되어 귀국하려다가 절당하자 어쩔 수 없이 합이빈(哈爾濱)으로 갔다. 그는 북경 대학의 에스페란토 강의를 맡았으며 노신(魯迅)의 집에 머물렀다(侯志平『世界語運動在中國』, 中國世界語出版社 1985, 108~109면).

<sup>43</sup> 大島義夫·宮本正男『反體制 에스페란토運動史』, 三省堂 1974, 106면.

<sup>35</sup> 『李大釗研究事典』, 紅旗出版社 1994, 162면.

<sup>36</sup> 鄭佩剛, 앞의 글 958면.

전활동을전개했다. 이시기아나키스트가운데에스페란토에관심을가지지않는 사람이드물었다. 아래에서는광주와상해, 북경로나누어나나키즘운동과에스페란토운동의확산과정을살펴보겠다.

광주지역의경우, 그곳에서활동한대표적인아나키스트로는양빙현(梁冰弦)을꼽을수있다. 그는광동남해인으로젊은시절사복(師復)의영향으로아나키즘을받아들였다. 1910 년대에남양지역에서학교등을대상으로아나키즘을전파했는데, 싱가포르에서「정성正聲」을출판하고『세계공회』(I.W.W.)라는소책자를번역한바있다. 사복이죽자대륙으로옮겨와활동했다. 양빙현은유석심, 정패강(鄭佩剛) 등과함께상해에서「노동」을출판하는데참여하고광주의「민풍」발간도주도했다. 특히「민풍」은광동지역에서신문화운동을전파하는대표적인잡지였다. 한때양빙현은진형명(陳炯明) 초청으로유석심과함께장주漳州로가서「민성閩聲」을출간하는책임을맡았으며, 다시얼마후광주로돌아와「민성民聲」을복간했다. 이시기는중국사회에자본주의가점차발달해노동운동분야에노동조합적아나키즘이유행하기시작했다.

황릉상과양빙현, 유석심등은한러시아아나키스트와함께광주기공회를중심으로무정부주의자동맹을만들었다. 이단체는엄격한조직체계를갖춘것이기존의조직과차이를이루는데, 광둥·홍콩·마카오등지의 50 여명의아나키스트가참여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조직내부에밀고자가있어서러시아아나키스트가체포되면서그해 8 월자진해산했다. 그후이단체는상해로옮겨갔으며, 등몽선이책임을맡았다. 대삼영이프랑스로가기위해상해로잠입했을때중일양국의혁명문제를토론했다고알려진단체가바로무정부주의자동맹이었다.<sup>37</sup> 광주무정부주의자동맹이해산하고얼마지나지않아왕기(王祺)를중심으로 20 여명의아나키스트가진사眞社(1923 년 9 월) 를만들어노동자를대상으로활동했다. 이조직은「춘뢰」를발행해국내외아나키즘소식을전파했다. 「춘뢰」에는대삼영을추모하는글들이많았는데, 아마도대삼영이동아시아아나키스트연대의상징이어서그의죽음에대한아쉬움이컸기때문일것이다.<sup>38</sup> 사복의「민성」이후가장영향력있고, 가장오랫동안출판한광주민중사의「민중」도이때나왔다.<sup>39</sup>

광주를중심으로한아나키즘운동은다른지역보다활발했으며, 사회의주요직에광범위하게포진한그들은에스페란토운동에도큰영향을미쳤다. 광주에서제 7 회전국교육연합회의(1921) 가열렸을때, 아나키스트황존생(黃尊生)은오치휘와이석증, 채원배(蔡元培) 의지시아래전국사범학교에에스페란토과목을증설할것을내용으로하는안건을통과시키고교육부를통해전국에서시행토록했다. 1912 년의첫시도이래에스페란토가정식으로사범학교과정에들어간것은

<sup>37</sup> 鄭佩剛, 앞의글 966 면.

<sup>38</sup> 嵯峨隆, 앞의책 263 면.

<sup>39</sup> 민중사의「民鐘」은 1927 년 4 · 1 쿠데타이후광주에서상해로옮겨와발행되었다. 오치휘의글이많이실렸고, 반공반소의관점에서삼민주의를주장했다. 이단체는크로포트킨전집의번역을시도하는등외국저작의번역이많은것이특색이다.

일부중국공산당사관련서적에서상해소조와상해사회주의자동맹을동일한것으로보는까닭도여기예이다.<sup>37</sup>

보이팅스키가러시아공산당에보고한내용가운데중국기사말고도조선과일본에관한기사가있어주목할만하다. 이것은보이팅스키일행의중국방문목적이운데하나라고“상해에코민테른동아서기처건립여부를고찰하는것”이라는사실을기억한다면자연스러운일이다. 그들은동아시아 3 국에서사회주의선전을확대하기위해임시중앙기관을만들었다. 이단체의명칭은코민테른임시동아비서부로, 단체의설립과동시에그하부조직으로중국부와조선부, 일본부의 3 개민족별지부를두었다. 앞서언급한공산주의소조건설과관련된일이중국부의일이라고한다면, 아래의내용은조선부와일본부의활동단면을보여준다.

(1920 년 8 월 17 일의보고에는) 중국의상해혁명국과동시에진행하는사업에는조선혁명국이있는데, 인쇄소를같이사용합니다. 우리들대표가파견한첫번째연락원이이미동경에서이리로왔습니다. 그가가지고온보고는편지에덧붙입니다. 연락원의구두보고에따르면아래의상황이분명합니다. 1. 일본사회당은현재중앙위원회가있다. 2. 이당의청년중에는노동조합에참가해지공작에종사하는자가있다. 3. 이당에서인쇄한소책자와전단지병사들에게뿌려져, 당과병사들사이에점점밀접한관계가맺어진다. … 나는연락원(조선인)에게서적일부를주어동경으로돌려보냈습니다. 일단경비가있기때문에우리들의공작을위해다시두사람을한성(서울) 과만주로파견할것입니다.<sup>38</sup>

이보고는보이팅스키가조선혁명국의건설을시도하고있고, 일본사회주의자들과관계를맺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먼저기존연구를참고해조선혁명국의상황을살펴보자. 보이팅스키는상해임시정부내이동회의한인사회당<sup>39</sup>과연락해한인사회당을한국공산당으로개조할것을건의했으며, 마침내 1920 년 5 월경한국공산당이조직되었다. 그과정에서저명한한인사회주의자여운형을공산당에가입시켰다. 따라서재상해한국공산당은코민테른임시동아비서부의조선부와동일한것으로도볼수있다. 한국공산당은조직과선전, 군사방면에서일련의활동을펼쳤는데, 이것은상해소조의활동과유사했을것이다. 아울러상해이외의지역에조직을건설하기위해다섯명의밀사를각지에파견했는데, 한국내에한명, 일본에한명, 중국령에세명이었다고한다.<sup>40</sup> 특히보이팅스키가일본에파견한한인이누구인지는오랜의문이었는데, 최근일본학계의연구에따르면대한민국임

<sup>37</sup> 줄고 <보이팅스키의중국방문과「社會主義者同盟」, 『중국사연구』 제 36 집, 2005, 224 면.

<sup>38</sup> 中共中央黨史研究室編『共產國際聯共(布)與中國革命檔案資料叢書』第 1 卷,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33 면.

<sup>39</sup> 한인사회당의한갈래인장도정(張道正) 의일세당一世黨을코민적아나키즘의이념을가진비밀정당으로보는견해가있다(반병률 <한국사회주의운동기원연구의지평을확대한업적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기원』, 『역사학보』 184 호, 2004, 354 면).

<sup>40</sup> 임경석『한국사회주의의기원』, 역사비평사 2003, 199~203 면.

시정부재정부장이던이춘숙(李春塾)이라는설이유력하다.<sup>41</sup> 이밀사는일본으로건너갔으며, 임무는“일본사회주의운동과그지도자들과의관계”를맺는데있었다. 그는일본사회주의운동의지도자이자아나키스트인대삼영에게접근했으며, 재일한인유학생들과도접촉했다.

1919년겨울러시아에서온신문기자스테파니가중국인육식해(陸式楷), 장목지, 호유지(胡愈之) 등과모종의조직을만들었다는짧은기록이남아있다. 그런데여기서등장하는육식해와장목지, 호유지등은모두아나키스트이자에스페란토전문가로알려진사람들로, 이들이만들었다는모종의조직은아마도에스페란토와관련이깊은단체였을것이다. 상해의아나키스트들이만든세계어전습소世界語傳習所가문을닫고얼마지나지않아다신화학교新華學校가설립되었다. 이학교는육식해와장목지등이관련된아나키스트의외곽조직이었는데, 혹자는상해소조의외곽조직이라고한다. 왜냐하면진독수와심현려(沈玄廬)등도이학교를방문해강연하곤했으며, 상해소조의활동과중중복되기때문이다. 아마도스테파니와중국인들이만들었다는모종의조직이란당시신화학교내에스페란토야학을개설한일을말하는듯싶다.

중국공산당당사에서거의언급되지않는사회주의자동맹을둘러싼이런인물과조직이상해소조와어떤관련을가지고있었을까? 여기서는상해소조의대표적인활동으로알려진사회주의청년단과외국어학사外國語學社의경우를통해간단하게알아보자.<sup>42</sup>

알려진바와같이상해소조를만드는일과동시에 1920년 8월 22일진독수와보이틴스키, 양명재등은여덟명의청년, 즉이한준, 유수송, 시존통(施存統), 심현려, 진망도(陳望道), 원진영, 김가봉(한인), 엽천저(인도인) 등을모아상해사회주의청년단을설립했다. 청년단의서기는나이가가장어린유수송(21세)이담당하고, 외국어학사의학생 30여명이주요회원이었는데, 일본인판서다랑(坂西多郎) 과한인박모(栢某), 안모(安某) 등도모임에주참가했다고한다. 사회주의청년단은뚜렷하게어느한파의사회주의를신앙한것이아니었고, 오히려아나키스트가수적으로가장많았다는사실은여러회고에서확인된다. 이시기사회주의청년단의활동은사회주의자동맹과는통일전선의성격을띤것으로양자간의차이는거의구분되지않았다. 그런데앞서마르크스주의연구회의경우처럼사회주의청년단의결선에대해서도회고록가운데초보적공산주의자들은이것을창당과정의하나로, 아나키스트들은사회주의자동맹활동의연장선상에서서술하고있다. 이사실은그들의선전활동을보면손쉽게확인할수있다.

<sup>41</sup> 川上哲政〈大杉榮のみた中國〉, 『初期社會主義研究』 第 15 號, 2002, 72 面.

<sup>42</sup> 석천정호는사회주의자동맹과사회주의청년동맹및사회주의청년단을동일한단체로이해한다. 사회주의동맹은아나키스트의회고록에만나타나며, 동맹이나청년단이나여러파벌이섞인것은사실이다. 청년동맹은보이틴스키의 1920년 8월보고에나타나는데, 러시아어표기청년단과갈다(石川禎浩, 앞의책 170~71 面).

## 2. 중국아나키즘의분화

### 아나키즘(흑기) 과에스페란토(녹기) 의결합

1920년대에들어서면서중국아나키스트의신문화운동에대한관점이바뀌고있었다. 기존의문화운동이지식인운동에제한되었다는점을비판하고, 노동자를중심으로한새로운운동양식을주장했다. 실제로「민성」과「노동」등의영향을받은일부아나키스트는문화비판에서정치선전으로변화하면서노동조합적아나키즘운동을전개했다. 그들은“정치를묻지않고경제만묻는다”면서지식인들이적극적으로노동운동에참여함으로써사회현실을구체적으로이해할것을요구했다. 1920년대는중국아나키즘운동의전성기로인물과사건들을한마디로갈끔하게정리하기란쉽지않다. 여기서는흑색깃발로상징되는아나키즘과녹색깃발로상징되는에스페란토와의상호관계를중심으로이시기의상황을간단히기술하고자한다.

1910년대후반「신청년」을둘러싸고전개된에스페란토논쟁은 1920년대에들어와안정되는추세를보였다. 장차중국에스페란토운동의대표인물이될호유지(胡愈之)는「동방잡지」에실은〈국제어의이상과현실〉이라는글에서국제어와민족어의관계를다음같이서술했다.

보통사람들은모두국제어의최후의이상으로, 그것이일체의국어와민족어를완전히소멸시키고, 전지구인류가동일한언어를채용하게만들어, 모두동일한문자를사용하는것이라고여긴다. … 사실국제어의이상은결코이처럼과장된것이아니다. 국제어는일체의국어와민족어를침범하려는것이아니다. 국어를침범하려는것이아니라국어보조하려는것이다. 인류의사상을서로교통하기위해서는오로지언어문자에의존해야하지만, 언어가서로다른민이교류할때에는범어리와마찬가지로무엇도이해할수없는데, 국제어의목적은단지이러한결점을보완하려는것이다. 이것말고국제어는결코인민내부의생활을간섭하려는생각은없다. 따라서국제어가민족의정신과특징을간섭한다고말하는것은마치우체국에부친편지가일반인의대화능력에해를끼친다는것과같다. 이것을얼마나우스운일인가?<sup>35</sup>

사실에스페란토는기본적으로‘일민족, 이언어’주의를표방한다. 나라안에서는자국어를, 나라밖에서는국제어를사용하자는것이다. 이런까닭에한자폐지같은과격한논조는점차사라졌다. 하지만에스페란토는민족주의의장벽을허물고국제연대를피하기위해아나키스트들이채용한문화혁명의수단인것은분명하다. 따라서 1920년대에들어와서도구성백과황릉상(黃凌霜)<sup>36</sup> 등이열심히선

<sup>35</sup> 胡愈之〈國際語的理想與現實〉, 『東方雜誌』 第 19 卷 第 15 號, 1922.

<sup>36</sup> 황릉상은 1921년말러시아에갔다가 1922년 6월귀국했는데, 러시아체제중에크로프트킨부인을비롯한국제아나키스트와접촉했다. 그는러시아혁명에대한큰실망을안고돌아와얼마후미국으로유학을떠난다.

국을유랑했는데, 잠시귀국한일을제외하면거의 10 여년간유럽에머물면서아나키스트들과교류했다. 석천삼사랑은오랜프랑스경험을통해아나키즘운동은노동단체와결합해야한다는믿음을가졌기때문에귀국한후노동운동에참가했다.

석천삼사랑은강권을부정한다는측면에서아나키즘과생디칼리슴은마치부부혹은형제같은관계라고보았다. 양자모두자유연합이나자치를추구한다든지, 자본과노동과의계급투쟁을인정한다는점에서서로손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 따라서아나키스트는노동조합안에들어가기보다는개량적조합을혁명적조합으로바꾸고혁명적조합을아나키즘적조직으로개혁해야한다고호소했다. 그는노동조합의혁명수단으로서의중요성을인정하고, 총파업여하에따라미래사회가결정된다고보았다. 석천삼사랑은순정아나키스트와의협력을호소했으나화합에이르지 못했다.

유럽사회에서도아나키즘과생디칼리슴사이의논쟁은이미 20 세기초반부터시작되었다. 1907 년여름암스테르담에서열린아나키스트국제회의에서프랑스의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인모나트와이탈리아의코윈적아나키스트말라테스타간에는쟁이있었다. 모나트는아미앵선언(1906) 의내용처럼노동조합이야말로부르주아체제를노동자들의천국으로전환시키는임무를지녔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말라테스타는생디칼리슴가마르크스주의의념새를풍기며프롤레타리아계급만을중시하는것은한계급이아닌모든인간의해방을목표하는아나키스트의목표와는다르다고반박했다.<sup>33</sup> 이런코윈적아나키스트와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간의논쟁은그후에도계속되었고, 결국아나키즘운동을약화시켰다.

일본노동계에서는‘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자련, 1926 년 5 월) 가창립되었다. 이단체는아나키스트노동조합의최초의전국적조직으로자유연합주의를제창했다. 그런데여기에팔태주삼과암좌작태랑을중심으로한순정아나키즘이침투해얼마후자련을장악하고「자유연합」을발간하면서, 사상운동의순수성을강조하기시작했다. 이에대항해석천삼사랑은혁명적조합을많이만들어아나키즘단체로개조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를추종하는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그룹은자련에서탈퇴해별도로‘관동자유노동조합자유연합회의회’(1928 년 7 월) 를조직하고「흑색노동신문」을발간했다. 이들은다시독자적으로‘일본노동조합자유연합회의회’(자협, 1930 년 11 월) 를결성하고, 석천삼사랑과근등현이를중심으로「노동자신문」을발간했다. 결국이런조직의분화는일본아나키스트노동운동의분열을가져왔다.<sup>34</sup> 일본노동운동의분열은재일한인노동조합의분화도초래했다. 순정아나키즘을추구하는조선자유노동조합과생디칼리슴을추종하는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1924 년창립) 의분열이그것이다. 이런일본내아나키스트의분열현상은 1934 년일본무정부공산당日本無政府共産黨(1934 년 1 월 30 일) 의결성으로일단분합된다.

첫째, 상해소조나사회주의청년단의선전활동을위해만들었다는우신인쇄소의경우실은아나키스트의도움으로만들어진것이다. 정패강이상해로써진독수를만나다음에서로의기투합하자, 그는아나키스트동지들과함께진독수의일을도왔다. 정패강은진독수가보이팅스키의자금지원으로인쇄소를차리려고하자광주의민성사인쇄기를가져와상해에우신인쇄소를세웠다. 그리고인쇄의질을높이기위해자신의처와사복의여동생인유무등(劉無等) 을광주에서데려와직접인쇄업무를맡겼다. 이처럼우신인쇄소는사실상아나키스트에의해운영되었다.

둘째, 우신인쇄소는「신청년」을비롯한많은사회주의간행물을출판했는데, 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관련서적들을고루출판했다. 이달(李達) 주편의「공산당」이나진망도가번역한「공산당선언」을출판한것말고도경매구주편의「자유」를출판한사실에서도알수있다. 그리고장목지와정패강이관련한「정보正報」라는잡지와상해신화학교의에스페란토야학의간행물인「중화세계어월보中華世界語月報」도간행했다. 상해의아나키스트와초보적공산주의자들이 1920 년 5 · 1 절행사에함께참여해살포한선전용만화전단도여기서찍었다.

셋째, 노동자를대상으로한통속간행물도아나키스트와초보적공산주의자의합작품이었다. 상해에서는진독수주편의「노동계勞動界」(1920 년 8 월 15 일) 가창간되어, 여기에보이팅스키의연설문이실렸다.<sup>43</sup> 북경에서는황릉상주편의「노동음勞動音」(1920 년 11 월 7 일) 이창간되었다. 진독수는정패강과원진영에게편집을담당하도록했고, 이대조역시황릉상과원진영에게주편을맡도록했다. 광주에서도「노동자勞動者」(1920 년 10 월 3 일) 를창간했는데, 양빙현(梁冰弦) 과유석심(劉石心) 이주편했다. 이세가지잡지는모두아나키스트에의해편집되었으며노동자들에게널리환영받았다.<sup>44</sup> 정패강이잡지들은공산주의소조가아니라모두사회주의자동맹의잡지라고회고한것도이런맥락에서바라볼수있다.<sup>45</sup>

상해사회주의청년단은주위의이목을피하기위해외국어학사라는간판을달았다. 상해소조의외곽단체라고알려진외국어학사의경우도그내부를들여다보면아나-불합작의하나였음을알수있다. 이학사가만들어진배경에는보이팅스키일행의임무가운데하나인“모스크바동방대학에서공부할진보적인청년들을물색해서러시아로보낸다”는것과관련이있었다. 외국어학사의교장은양명재, 비서는유수송이었으며, 여기서중국인청년들에게주러시아어를가르쳐러시아유학을준비시켰다.<sup>46</sup> 양명재와보이팅스키부인쿠즈네조바가러시아어, 이달(李達) 이일본어, 이한준이프랑스어, 원진영이영어, 한러시아신문기자가에스

<sup>33</sup> 폴애브리치 『러시아아나키스트 1905』, 예문 1989, 124~25 면.

<sup>34</sup> 穫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134~37 면.

<sup>43</sup> 吳廷康 〈中國勞動者與勞農議會的俄國〉, 「勞動界」第 13 冊, 1920. 11. 7.

<sup>44</sup> 馬連儒, 앞의책 126~27 면.

<sup>45</sup> 鄭佩剛, 앞의글 957~60 면참조.

<sup>46</sup> 외국어학사에대해서는華林 〈漁陽里六號和赴俄學習的情況〉, 「黨史資料叢刊」, 1980. 1, 43~45 면참조.

페란토어를 담당했다. 외국어학사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개방되어 외부로부터 청년단 단원을 확충하는 통로로도 활용했는데, 주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점은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던 러시아 신문 기자가 바로 스테파니라는 사실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천진과 북경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아나키스트와 초보적 공산주의자들 사이를 왕래하는 스테파니의 역할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국어학사는 1921년 볼로니아어 교육을 받은 20여명의 청년들을 모스크바 동방대학으로 유학 보냈다. 당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급진적인 청년들에게는 혁명에 대한 호기심과 아울러 선망 대상이 된 곳이었다. 하지만 유소기(劉少奇)와 임필시(任弼時) 같은 공산주의 성향의 청년들만 아니라 아로유학간것은 아니며, 아나키스트들도 여럿 있었다. 예를 들어 상해 사회주의 청년단에 가입한 포박(抱朴), 화림 등과 같은 청년 아나키스트는 외국어학사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한 후 러시아로 떠났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혁명 러시아의 현실에 실망해 귀국 후 볼셰비키 반대에 앞장섰다.<sup>47</sup> 이 학사는 1920년 말 보이틴스키 일행이 광주로 이동하자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1921년 전년부터 이미 활동이 부진해졌다. 게다가 1921년 5·1절 행사에 불온 전단지 뿌려진 사건에 연루되어 프랑스 조계 경찰이 외국어학사를 조사하자 결국 학생들을 해산하고 문을 닫았다. 이즈음 사회주의 청년단도 외국어학사와 마찬가지로 활동이 침체되어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 광주지역 등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본거지인 광주는 민국 초사복의 활동 이래 아나키스트들이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19년 여름 북경대학의 구성백(區聲白)과 황릉상 등이 고향인 광주로 내려와 「민풍」을 창간해 신문화 운동을 선전하고, 얼마 후 사복의 죽음으로 폐간되었던 「민성」을 복간했다. 광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이미 노동 운동에도 깊숙이 참여해 공인구락부 工人俱樂部나 공회工會 조직 등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sup>48</sup> 이곳에도 1920년 9월 러시아 공산당에서 파견한 밀사가 나타난다. 보이틴스키가 파견한 스토포야노비치와 사하야노바 두 명이 천진에서 광주로 내려왔는데, 그들의 임무는 보이틴스키의 상해 활동과 같았다. 즉 공산주의 소조의 건립을 돕는 일, 지식인 조직을 건립해 노동자와 연계하는 일, 아나키스트 국민당원 등 다른 혁명파의 활동을 돕는 일이었다. 이들은 북경에서 이대조를 통해

<sup>47</sup> 抱朴〈赤露旅行記〉；華林〈漁陽里六號和赴俄學習的情況〉，玉川信明·坂井洋史·嵯峨隆編譯『中國アナキズム運動の回想』，總和社 1992, 223, 246면.

<sup>48</sup> 광주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無政府主義者在廣州搞工會活動回憶〉，中國人民大學中共黨史系教研室編『中國無政府主義資料選編』，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2, 507~21면 참조.

아래절대자유주의를 추구했다. 그는 크로포트킨의 사회생리학 이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연대성에 주목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연대성은 인간의 원조적 인본능이라고 믿었다.<sup>30</sup>

팔태주삼은 〈계급투쟁설의 오류〉(1929)를 통해 자유연합주의와 생디칼리즘을 비교하면서 노동조합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아나키스트는 권력의 기반인 대공장제나 분업제를 혁명적으로 해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디칼리즘과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계승해 대공장제나 분업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의 노동운동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보았다. 노동운동이 지배자와 타협한 참정권 운동으로 변질되거나, 자본가와 타협하는 경제적 직접 운동이 되거나, 독재 정치로 변질되는 강권적 혁명 운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팔태주삼은 생디칼리즘과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반인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혁명 운동이라고 불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행덕추수의 시대부터 미국에서 활동했던 암좌작태랑도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 운동에 회의적이었다. 1914년 미국에서 귀국한 그는 1919년부터 대삼영의 노동 운동에 동참했으며, 대삼영과 별도로 「소작인」을 발행했다. 일본 사회주의 동맹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기관지 「사회주의」의 명목상 발행인이기도 했다. 암좌작태랑은 대조직 권위주의 화 또는 관료주의 화를 비판하며 소규모 조직만을 취하다가 점차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소수 정예주의로 기울었다.<sup>31</sup> 그가 노동조합이란 산적(자본가)의 친자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노동조합 산적론’은 젊은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노동 운동에서의 생디칼리즘에 대해 경시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취하여 노동조합 내분열을 가져왔다. 팔태주삼과 암좌작태랑은 1926년 1월 경동경 흑색 청년 연맹을 만들어 전국적인 규모의 아나키스트 연합체를 구성했다.

대중적 노동조합 조직을 통한 경제적 직접 투쟁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는 순정 아나키스트의 주장을 뿌리부르주아의 감삼주의 혹은 관념적 아나키즘이라고 비판했다. 대삼영의 활동을 잇는 이런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석천삼사랑(石川三四郎)<sup>32</sup>이 있었다. 그는 행덕추수와 함께 활동한 명망이던 아나키스트로, 행덕추수 사건 때 옥중에 있어서 죽음을 모면했다. 1913년 일본을 떠나 유럽 각

<sup>30</sup> 岡崎正道〈八太周三の無政府共產主義—反マルクス主義原理の構成〉，『日本思想史研究』第16號，1984, 145면.

<sup>31</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編)』，형설출판사 1978, 84면.

<sup>32</sup> 석천삼사랑은 행덕추수와 함께 평민사에 참가해 반전론을 주장한 바 있었던 기독교 사회주의자였다. 「平民新聞」이 창간되자 참여했다가 투옥되었고, 「世界婦女」에 실은 글로 다시 투옥되었는데, 이때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유럽에서 귀국한 후 노동 운동에 참가하다 1927년 9월 중국에 가서 상해 노동 대학의 강사로 있으면서 한 달 여 지내다가 귀국했다. 같은 해 11월 농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 농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는 이른바 토민 생활 토민 생활을 제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1929년에는 공학사 공학사를 발기했다. 1933년 중국 여후 동양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중국 학에 높은 경지를 이루었다. 전후 일본 무정부주의 연맹의 고문을 지냈다(樋口進, 앞의 글 298면).

해에서대삼영을만났을때일본내암살파괴활동을계획한적이있으며, 실제로동경에파견한단원이약 20 여명에이르렀다고한다. 하지만그들의테러계획은정보유출로실패했고, 관동대지진이일어났을때다수가희생되었다고전한다.

길로틴사는권력핵심을암살하여사회혁명의돌파구를만들어민중봉기를기다린다는전략을세웠다. 일반적으로대중운동이어려운억압의시대에는테러리즘이쉽게출현한다. 하지만일본의테러도유럽의경우처럼사회악을제거하기는커녕오히려혁명의에너지를낭비하고아나키스트에대한무자비한탄압을불러왔다.<sup>26</sup> 크로포트킨도생전에테러가억압받는민중에게유용한저항수단의하나라는사실은인정했지만, 혁명과정에서테러를어떤위치에놓느냐는항상문젯거리였다. 여기서길로틴사와대삼영과는이론적으로상당한차이점이존재한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대삼영은단순한아나키스트가아니라자신의철학을가진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라고말할수있다. 그는전국적인혁명적노동조합을결집해거대한전투력을조직해자본주의를붕괴하고새로운사회를건설하려했다. 이와달리길로틴사의단원은단순하면서도순수한아나키스트로테러라는수단을통해국가권력의최고상층부인물들을암살하여권력기구를파괴하고자했다.<sup>27</sup>

관동대지진이후일본의아나키즘운동은공산주의운동과대립하며조직재정비의과정을거쳤는데, 그와중에이른바순정아나키즘이라고불리는그룹이출현했다. 대표적인인물로는팔태주삼(八太周三)<sup>28</sup>과암좌작태랑<sup>29</sup>이었다. 그들은이상사회를추구하는아나키즘의원칙에위배되는일체의요소를제거한다는부정의논리로일관하여마르크스주의뿐만아니라노동조합적아나키즘도비판대상으로삼았다. 한마디로아나키즘에서생디칼리즘을뺀순수한코뮌적아나키스트를말한다.

특히팔태주삼은행덕추수와대삼영의사상적계보를잇는새로운인물이므로기억할만하다. 팔태주삼은원래목사출신이었다, 대삼영사후동경에서도동운동에참여하면서아나키스트가되었다. 그는아나키즘을마르크스주의의오염으로부터건져내순수한아나키즘을만드는것을목표로삼았다. 마르크스주의를비판하는과정에서도동가치설은진정한공산주의가아니라며부정하고, 변증법도인간의자유를속박하는결정론이라고비판했다. 팔태주삼은크로포트킨의영향

아나키스트황릉상을소개받아함께내려왔으며, 곧광주에서러시아신문사지사를만들었다.

러시아인들이광주에내려와접촉한인물로는황존생(黃尊生) 과담조음(譚祖蔭), 유석심, 양빙현, 양일여(梁一余), 양우천(梁雨川), 구성백등이다. 그런데이들은모두아나키스트였다. 스토야노비치일행이처음부터아나키스트와접촉한까닭은광주로올때황릉상과함께내려왔기때문일것이다. 같은해 9 월이들러시아인두명과중국인일곱명은광주공산당소조를만들었다. 그리고광주소조는앞서잠시언급했듯이「노동자」라는잡지를발행했는데, 유석심과양빙현, 양일여등이출판을담당하고, 러시아기자가경비를제공했다. 이잡지는사실상광주아나키스트의기관지로프레타리아독재와계급투쟁에반대하면서전형적인크로포트킨주의혹은노동조합적아나키즘을선전했다. 「노동자」의편집자들은중국최초의노동잡지이자아나키스트잡지인「노동」에도참가한바있으며, 광주의하남협동화기창河南協同和器廠에공인구락부를세워활동하고있었다.

그런데광주소조구성원의한사람이었던유석심의회고에따르면, “(1920 년가을) 그들은광주에서사회주의를찬성하는동지들을모아사회주의자동맹을조직했다. 당시천진과상해, 항주에도이런조직이있었다. 예를들어정패강은상해동맹의회원이며, 심중구(沈仲九) 는항주동맹의발기인이었다.”<sup>49</sup>라고했다. 이회고에따르면광주는광주사회주의자동맹과같은단체임에의심의여지가없다. 아울러기록은아나키스트심중구에의해항주에도사회주의자동맹이만들어졌다는새로운사실도알려준다. 그리고담조음의회고에따르면, 광주에온러시아인들은자신이접촉하는사람들이아나키스트라는사실을잘알고있었으며, 공산당을조직하는문제에대해서는전혀대화를나누지않았다고한다. 뿐만아니라자신은공산당소조에가입한적이없으며, 공산당원이아니었다고분명히기록했다.<sup>50</sup>

이아나키즘적공산당은사실상“어떤조직이나기울의속박을받지않는”단체였는데, 상해에서진독수가만든공산주의소조와는차이가있었다. 여기서공산당이라는용어는당시불세비키뿐만아니라아나키스트도자주사용했다는사실을기억할필요가있다. 보통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을코뮌적(= 공산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부르거나, 사복이아나키즘을공산주의로, 마르크스주의를집산주의로 각각분류한것도같은맥락에서볼수있다. 어쨌든광주에온러시아인들이정보부족으로아나키스트와접촉했다는생각은잘못된것이다. 왜냐하면북경과상해처럼광주에서의활동은보이틴스키의중국방문목적과크게위배되지않기때문이다. 단지아나키스트조직에서아나키스트가공산당원이참여하는아나키즘적공산당이라는형태였던것은광주라는도시가원래아나키즘적성향이매우강했던까닭이다. 이러한합작에변화가나타난것은진독수가상해에서광주로내려온다음의일이다.

<sup>26</sup> 板垣哲夫, 앞의책 113 면.

<sup>27</sup> 樋口進〈巴金和無政府主義〉, 『巴金研究在國外』, 湖南文藝出版社 1986, 269 면.

<sup>28</sup> 팔태주삼에대한대표적인연구로는존크럼이쓴『八太周三と日本のアナキズム』(青木書店 1996) 이었다. 작자는팔태주삼의순정아나키즘을일본식으로공산주의이념을잘설명한이론이자일본인이도달한가장우수한이론의하나로높이평가한다.

<sup>29</sup> 암좌작태랑은어린시절미국에건너가서알렉산더버크만, 엠마골드만과교류하면서아나키스트가되었다. 1907 년미국에서사회혁명당을조직했으며, 행덕추수를만난인연으로대역사건때양의편지를일본에보낸바있다. 그는 1927 년 5 월을전후해중국에서상해노동대학의강사를역임했다. 1928 년가을에는천주인단훈련소에참가해 1930 년겨울까지있었다. 귀국후흑색청년연맹과전국공회자유연합회의지도자의한사람으로활약했다. 전후에도일본무정부주의연맹전국위원회원장을맡았다(樋口進, 앞의책 297 면).

<sup>49</sup> 劉石心〈關於無政府主義活動点滴回憶〉,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936 면.

<sup>50</sup> 〈譚祖蔭的回憶〉, 『共產主義小租』(下),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762 면; 〈劉石心的回憶〉, 같은책 722~23 면.

1920년말광서성군벌을격파하고광주를점령한진형명은진독수를광주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초빙했다. 그의초빙을받아들인진독수는원진영과함께광주로내려와위원장을맡았다. 그리고정치적지위를이용해광주의진보인사들을만나마르크스주의를전파하는데힘썼다. 이즈음진독수는상해에서의경험을통해내심이나키스트와의협력관계를청산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 보이틴스키가파견한스토야노비치일행이아나키스트에의해포위되었다고판단한진독수는1920년겨울담평산(譚平山)과진공박(陳公博), 양빙현, 구성백, 황준생, 유석심등이참석한가운데광주소조모임을주최했다. 그런데이모임에서회원간에격렬한의견대립이일어났다. 그결과초보적공산주의자들과아나키스트사이에넘지못할갈이생겼고, 그후자연스레러시아인들과광주아나키스트간의접촉역시소원해졌다.

상해에있던보이틴스키도1920년12월중순광주로내려왔다. 그는아나키스트와의갈등, 광주소조의건설, 손문과의회담, 진형명에대한탐색등의문제를해결해중국혁명의새로운방향을모색하려했다. 그런데보이틴스키는진독수와 마찬가지로“비록공산당이조직되었으나공산당이라고부를뿐실은아나키즘적공산당”<sup>51</sup>이라고판단해광주소조모임에참석해기존의노동운동성과는높이평가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소조의구성원들에게프롤레타리아독재강령에찬성하라고요구했다. 이에대해대다수의성원들은거절했고, 결국조직은해산의길을걸을수밖에없었다. 그후광주에서구조직을대신할새로운공산주의소조를건립하는일이늦어졌다.

1921년초(대략1~2월쯤) 보이틴스키는귀국해업무를보고하라는밀명을받아러시아로돌아가게되었다. 귀국도중보이틴스키는북경에틀러이대조, 장국도등과몇차례만났다. 그런데그는원래출발했던러시아극동의블라디보스토크가아닌서쪽의 이르쿠츠크로갔다. 왜냐하면코민테른집행위원회가1921년1월경원동국을건설치했으며, 이곳에서그를필요했기때문이다. 그는코민테른원동국의서기를맡음으로서반년간양에걸친중국방문의사명을무사히마쳤다.<sup>52</sup>

그런데보이틴스키가심혈을기울여만든상해의혁명국은얼마지나지않아소멸되었다. 이조직이사라진원인은러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영도기구의조정과관련이있어보인다. 빌렌스키에따르면상해의동아서기처는원래부터임시기구였으며, 이르쿠츠크의원동서기처가동아시아사업을주도하면서상해의조직은사라졌다. 따라서동아서기처의하부조직인혁명국의운명도마찬가지였다. 이것은러시아정부내각기구의대중국정책과관련한정치투쟁의결과였다. 당시러시아공산당시베리아국과러시아공산당원동국, 당의성급위원회,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외교인민위원회등당정기구와코민테른기구가중국, 조선, 몽고혁명의주

아나키스트의기고문이많다는점이다.<sup>22</sup> 그만큼양국간의국제교류가활발해진징표일것이다. 중일간의교류에공헌이많았던산록태치의기사도있는데, 주로중국의노동운동현황, 파업관련기사, 공산당계열노동단체와의투쟁소식을전하고있다.<sup>23</sup> 그리고전국적규모의아나키즘단체의연합체를만들려던대삼영의유지는1926년1월흑색청년연맹黑色青年聯盟의결성으로열매를맺었다. 이연맹은일본을넘어동아시아차원의아나키스트연대조직을꿈꾼조직으로, 다음절에서따로언급할것이다.

대삼영의죽음후일본에서는테러리즘이대두했다. 프랑스로혁명때사용하던두대의이름을딴길로틴사가대표적인데, 중빈철(中濱鐵)과고전대차랑(古田大次郎)등의테러활동이유명하다. 고전대차랑은아나키스트그룹소작인사小作人社를설립해농민운동에가담한바있다. 중빈철이소작인사를방문하면서두사람은급격히가까워졌다. 이들은기존의운동방식에회의를품고테러리즘을받아들이게되었다. 길로틴사는1921년12월에결성되었으며러시아나로드니키Narodniki와허무주의자의영향을받은극좌적아나키스트단체였다. 중빈철은노동운동사勞動運動社の화전구태랑(和田久太郎), 촌목원차랑(村木源次郎)등과협의해항실섭정암살계획과대삼영복수계획을실행하기로합의했다. 이조직은영국황태자를암살하려다실패했고, 운동자금을모으기위해은행도습격했다.<sup>24</sup>

고전대차랑은대삼영학살의복수를결심하고고거대삼영의동료였던화전구태랑과함께조선으로건너가어열단을통해폭탄을구하려고했다. 이들이조선에머무를무렵, 일본에있던중빈철은테러자금구하려고한회사의사장을위협하다체포되었다. 일본에빈손으로돌아온화전구태랑은관동대지진때계엄사령관이었던북전아태랑(福田雅太郎)대장을저격했으나실패하고체포되었다. 고전대차랑도북전아태랑의집에폭탄을보내다가발각되어검거되었다. 법정에서중빈철과고전대차랑은사형선고를받았으며, 화전구태랑은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가옥중에서자살했다.<sup>25</sup> 이때길로틴사단원에게제공한폭탄과권총의일부는한인여성아나키스트김선희(金善姬)가북간도에서가져다준것이다. 김선희도서울에서체포되어3년간복역했다. 당시의열단의지도자김원봉(金元鳳)은상

<sup>22</sup> 예를들자면천진에서오일(五一)이보낸〈支那近況〉(1924년4월1일)에서는중국아나키즘언론의중심은북경, 실천의중심은광둥, 운동의중경중추는상해라면서중국의상황을간략히소개한다. 또한대삼영추도회가있었다는사실도알리고있다. 자유인사의오극강(吳克剛)이보낸〈支那の同志から〉는중국에서「자유인」을출판하던오극강이일본동지에게원고와아나키즘관련자료를부탁하는내용이담겨있으며, 일본·조선·중국동지들이협력할것을주장했다. 중국에서혜림(惠林)이보낸〈民衆運動の基調指標〉(1925년11월1일)도실려있다. 한편「勞動運動」(제4차)복간은1926년7월1일제18호로끝난다.

<sup>23</sup> 山鹿太治〈上海の勞動運動〉, 「勞動運動」第4號, 1924. 6. 1.; 〈隣接支那に注目せよ—支那民族の精神〉, 「勞動運動」第14號, 1926. 1. 1.

<sup>24</sup> 板垣哲夫『近代日本のアナキズム思想』, 吉川弘文館1996, 113~18면.

<sup>25</sup> 近藤憲二, 앞의책58~60면.

<sup>51</sup> K. B. 세비노프〈中國共產黨成立史〉, 「極東問題」第4期, 1980.

<sup>52</sup> 于俊道編著〈維經斯基〉, 『中國革命中的共產國際人物』, 四川人民出版社1986, 213면.

란의와중인 9 월 16 일대삼영은부인인이등야지 (伊藤野枝), 어린조카와함께 헌병대위감박정언 (甘粕正彦) 의부하들에게연행되었다. 그런데이번구속은이 전과는상황이달랐다. 그들은모두무참히피살되어우물속에던져졌다.

비록대삼영의살해용의자로감박정언등이체포되어군사재판에서유죄판결 (징역 10 년, 후에감형) 을받았으나, 법원은군대에책임을묻기보다순한개인 범죄로결론을내렸다. 대삼영의죽음에정부나군대가개입했는지여부는피의자들이입을굳게다물어서지금까지도수수께끼로남아있다. 하지만그의살해에가담한한병사가“사령부의명령”이라고진술한사실에근거한다면, 학살배후에는 군부가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sup>18</sup> 자유연합파의노동조합및 20 여개아나키스트단체는공동으로대삼영등세사람의합동장례식을수천명의조문객이참석한가운데성대하게치렀다. 장례식후이들시신은이등야지의고향인북강福岡의한산중에묻혔다.

일본정부가머치말기에직접행동론의지도자행덕추수 (幸徳秋水) 를교수대에보냄으로써한때정점에이른사회주의운동을붕괴시켰듯이대정말기에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지도자대삼영을살해함으로써다시한번아나키즘운동을무너뜨렸다. 혹자는일본아나키즘운동이극단적인순수성을추구하는경향이있는데, 이러한비타협적인원론적아나키즘으로말미암아세계아나키즘운동사에보기도문엄청난희생을치렀다고해석한다.<sup>19</sup>

대삼영의죽음은중국아나키스트에게도큰충격을주었다. 마치크로포트킨의죽음직후아나키스트잡지에그의죽음에관한기사가자주실렸듯이대삼영의죽음 이후에도여러잡지에서그의죽음을애도하는기사가많이실렸다. 이는대삼영이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상징으로인식되었기때문인듯하다. 광주에서는대삼영 추도회가열렸다. 광주진사眞社의기관지「춘뢰春雷」에는다음세대들이끌어갈아나키스트이자문학가인파금 (巴金) 이쓴〈위대한순교자〉라는대삼영추도시가실렸다.<sup>20</sup> 그리고광주민중사民鐘社의기관지「民鐘」에는대삼영의저작들을소개하면서“동방무정부주의의건장이며, 또한자유와인도의창도자”라고칭송했다.<sup>21</sup>

근등헌이와산록태치, 암작작태랑등은제 4 차「노동운동」(1923 년 12 월) 을다시발간해대삼영의뜻을계속이어나갔다. 이잡지의한가지특징이라면중국

<sup>18</sup> 당시대삼영의사인에대해교살설과총살설등이있었으나, 훗날공개된〈감정서〉에는외부로 부터강한충격이가해진흔적이있고, 기도가막혀질식사한것으로추정하는소견이담겨있어교살설이 확실한듯하다 (飛鳥井雅道編, 앞의책解說 434 면).

<sup>19</sup> 鈴木靖之『日本無政府主義運動史』第 2 卷, 黒色戰線社 1979, 24, 29 면.

<sup>20</sup> “위대한순도자여, 눈을떠라. / 너희의외침은영원히우리의심중에남고 / 너희의피가물든깃발은우리의손에있다. / 우리는그깃발을내걸고, 자유에의길을걸어갈것이다.”(嵯峨隆 『近代中國의革命幻影 — 劉師培의思想と生涯』, 研文出版 1996, 263 면재인용).

<sup>21</sup> 〈等損刊大杉榮生平著作〉, 「民鐘」第 9 期, 1924. 8. 1.

도권을놓고서로다투며비방했다. 그가운데시베리아국과원동국간의투쟁이가장격렬했다. 그런데상해의동아서기처가코민테른중앙의공식적인승인을받았는지는의문의여지가있다.<sup>53</sup> 빌렌스키는코민테른제 2 차대회기간인 1920 년 7~8 월동아서기처를공식적으로승인해줄것을당중앙과코민테른에요청했으나, 코민테른은이들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 뿐만아니라빌렌스키와 보이틴스키간에도창당방식을놓고사회주의세력의연합단체를만들것인가아니면순수한공산당을만들것인가에대해이견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상해지역에서는상해소조중심의중국공산당창립움직임이외에도아나키스트들이대거관여한또다른공산당창당움직임이있었다. 대동당大同黨과지나공산당支那共產黨이그것이다. 이조직들의동향을간단히소개하면아래와같다.

대동당의전신은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인데일본에서조직되었다. 이단체의결성이추진된것은 1915 년가을이었다. 당시일본유학생인김철수 (金綴洙) 와최익준 (崔益俊), 하상행등은중국인유학생들과반제국주의운동을결의했다. 이들은동경의중국기독교청년회에서중국인황개민 (黃介民), 나할 (羅豁), 등결민, 대만인팽화영 (彭華榮) 등과만났다. 여러차례논의끝에 1916 년봄동경의한중국음식점에모인신아동맹당을결성했다. 이들은일본제국주의를타도하고상부상조하며, 민족내부의평등및국가간의평등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이조직은한국사회주의운동의기원으로알려진한인사회당보다빨리조직되었으나조선과중국, 대만 3 개국연합체라는점에서뚜렷한차이가있다. 아시아의이름을걸고출현한급진주의자의국제적조직으로 1900 년대에아주친화회가있었다면 1910 년대에는바로신아동맹당이있었던것이다. 신아동맹당에참여한중국유학생들은졸업후상해로근거지를 옮겨 1916 년에바로대동당을조직했다. 따라서대동당은신아동맹당이중국에서재조직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단체는중국과인도, 대만,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등과의연대를추구했으며, 그핵심멤버인황개민은조선의독립운동가와도친분이깊었다.<sup>54</sup> 신아동맹당조선지부는 1920 년 6 월서울에서사회혁명당으로이름을바꾸었다.

황개민은청년시절신해혁명에참가한후일본동경으로유학했다. 이때신아동맹당결성에참여해한인유학생들과친분을 쌓았으며 1918 년귀국해학생운동에참여했다. 1919 년에는중화공업협회中華工業協會와중화전국공계협진회中華全國工界協進會를발기했고, 노동자들과함께 5·4 운동에도참가했다. 그의동료인요작빈 (姚作賓) 은중화전국학생연합회中華全國學生聯合會의대표로블라디보스토크에건너가러시아공산당과중국의학생운동에대한지원문제를 논의했던학생운동의지도자였다.<sup>55</sup> 그들은자칭아나키스트로한인혁명가의경

<sup>53</sup> 〈威廉斯基 — 西北利亞科夫致共產國際執行委員會的信〉, 모스크바 1920 년 9 월 1 일.

<sup>54</sup> 이현주 『한국사회주의세력의형성』, 일조각 2003, 151~54 면.

<sup>55</sup> 〈俄共(布) 中央委員會西伯利亞局東方民族部就本部組織與活動向共產國際執行委員會的報告〉, 이르쿠츠크 1920 년 12 월 12 일.

제적도움아래노동단체를매개로대동당을만들었다. 장국도의회고에는“중화공업협회의상무이사인황개민이현재대동당이라는조직을만들려고노력한다. 그는중국전체의사회주의자와연합하고, 조선의혁명파와합작하자고주장하며, 러시아와관계를맺으려한다”<sup>56</sup>라고기록했다.<sup>57</sup> 황개민과요작빈은보이팅스키일행이상해에오기전부터재상해러시아혁명가들과연락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당시러시아측첩보에따르면순문은대동당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었고, 그의비서와재정부장도대동당당원이었다는흥미로운기록이었다.<sup>58</sup> 그리고일본측첩보에따르면대동당은“인도인, 조선인, 지나인, 일본인등모두 3 천인”이라고하는데, 아마도과장된수치이겠으나국제주의를지향한조직임에는분명하다.<sup>59</sup>

지나공산당은여러아나키스트단체의연합으로알려져있다. 1918 년천진에서강반약을중심으로진사眞社가만들어지고 「신생명」이라는잡지를출간했다. 1919 년남양지역에서는진사라는같은이름의조직이만들어졌는데, 이것은중국의남북아나키스트들이연합해만든조직이었다. 그런데다시장주에서도진리사眞理社라는유명한이름의단체가만들어졌는데, 이진리사는전국각지에서진형명의사회주의실현에동참하고자모인아나키스트들이만든것이였다.<sup>60</sup> 이러한진(리) 사가지나공산당의전신으로보인다. 한때 「대한독립보」의기자를역임했던장목지는 1920 년 4 월장주에서진형명동치하의교육국의고문이되였다. 앞서언급한포타포프장군일행이장주에내려오는것도이때의일이다. 포타포프가장주에온목적은진형명을이용해동아시아사회주의자들의연합단체를만들고, 중국현지에공산당을건설하는것이였다. 이때만들어진공산당이아마도장목지가주도한지나공산당이아닐까싶다. 이미 1919 년여름전국아나키스트단체가모여지나무정부공산당支那無政府共產黨을만들려는시도가있었으나실패했다고한다. 비록이때성립되지는못했으나그명칭이후에도쓰였을가능성에유의할필요가있다. 장목지가들연장주에서상해로돌아온것도창당공작과관련이있어보이는데, 이즈음진형명의위탁으로상해에서신화학교내세계어학교가

패했다.<sup>13</sup> 이소식을들은대삼영은직접상해로와서일본유학출신아나키스트등몽선(鄧夢仙) 의도움으로위조여권을구입했다.<sup>14</sup> 그의여행목적은대회참석말고도러시아에서일어난크론슈타트수병의반란과마흐노운동및레닌정권의신경제정책등을자세히파악하려는의도가있었다.<sup>15</sup> 대삼영은상해를출발해프랑스로떠날무렵, 광주에서결성되었다가상해로옮겨온아나키스트그룹인무정부주의자동맹(AF) 의존재를알게되였다. 이조직은중국공산당에대항하기위해만든단체로, 대삼영은이들과몇차례회의를열어중일양국의혁명문제를논의했다고한다.<sup>16</sup> 이만남은중일아나키스트의국제연대를향한새로운실마리를제공한것으로보인다.

대삼영은프랑스에도착한후현지에서다양한국적의아나키스트망명객과접촉했다. 그중에는중국인아나키스트필수작(畢修勺) 을만난기록도남아있다.<sup>17</sup> 그런데 1923 년 2 월예정이었던국제아나키스트대회가각국정부의방해로무기한연기되었고, 우연히파리근교의한집회에참석하여연설하던중체포되였다. 경찰은처음에는중국여권을소지해중국인인줄알았던인물이조사결과일본의유명한아나키스트대삼영임을알게되자강제출국시키기로결정했다. 당시일본의신문지상에는대삼영이출연히국내에서사라지자러시아로탈출했다는등의유언비어가무성했다. 일본선박을이용해신호神戶로강제송환될즈음에대삼영은이미러시아볼셰비키에대한일체의환상을버린상태였다. 비록본래여행목적이었던국제아나키스트대회에는참가하지못했으나여행과정에서러시아혁명에대한비교적풍부한정보를얻을수있었다. 그가유럽여행을하던기간중아나키스트계열노동조합은전열을착실히정비하고있었다. 「노동운동」 과광복을이루는잡지「조합운동」(1923 년 2 월) 도출판하며독자적인운동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다지고있었다.

귀국후대삼영은전국적아나키스트연합조직의필요성을절감했다. 그런데전국조직을준비하던 1923 년 8 월말관동대지진이일어났다. 수도권동경은아비규환의지옥으로변했으며, 재일한인들이우물에독극물을넣었다는유언비어가돌면서다수의한인들이일본인들에의해무참히학살당했다. 지진의혼란속에서벌어진한인학살책임을피하기위해일본정부는재일한인아나키스트박열(朴烈!) 과거의처김자문자(金子文子) 등을대역사건에연루시켜체포, 투옥시켰다. 뿐만아니라이번기회에일본인사회주의자에대한대대적인검거열풍도불었다. 혼

<sup>56</sup> 張國燾, 앞의책 82, 130 면.

<sup>57</sup> “(대동당의) 발기인인황개민의말에따르면대동당의전신은 1915 년 7 월에성립한신아동맹당이였다. 이것은당시일본에서유학하던자신과조선유학생인신익희(申翼熙), 장덕수(張德秀), 중국유학생인진기우(陳其右), 왕희천(王希天) 등이함께조직한것이다. … 신아동맹회성립후오래지않아그는당의중지를실행하기위해일부조선유학생과조선에건너갔다. 여기서조소양(趙素昂) 등과같은조선독립인사및사회주의자들과광범위한교류를했다. (1920 년) 당시신아동맹당시기의동지신익희, 조소양등조선독립운동지사는임시정부와중환호조사中韓互助社등을중심으로적극적인활동을전개했다. 피압박민족의연합을추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대동당지도자의한사람인황개민이조선독립운동을지지한것은사상적으로본다면매우자연스러운일이였다”(石川禎浩, 앞의책 116~118 면).

<sup>58</sup> 〈波塔波夫給契切林的報告〉, 모스크바 1920 년 12 월 12 일.

<sup>59</sup> 시존통의진술에따르면, “상해의공산당은두가지가있었다. 하나는진독수가창건한것으로순수한마르크스주의를신봉했고, 다른하나는황개민파가조직한것으로아나키즘파마르크스주의가혼합된것이다”(石川禎浩, 앞의책 123 면재인용).

<sup>60</sup> 李丹陽, 앞의글 44~51 면.

<sup>13</sup> 玉川信明 『中國の黒い旗』, 晶文社 1981, 213~15 면.

<sup>14</sup> 프랑스로중법대학의호의로그대학에유학중인중국인유학생당계(唐繼) 라는학생의명을빌려위조여권을만들었다(近藤憲二, 앞의책 53 면).

<sup>15</sup> 玉川信明 『中國アナキズムの影』, 三一書房 1974, 84~99 면.

<sup>16</sup> 鄭佩剛 〈無政府主義在中國의若干事實〉, 葛懋春·蔣俊·李興芝編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67 면.

<sup>17</sup> 1923 년불리웅중법대학의장동(章桐) 이대삼영을데리고프랑스인을만났을때, 필수작이통역이되어일본아나키즘운동의상황을프랑스인에게소개해주었다(畢修勺 〈我信仰無政府主義的前前後後〉,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27 면).

이 벌어졌다. 그는 쟁의의 초점은 전국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자율적인 조합의 연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집권적인 통일조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1922년 전반기에 양측 노동단체는 연합이나 합동이나를 놓고 팽팽한 대결을 벌이다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sup>11</sup>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는 일본공산당을 창립(1922년 7월 9일) 하고, 파계열의 노동조합을 모아 '총동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러시아공산당이나 키스트와 생디칼리스트의 배격을 결정한 사항에 따르고 있었다. 이때 마르크스주의자 산천균은 <무산계급운동의 방향 전환>(1922년 8월)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전위」에 발표했다. 여기서 소수 지식인 중심의 사상투쟁에서도 노동대중의 행동과정치투쟁을 중시하는 것으로 노선을 전환해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정부를 거부하는 것은 소극적인 전술이며 정치를 통해 저항하는 것이 적극적인 전술이라는 것이다. 대삼영은 이런 주장을 비난하면서 과거의 동지였던 산천균을 비롯한 일본공산당의 지도자들을 격렬히 공격했다. 결국 키스트계열의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전국조직인 '총연합'을 구축하고 아나-불노쟁을 전개했다.

일본에서 좁은 의미의 아나-불노쟁은 1922~23년 사이에 대삼영과 산천균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말한다. 대체로 산천균은 노동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삼영은 노동문제도 인생문제라는 독특한 관점을 견지했다. 초기에는 노동조합의 전국적 결집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부적인 논쟁의 내용들은 중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산천균의 현실주의와 대삼영의 이상주의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했다. 이런 아나-불노쟁의 기원은 1907년 일본사회당내에서 직접행동과의 회정책을 둘러싸고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간의 갈등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sup>12</sup> 일본공산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대삼영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아나키스트들은 일정한 세력을 유지했으나 대삼영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런 균형을 깨뜨렸다.

### 대삼영의 죽음과 노동운동의 분열

대삼영은 국내에서 마르크스주의자와의 합작이 실패하자 국제 아나키즘 운동에 관심을 돌렸다. 1923년 1~2월경 베를린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 아나키스트 대회에 참가요청편지를 받자, 그는 즉각 초청을 받아들여 다시 일본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마침 대삼영의 오랜 동지인 산록태치(産鹿太治) 가 러시아를 가기 위해 중국에 체류중이었는데, 그는 일본을 탈출하려던 대삼영의 위조여권을 만들기 위해 북경에서 맹인 시인 바실리에로센코(Vasilii Erosenko)와 북경대학교 교수작인(周作人) 등과 접촉했다. 그 후 경매구(景梅九)에게 길을 의뢰했으나

<sup>11</sup> 萩原晋太郎, 앞의 책 107~112면.

<sup>12</sup> 大窪一志 <アナ・ボル論争再見>, 『山川均大杉榮アナ・ボル論争』, 同時代社 2005, 273~365면 해설.

만들어졌다.<sup>61</sup> 장목지는 무정부공산주의 동지사의 외곽조직이었던 신화학교에서 활동하던 육식해, 스테파니 등과 함께 활동했다.

대체로 지나공산당은 상해·북경·남양일대에서 활동한 아나키스트와 에스페란토주의자가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장목지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움직임이 곧 지나공산당의 활동일 것이다. 육식해와 스테파니 등은 상해 혁명국(중공상해발기조)과 사회주의자 동맹 소속의 우신인쇄소를 통해 아나키즘과 에스페란토 관련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었다. 한편 사회주의 청년단의 대표인 물유수송도 아나키즘에 공감하고 있던 인물로 아나키즘과 불세비즘의 합작을 추구하고 있었고 역시 에스페란토를 배운 적이 있었다. 이처럼 각 단체들간의 복잡한 관계는 지금도 풀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다.<sup>62</sup> 대체로 중공상해발기조, 지나공산당, 동방공산당 東方共産黨은 별개의 조직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 동맹은 중공상해발기조는 물론 지나공산당의 뿌리인진(리)사, 진화사 등의 아나키스트가 참가한 연합조직이라고 한다. 대동당은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 후에 동방공산당으로 불리지만 같은 아나키스트 계열인지나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였다. 사상적 유사성 말고도 대동당의 황개민과 오작빈 등은 과거 일본 유학 시절 유일학생 구국단 단원이었는데, 지나공산당의 장목지도 역시 같은 단원이었다. 이 두 단체는 모두 한인 사회주의자 혹은 아나키즘 경향이 강한 불세비키를 통해 러시아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호 교류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진독수의 중공상해발기조가 노동자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대동당원과 연락했다거나 군대에 침투하기 위해 진리사를 이용했다는 단편적인 사건들만 일부 확인될 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sup>63</sup>

## 3. 아나-불합작의 분열과 논쟁

### 아나-불분열의 과정

1920년대 중국과 일본은 물론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도 비록 시기는 조금 달리 하지만 모두 아나키즘-불세비즘 논쟁(이하 아나-불노쟁)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중국 사례에 제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공산당이 창립할 무렵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주의자간에는 쟁의가 벌어졌다. 중국 학계에서는 아나-불노쟁을 중국공산주의 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해하는데, 이 논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정당 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가 필요한 가등을 놓고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논쟁을 당사黨史 위주의 역사 해석

<sup>61</sup> 李丹陽, 앞의 글 63면.

<sup>62</sup> 같은 글 56면.

<sup>63</sup> 李丹陽·劉建一 <‘革命局’辨析>, 『史學集刊』, 2004. 3, 48면.

방식에 따라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수용 및 공산당의 창립 과정과 곧바로 연결하고자 하는 강한의 지때문에 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는데 소홀했다는 점이다. 아나-볼논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보자.

아나-볼합작시기에 아나키스트가 마르크스주의자의 출현에 대해 우호적 태도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사복은 1914 년경에 마르크스주의를 집산사회주의 혹은 국가사회주의라고 부르며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사복의 학생인 황릉상도 「진화」(1919 년 2 월)에서 사복의 관점을 이어받아 아나키즘을 공산주의로 마르크스주의를 집산주의로 분류한 후,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사회주의라는 시각에서 비판했다. 중국의 경우 1920 년대 이전에는 아나키즘을 공산주의와 동일어로, 마르크스주의를 집산주의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청년」의 〈마르크스 연구〉 특집호(6 권 5 호, 1919 년 5 월)에게 재한 〈마르크스학설의 비평〉에서 다시 한번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물론 잉여 가치설, 유물사관, 변증법 등에 대해 개괄적인 비평을 전개했다. 그밖에 광주에서 출판되는 「민풍」 등에도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하는 글들이 보인다. 이렇게 사복의 뒤를 잇는 구성백과 황릉상, 양방현 등 코민적 아나키스트들은 크로포트킨의 관점에 근거해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나-볼논쟁이 개시되기 전까지 그들의 비판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아나-볼논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르크스주의, 특히 러시아 볼셰비즘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난을 퍼부은 그룹이 있었다. 중국 아나키스트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적(허무적) 아나키스트가 바로 그들이다. 대표 인물인 주겸지(朱兼之)는 『현대사조비평』(1920 년 1 월)이라는 책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변형된 국가주의이며, 과거의 화석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학은 혁명과 대립한다는 독특한 관점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과학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과학역시 하나의 권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은 파괴이지만 과학은 건설이며, 혁명은 사상의 절대 자유를 주장하지만 과학은 나날이 보수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명이란 본능의 충동이라고 믿었으며, 과학은 그런 욕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비판은 마르크스주의나 볼셰비즘은 물론 호적(胡適)의 실용주의나 심지어 코민적 아나키즘에도 적용되었다. 주겸지는 허무주의 철학이야말로 과학주의에 기초한 혁명론보다 더욱 진보적이라는 독특한 주장을 폈다.

주겸지는 북경 대학 동료인 역가월(易家鉞), 광몽량(郭夢良) 등과 함께 「분투」(1920 년 초 창간)를 창간하여 러시아 혁명과 볼셰비즘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 분투파는 「분투」제 2 호에 이미 〈우리들은 '볼셰비키'를 반대한다〉를 실어 볼셰비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투」제 8~9 합호를 아예 '볼셰비키 반대 특집호'라는 제목으로 간행해 당시 볼셰비키 혁명에 호기심을 가졌던 대다수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대담한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볼셰비키와 세계 평화〉〈왜 볼셰비키를 반대하는가〉 등의 글을 통해 러시아 10 월 혁명은 불철저한 혁명이며, 불철저한 혁명은 개량과 다름없으므로 부정해야 한다고 선

원래 대삼영은 공산당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그는 당과 운동가의 노동자에 대한 지도를 비판했으며, 노동자 스스로의 운동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여기에는 코민테른이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관점도 포함되었다. 심지어 아나키즘 운동에서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의 한 무리가 이른바 선민(選民)이 되어, 그들의 이상인 새로운 사회를 어리석은 민중에게 강요하려는 것은 안된다. 사회혁명 일체의 과정을 예정하여 한정하고, 그 길을 민중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도 안된다. 일체를 민중 자신의 자유로운 창조력에 맡겨야 한다”<sup>9</sup>면서 민중에 대한 모든 지도와 강제를 명백하게 부정했다.

대삼영은 지배에 대항하는 자세와 관련해 '반항'이라는 기본 정신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전술의 복잡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반항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마치 “나는 주위의 압박에 민감하며, 그런 압박에 대해 강렬한 반항 본능이 있다”는 그의 개인적인 취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즈음 대삼영은 크로포트킨의 『한 혁명의 회상』을 번역 출판했는데, 여기서도 크로포트킨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민족대회(1921 년 12 월)에 참석한 일본 대표단 중에는 마르크스주의자보다 아나키스트가 많았다. 그들 대부분은 노동 단체의 지도자였으며, 대회 참석 말고도 러시아의 실상 파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대표단은 볼셰비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정권 아래서 노동자·농민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아나키스트에 대한 탄압을 목격하면서 혁명 러시아의 현실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sup>10</sup>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아나키스트 잡지 로거들만 「노동운동」(제 3 차)이 복간되었다. 이 잡지에는 소비에트 정부의 아나키스트에 대한 탄압 사실을 게재했으며, 러시아 혁명을 실패한 혁명이라고 비판했다. 제 3 차 「노동운동」의 특징은 본래의 아나키스트 잡지로 돌아와 볼셰비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많다는 점인데, 볼셰비키의 중앙 집권주의를 조합제 국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자유 연합파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일본의 볼셰비키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전위前衛」를 발간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나-볼논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아나키스트는 프롤레타리아가 달성해야 할 최대 과제는 일체의 정치 권력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정치 권력을 파괴하기 위해 소위 혁명적 임시정부 같은 권력 조직을 만드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는 모든 부르주아 정치를 배제하고 사회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노동 운동 분야에서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이전까지 아나키스트 계열 노동 조합과 마르크스주의 계열 노동 조합은 이론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단결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노동 조합의 건설 과정에서 조직과 운영 방식을 놓고 충돌

<sup>9</sup> 大杉榮 〈無政府主義將軍〉, 『大杉榮』 273 면.

<sup>10</sup> 近藤憲二, 앞의 책 43 면.

이즈음대삼영을비롯한일본의아나키스트는중국의아나키스트와마찬가지로러시아혁명의실상과불세비키의정체에대해큰관심을가지고있었다. 왜냐하면러시아혁명이자본주의체제를전복한세계최초의혁명이었고, 전세계의피압박민족에게커다란희망을불어넣었기때문이다. 따라서처음에는그들과의공동전선에대한희망을포고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아끼지않았다. 그런데후자는이런아나-불합작을추구한다대삼영의행동을본인의일생일대의실책이라고본다.<sup>6</sup> 대삼영의마르크스주의자와의합작에반대하던아나키스트들, 즉고미신병위(高尾新兵衛)와암좌작태랑등은따로동지 30 여명을모아「노동자」라는간행물을중심으로결집했다.

1921년 3월경에대삼영은마르크스주의자와의협력을재검토하기시작했다. 러시아에서크로포트킨이 1921년 2월 8일폐결핵으로사망하자지독한추위에도불구하고장례식에 2만명의추모인파가몰렸으며, 그들은“권위가있는곳, 그곳에는자유가없다”또는“노동계급의해방은노동자자신의일이다”와같은플래카드나검은깃발을흔들며레닌정부에대해서위를벌였다. 소비에트정부의독재에실망한크로포트킨도죽기얼마전레닌과의서신교류를통해불세비키의방식을비판하면서노동조합을통한이상사회의실현을희망했다. 얼마지나지않아불세비키정권에대항하는크론슈타트수병의반란이일어났고곧바로진압되었다. 대삼영은미국아나키스트엠마골드만이나알렉산더버크만이쓴러시아혁명경험담을읽고번역하는과정에서레닌정권이아나키스트를대규모로탄압한사실을알게되었다.<sup>7</sup> 이런러시아의현실이폭로되면서점차일본국내의마르크스주의자와의불협화음이일어났다.

1921년 4월상해에서임모(林某)라는한인으로부터대삼영에게다시연락이왔다. 대삼영은신병치료중이라지신이직접중국에갈수없는상황이어서대리인으로근등영장(近藤榮藏)을추천했다. 그래서근등영장이대신상해로건너갔다. 문제는근등영장이일본공산당결성의지하공작을담당하던인물로, 대삼영모르게계리언, 산천균과연락하고있었다는사실이다. 그는운동자금 6,500원을가지고귀국하다가경찰에체포되었고, 조사과정에서계리언등과비밀리에공산당건설을모색한다는사실이신문에폭로되었다.<sup>8</sup> 대삼영은배신감에크게분노했으며, 결국그들과의합작을단념하지않을수없었다. 1921년 6월일본마르크스주의자들이공동전선을파기하자다음달「노동운동」(제 2차)은 15호로폐간되었으며, 마침내일본에서의아나-불합작은끝났다.

<sup>6</sup> 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60 면.

<sup>7</sup> “(1921년) 트로츠키는크론슈타트의반란자들을‘토끼사냥하듯사살하라’는명령을적군에게내렸다. 크론슈타트반란자들의가족이불모로잡혔고, 적군은얼어붙은바다를건너이섬을공격해 1만 8,000명의아나키스트들을살해했다. 그해말질러버린골드만과버크만은러시아를떠났다”(손수안, 조준상 옮김 『우리시대의아나키즘』, 필맥 2003, 137 면).

<sup>8</sup> 多田道太郎 〈生と反逆の思想家大杉榮〉, 多田道太郎編 『大杉榮』, 中央公論社 1984, 61~62 면.

언했다. 분투파가제기한이른바분투주의는과학과혁명, 과학과철학을대립관계로설정해불세비즘과코민적아나키즘을모두부정했다. 이들의비판은코민적아나키스트인황릉상을자극해서론쟁을벌이기도했다.<sup>64</sup>

「신청년」은 1920년 9월부터상해소조의기관물이되었다. 일반적으로진독수가여기에실은〈정치를말한다〉(8권 1호, 1920년 9월 1일)라는글이아나키즘을공개비판한아나-불논쟁의서막으로본다. 이글에서그는정치를말하지않는세계의집단, 즉학계(호적, 장동손등), 상계(상해등지의상인집단), 무정부당을지목하면서문제를제기했다. 진독수는앞의두집단은단지현실정치문제로부터도피한이탈자로보았으나, 아나키스트에대해서는본래일체의정부조직을타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집단이라고따로구분했다.<sup>65</sup> 그는여기서국가·정부·법률을단번에폐지할수없으며, 현실적으로노동자가권력을집권하는과정필요하다면서아나키즘에반대하는입장을표명했다.

〈정치를말한다〉가발표된지얼마지나지않아정현중(필명鄭太朴)이이글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편지를「신청년」에연재하면서논쟁이시작되었다. 정현중은주검지와함께「분투」에서불세비즘에대해공개적인비판을한인물이기도하며, 진독수가자신의글에서‘중국식무정부주의’의대표인물로지목한사람이기도하다. 그는편지에서중국인에게는중앙집권적정치조직이적합하지않으며, 중국사회에서는프롤레타리아독재를실행할수없다고주장했다. 그가주로비판한것은‘당의건설’또는‘당의독재’보다이런조직을추구하는‘주의’와‘목적’에집중되었다. 정현중은자신이주장한중국식아나키즘이란중국사회와중국인의정서에걸맞은것으로, 서양이론을추종하는크로포트킨·바쿠닌·프루동주의자와는다른것이라고주장했다.<sup>66</sup> 이에대응해진독수는「신청년」에〈국가·정치·법률〉〈노동전정〉등과같은글들을잇달아연재했고, 이에만족하지않고다시〈중국식무정부주의〉〈하품下品の무정부당〉등의글을써서자신의논적에대한비판의강도를높여갔다.

그런데진독수가이번논쟁에서비판하고자한직접적인대상은코민적아나키스트라기보다는개인적아나키스트(혹은중국식아나키스트)였다는사실은별로알려져있지않다. 그가표적으로삼은사람은정현중을포함해「분투」의주검지, 「자유」의경매구<sup>67</sup> 등이었다. 진독수의눈에는주검지가우주혁명을운운하며자살과자유애를주장한다든지, 경매구가노자와장자를운운하며허무주의를선전하는것이청년들을타락시키는행위로보였다. 특히중국식무정부주의를운운하는것은그가가장혐오하던전통문화의부활로비쳐졌다. 진독수가분노한것은

<sup>64</sup> 줄고 〈중국 5·4 운동시기아나키즘 — 불세비즘논쟁〉, 「역사비평」 2000 가을, 330~31 면.

<sup>65</sup> 陳獨秀 〈談政治〉, 「新青年」 第 8 卷第 1 號, 1920. 9. 1.

<sup>66</sup> 鄭賢宗 〈國家·政治·法律〉, 「新青年」 第 8 卷第 3 號, 1920. 11. 1.

<sup>67</sup> 경매구는신해혁명이전부터아나키즘활동을한인물로, 5·4 운동시기에슈티르너의영향아래개인의절대자유를노자와장자류의전통사상과결합했다.

개인적이나 키스트들이 자신이 주도하던 신문화운동의 민주와 과학이라는 계몽운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최근에 자신이 받아들인 마르크스주의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조차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도 코민적이나 키스트보다는 개인적(혹은 중국식)이나 키스트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어도 1920년 말까지는 중국식이나 키즘의 주류인 코민적이나 키스트를 대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비판의 수준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자와 코민적이나 키스트 사이의 아나-불논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는 언제일까?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상해 소조 이름으로 「공산당」을 창간(1920년 11월 7일)하고 여기에 〈중국공산당선언〉의 초안을 실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장동손이 「시사신보」에 〈내륙여행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개량적인 사회주의의 길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길드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논쟁’을 개시했다. 곧이어 광주 법정 학교에서 있었던 진독수의 사회주의 비평 강연(1921년 1월 15일)에서는 과거의 수준을 넘어 마르크스주의를 제외한 기타 사회주의 사조에 칼을 겨누었다. 이 강연에서 진독수는 사회주의를 아나키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노동조합주의, 길드 사회주의 등 5개 파벌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중 아나키스트에 대해 “비록 무정부주의는 몇 가지 파벌로 나눌 수 있으나, 각각의 공통된 핵심은 개인 혹은 작은 단체의 절대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전제했다. 그들이 경제 분야에서 현대적 공업 발전을 주장하지만 “통일된 조직이 강제력을 사용해 간섭 조절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생산물이 남거나 혹은 부족할 폐단이나 난다”고 지적하고, 정치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불간섭을 주장하고 근본적으로 법률을 폐지하자는 것은 큰 착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강연 내용은 아나키스트의 강한 불만을 샀으며, 결국 본격적인 아나-불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광주는 과거 사복이 활동했던 근거지이자 중국식이나 키즘의 본부로서 인식되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진독수가 아나키즘을 비판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진독수는 북경 대학의 사제 지간이자 광동 출신인 진공박과 담평산, 담식당(譚植棠) 등을 광주로 불러들여 「광동군보 廣東群報」를 창간했는데, 바로 이 신문 1921년 1월 19일자 기사에 광주 법정 학교의 강연이 실렸다. 그리고 이 강연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구성백이 1월 22일자 같은 신문에 진독수에게 편지를 써서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처럼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대체로 1920년 말과 1921년 초 사이의 일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후 전개된 아나-불논쟁은 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문제’ 개인의 자유와 당의 기율 문제\* 생산과 분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진독수는 광주의 사회주의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다른 지역의 사회주의자 동맹은 모두 취소되었고, 무정부주의 또한 무슨 정당이나 아니다. 사상과 행동의 통일을

스주의자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자와 국가 사회주의자, 노동조합주의자 등 대표적인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고루 참여했다. 이 조직은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선언으로 “모든 색채의 사회주의를 규합해 일대 단체를 조직할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당시 발기인의 3분의 1 정도가 대삼영의 지지자였다. 비록 일본 내 독자적인 통합 움직임이 이전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자 동맹과 일본의 사회주의 동맹은 명칭은 물론 성격도 유사하므로 우연히 동시엔 만들어졌다고 보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 실제로 보이틴스키 일행이 동아시아 3국에서 사회주의 선전과 조직 사업을 하려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일본에서의 아나-불합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중국과 일본의 사회주의자 간의 교류는 단편적이거나 마계 속이나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20년 6월 말 상해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의 일원이었던 시존통(施存統)이 일본으로 유학을 왔다. 시존통은 상해에서 출간된 아나키스트 잡지 「자유」의 주일 대표이기도 했는데, 일본 경찰은 그가 「자유」 편집부와 오고간 편지를 정탐하며 감시 활동을 펴고 있었다. 시존통은 중국과 일본의 사회주의(자) 연맹의 연결 통로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sup>3</sup> 북경의 이대조(李大釗)도 1920년 말 혹은 1921년 초 일본 사회주의 동맹에 가입하고 동맹의 소개 책자 50 부를 구입했다고 전한다. 이 동맹에는 일본 사회주의자는 물론 중국인인 인도를 비롯해 정수홍(鄭守洪)과 강인수(姜仁秀) 등한 인 유학생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를 근거로 사회주의 동맹의 건립을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화의 출발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주의 동맹에 참가한 회원은 3천여 명이 넘었고, 각 지역에서 연설회를 개최했으며, 기관지로 「사회주의」를 발행했다. 이처럼의 목적으로 출발한 사회주의자들의 합작은 출발부터 사상적 대립이 심화되어 흔들거렸고, 다음 해 5월에 열린 사회주의 동맹의 제 2차 대회 직후 정부의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해체되었다. 동맹의 기관지 「사회주의」도 9월호로 폐간되었다.<sup>4</sup>

한편 1921년 1월 말 대삼영은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주의자의 공동 잡지 「노동운동」을 복간했다. 제 2차 「노동운동」은 세계의 혁명 운동에 눈을 돌렸으며, 통일 전선의 사상적 모색을 했다. 창간호에 실린 〈일본의 운명〉에서 대삼영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점차가 열리는 조선의 독립 운동은 일본과 러시아의 충돌을 다시 초래할 것이며, 신흥 중국의 남경 정부와 러시아는 동맹국이 될 것이다. ... 이리하여 일본은 러시아·중국·조선을 적으로 하여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날이면 일본의 자본주의와 군국주의는 끝장이 날 것이다. ... 결국 일본은 망하게 될 것이니, 이 낡은 일본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려는 사상이 유력한 애국자들 간에 일어나고 있다.<sup>5</sup>

<sup>3</sup> 李丹陽 〈AB合作中在中國個案研究—眞(理)社兼及其他〉, 「近代史研究」, 2002, 1, 65~66면.

<sup>4</sup> 近藤憲二 『私のみた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麥社 1969, 39~41면.

<sup>5</sup> 大杉榮 〈日本の運命〉, 『大杉榮集』 筑摩書房 1974, 256~57면.

## 제 4 장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의 분화와 연대 활동

### 1. 일본 아나키즘의 분화

#### 아나-불합작과 분열

러시아 혁명은 중국의 경우처럼 일본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나-불합작의 계기를 마련했다. 대삼영(大杉榮)이 그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앞장에 잠시 언급했듯이 1920년 여름 중국 상해에서 한인 동지 대삼영의 집을 방문해 그를 만났다.<sup>1</sup> 대삼영은 그의 요청에 따라 그해 10월 일본을 비밀리에 탈출해 상해에서 열리는 극동 사회주의 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코민테른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과 조선,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대표가 모여 동아시아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극동 사회주의 자회의에는 각파의 사회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코민테른이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 모임 성격을 띠었다. 이 회의를 계획한 러시아 밀사보이틴스키(G. Voitinsky)는 대삼영에게 코민테른 일본 지부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대삼영은 단지 정보 교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는 활동 자금을 받아 11월 말경 일본으로 귀국했다.<sup>2</sup> 이 자금은 「노동운동」(제 2차)을 복간하는 데 사용했는데, 보통이 신문의 출간을 일본에서 아나-불합작의 출발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도 중국의 사회주의 자동맹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회주의 동맹’이 조직되었다. 1920년 12월 9일 전국 각지에서 온 40여 명의 사회주의자들이 대삼영의 집에 모여 사회주의 각파별의 분열을 막고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이 동맹은 대삼영, 암좌작태랑(岩佐作太郎), 근등헌이(近藤憲二) 등과 같은 아나키스트와 게리언(堺利彦), 산천균(山川均) 등과 같은 마르크

<sup>1</sup> 상해에서 온 밀사는 보통 M으로 표기되어 성이 마모(馬某)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부장이었던 이춘숙(李春塾)이라는 설이 유력하다(川上哲政〈大杉榮の見た中國〉, 『初期社會主義研究』 第15號, 2002, 72면).

<sup>2</sup> 대삼영의 『日本脱出記』에는 제 1차 상해 여행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飛鳥井雅道編 『自叙傳·日本脱出記』, 岩波書店 1971, 290~98면 참조).

위해 반드시 조직을 통일시켜 공산당을 만들어 사회주의를 제고해야 한다. 오직 공산당에 가입해야 다른 조직은 일절 승인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광주의 유석심은 상해의 정패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정패강은 답장에서 “물을 필요도 없다. 전국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당신이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만 두라”고 회신했다.<sup>68</sup> 광주의 아나키스트들은 격렬한 논쟁 끝에 모임을 떠났고, 「노동자」도 정간되었다. 얼마 후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주의자 간의 협력이나 다시 논의되었지만, 결국 진독수의 공산당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합작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아나키스트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반대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 양자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1921년 3월 에스토야노비치와 베슬린이 참가하고 진독수와 담평산, 담식당, 진공박을 중심으로 한 광동 공산주의 소조(이하 광동 소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진독수의 지원 아래 담평산이 서기, 담식당이 선전, 진공박이 조직을 담당했는데, 여기에 다시 상해 소조의 일부 인원이 내려와 가담했다. 그해 초 상해 소조의 기관지였던 「신청년」은 프랑스 조계의 수사를 받자 광주로 옮겨와 진독수의 거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는 보이틴스키 일행이 러시아로 돌아간 후여서 진독수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진 상태였다. 다시 만들어진 광동 소조는 유명무실화되었던 광주 사회주의 청년단을 재조직했다. 이 무렵 청년단의 담평산은 구성백, 양방현 등과 수차례 만나 마르크스주의 지도 아래 청년단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년단 대표 회의는 결렬되었고 아나키스트들은 곧바로 청년단에서 탈퇴했다.<sup>69</sup> 이에 따라 광동 사회주의 청년단은 1921년 봄에 사실상 해산되었다가 1922년 5월에야 다시 조직된다.

광주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양측의 대립은 상해, 북경 등의 분열로 확대되어, 중국 각지의 아나-불합작은 끝났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자동맹도 차례로 해산되었다.<sup>70</sup> 진독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조항을 강요하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가 아나키스트의 반감을 가져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사회주의 자동맹의 붕괴를 가져온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나-불논쟁이 시작되고 사회주의 자동맹이 해체된 시기는 당시 레닌 정부가 아나키스트를 포함한 기타의 정치파벌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던 때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단지 진독수 개인 성향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 공산당 제 10차 대회(1921년 3월)에서 볼셰비키가 아나키스트와 생디칼리스트의 배격을 최종 결정하는 사실이다.

아나-불합작이 분열되었을 때, 상해에서 에스페란토를 전파하던 러시아 청년 스테파니가 돌연 자살(혹은 타살)했다. 이 아나르코볼셰비키의 죽음은 여전히의

<sup>68</sup> 劉石心, 앞의 글 936면.

<sup>69</sup> 唐宝林·林茂生編 『陳獨秀年譜』, 上海人民出版社 1988, 147~48면.

<sup>70</sup> 馬連儒, 앞의 책 128면.

문의베일에 싸여 있다. 그가 죽기 직전 「민성」에 기고한 글인 〈러시아동지 V. Storpani 가보내온 편지〉의 전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나는 무정부주의에 적극 찬성하며, 나는 무정부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당이 현재 처해 있는 자본주의 제도 아래, 인류의 이기적 사상이 이처럼 견고하고 지혜가 이처럼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얼마 동안은 실현되기 힘들 것입니다. 무정부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각방면의 운동에 종사해야 하고 무수한 고통을 겪어야 하며 결코 단숨에도 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볼셰비키당원이기도 한데, 볼셰비즘은 우리의 목적에도 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중앙집권은 결코 목적이 아니며, 단지 한 때 경과해야 할 단계일 뿐입니다. 레닌 역시 무정부주의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무정부주의가 일반인민에게 선전하고 깨우치는 데에 불과하고, 혁명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무정부주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 공산당의 선언은 그들의 목적이 무정부주의와 거의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은 실제로 러시아 인민대다수의 각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에게 온 이따라 주어진 권을 탈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은 결코 러시아 혁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인이 정권을 장악하던 사람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고 산업을 소유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다시 금새로운 자본가들이 등장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는 혁명의 방법에 대하여 우선 대다수 인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비밀기관을 조직하여 혁명 과제를 실행하는 것은 무정부당도 찬성하는데, 예를 들어 바쿠닌의 ‘공민회 公民會’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무정부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반드시 지방별 직업별 로차치의 전권을 얻어 각 지방과 개인정신이 자유로운 발전을 얻어 일종의 자유연합 사회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중앙집권적 국가에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무정부주의와 볼셰비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sup>71</sup>

위의 기고문은 언뜻 읽어 보면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의 합작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자는 “아나키즘을 적극 찬성”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나키즘적 이상 사회가 곧장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볼셰비즘을 우리의 목적에도 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레닌 정권은 아나키즘과 적대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러시아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출현한 것이라고 수긍한다. 게다가 “소수인이 정권을 장악하던 사람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았기 때문에 매우 쉽게 다시 금새로운 자본가들이 등장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타낸다. 하지만 글의 후반부에서는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국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스테파니가 혁명이란 제 조할 수 없으며, 더욱이 독재

않고 견재했음을 반증한다. 한편 같은 시간 러시아에서는 다수의 아나키스트들이 서유럽으로 망명의 길에 올랐으며, 버크만이나 골드만 같은 저명한 아나키스트도 “혁명 은 죽었다”며 러시아를 떠났다.

아나-볼논쟁을 정리하자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나키스트들을 반대한 이유는 아나키즘의 이상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제시한 방법과 수단인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한 부분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주의야말로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 볼셰비키 정당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현실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아나-볼논쟁의 진정한 성격은 누가 더 수준 높은 과학이냐는 이론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누가 더 중국 사회의 변혁 문제에 그럴싸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냐는 실제적인 문제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논쟁은 누가 서양의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 혹은 볼셰비즘 이론에 더욱 정통한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군벌정권의 억압과 제국주의 침탈에 대항하기 위한 현실방안의 마련에 효과적인 주장을 내놓는가의 경쟁이었다. 사실 양자 모두 서양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보면 전면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었으며,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었다.

여기서 아나키즘이 그 이론의 공상성 때문에 논쟁에서 패배했다는 역사 평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중앙집권적 혁명정당의 건립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자에 대해 아나키스트는 자유연합과 분권적인 조직원리를 제시했다. 그들의 조직원리가 현실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그들은 볼셰비즘에 내재된 권위주의적 단일당 독재의 출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승인했던 마르크스주의자에 대해, 아나키스트는 이런 시도는 결국 변질되며 모든 변혁 운동은 반드시 그 운동주체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민의’ 사회주의를 제창했던 그들의 선언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는 경제 결정론과 역사유물론의 신봉자들이었다. 그들의 결정론과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강한 설득력을 지녔으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이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과학임을 자랑하는 이론의 독재를 믿느니 차라리 그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20 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일 것이다.<sup>80</sup>

<sup>80</sup> 한 연구자는 고전적 아나키즘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한 사례가 있듯이, 21 세기의 새로운 아나키즘 역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반세계화 운동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다시 한번 마르크스와 의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상헌 〈아나키즘 르네상스〉, 백용식 옮김, 『아나키즘』, 개신 2009, 318 면).

<sup>71</sup> 〈러시아동지 V. Storpani 가보내온 편지〉, 「民聲」第 13 號, 1921. 4.

서다수의노동인민이충분한민주를향유하고있다고선전했다. 그리고산업국유화정책은생산력을집중하는데서나타나는필연적인현상이고, 그안에서노동자와농민의권리가보장된다고강변했다. 또한레닌의신경제정책은현실에서출발한정책으로매우성공적으로추진중이라고보았다. 그래서그들은아나키스트와는달리소련의혁명이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평가를내놓았다. 덧붙여공산당원이지도자에게복종하는것은교도가교주에게맹종하는것과는전혀다르다면서, 당원은지휘를받으면서지도자를감시하기도한다는점을강조했다.

앞에서소개한논쟁내용을보면논쟁과정에서매우격렬하게진행된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반드시그렇지만은않았다. 어쩌면그들의논쟁은동류이파同流異派의관점에서이루어졌다고보는것이오히려실제와가까울것이다. 일부마르크스주의자는아나키즘이중국에서가장오래된사회주의이며, 상당히심오한이론적기초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인정했다. 그래서인지등중하(鄧中夏)와구추백(瞿秋白), 시존통등의글을보면, 이들모두논쟁당시아나키스트와마르크스주의자는궁극적인목적이동일하나단지그수단에서차이가날뿐이라고주장했다. 한마르크스주의자의말을빌리면, “우리들이현재주장하는것은아나키즘이아니라, 아나키즘에도달하기위한과정의하나인공산주의”<sup>77</sup>라는것이다. 양자의구분조차애매한경우도나타난다. 이달의경우, 아나-불논쟁에서레닌의불세비즘을적극옹호했던대표적인논객가운데한사람이지만노동조합적아나키즘과불세비즘의차이점을분명하게나누지않았다. 그가보기에이두집단의차이는단지채택한수단이 다르다는점뿐이었다. 그리고시존통이불세비즘의입장에서아나키즘을비판했음에도불구하고당의영도나노농연맹이필요없다고주장한다든지, 혹은사회주의를믿는학생과노동자, 군인의 3 대세력이연합해서사회혁명을이룩하자고한사실은차라리불세비즘이라기보다는아나키즘의주장에더가까운것이였다.<sup>78</sup> 이처럼상당수의마르크스주의자는동류이파의관점에서가까운시일안에각사회주의파별이동일한목적지에서만날것을희망했다.

당시어떤마르크스주의자는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의공동투쟁에찬성하면서도, “무정부당은우리의친구이지, 우리의동지는아니다”<sup>79</sup>라고기술했는데, 이대목은둘사이의미묘한불협화음을느끼게한다. 마르크스주의자가중국공산당을창당한후시간이흐르면서그들사이의틈은더욱벌어졌으며, 합작을유지할가능성은점점엷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19년부터 1922년까지이들의합작관계는어느정도유지되었다. 대체로 1922년 7월 ‘이대二大’를기점으로중국공산당이코민테른의조직적이념적원칙을전적으로수용하면서부터아나키즘과결별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중국공산당 ‘이대’에서조차여전히아나키스트와의임시합작방향이있었다는사실을보면아나키스트세력이당내에소멸되지

수단을채용할수없다는아나키스트의자세를견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기고문의다소자기모순적인내용은아나-불분열이시작되는 1921 년초의상해상황을염두에둔다면이른바아나코불세비키라고부수있는그의고뇌를드러내는글로도읽을수있을것이다. 그러던중 1921 년 3 월 27 일스테파니는돌연사망했다. 대체로타살가능성이높아보이지만, 만약당시신문기사대로 “자살의가장큰원인이 ‘정신상의고통’ 때문인데, ‘환경의압박’을받아마지막까지고민하다가 이와같은결심을했다”는내용을그대로믿는다면, 어쩌면그의죽음은중국에온이래전력투구했던상해에서의아나-불합작이붕괴된것과관련있을지도모른다.<sup>72</sup>

## 아나-불논쟁의전개

광주에서진독수와구성백은몇차례의공개서신을통해논쟁을계속했고, 얼마후진독수는 「신청년」에 〈토론무정부주의〉(9 권 4 호) 라는제목으로그내용을전부공개했다.<sup>73</sup> 몇개월전에이루어진진독수와정현종의논쟁과는상황이크게달라졌다. 왜냐하면구성백은 5·4 운동시기북경에서 「자유록」, 상해에서 「진화」 등을발간하던유명한코민적아나키스트였기때문이다. 드디어마르크스주의자가중국식아나키즘의주류인코민적아나키스트에게포문을연것이다.

대부분의논쟁이그렇듯이처음에는비교적우호적인토론이이루어졌으나, 점차시간이 지나면서는쟁이가열되고더많은사람들이논쟁에가세하면서사상투쟁의성격이점점분명해졌다. 전국의주요도시에서아나-불논쟁이일어났다. 아나키스트들은이시기에 「신청년」 「각오」 등의지면을빌려반격에나섰고, 특히사복이죽은뒤장기간간단되었던 「민성」을복간해논쟁에참여하기에이르렀다. 이잡지는특별호(제 30 호)를발행해마르크스주의, 불세비즘, 프롤레타리아독재, 계급투쟁등에관한비판을쏟아냈다. 이에대응해 「공산당」 같은마르크스주의잡지에서도아나키즘에관한여러가지비평을실었다. 그대표적인글은몇차례에걸쳐실린 〈단언短言〉이라는사설과이달(필명江春)의 〈사회혁명에대한생각〉 〈무정부주의의해부〉 및필명무해(無懈)의 〈우리는왜공산주의를주장하는가〉 〈정권을탈취하자〉 등을들수있다.

<sup>72</sup> 스테파니의의문의죽음에관해서당시상해의여러신문에기사가실렸다. 그내용을정리해읽기면대략다음과같다. 1921 년 3 월 27 일새벽상해동서화덕로東西華德路 2098 번지에서사건이발생했다. 러시아신문기자스테파니(27 세)가 6 연발권총으로오른쪽머리에 4 발발사한채쓰러진것을발견해공제의원公濟醫院에울렸으나다음날인 28 일사망했다. 러시아총영사가사신의상태를확인한후곧바로매장했다. 공식적인검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의견도있었으나, 병원에서는러시아총영사의동의가있었으므로불법이아니라고회답했다. 스테파니의침실에는여기저기혈흔이있었고, 6 연발권총 1 정과 4 발의탄피가발견되었다. 시신의우측태양혈머리에 4 곳의구멍이있었고, 탄알은모두머릿속에남아있었다. 방안에서친필로쓰는부모형매父母兄妹에게보내는편지 1 통이발견되었다(〈자살한한청년〉, 「民聲」第 31 號, 1921. 4).

<sup>73</sup> 鄭賢宗·陳獨秀〈討論無政府主義〉, 「新青年」第 9 卷第 4 號, 1921. 8. 1.

<sup>77</sup> 無懈〈我們爲什麼主張共產主義〉, 「共產黨」第 4 號, 1921. 5. 17.

<sup>78</sup> C. T. 〈我們要怎樣干社會革命〉, 「共產黨」第 5 號, 1921. 6. 7.

<sup>79</sup> 江春〈無政府主義之解剖〉, 「共產黨」第 4 號, 1921. 5. 17.

아나키스트와마르크스주의자사이의논쟁에서초점이됐던문제는대략세가지이다. 첫째, 프롤레타리아독재와마르크스주의국가론문제, 둘째, 개인의자유와당의규율문제, 셋째, 생산과분배문제등이다. 아나키스트는국가의해체를목표하므로자유를억압하는강권이라는점에서는부르주아국가든프롤레타리아국가든간에크게다를바가없다고보았다. 그들에게프롤레타리아독재란단지폭력으로폭력을제압하는방식에나지않는것이므로, 그것에동의할수없었다. 아나키스트는자유연합의원리에기초해조직과규율이개인의자유를침해할경우가차없이비판했는데, 여기에는볼셰비키의민주집중제같은다수인이소수의자유를억압하는원칙도해당되었다. 이에반해마르크스주의자는국가를단숨에폐지할수는없으며, 부르주아의음모를분쇄하기위해프롤레타리아독재도과도기적이거나마우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그들은인간사회에절대자유란없으며, 오히려당의규율에대한절대적복종의필요성을역설했다. 나아가혁명시기에권력의집중을위해서는개인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고했다.

아나키스트는생산자의자주관리원칙에의거해“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소비한다”는구호를내세웠다. 그들은경제투쟁을정치문제로부터철저히분리할것을강조하며, 노동문제를노동자스스로해결할것을희망했다. 이에반해마르크스주의자는자주관리는애당초불가능하며, 혁명후에도생산력의한계가있으므로“노동에따른분배”를해야한다고역설했다. 그들은경제와정치문제는밀접한관계를가진것으로서로분리할수없다고믿었다. 이처럼마르크스주의자의눈에는아나키스트가공산주의자로, 아나키스트의눈에는마르크스주의자가국가주의자로비쳤다. 아나-볼논쟁은러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의지도아래중국공산당제 1 차대표대회가열림으로써새로운전기를맞이했다.

아나-볼논쟁이전개되던중레닌의지시를받은코민테른의정식대표마링(H. Maring)이 1921년 6월중국에파견되었다. 그의지위는보이틴스키보다높았고, 러시아볼셰비키도아니었다. 그해 7월마링은보이틴스키를대신해파견된원동국요원니콜스키(V. A. Nikolsky)와함께전국여덟곳의공산주의소조대표 15명을모아중국공산당을창립했다. 중국공산당역사의시작이자코민테른이직접중국공산주의운동에개입하는시점이었다. 당시에발표한중국공산당강령에는아나키즘을배척하겠다는의지가엿보이지만, 공산당내에는여전히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이포진하고있었다. 그래서인지마링은훗날이른바중국공산당의‘일대一大’를정당이아닌‘공산주의소조’라는용어로묘사하고있는데, 이것은중국학계와달리‘일대’의역사의의를낮게평가하려는의도로보여의미심장하다.<sup>74</sup>

그럼에도불구하고양파벌의합작은창당을전후해서여러차례나타난다. 예를들어 1921년 2~4월경사북의제자로알려진비철문이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파견된러시아공산당원의경제적도움을받아상해에서노동단체지도자들과

삼무학사三無學社라는단체를만들었다는정부문서가남아있다.<sup>75</sup> 이단체는평민혁명을고취하여노동자들사이에지지자들이많았는데, 특히군인등을대상으로『목병수지目兵須知』『고소년告少年』등의아나키즘혁명관련소책자를배포했다고전한다. 그리고 1921년 3월크로포트킨이사망하자광동의아나키스트는광주에서대규모의추도회를열었는데, 여기에진독수와진공박, 담평산등도참가했다. 같은해 5·1절행사에서도이들은함께성대한기념식을열고시위를했다. 이때마르크스주의를찬성하는사람은마르크스의초상화와붉은기름, 아나키즘을찬성하는자는크로포트킨의초상화와검은기름내세웠다고한다.<sup>76</sup>

중국마르크스주의자는아나-볼논쟁과정에서공산당창립에성공하자독자적인길을찾아나섰다. 그리고논쟁의또다른당사자인아나키스트들가운데일부는이석증(李石曾) 과오치휘(吳稚暉) 등의해추진중이던유법근공검학운동에참여해프랑스유학을떠났다. 이석증등은중국과프랑스에각각화법교육회와리옹중법대학을만들어유학운동을전개했는데, 이때구성백과화림, 유석심, 이탁(李卓), 유무위(劉無爲), 유포축(劉抱蜀) 등차세대청년아나키스트다수가유학을갔다. 후자는이로서는쟁이일단락되었다고보지만, 실제로는논쟁이지식인사회를넘어서노동운동분야로까지확산되고있었다. 뿐만아니라논쟁은프랑스유학생사회에도번져더한층과열되는양상을나타냈다. 당시프랑스는사회주의운동이매우활발하게전개되던곳이었다. 따라서이곳중국인사회에서의논쟁은당의건설과프롤레타리아독재와관련해토론의수준이높았으며, 한창진행되던러시아혁명에대해중저자세한논의가이루어졌다.

재프랑스중국아나키스트들은 1921년가을공여사工餘社를만들고, 다음해 1월에「공여工餘」를창간했다. 이잡지를통해소련의프롤레타리아독재를비판했는데, 이것은일당독재일뿐만아니라당내몇사람의독재에나지않는다고선전했다. 그리고볼셰비키혁명은개인자본주의를국가자본주의로대체한것에불과하며, 새로운국가공볼셰비키정당과관료가개인사업가를대신해착취의우두머리가되었다고했다. 소련정부가실행한산업국유화정책도노동자와농민의권리를박탈한것으로자본주의제도아래의압제와다름없다면생산수단을노동자에게넘겨줄것을요구했다. 특히레닌의신경제정책을자본주의의부활이라고맹비난했다. 또한아나키스트는공산주의자들이“마르크스를교주로받들고”『자본론』이나『공산당선언』을성경처럼여긴다”고조롱하면서중앙집권적당조직을해체할것을주장했다.

이런비판에대해채화삼(蔡和森) 과주은래(周恩來) 같은마르크스주의자는「소년少年」(1922년창간)이라는잡지를통해반론을나섰다. 그들은프롤레타리아독재는역사발전과정의필연적인산물이며, 현재러시아의소비에트안에

<sup>75</sup> 〈國務院爲嚴密查緝費哲文等在滬密設三無學社鼓吹平民革命有關文書〉, 『中國無政府主義和中國社會黨』, 江蘇人民出版社 1981, 82~84 면.

<sup>76</sup> 鄭佩剛, 앞의글 963 면.

<sup>74</sup> 劉宋斌·姚金果 『中國共產黨創建史』, 福建人民出版社 2002, 413~15 면.

조세현  
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교류와연대  
적자생존에서상호부조로  
2010년

kr.theanarchistlibrary.org

(大杉榮) 이만든생디칼리슴연구회나평민대학강연회등다양한경로를통해크로포트킨(P. Kropotkin)의사상을접했을것이다.<sup>5</sup> 예를들어 1913년나경석(羅景錫)은대삼영, 횡전종차랑(橫田宗次郎), 장국천시송(長谷川市松)등과같은일본인아나키스트와교류하며아나키즘과생디칼리슴을수용했다고전한다. 그의친구정태신(鄭泰信)이나이달(李達)등도일본사회주의자들과교류하고있었다. 그리고앞장에서언급했듯이 1916년김철수(金綴洙)와최익준(崔益俊)등한인유학생들은일본사회주의자들의지원아래중국과대만의유학생들과함께비밀결사인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을결성했다. 이단체는일본제국주의타도와새로운아시아건설을목표로삼았는데, 한국사회주의운동기원의하나이자국제조직이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3·1운동후에는좀더많은기록들이나타난다. 정태신과이용기(李龍基)등이일본아나키스트가등일부(加藤一夫)와암좌작태랑(岩佐作太郎)이주관하는자유인연맹自由人聯盟에참가한기록, 원종린(元鐘麟)과한현상(韓現相)등이가장과격한단체로평가받던호민회曉民會에서활동한기록, 정수홍(鄭守洪)과강인수(姜仁秀)등이일본사회주의동맹창립발기대회에참가하고, 김판권(金判權)과권희국(權熙國)이직접창립대회에참가한기록등이있다. 특히권희국이일본사회주의단체코스모스구락부에참가한사실이흥미롭다. 1920년11월에조직된코스모스구락부는“국경을넘어선신세계와신생명을창조한다”는강령을가지고중국과대만, 인도등아시아각국동지들과연락망을갖추려던단체였다.<sup>6</sup> 이처럼재일한인유학생들은1919년을기점으로아나키즘이나사회주의경향의단체에다수가입했고, 그활동과정에서중중검거되기도했다. 박열(朴烈)과원종린, 김약수(金若水)등은대삼영, 암좌작태랑등과자주접촉하며그들의사상에공명했다. 그결과재일한인아나키스트는대체로사회진화론을비판하는상호부조론을중심으로한크로포트킨주의를받아들였다.<sup>7</sup> 이들은코원적아나키즘이외에도노동조합적아나키즘, 개인적아나키즘의사조도일부흡수했다. 박열과김자문자(金子文子)에게나타나는허무주의경향이나재일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을중심으로한생디칼리슴경향등이그런사례이다.

1920년대에들어와재일한인유학생들은다양한사상단체를조직했으며, 이런흐름은마침내1921년11월29일암좌작태랑의집에서흑도회黑濤會를결성하는것으로결실을맺었다. 이단체도처음에는에스페란토공부를명분으로모였는데, 박열과정태신, 김약수, 정태성(鄭泰成), 서상일(徐相一), 원종린, 조

<sup>5</sup> 近藤憲二 『私の見た日本アナキズム』, 麥社 1969, 13면.

<sup>6</sup> 김명섭, 앞의책 72~74면.

<sup>7</sup> 박석윤(朴錫胤)은『學之光』第20號(1920. 7. 6)에〈‘自己’의改造〉를실어제1차세계대전의참상은인류에게커다란교훈을주었다면서, 크로포트킨의말을빌려자기를개조할것과참마음으로열정으로감격으로남을사랑하는것이인격의발전이라고했다. 그는자기개조란아나키즘에근거해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호룡 『한국의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130면).

봉암(曹奉岩), 황석우등이참가했다. 이조직은재일한인사상단체의출발로평가되며계급투쟁의방식으로민족해방투쟁을추구했다. 흑도회의조직과구성원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알려져있지않으나, 대략초기에 20 여명이참가했고유학생과고학생들로이루어졌다고한다. 이단체의창립에는일본사상계의영향력이적지않았는데, 그들의모임에대삼영과계리언(堺利彦) 등일본사회주의자들이참석한사실에서도알수있다. 특히흑도회라는이름이나암좌작태랑의집에서결성된사실은아나키즘의경향이강했다는사실을보여주며, 핵심멤버인박열은흑도회를중국의의열단같은조직으로만들려고했던것으로보인다. 기본적으로는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가합작한형태의조직이라고볼수있다.

흑도회는박열과김자문자를중심으로「흑도黑濤」(1922년 7월 10일)를발간했다. 이잡지는창간사에서“인간미를가진일본인”과연대할때조선해방과세계융합이가능할것이라고했다. 기사내용은슈티르너의자아주의, 바쿠닌의파괴와건설의논리, 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이혼재되어있었으며, 노동자의비참한현실을여과없이폭로하고테러활동과같은폭력행동을추구했다. 흑도회의대표적인활동으로는중진천中津川댐공사장에서일어난한인노동자학살사건(1922년 7월)에대한진상조사단파견과항의투쟁을들수있다. 흑도회는학살사건조사회를만들어현지조사를벌였고, 동경의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열광적인성원속에진상보고회를개최했다. 여기서박열은일본인자본가에의한한인노동자의노동착취와학대및민족차별을적나라하게폭로했다.

그런데일본사회주의동맹의분열과아나-불논쟁의여파로흑도회는 1922년 10월아나키즘계열의흑우회黑友會와공산주의계열의북성회北星會로분열되었다. 여기서도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가논쟁의핵심이었으며국가권력의존폐문제로이어졌다. 흑우회에는박열과김자문자, 신염피(申焰皮), 홍진유(洪鎭裕), 서상일, 박흥곤(朴興坤), 장상중(張祥重) 등이참가했다. 이단체는「불령선인不逞鮮人」(1922년 11월)과「현사회現社會」(1923년 3월)등을간행하면서활동을전개했다. 한편북성회는김약수를중심으로조봉암과송봉우(宋奉禹)등이가세했으며「척후대斥候隊」를발간했다. 대체로흑우회에는고학생이많았고북성회에는유학생이많았는데, 결국이들의분화는한인민족해방운동의두흐름을형성했다.

흑우회는주요언론출판사업과일본및한인단체와의연대활동에주력했다. 하지만구성원간의갈등으로 1923년 8월스스로해산했다. 박열과김자문자는 1923년 4월흑우회와별도로대중단체의성격을지닌불령사를조직했는데, 불령사는처음에는한인 15명과일본인 6명으로구성되었다. 이무렵박열은다른아나키스트처럼사회변혁과민족해방의이념으로아나키즘을받아들였지만인류에대한절망을운운하는등허무주의경향이강한것이란가지특색이다. 아마도일본에서유행하던슈티르너사상의영향을짐작할수있겠지만, 이런허무주의는일제에대한강렬한증오심으로표출되었다. 그는해외로부터폭탄을구입하려고비밀리에의열단의김한(金翰)등과접촉했으나실패했다. 그러던중관동대지진

(1928년 8월말) 이 발생하고 “조선인이 방화했다” 혹은 “누군가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한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대량 검거와 학살이 이어졌다. 박열과 김자문자 부부는 지진을 틈타 비밀 결사로 폭동을 계획했다는 대역사건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대역사건은 제일한인이나 키즘 운동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박열은 기나긴 옥중 투쟁 끝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그의 처 김자문자가 옥중에서의 문의 죽음을 맞이해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sup>8</sup>

한편 국내에서도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한 기사가 급증했다. 아나키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신채호가 법정에서 증언하던 중에 황성신문사에 재직하던 1905년 행덕추수의 『장광설』을 읽은 후에 아나키즘에 공명했다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이 시절 행덕추수는 아직 아나키스트가 아니었으며, 신채호 역시 이 주장이 철회함에 따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후 1920년 4월에 조직된 최초의 노동조합인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 「공제共濟」나 1922년 3월에 창간한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 「신생활」에 보면 아나키즘을 소개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크로포트킨의 코뮌적 아나키즘 말고 도슈티르너의 개인적 아나키즘도 소개했다.

1920년 7월에는 무성영화번사인 정한설(鄭漢高)이 아나키즘을 선전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날 체포된 장도원(張道源)은 법정에서 기독교에 입각해 민권의 평등과 무정부론을 원한다고 진술해 함흥 지방 법원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7월 동양대학교 철학과 재학 중이던 불교 청년 학생회 소속의 김경주(金敬注)가 크로포트킨과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의 사상을 소개해 아나키즘 선전 혐의로 진주지청에서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신문에서는 국내에서 과거 사상을 선전하다 형을 받은 일이 이것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sup>9</sup> 이런 기사들은 국내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을 암시하는 것이다. 결국 1923년 1월에 이윤희(李允熙)와 이강하(李康夏) 등이 국내 최초의 아나키스트 단체 흑로회(黑勞會)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박열이 만든 일본의 흑도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결성 선언문도 매우 흡사했다고 한다. 그 후 조선의 아나키즘 운동은 제일 아나키스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다음으로 1920년대 초반 대만 사회 운동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sup>10</sup>

대만인의 사회 운동은 지리적으로 대만과 일본, 중국 등 세 곳에서 일어났는데, 먼저 제일 대만 유학생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조가 싹텄다. 1920년대 초 동경의 대만

<sup>8</sup> 박열과 김자문자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삼웅 『박열 평전』, 가람기획 1996; 야마다 쇼지, 정선태욱 김 『가네코 후미코』, 산처럼 2003 등이 있다.

<sup>9</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韓國 아나키즘 운동사(前篇)』, 형설출판사 1978, 155~56면.

<sup>10</sup>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 가운데 「臺灣社會運動史」는 일제시대 대만 정치 사회 운동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1920년대 대만인의 아나키즘 운동을 살피는데에도 기초적인 자료들이다. 이 자료집을 수정보완한 王詩琅 譯註 『臺灣社會運動史 — 文化運動』(稻鄉出版社 1988)에 대만인 아나키스트 활동에 관한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

출신유학생의 다양한 사회활동은 대만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명치대학(明治大學)에 재학중이던 팽화영(彭華榮)은 계리언(計利彦), 산천균(山川均) 등과 접촉하고 효민회에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다. 팽화영이 「대만청년」(제 4호, 제 5호)에 〈사회주의개설〉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이것이 대만인이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소개한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시기 상지대학(上智大學)에서 공부하던 범본량(范本梁)도 대삼영 등의 영향을 받아 아나키즘에 공감했다. 1921년 6월 범본량과 팽화영은 코스모스구락부의 강연회에 함께 참석해 대만해방문제를 언급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효민회나 코스모스구락부는 한인유학생들도 참여한 단체이므로 대만과 조선유학생들이 서로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강연회가 끝난 후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1년 7월 팽화영은 상해로 건너갔고, 다음해 8월에 범본량도 북경으로 갔다.<sup>11</sup>

대만청년들에게 해외유학에는 일본 말고도 중국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만인들이 한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동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하는 것을 금지했다. 따라서 일본으로 유학한 사람들에게 비해 숫자가 적었으며, 만약 중국으로 유학하려면 선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야만 했다.<sup>12</sup> 먼저 일본에 가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대만 기류항에서 상해를 경유해 일본으로 가는 배를 이용하곤 했다. 중국 공산당이 막태동할 즈음 북경에 유학하던 대만청년은 불과 30여 명이었으나 여러 사회단체들을 조직했다.

특히 상해는 국제도시로 대만인 급진주의자에게도 활동이 편리한 곳이었다. 프랑스 조계는 더욱 개방적이어서 중국 공산당과 한인 공산당 韓人共産黨의 활동이 있었고, 대만유학생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간부의 협조 아래 중한호조사 中韓互助社를 조직해 민간 차원에서 조선의 독립을 추구했다.<sup>13</sup> 대만 사회운동가들도 이 모임에 종종 참가했는데, 채혜여(蔡惠如)는 일본에서 신민회 활동을 하다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한호조사가 주최한 한과 회에 참여해 일본 점령 후의 대만 실상을 보고했다. 얼마 후 상해로 건너온 팽화영도 중국 국민당과 접촉하고 있던 채혜여와 연락했고, 곧 이어 한인 및 중국 공산당원과 왕래했다.

3·1 운동 후 대만 섬에서도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어 실시되자 사회운동을 전개하기가 쉬워졌다.<sup>14</sup> 동경유학중인 대만유학생은 민족주의자 임헌당(林獻堂) 등의 노력으로 성응회 聲應會와 계발회 啓發會, 신민회 新民會 등을 만들었다. 얼마 후 대만청년회가 성립하자 「대만청년」이라는 잡지도 발행했다. 그 후 대만으로 귀국한 임헌당은 대북에서 유명한 대만문화협회 臺灣文化協會(1921년

<sup>11</sup> 楊碧川 『日據時代臺灣人反抗史』, 稻鄉出版社 1988, 161 면.

<sup>12</sup> 林國章 『民族主義與臺灣抗日運動』, 海峽學術出版社 2004, 191 면.

<sup>13</sup> 石源華編著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5, 118 면.

<sup>14</sup> 옥천신명(玉川信明)은 1919년 대만에서 일어난 무장봉기인 서래암 西來庵 사건을 대만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로 삼는다. 사건의 지도자인 여청방(余淸芳)이 일본에서 아나키스트의 영향을 받은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玉川信明 『中國の黒い旗』, 晶文社 1981, 299~300 면.)

10 월) 를만들었다. 대만문화협회는초기에는민족자결주의를이념으로삼아공동전선의방식으로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을주도했다. 그후아나키즘과공산주의가흥기하자민족주의운동에중사하던청년학생들사이에전파되어강권을타도하자는주장이나타나기시작했으며계급투쟁의입장에서민족주의운동을비판했다. 이에대만의사회운동은새로운발전단계에접어들었다.<sup>15</sup>

대만문화협회의대표인물이자사회주의자연연온경(連溫卿) 은일찍부터에스페란토운동의영향을받아에스페란토야말로민족을뛰어넘어인류평화를가져다줄것이라고믿고선전에앞장섰다. 1919 년소벽휘(蘇璧輝) 와함께대만세계어학회臺灣世界語學會를만들어월간지「녹음緣陰」을발행했다. 그는이민족통치자들이어떤민족을말살하려면우선그들의언어를말살하려한다면서, “민족문제가있다면, 반드시언어문제가있다”는전제아래대만언어를보존하는데노력했다. 연온경은대만내초기아나키즘의전파에도관계가있으며, 무산청년파활동에열심이었다. 얼마후일본인교사산구소정(山口小靜) 의소개로에스페란토행사를목적으로일본을방문할기회가있었다. 이때사회주의자산천균과왕래했으며, 그의영향을말미암아점차노농파勞農派공산주의자성향을띠었다.

아나키즘이식민지해방과독립을위한민족해방운동의논리로이용되는데별다른모순이없었다는사실은중요하다. 어쩌면철학적으로빈곤한민족주의가다른‘주의’의도움을필요한다는사실이나, 민족주의가반드시국제주의와대립하지는않는다는사실을받아들인다면이해할수있는현상이다.<sup>16</sup> 일본아나키스트행덕추수나대삼영은조선과대만같은식민지의입장을동정하고연대를모색했지만그들의민족주의조차충분히공감한것은아니었다. 정복국가의지식인으로서국가나정부조차없는식민지지식인들이제국주의와투쟁하기위해민족주의에접근하는현실을쉽게이해하기는어려웠을것이다. 특히한인과대만인의아나키즘운동이민족주의범주에서자유롭지못했다는지적은꾸준히있어왔다.<sup>17</sup>

대체로한인과대만인의민족해방을위한아나키스트연대활동은중국대륙을배경으로이루어졌다. 다음장에서는 1920 년대중반한인과대만인아나키스트

<sup>15</sup> 王曉波編〈日本人服中的臺灣抗日運動〉, 『臺灣的殖民地傷痕新編』, 海峽學術出版社 2002, 97 면,

<sup>16</sup> 황동연은초국가적이상과민족주의사이에있는‘모순’이야말로식민지상황에서급진주의가대두되는과정을극명하게잘보여주는것으로, 이런모순관계는급진주의와민족주의의관계를공정적이고생산적으로만들여지를주었다고본다(황동연〈지역시각, 초국가적관점, ‘동부아시아’지역개념과‘동부아시아’급진주의역사의재구성시론〉, 『동방학지』 145 호, 2009, 304 면).

<sup>17</sup> 존크럼은한인아나키즘운동의한계를지적하면서아나키즘의가장중요한원칙가운데하나가국적에관계없이모든곳, 모든사람들이국가에의존하지않고서로협조하며살아갈능력을가졌다는확신이라고했다(존크럼〈동아시아에있어서의아나키즘과민족주의〉, 『아나키즘연구』 창간호, 1995, 106 면).

의 활동을 단체와 잡지를 중심으로 북경과 상해, 광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sup>18</sup>

## 2. 북경지역

### 「천고」와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한국의 대표적인 ана키스트로 불리는 신채호(申采浩)는 1913년 상해로 건너간 후 크로포트킨과 행덕추수, 사복 등의 ана키즘 관련 저작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임시정부의 정치노선에 불만을 품고 상해에서 신대한동맹단을 결성(1919년 10월)하는 데 참여해 기관지 「신대한」을 발행했다. 이 잡지는 급진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데, 상해 임정에 반대해 사회주의 경향의 글도 선전했다고 한다. 이때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중국한인 ана키즘 운동의 출발문제와 관련해 신채호가 일찍부터 주목되는 이유는 상해에서 북경으로 상경해 발행했다고 알려진 「천고天鼓」(1921년 1월) 때문이다.<sup>19</sup> 한 회고에 따르면 당시 그는 역사 연구에 골몰했으며, 박송병(朴崇秉)의 집에 거거하면서 「천고」를 출판했다고 한다.<sup>20</sup> 이 잡지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역사 논문과 일제만행을 비판하고 독립 운동을 소개하는 기사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 글들이 사회주의 및 ана키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어 주목을 끈다.

〈고고편〉(제 1호)에는 “국수는 군국 침략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규정하여 내셔널리즘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고조선의 사회주의〉(제 2호)에서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는 고조선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고조선의 정전제가 그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사회주의 전통은 조선 역사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죽음에 대한 감상〉(제 2호)에서는 크로포트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레닌과 소비에트 정부의 반대자였다고 기술했다. 여기서 자신이 아직 크로포트킨과 ана키즘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크로포트킨이 “생물계의 상호부조의 뜻을 널리 밝혀서 다윈의 생존 경쟁설과 싸웠고...”라며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sup>21</sup>

중국인종수(種樹)가 기고한 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천둥소리〉(제 1호)는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와 호조의 인도주의를 제창한다는 구절 등으로 미루어

<sup>18</sup>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한인 ана키스트가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한 신문과 잡지를 분석한 글로는 황동연의 논문이 있다. 여기서는 한인 ана키스트의 초국가적인 주장과 지역적 특징에 주목한다 (Hwang Dongyoun, “Beyond Independence—The Korean Anarchist Press in China and Japan in the 1920s and 1930s”, Asian Studies Review Vol.31 No.1, 2007. 3).

<sup>19</sup> 이호룡, 앞의 책 152~53면.

<sup>20</sup> 柳子明 〈朝鮮愛國史學家申采浩〉(楊昭全等編, 앞의 책 1374면).

<sup>21</sup> 최광식역주 『단재신채호의 「天鼓」』, 아연출판부 2004, 176면.

아나키스트의 글로 보인다. 여기서 작자는 “조선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관련한 최대의 문제이다. 조선인이 현재 요구하는 민족자결은 편협한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길을 찾아가려는 주의”<sup>22</sup>라고 평가했다. 다른 주목할 만한 글로는 중국인 천애한인(天涯恨人) 이보내온 〈중국에 중한 친우회를 만들 필요에 대해 논함〉(제 1 호) 과 이에 대한 답장 성격 을 띤 신채호의 〈한중양민족은 마땅히 단결해야 함〉(제 2 호) 이라는 글이다. 앞의 글은 한중간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당시 「독립보」 기자 이영렬(李英烈) 의 명의로 중국 각지에 산포한 인쇄물의 제목과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글일지도 모른다.<sup>23</sup> 뒤의 글은 이 제안에 호응하는 신채호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중연대의 분위기는 같은 시기에 장사, 안휘, 한구 등지에서 중한호조사가 성립된 사실과 관련지어 볼 때 전국적인 항일운동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수집 가능한 「천고」 제 1 호와 제 2 호만으로는 이것이 최초의 재중국한인이나 키잡지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잡지는 민족주의와 아나키즘 논리가 혼재되어 있고, 신채호 자신도 민족주의자와 아나키스트의 견널목에서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천고」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아나키즘이 결합된 묘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비단 이 잡지뿐만 아니라 유사배(劉師培)와 경매구(景梅九) 같은 중국 아나키스트가 출간한 잡지들에서도 본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논조는 철저한 반전통주의나 반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기타 의 아나키스트 잡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천고」의 상징적인 의미는 만약 신채호가 조직했다고 전해지는 흑색청년동맹(黑色青年同盟) 북경지부의 존재가 사료의 발굴로 실체가 확인된다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장지락은 “1921년에 비로소 ‘흑색청년동맹’이라는 무정부주의자 정당인 한국 국내에서 만들어졌다. 이 정당은 조그마했으며 완전히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에 북경지부를 만들었다. 이지부에는 소수의 중국인은 물론이요, 대만인과 일본인도 있었다. 아직도 소수의 회원을 갖는 ‘무정부주의자연맹’이 있기는 하지만 흑색청년동맹은 1924년 이후 해체되었다. 공산당이 흥기하자마자 무정부주의자들은 모든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다. 동맹의 창설자 신채호는 현재 조선의 감옥에 갇혀 있다”<sup>24</sup>라고 회고했다. 현재 흑색청년동맹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이고 불명확하지만 재중국한인이나 키잡지 운동의 출발시점을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실마리이기도 하다.<sup>25</sup>

1920년대 초 신채호가 아나키즘적 급진 논리에 흥미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비록 1924년 4월의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연맹(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

<sup>22</sup> 種樹 〈爭自由的雷音〉, 「天鼓」第 1 號, 1921. 1. 1.

<sup>23</sup> 楊昭全等編, 앞의 책 1479 면.

<sup>24</sup> 김산·님웨일즈, 앞의 책 95 면.

<sup>25</sup> 여기서 등장하는 조선의 ‘흑색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은 앞서 언급한 일본 및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진 ‘흑색청년연맹’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앞의 동맹은 1921년에 결성되었다고 하며, 뒤의 연맹은 1926년에 결성되었으므로 일단 별개의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義者聯盟 (1924년 4월) 창립회의에참석하지는못했으나,<sup>26</sup> 그전에아나키즘에경도된것은거의확실했다. <조선혁명선언> (혹은 <의열단선언문> 1923년 1월) 에서그런가능성을찾을수있다. 알려진바와같이의열단은파괴와테러의직접행동론을주장했으며, 그논리를정당화하기위해의열단단주김원봉 (金元鳳) 의요청과유자명 (柳子明) 의소개로신채호가조선혁명선언을작성했다. 이선언문은아나키즘적테러리즘의방법을채용해의열단의폭력투쟁을이론화한것으로, 당시대중운동이불가능한해외의독립운동가에게매우호소력있는주장을담고있었다. 선언문내용이아나키스트와민족주의자가공유할수있는부분을담은것이라는해석이있다.<sup>27</sup> 같은시기유자명의도움아래조직된다물단 (1923) 은더욱아나키즘적색채가뚜렷한것으로알려져있다. 여기서우리는유자명이라는한인아나키스트의존재에 주목할필요가있다. 그는상해임정초대의정원의원으로선출된바있고 1921년천진에서의열단에가입한인물이다. 유자명은 1920년대초어느시점에아나키즘을받아들인것으로보이는데, 시기적으로보아신채호와비슷한시기에아나키즘에심취했던것으로여겨진다. 그의사상과활동에대해서는뒷장에서따로다룰것이다.

재중한인아나키스트에게도크로포트킨의영향은절대적이었다. 예를들어유자명은크로포트킨이자신에게끼친영향을고백하면서 『한혁명가의회상』 이나 『상호부조』 로부터큰영향을받았다고회고했다. 얼마후신채호도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고함』 이라는논문의세례를받았다면서세계 5대사상가 가운데한사람으로석가와공자, 예수, 마르크스와더불어크로포트킨을지목했다.<sup>28</sup>

한인독립운동가이회영 (李會榮) 과유자명, 이을규 (李乙圭), 이정규 (李丁圭), 정화암 (鄭華岩), 백정기 (白貞基) 등여섯명이북경에서만든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은크로포트킨사상의영향아래만들어진코뮌적아나키즘단체였다. 이들대부분은중국인아나키스트와의교류를통해아나키즘을수용했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으며, 특히이석증 (李石曾) 과오치휘 (吳稚暉) 등구신세기파아나키스트의도움을받았다. 그가운데이정규는중국인아나키스트들과러시아인으로센코, 대만인범본량등과의교류를통해아나키즘을받아들였다. 특히북경대학생물학교수인이석증과총장채원배 (蔡元培) 의호의로경제학과 2 학

<sup>26</sup> 신채호는 '연맹'이결성될당시북경석등암石燈庵에거하면서사고전서를섭렵하며역사편찬에몰두하고있었기때문에이조직에가입하지못했다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288면).

<sup>27</sup> 존크럼 <동아시아에있어서의아나키즘과민족주의>, 『아나키즘연구』 창간호, 1995, 93~94면.

<sup>28</sup> 민족주의자였던신채호는생존경쟁과약육강식의국제사회에서강자만이살아남고약자라도태된다는자강론적발상이조선의부강을위해민중의자각을요구하는데유용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강자인일본이약자인조선을지배하는것을정당화하는논리이기도하다는사실을깨달았다. 이런자강론의모순을넘어서는데에상호부조론은결정적인대안을제시했다 (김형배 <단재신채호의무정부주의에관한일고찰 -P. 크로포트킨과의사상적연계를중심으로>, 『단재신채호선생순국 50주년추모논총』, 1986).

발생시키는 경제체제에 반대하므로 그들의 세계주의는 자본의 세계화와 용어만 비슷할 뿐 정반대의 입장에서이다.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에 능숙한 아나키즘의 풍부한 상상력은 다양한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결속할 수 있는 강한 장점이었다. 실제로 새로운 아나키즘은 당파적 아나키즘의 길을 버리고 다양한 사회 운동과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 문제나 조직 문제를 다루는데 미숙했던 그들이 다른 운동 세력과 공존을 실현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20 세기의 경험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나 수평적 사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어려움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책이 아나키즘을 ‘무정부 상태’와 동일시하고 아나키스트를 허무주의자나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는 오랜 편견을 벗어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래 아나키즘이란 관념과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과정 속에서만 생명력을 얻는 고유한 속성이 있다. 따라서 21 세기 아나키즘의 재생이란 고전적 아나키즘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해석된 새로운 아나키즘이어야 할 것이다.

일본 아나키스트 대삼영의 말처럼 “개인이 주체가 되어 모든 문제를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백지한 장한 장의 여백에 자신만의 성과물을 성실하게 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아나키스트가 추구하는 사회란 “권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조직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sup>9</sup>

[396]

<sup>9</sup>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전체 범위를 다루지는 못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일부) 지역은 다루었지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베트남이나 인도 등지의 활동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다. 국제연대가 주로 중국 대륙에서 이루어져 이곳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나키스트의 인간적인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생동감 있는 기술이 필요했지만 능력이 부족했다. 남은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년으로 편입해 공부할 시기에 에로센코와의 교제 중에 감화를 받아 아나키즘에 공명했다고 전한다. 이정규는 대표적인 한인이론가로 ‘무정부주의 연맹의 필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크로포트킨의 여러 저작들을 번역했다.<sup>29</sup> 그가 번역한 소책자들은 영국 프리덤 출판사가 간행한 크로포트킨 시리즈 〈법률과 강권〉 〈무정부주의자의 도덕〉 등을 비롯해서 바쿠닌과 말라테스타, 르클뤼의 팸플릿 10 여편이었다. 친형인 이을규도 ‘한국의 크로포트킨’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아나키즘을 수용했다. 한편 이회영은 이정규가 아나키스트 진위기 (陳偉器) 와 호남성의 한 마을에 이상촌인 양도촌 洋濤村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 그와의 논할 무렵 아나키즘에 경도되었다.

1922년 6월 초 북경의 청년들이 세계 어학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상황을 염탐해 정부에 보고한 첩보가 남아 있다. 그 보고서에는 일본 공산주의자 근광 (近藤光) 과 한인이 정규·이을규 등이 세계 어학회의 좌담회에 참가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 중에는 중국 학생의 인사말에 이어 한인의 답서가 있었는데, 이때 이정규는 조선의 전국민은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회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방을 도모한다면, 한중일 청년들이 함께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는 구절이 있다.<sup>30</sup>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한인 청년이 중국 아나키스트와 접촉하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 자연맹은 「정의공보正義公報」라는 순간지를 발행해 중앙 집권적 공산주의와 파벌주의적 독립 운동을 비판하면서 자유 연합의 조직 원리에 따라 모든 독립 운동 세력이 서로 제휴할 것을 선전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여기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볼셰비키 혁명을 비판했다는 대목은 이전과 달리 공산주의에 대한 뚜렷한 비판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잡지는 이회영을 주간으로 제 9 호까지 발행되었다고 하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sup>31</sup> 연맹에 참여한 한인 운동가들이 중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아나키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은 북경의 상황을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상해 임정의 분열과 대립에 대한 환멸, 새로운 민족 해방 운동의 출구로서 아나키즘 방법론의 매력 등이 그들로 하여금 아나키스트가 되도록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회고를 보면 코뮌적 아나키즘이 당시 민족 해방 의이론과 방법으로 별다른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한인이 관련된 또 다른 아나키스트 단체로는 이른바 ‘북경민국대학 아나그룹’이 있다. 이 그룹은 1924년 10월 경 파금 (巴金)·향배량 (向培良)·고장홍 (高長虹)·곽동헌 (郭桐軒)·방종오 (方宗鰲) 등의 중국인 청년과 유서 (柳絮)·심용해 (沈龍海) 등의 한인 청년들이 민국대학을 중심으로 모여 만든 것이다. 이들은 흑기연맹 黑旗聯盟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는데, 한중 청년 아나키스트들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유서는 황해도 출신으로 명석한 이론가이자 강인한 실천가

<sup>29</sup>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 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184면.

<sup>30</sup> 葛懋春·蔣俊·李興芝編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1057-58면.

<sup>31</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289면.

로한중앙국의친선과협력에노력한인물이다. 앞서언급했듯이그는 <동아무정부주의자연맹을조직할것을주장함> (1926년말)이라는유명한글을쓴장본인이다.<sup>32</sup> 또다른인물심용해는길림성출신으로비록조선말은잘하지못했으나, 중국어와에스페란토가매우능했다고한다. 그는중국어나키스트의각종언론활동에도참여한것으로알려져있다.<sup>33</sup> 심용해는 1929년길림에서한인공산주의자(일본영사관밀정)에의해암살당했다. 민국대학이나그룹은이석중과오치휘, 채원배, 장계등의지원을받아 1925년봄부터「동방잡지」를발행했다고하는데역시전해지지않는다. 앞의‘연맹’이나‘아나그룹’모두이석중과오치휘같은구신세기파어나키스트의지원을받았다는사실은기억할만하다.

그후유서와심용해등을중심으로다시고려청년사(1926)가조직되었는데, 이단체는앞의흑기연맹의전통을계승한듯하다. 이들은중국어로된「고려청년」(1926년 3월)을간행했는데, 중국인들에게조선의실상을소개하고, 피압박민족상호간의단결을모색했다. 특히파금은고려청년사에공개편지를보내어서로간의깊은인연을서술하면서, “고려민중을우방민중에게소개하고, 우리민족및기타약소민족에대한적들의모든제국주의침략정책및그수단을폭로함으로써피압박민족간에강대한결합을도모하고자한다”고 썼다.<sup>34</sup>

요컨대 1921년의「천고」는전형적인아나키즘잡지라고는볼수없으나 1924년의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은전형적인아나키스트단체라고말할수있다. 하지만이조직의출현은한인아나키즘운동의시작이아니라 1920년대초각종사회주의사조가혼재되어있던시기를지나자신만의정체성을확립한시점혹은운동에대한새로운질적인변화를가져온사건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sup>32</sup> 유서는유수인(柳樹人)과동일인물이다. 원명은유기석(柳基石), 필명은우죽(友竹), 가명은유평(劉平)·등여영(鄧茹英)·유우정(劉雨亭) 등여러개의이름을사용했다. 그는황해도금천군출신으로 1905년출생하여 1911년(1912년?)에중국만주에와길림성연길에서공부했다. 1916년중국국적을취득하고 1920년관내로들어와남경화중공화중公學을졸업한후민족주의단체에가입해항일운동에참가했다. 북경에온그는일제의한국과중국침략을반대하고, 조선흑기단朝鮮黑旗團(민국대학의흑기연맹?)과관련을맺었으며, 노신과도왕래가있었다. 유서는 1926년조양대학朝陽大學경제과를졸업한후에도아나키즘활동에적극적이었다. 그는 1928년 3월상해에서유자명, 구양군(歐陽軍), 유림(柳林), 한일원(韓一元), 이을규, 윤호연(尹浩然) 등과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을만들었고, 다시같은해 6월윤호연, 안태근(安泰根) 등과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에참가했으며 1930년 4월에는남화한인청년연맹을조직하는데기여했다. 1937년에는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聯盟을유자명, 박기성(朴基成), 이승래(李升來), 정화암, 이종봉(李鐘鳳) 등과함께만들었다. 그는항일전쟁시기언론계와교육계에서활동했으며, 해방후에도강소사범학원역사학과교수를지냈다. 1955년조선국적을회복했고 1980년에사망했다. 좀더연구해야할한인아나키스트의한사람이다.

<sup>33</sup> 심용철(沈龍哲)은 <나의회고>에서자신의형인심용해가 1924년경국공일보사의편집실에서두명의일본인청년과함께지낸일을회고하면서, 이들은모두“대동주의사상, 천하는모두한집안이며사해는친형제라는사상”을가지고있었다고회고했다(황동연 <20세기초동아시아급진주의와‘아시아’개념>, 『대동문화연구』 50호, 2005, 146면재인용).

<sup>34</sup> 박환 『식민지시대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20~41면재인용.

소한의정부를추구하는경향이있다. 어쩌면정치에대한반정치적주장을주장하는것만으로정치투쟁에서승리할수없다는사실을오랜역사적경험속에서깨달았는지도모른다.<sup>7</sup> 이와관련해한어나키스트는아나키즘이“모든형태의정부를거부한다”는기존의주장은잘못된것이며, 아나키즘이거부하는것은“국가에의해신성시되고강요된중앙집권적권위”라는형태의정부지행정의를의미하는정부는아니라고말한다. 그래서인지그들은중앙권력에대한혐오감을드러내면서도오래전부터존재했던국가나정부를부정하기보다는이것을근본적으로재구성하려한다. 그방법의하나로국제연대의기초위에‘지역’간연합을통해새로운출로를모색한다. 개인이직접관련을맺고있으며일상생활과밀접한지역을단위로하여아래로부터의변혁을꿈꾸는것이다. 비록아나키스트는지역화로서세계화에도전하지만여전히민족을단위로한사회문제의해결가능성에는회의적이다.

전통적으로아나키스트는대의제민주주의에대한강한불신감을가지고있었다. 의회제도란개인의주권을대표자에게넘겨주어주권을상실하는행위로보았으며, 이러한과정에서나타나는투표에의한선거를자유의가치에도전하는시도로간주했다. 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도대체로비슷했지만군주제와천황제, 제국주의타도가주요목표였던까닭에일부아나키스트는정당정치나의회정치에접근하는경향을보였다. 그런데현대의아나키스트들은권력이인간의본성임을부정하지않고권력의탈집중화를추구한다. 따라서각종시민단체활동에참여할뿐만아니라, 일부아나키스트들은대의제민주주의를공정하는경향까지보인다. 그들은즉각적인권력의폐지보다는권력을정교하게이용해권력의본산을기도하려는것이다. 예를들어박홍규(朴洪圭) 같은한국의아나키스트는위로부터강제되는권위로서의법은부정하나자치공동체속에서시민이주체적으로운영하는법은당연히인정되어야한다고말한다.<sup>8</sup> 특히오늘날정보화사회에서인터넷이라는새로운매체의출현은아나키스트로하여금자신들이이상적으로갈망하던직접민주주의에한걸음다가서는계기로이해했다. 왜냐하면인터넷이출발부터중앙정부의권력없이자율적으로발전했을뿐만아니라, 열린네트워크연대를만들수있는공간으로상호소통을가능케했기때문이다.

21세기에들어와전지구적자본주의는초국적기업이주도하면서더이상자본의손이닿지않는지역이없게되었다. 여전히자본은권력을필요로하지만 20세기의국민국가같은형태일필요는없다. 이런새로운권력출현에대해자본주의체제의변혁을꿈꾸는반세계화운동가들은최근수직적위계질서가아닌수평적네트워크를통한연대를통해도전한다. 특히아나키스트는빈부차이같은불평등을

<sup>7</sup> 언어학자이자아나키스트인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국가를이용해좀더평등한아나키즘사회로나아갈수있다고주장한다. 무조건국가만반대하다보면훨씬더큰권력을자본의수중에넘겨줄수도있다는것이다. 혁신적인세계개편이나사회보장제도도비록아나키즘적변화는아니지만그변화의바탕에는아나키즘사상이반영되어있기때문에결국이런요소들이사회변화를이끈다고본것이다(노엄 촘스키, 이정아 옮김 『촘스키의아나키즘』, 해토 2007, 16면).

<sup>8</sup> 박홍규 『아나키즘이야기』, 이학사 2004, 42~44면.

저항하기위해아나키스트들이‘상호부조’의연대정신으로결합한역사적사실은 적어도 20 세기말 21 세기초전지구적차원에서다시금출몰한자본주의의세계화에맞설수있는풍부한상상력을제공할것이다. 왜냐하면아나키즘은자본과국가에대한근원적비판이론으로서의끈질긴생명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전통적인아나키즘과오늘날의다양한사회운동간에는밀접한상화관련성을 보인다. 예를들어오늘날의자치공동체운동과관련해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는 일본의신촌운동, 중국의공독호조단, 한인의한족총연합회및한중일운동가들이 고루참여한천주민단훈련소등과같은경험을가지고있다. 그리고반전운동과관련해서도원래부터아나키스트는전쟁에반대한대표적인반전주의자들로제국주의국가들이만들어낸전쟁자체를거부했다.

20 세기초행덕추수가러일전쟁에반대하는데그치지않고군비철폐를주장한 것이상징적인사례이다. 아나키스트는스페인내전이나일본의대륙침략이전에는전쟁을막기위한방어적성격의전쟁조차회의적이었다. 여성해방운동과관련해서동아시아아나키스트는유교적가부장제사회를비판하는과정에서일찍부터 급진적인여성해방을제창했는데여기서국가나정부에의존하는여성운동에는분명한반대입장을보였다.

그리고문화혁신운동과관련해서도아나키스트는오래전부터정치혁명과경제혁명은물론문화혁명을꿈꾸역사가있다. 그들은경제를중심으로사유하는마르크스주의자들과달리정치든경제든문화든모든분야에권력이침투해있다고 믿었다. 따라서진정한사회혁명은그물망처럼얽혀있는권력에대한전방위의투쟁을의미했다. 신문화운동시기가중국아나키즘의전성기와일치하는것은결코우연이아니었다. 게다가아나키스트는고금을막론하고교육문제에관심이많아서 가장심혈을기울인분야는테러나폭력보다는교육이었으며, 오늘날의자유교육이나대안교육의선구자였다.<sup>5</sup>

21 세기의아나키즘운동역시전통적인아나키즘의기본정신을계승하지만운동을위해조직을만드는방식이나폭력수단사용여부등에서적지않은차이점을드러낸다.<sup>6</sup> 나아가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새롭게제기된주제에몰두한다. 하나의 사례를들자면, 다수의신세대아나키스트들은더이상국가나정부를폭력으로전복하려하지않는다. 왜냐하면국가가근본적으로악이라고해서단번에사라지는않기때문이다. 오히려공급적으로국가를폐지하기위해국가를이용하거나최

<sup>5</sup> 무와부정을뜻하는검은색바탕에질서 Order 와아나키즘 Anarchism 의머리글자 O 와 A 가겹쳐져그려진아나키즘깃발은강제나역압, 지도자없이도스스로존재하는질서야말로아나키즘의 이상임을잘보여준다 (하승우 『세계를뒤흔든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215 면).

<sup>6</sup> 구세대아나키스트들 (츄스키, 복친등) 은고전적아나키즘사상가들 —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등 — 의반국가주의·반권위주의·반자본주의이념을대체로계승하는데반해, 신세대아나키스트들 (존체르잔, 하킴베이, 밥블랙, 데이비드왓슨등) 은고전적아나키즘이론을공부하거나언급하는경우가거의없을뿐만아니라, 추상적인학술이론을경멸하며‘직접행동’을중시한다. 따라서오늘날의아나키즘은“지적이데올로기의결과물이나니라‘직접행동’을통해만들어진신념형태”로이해할수있다 (안상한 〈아나키즘르네상스〉, 『아나키즘』 292 면).

## 신대만안사

북경의대만유학생들은북경대만청년회를결성 (1922 년 1 월) 해대만과해외의민족해방운동에호응했다. 이단체는범본량과왕열지 (王悅之), 임병곤 (林炳坤), 정명록 (鄭明錄), 진강동 (陳江棟) 등 5 인이발기했다는설이있지만, 범본량은그해 8 월동경에서북경으로왔기때문에나중에참가한듯하다. 그리고명예회원으로는다이석중과채원배, 호적 (胡適), 양계초 (梁啓超) 등이있었다. 북경대만청년회발기인의정치성향은다양했으며, 창립시기만해도사회주의운동이나사회혁명의필요성에공감하지않았다고한다. 그들은주로민족자결주의의계몽활동과대만에서전개되던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에찬성하는주장을폈다. 이단체는화북대만인대회를열어 〈화북대만인대회선언〉 을발표했는데, 여기서는일본의총독정치를비판하고, 대만민중과전세계피압박소민족과함께투쟁하며, 일체의강권과부자연스러운제도를타도하자고주장했다.

대만아나키즘운동사의첫페이지를장식하는신대만안사新臺灣安社가바로이즈음결성되었다. 범본량 (별명鐵牛)<sup>35</sup>은북경대학철학과에청강생으로있으면서, 현지의아나키스트나대만유학생들과왕래했다. 북경대만청년회에서활동하면서중국아나키스트경매구등 190 여명이참여한북경안사北京安社에도가입했다. 1924 년 2 월 8 일연경대학의허지산 (許地山) 등과신대만안사를조직했는데, 대만인이처음으로만든아나키즘조직이었다. 이사회혁명단체에는임병문 (林炳文) 을비롯해가명으로보이는명협 (鳴俠) 과치원 (致遠), 찬시 (贊是), 모진 (慕眞), 애양 (愛陽) 등 18 명이회원으로있었다.<sup>36</sup> 당시재북경대만인유학생들은주로사렴청 (謝廉淸) 과사문달 (謝文達) 등이주도하는공산주의운동에경도되어있어서아나키스트는소수에불과했다.

범본량은신대만안사의기관지 「신대만新臺灣」 창간호 (1924 년 4 월 15 일) 를발행했다. 그는 〈신대만안사선언〉 에서다음같이주장했다.<sup>37</sup>

현재우리대만민중이열렬히희망하는것은무엇인가? 무슨목표를위해분투하는가? 우리들은감히말하니, 행복과평화를위하려면, 진리와광명을위하려면, 정의와자유를위하려면분투해야한다. 세계어느지방의약소민족과마찬가지로 대만민중은일체의부자유, 불평등, 빈곤, 암흑을겪고있는데, 이모두가국가, 정부, 관료, 군벌, 귀족등강자들의죄악에서온것이며, 자본가, 지주, 공장주, 은행가등도적들이만들어놓은죄과에서나온것이다. 결론적으로말하면, 일체의권력과사유재산제도를유지하려는악과惡果인것이다. 이런일체의압박과착취를타도하려면, 동경에서진행중인유치한대만민선의회청원운동은절대로근본문제를해결할수없다. 마르크스파의적색러시아도이미자본가의색채를드러내고잘

<sup>35</sup> 楊碧川 〈無政府主義者 — 范本梁〉, 『臺灣近代名人誌 (3)』, 自立晚報社 1987 참조.

<sup>36</sup> 박환, 앞의책 23 면.

<sup>37</sup> 〈新臺灣安社宣言〉, 「新臺灣」 第 1 號, 1924. 4 (王曉波編 『(新編) 臺胞抗日文獻選』, 海峽學術出版社 1998, 289~95 면).

못된중앙집권을주장하므로, 우리무정부주의자들은이에대해서굳건히투쟁해야한다.<sup>38</sup>

우선범본량은대만정치운동의주류인대만의회청원운동을비판했다. 그는“현재세계각지의운동, 예를들어민족자결운동, 인도·필리핀·조선의독립운동, 일본의보통선거운동과우리대만의민선의회운동은근본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다. 이것은폭력으로폭력을대체하려는운동에불과하므로, 소수자본가들에의해농락당하거나야심가들이군중의혁명심리를이용하여어부지리를얻으려는것이다. 가련한민중들의재산과피눈물을희생시켜개인의주머니를채우려는것이다.”<sup>39</sup>라고폭로했다. 뿐만아니라소련공산주의에대해서도비판했다. 같은글에서“마르크스파의소련을살펴보면결국자본주의색채를띠고있는데, 마르크스주의가중앙집권의착오를주장한다면우리들무정부주의자들은마땅히의연하게분노해야한다. 생명을담보로해일체의권력을타파하고, 모든자연스럽지못한제도를전복시키며, 비과학적인미신을제거하여, 노동대중의진정한행복을위하여, 전체피압박자의진정한자유를위해분투하자”<sup>40</sup>라고주장했다.

이와같이범본량이대만의의회설치청원운동과소련의신경제정책에대해서비판한것은당시대만학생들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과격한주장이었다. 하지만이런대의제에대한비판및공산주의에대한회의는전형적인아나키스트의관점을잘드러낸다.

〈집행부선언〉(제 2 호, 1924 년 12 월) 에서는, “대만민족이생존을유지하려면일본강도를몰아내지않으면안되고, 일본강도를몰아내려면폭동과혁명말고는다른길이없다. 이때문에우리들은강력히주장하니 (1) 대만총독과관리들을암살하고, (2) 전체일본의요인과관리들을암살하고, (3) 특무앞잡이와국민을속이는부패한무리들을암살하고, (4) 자본가와특권계급을암살하고, (5) 적들의일체시설을파괴하자. 암살을꿈임없이진행하고폭동을계속일으키면, 대만민중의혁명은성공할것이다!”<sup>41</sup>라고선언했다. 여기서일본정부의무자비한폭력으로인해대만동포들이고통속에서지내는것을목격하면서대만인의혁명을목표로신대만안사를조직했다는사실을분명히밝히고있다.

〈대만혁명운동방법〉(제 3 호, 1925 년 3 월) 에서는사약社約 3 장도제시했다. 사약 3 장이란첫째, 비밀을누설하는자는사형에처한다, 둘째, 최선을다해노력하지않는자는견책한다, 셋째, 회원은각자무한책임을진다등이다.<sup>42</sup> 범본량은대만혁명운동의방법을설명하면서“동포들이여바쿠닌이리옹에서심문받을때의첫던두가지주장과허무당의한가지말을잊지말자”고했다. 여기서두가지주장이란“머릿속의사상은총구의탄환이다”와“한개의폭탄은책십만권의선

리아독재에대한원칙을견지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논쟁의결과, 승리의여신은“각자필요에따라소비한다”는아나키스트의이상론보다는“각자노동에따라소비한다”는마르크스주의자의현실론에손을들어주었다. 비록인간의자유를절대적으로옹호하려는아나키스트의이상은영원한매력을가지겠지만, 사람들은유토피아적인가치추구보다는눈앞의현실문제를해결할수있는실천방법과행동강령을제시하는쪽에더욱공감했다. 하지만크로포트킨이 20 세기초에일찍이남긴“아나키를목적과수단으로갖는다면공산주의는가능할것이다. 반면에이목적과수단이없을때공산주의는개인의노예화를시도하고, 결국실패할수밖에없을것이다”<sup>3</sup>라는예언처럼들리는말을다시한번음미할필요가있다.

또다른아나키즘의실패원인으로전쟁에따른사상운동의압살을들수있다. 실제로 20 세기내셔널리즘의시대에벌어진제 1 차세계대전과러시아혁명의영향으로아나키즘세력이위축된것도사실이고, 제 2 차세계대전의결과운동으로서의아나키즘이크게쇠퇴한것도사실이다. 게다가 20 세기후반은또다른전쟁, 즉냉전의시대로아나키즘운동은그침체기가지속되었다. 동아시아의상황도대체로이러한세계적추세와케를같이했다. 본문에서살펴보았듯이중국의경우 1920 년대초아나-불논쟁으로분화가일어나고, 국공합작에따른분열현상이나타났다. 특히국공분열과정계의개편으로위기에처했고, 만주사변과중일전쟁으로이어지는장기간의전쟁속에부침이계속되었다. 일본의경우도중국과비슷한시기에아나-불논쟁을겪었고, 대삼영의학살과사상운동의탄압을경험하면서 1920 년대후반노동운동이분열했다. 무엇보다도 1930 년대일본의파시즘화와전쟁발발은운동의숨통을막아버렸다. 식민지조선과대만의경우중국과일본의정세에직접적인영향을받았는데, 아나-불논쟁이나전쟁상황모두그렇다. 전쟁이라는극단적상황은자유를갈망하는모든사상과사람들에게치명적인적임을들림없다.

아나키즘은 21 세기의시작과함께전세계적으로다시금자본주의와사회주의를넘어서는제 3 의길로주목받고있다. 소련을비롯한현실사회주의의갑작스러운몰락과전지구적자본주의체제의심화라는격변을체험하면서현재의상황에대처할수있는대안이론의하나가바로아나키즘이라는것이다. 필자는비록 20 세기의아나키즘운동이정치권력을다루는데실패했고민간차원의지역연대에머물렀다는사실은인정하더라도, 그어떤정치세력보다‘동아시아적’색채를지닌사람들이라고본다.<sup>4</sup> 그리고오랜세월을거쳐어오는그들의경험은 21 세기사회에도여전히유용하다는믿음을가지고있다. 본문의내용처럼 19 세기말 20 세기초동아시아사회에출현한‘적자생존’을미덕으로삼는제국주의라는새로운괴물에

38 〈新臺灣安社宣言〉.

39 같은글.

40 같은글.

41 〈執行部宣言〉, 「新臺灣」第 2 號, 1924. 12.

42 박환, 앞의책 13~14 면재인용.

<sup>3</sup> 표트르크로포트킨 〈공산주의와아나키즘〉, 백용식옮김 『아나키즘』, 개신 2009, 269 면.

<sup>4</sup> 한연구자의말처럼“동아시아의‘반란적정체성’을논할때만가지빠뜨릴수없는것이 20 세기동아시아의급진적사회주의(공산주의)와아나키즘의역사”인데, 그들은대단히“동아시아적”이었다(박노자 〈반란자들의동아시아를위하여〉, 『우리가몰랐던동아시아』, 한겨레출판 2007, 13 면). 물론아나키스트가다른파벌에비해상대적으로동아시아인식이뚜렷한것은사실이지만그렇다고모든아나키스트가동아시아인식을가지고활동한것은아니다.

량·암좌작태랑등과한인·대만인과의교류, 조선과대만아나키즘운동의시작을 알린신채호와법분량의교류, 파금과유자명의영원한우정등무척다양했다. 이책에서는기존에별로주목하지않았던러시아아나키스트이바노프·폴레보이·스테파니·에로센코등과한중일아나키스트와의교류를약간이나마다루었다. 그리고대만인의아나키즘운동역시연구되지않았던주제로재중대만인아나키스트법분량과임병문의활동을언급했다. 특히중국대륙에서독립운동을하던한인과대만인간에는남다른연대의식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둘째, 민족과국가를초월한다양한국제연대조직과단체들이다. 일본인의금요강습회와중국인의사회주의강습회간교류중만들어진아주화친회, 재일한인·중국인·대만인유학생이만든급진주의단체신아동맹당, 유법근공검학운동으로상지오디는중국인청년의프랑스유학운동, 러시아사회주의자의지원아래결성된사회주의(자)동맹, 한인·대만인의연합조직인평사, 동경을중심으로결성된국제조직흑색청년연맹, 상해를중심으로만들어진국제조직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상해노동대학과천주민단훈련소에서한중일합작, 한중아나키스트의공동전선인항일구국연맹등을들수있다. 동아시아사회에서는아나키즘이마르크스주의보다먼저사회주의사조의주류를점했기에이와같은다양한연합조직들이출현했고, 민족주의·공산주의와경쟁하면서민족해방과사회혁명사이에서전전했다.

셋째, 아나키스트의국제주의와관련해상호부조론과에스페란토의수용과정이다. 동아시아아나키스트에게상호부조론은국제연대의이론적근거이며, 에스페란토는국제연대의실천적도구였다. 20세기아나키스트는상호부조론을매개로국수주의·제국주의이론을비판한대표적인집단이었는데, 동아시아최초의반제국주의단체인아주화친회부터제국주의의침략에대항해결성한흑색청년연맹이나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까지다양한사례들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사회진화론·상호부조론·계급투쟁론등이혼재된가운데전개되는동아시아진화론수용과정을살펴보면, 우리는민족주의자(혹은제국주의자)의사회진화론과마르크스주의자의계급투쟁론가운데아나키스트의상호부조론이한자리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울러에스페란토는세계를하나로 묶는실천적도구로여겨졌기때문에동아시아사회에서에스페란토운동은처음부터아나키즘의역사와공유하며뚜렷한족적을남겼다. 아나키스트는세계각국의사회주의자들이연합하거나대동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는이언어를학습하는일이중요하다고믿었다.

일반적으로동아시아아나키즘운동의실패원인으로공산주의와의경쟁에서패배한사실을들고있다. 본문에서는아나-불합작과논쟁에대한중국의사례를통해몇가지사실을알수있었다. 아나-불논쟁에서마르크스주의자가제기한두가지명제에대해아나키스트는동의하지않았다. 첫째, 인류사회에는개인의절대자유란근본적으로존재하지않을뿐더러, 개인의절대자유를주장하는것은혁명에지극히해롭다. 둘째, 개인의자발적인투쟁론은미신에불과하며, 마르크스주의에기초한프롤레타리아정당의건설을통해혁명을이룩해야한다. 따라서프롤레타

전보다났다”는것이다. 그리고한가지말이란곧“목적이수단을결정한다”는주장이다.<sup>43</sup> 이처럼「신대만」에서는암살을주요수단으로삼은직접행동에의한사회혁명을주장했다. 신대만안사가폭력적혁명수단으로대만총독, 관리, 앞잡이, 자본가를암살해일본강도를몰아내자고주장한것은대만아나키즘운동의출발을알리는고독한외침이었다.

여기서궁금한사실은신채호가만든〈조선혁명선언〉(1923년 1월) 과신대만안사선언의유사성여부이다. 잘알려진바와같이“일제는한민족생존의적이다”“강도정치에타협기생하는자는우리의적이다”“외교준비의미몽을버리고민중직접혁명을선언한다”“양병 10 만이일척의작탄만못하다”“이족통치를파괴하고신조선을건설하자”등의내용을담고있는〈조선혁명선언〉의민중의직접혁명론과개인테러중심의열투쟁론은위에서소개한법분량의주장과자못유사하다. 현재로서는두선언의인과관계를명확하게밝히기는어려우나, 두사람의개인적친분을고려한다면서로영향을끼쳤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법분량과친구였던유자명의회고에따르면, 1924년무렵자신은신채호와함께있었던시간이가장길었으며, 대만벗들인법분량, 임병문등과도잡은왕래를했는데, 그들의소개로자신이천주회관에숙박할수있었다고한다.<sup>44</sup> 당시한인들은한중간의국제적제후에주력했는데, 여기에는대만동지들도포함되었다. 한인과대만인아나키스트들은 1924년 9~10월경경제적곤란을타개하기위해상해로이주했다. 이때법분량도상해로내려가현지의대만인에게아나키즘을선전했다. 여기서장심절(張深切)을알게되어「신대만」을대만에게지고귀국하도록의뢰했다. 이로말미암아「신대만」은상해와광둥은물론대만섬에도전파되어대북무산청년과대만흑색청년연맹이탄생하는게기를마련했다. 법분량은 1925년경다시북경으로돌아왔으나, 장작림(張作霖)의봉천군이북경을점령하자탄압을피해대만으로귀국했다. 귀향후에도아나키즘이념을적극적으로전파했으나, 그해 1926년 7월치안유지법위반으로체포되어징역 5년의판결을받았다. 그는 1927년에다시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대만당국에게체포되어 15년형을받았다. 다시체포된까닭은불분명하지만, 어쩌면총독부폭파를계획하지않았나싶다. 결국 1945년해방을볼과몇달넘겨두고일본감옥에서고독속에서숨을거두었다.<sup>45</sup>

한편북경에서는 1923년에대만출신학생과조선망명학생들이만든한대혁명동지회韓臺革命同志會라는조직이있었다. 이항일단체는사회주의경향이있었다고알려져있으며, 책임자는장종전(張鐘銓)이었다. 대만학생들과달리조선학생들은모두망명객이라경제조건도다를뿐더러행동방식도서로달랐는데상대적으로과격했다고전한다. 대만학생들은“대만이해방되려면조국이강대해지

<sup>43</sup> 〈臺灣革命運動方法〉, 「新臺灣」第3號, 1925. 3.

<sup>44</sup> 류연산『류자명평전』, 충주시에성문화연구원 2004, 162면.

<sup>45</sup> 장심절은훗날법분량을“나는법분량이대만의혁명전선에서가장순수하고가장용감한혁명가의한사람이라고믿는다. 진실로그는철저하게고립되어파괴되어버린무정부주의자였다”라고평가했다(張深切〈記范本梁烈士〉, 『臺灣近代人物集』第1卷, 167면).

기를기다리지않으면안된다”고온건하게생각해무장투쟁에적극적이지않자오래지않아해산되었다. 이단체와관련해아래와같은짧은기록이전한다.

(1924 년?) 고려혁명군이라시아국경에서해산당한후, 이범석 (李范奭) 은 오기성 (吳基星) 이란가명으로북경에잠입하여대만혁명가들과연합해‘한대혁명동지회’를발기했다. 그러나행동강령을만들때, 이씨는폭력과암살을주요수단으로삼을것을주장했는데, 대만지사들은반대의견을견지했다. 왜냐하면한국은중국대륙과붙어있어서일이실패하더라도도주하기쉬우나, 대만은사면이바다라서일이실패하면속수무책으로희생당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의견이통일되지않아몇차례회의후와해되었다.<sup>46</sup>

이두조직의결성시기가다소일치하지않으나단체명이동일하고해체한까닭이유사하므로같은사건을담은기록이아닐까싶다. 그런데한인과대만인의연합조직은상해에서도나타난다.

### 3. 상해지역

#### 삼이협회와 「투보」

러시아에서한인사회당을조직했던이동휘는상해임시정부의국무총리로선출되자지도부와함께거지를상해로옮겼다. 1919 년 9 월경그들은다시한인사회당을조직하고사회주의를선전했다. 다음해초러시아에남아있던한인사회당당원일부도상해로건너와서이들과합류했다. 이동휘는러시아공산당에서파견한보이틴스키의재정지원으로여운형 (呂運亨) 을비롯한일부임정요인들을사회당에가입시켰다. 1920 년 9 월에는한인사회당을한인공산당으로확대개편했다. 그런데한인사회주의자들은중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공산주의를잘이해했다기보다는각종사회주의가혼재된사상경향을가졌다. 한연구에따르면재중국한인은 1921 년쯤공산주의조직을결성했으나, 다수의공산주의자들이아나키즘적사고에서벗어나지못했다고주장한다. 심지어한인공산주의자들은아나키즘을사상적기반으로해공산주의를수용했다고생각한다.<sup>47</sup>

상해한국임시정부와중국의공산주의소조 (혹은사회주의청년단) 의주소가상해법조계이웃이었다는사실이나보이틴스키등러시아공산주의자들이한인의움직임에예의주시했다는사실, 특히사회주의청년단조직과정에서등장하는한인사회주의자들 — 김가봉, 박모 (朴某), 안모 (安某) 등 — 은양자의관계에대한궁금증을더욱증폭시킨다. 북경대학학생으로이대조의토론회에참가했던한

<sup>46</sup> 石源華編著, 앞의책 137 면.

<sup>47</sup> 한인공산주의운동의핵심인물조차 1922 년무렵까지는공산주의못지않게아나키즘을선전했다고한다 (이호룡 <한국에서의아나키즘과공산주의의분화과정>, 『한국사연구』 110 호, 2000, 168 면).

## 책을마치며

아나키즘은기본적으로국제적연대의식이어떤사회사상보다도뚜렷하다. 아나키스트의이런특징은동서양을막론하고 19~20 세기의민족주의시대부터 21 세기탈민족주의시대까지관통하는정신이다. 19 세기의프루동은열렬하게프랑스를찬미했고, 바쿠닌도한때슬라브민족주의자였으며, 크로포트킨조차러시아에대한깊은애정을숨기지않았다. 하지만그들모두기본적으로국제연대를통해민족과국가간의긴장을해소할수있다고믿었다. 프루동이자신을연방주의자라고부르거나, 바쿠닌이중앙집권화와연방주의를대립시켜이해하거나, 크로포트킨이상호부조론에서연방주의사상을전파한까닭도여기에있다. 대체로서양의아나키스트가추구하는이상사회는정치적으로는코뮌들의연합이고, 경제적으로는노동조합의연합이다. 이런연합주의는지역과국가범주를넘어국제주의로나아가연합의정신으로여러국민 (민족) 들을재편하여인류통일을추구한다. 결국아나키스트의연합주의는국제주의를거쳐식민지민족해방에대한관심으로나아가는것이다.<sup>1</sup>

동아시아아나키스트역시어떤정치집단보다자민족중심주의에서벗어나아시아에대한수평적사고에노력했는데, 그들의국제주의는대체로동아시아라는범주에서출발했다. 그들은식민지로부터해방되더라도고립되면혁명이성공하기어렵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기에진정한사회혁명은곧동아시아범주를기반으로세계혁명으로나아가는것이였다. 이책에서는교류와연대라는주제어를가지고잊어버린역사사실에대해복원하고자했으며, 특히동아시아아나키즘운동과 20 세기의시대사조인민족주의와의관련성에주목했다.<sup>2</sup> 본문에서다른내용의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과국경을초월한아나키스트간의교류이다. 프랑스아나키스트르클뤼·그라브와중국인혁명가이석중·오치휘등과의시공을뛰어넘는교류, 일본아나키스트행덕추수와중국인유학생유사배·하진등과의교류, 중국과일본을대표하는아나키스트사복과대삼영의산록태치를매개로한교류, 버크먼과골드만같은구미아나키스트의동아시아아나키스트와의다양한교류, 대삼영·석천삼사

<sup>1</sup> 다니엘게랭, 하기락 옮김 『아나키즘』, 중문출판사 1985, 134~41 면.

<sup>2</sup> 최근한주목할만한연구에서는아나키즘의프리즘을통해필리핀의민족주의운동을분석하면서아나키즘같은국제주의가민족주의와공존할수없는것이결코아니라는사실을설득력있게설명했다 (베네딕트앤더슨, 서지원 옮김 『세깃발아래에서 — 아나키즘과반식민지주의적상상력』, 도서출판길 2009).

이석증은청말부터어오던백과전서운동을다시시작해 『세계학전世界學典』을편찬설계하면서한인아나키스트의협력을요청했다. 그는민족과국가의대소나성쇠에관계없이모든정보가들어간전문적인책을만들계획이었는데, 대표적인것이바로조선학전관이었다. 이때정화암과이하유(李何有)는이석증과오치휘등의도움을받아조선어학관을설립하고여기에신채호학사를설립했다.<sup>85</sup> 그러나 1945년부터 1949년까지국공내전國共內戰을거치면서중국이공산주의국가가되자아나키스트들은대만으로이주하거나지하로잠복하여조직적인활동은찾아볼수없게되었다.

한편해방된조국으로귀환한한인아나키스트는미국과소련에의해분할군정이실시되자아나키즘사회건설이우선이나, 민족적주권쟁취가우선이나는문제에직면했다. 그과정에서진보적민족주의세력과동맹을맺고독자적인세력결집에나섰지만미소냉전에따른남북분단과한국전쟁으로말미암아실패했다. 임시정부를따라귀국한유림은독립노동당이라는정당을만들어제도권정치에참여해야나키즘에서의일탈이나아니냐의논쟁을일으키기도했다. 권력의미신으로부터민중을해방시키고, 산업의분산화와노동자·농민의자치를통해자유연합사회를건설하겠다는꿈은냉전과열전사이에서무너졌다. 결국후천이후에는문화계몽등을통한후진양성에주력하는등제한적인형태로나마운동의명맥을이어나갔다.<sup>86</sup>

인아나키스트김가봉이 1920년여름상해에내려와청년단결성에참여한사실은무척흥미롭다.<sup>48</sup> 어쨌든한인사회당이나사회주의청년단조직과정에서적지않은한인사회주의자가출현하기에상해에거주한한인급진주의자가운데아나키스트들이이미조직적인활동을시작했을가능성은높아보인다. 어쩌면아래의사건들이그들의활동을보여주는단편적인사실이나닌가싶다.

우선재중국한인독립운동가들이외국인과연합해만단체인삼이협회三二協會의존재에 주목할필요가있다. 삼이협회는 1920년봉상해에있던중국인한인과러시아인들이조직한단체라고하는데, 여기서‘삼이’란용어는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자주쓰는용어이다. 즉‘삼’은‘삼무三無’로무정부·무종교·무가정을의미하고, ‘이’는‘이각二各’으로“각자능력에따라일하고각자필요에따라소비한다”는아나키즘의경제원칙을표현한말이다. 현재이단체의구체적인활동은알수없지만상해임정의의동회, 문창범등이관여했다고전한다.<sup>49</sup>

삼이협회가사회주의를선전하기위해러시아인(혹은한인)을일본에보내『크로포트킨』이라는아나키즘소책자를재일본중국인, 한인노동자에게배포했다는기사도있는데, 그렇다면혹시이단체가사회주의청년단과관련된중국인사회주의자들, 러시아공산당에서파견한보이틴스키등과같은러시아인들, 보이틴스키가계속접촉을시도했던상해임정주변의한인사회주의자들이결성한단체는아닐까? 왜냐하면보이틴스키가한인을일본에파견해사회주의운동문헌을주고받은사실은중국측의기록에도나타나기때문이다. 자료의부족으로단언하기곤란하지만단체의명칭으로볼때아나키즘색채가농후한것은분명하다.

얼마후(1922년초?) 상해에서한인혁명가들에의해「투보鬪報」라는한글선전지가간행되었다. 이선전지는고려공산당기관지로알려져있으나, 그내용을검토해보면한인아나키스트의출현을보여주는자료로서도일정한의미가있다. 예를들어첫면에“강권에복종함은죄악이다”라는슬로건을내걸었다는사실만으로도아나키스트혹은아나키즘성향이강한인물들이깊이개입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 왜냐하면주요이런표현은아나키스트들이즐거사용하는관용구이기때문이다. 이구호뿐만아니라기사의논조역시대체로아나키즘의색채를담고있다고말할수있다. 이잡지에실린〈선홍의승리는민중의폭력에있다〉(제2호)라는기사는선명하게아나키즘의입장에서있다. 작자는“폭력에압박받은우리민중이폭력으로서자유를얻으려함은당연한결론”이라면서암살과봉기, 폭동, 부호의사유재산수용, 생산의탈환, 권력자에대한반항, 총동맹파업, 자유출판, 자유항세등폭력수단을투쟁방법으로서찬양했다. 작자가혁명의지도자들은“자기의뜻대로민중을이용하지말고민중의뜻을그대로대표하는자가되라”고주장한대목

<sup>85</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393면.

<sup>86</sup> 이문창 『해방공간의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머리말.

<sup>48</sup> 사회주의청년단이성립한후항상일본인판서다랑(板西多郎) 과한인박모·안모가참가했다고한다. 이가운데한인안모는보이틴스키와함께상해에왔다는것으로보아러시아에있던한인사회당당원일가능성이높고, 일본인판서다랑과한인백극(栢克)은어떤인물인지현재로서는미지수이다(楊昭全等編, 앞의책 1483면).

<sup>49</sup> 이호룡 『한국의아나키즘(사상편)』 150~51면.

역시의식적으로 민족주의자 (혹은 일부 공산주의자) 를 겨냥해서 쓴 것으로 풀이된다.<sup>50</sup>

〈배일사상론〉이라는 기사에서는 우리가 일본인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착취하므로 배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 가운데 일본 정부에 대한 저항과 일본 사회주의자 및 일본의 피압박민중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은 국제주의로 편협한 종족주의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sup>51</sup> 그리고 〈「라·루발트」의 창간사〉나 〈상해중국노동단체조사기〉 등의 기사는 이 잡지가 사회주의를 지향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물론 〈중국말쓰학설연구사의……〉 같은 단체 광고는 이 잡지가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이처럼 자칭고려공산당 기관지어나나키즘경향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은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가 혼재되어 있던 당시의 중국 상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1922 년 초라는 시점은 비록 아나키스트와 초보적 공산주의자 간에 균열이 일어난 시기이지만 전면적인 분열로 발전한 시기는 아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선전지가 단지 1 부 (제 2 호) 만 남아 있고, 그것도 단지 몇 페이지 만 남아 있어 구체적인 논조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 한인과 대만인의 연합조직: 평사와 대한동지회

상해의 대만 유학생들은 상해 대만 청년회 (1923 년 10 월), 상해 자치 협회 (1924 년 5 월), 평사 평사 (1924 년 3 월), 대한동지회 臺韓同志會 (1924 년 6 월) 등을 만들어 민족 해방 운동을 전개했다. 상해 대만 청년회는 채혜여와 팽화영, 허내창 (許乃昌) 등이 주축이었는데, 국민당의 협조 아래 일본을 타도 하고 대만이 독립하기를 희망했다. 상해 대만 청년회는 대만 문화 협회, 동경 신민회, 동경 대만 청년회 등과 긴밀히 연락했고, 중국 국민당과 소련 영사관과도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상해 자치 협회는 대만 청년회와 평사에 관련된 채효건 (蔡孝乾) 과 장심절, 사설홍 (謝雪紅), 임유금 (林維金) 등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 협회 역시 일본의 대만 폭정을 비판하고, 대만의 자결과 독립을 추구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인과 대만인이나 나키스트의 연대 활동과 관련해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체는 평사와 대한동지회이다.

평사는 1924 년 3 월 말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거주하던 중국인 아나키스트 나할 (羅豁)<sup>52</sup> 이 대만 과 한인 청년들과 함께 만든 조직이다. 나할의 집에서 평가화와 여운형이 협의한 후, 한인 여운형, 윤자영 (尹滋瑛), 탁무초 (卓武初) 등 대만인

무장 부대의 조직, 혁명 사상의 고취 등이었다. 얼마 후 나월환이 우파에게 피살당하는 비극이 있었으나 해체되지 않고 꾸준히 활동했다. 이 공작대는 서안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가극 〈아리랑〉 을 공연하여 한중 친선에 기여했다. 1940 년 9 월 한 국 광복군이 창설하면서 전지 공작대는 한국 광복군 제 5 지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41 년에는 다시 조선의 용대가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어 우선 군사 방면에서 통일 전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경으로 옮겨가 전열을 정비할 즈음 유자명과 유림 (柳林)<sup>82</sup> 이 아나키스트를 대표해 임정에 참여했으며, 민족 혁명당과 같은 좌익 진영의 세력도 임정에 참가하면서 정치 방면에서도 기본적인 통일 전선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44 년 9 월 중경에서 열린 각 혁명 당파의 통일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좌우 모두 임시 정부 밑으로 통합하는 것을 합의했다. 각 혁명 당파가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에 이르자 국민 정부의 제안으로 중한 문화 협회 中韓文化協會 가 만들어졌다. 이 사건은 중국 국민 정부가 비로소 한국 임시 정부를 공식 승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sup>83</sup>

끝으로 해방 이후의 상황을 한두 마디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전후 戰後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은 1946 년 5 월경 2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아나키스트 연맹을 창설하고, 기관지로 「평민신문」 을 간행하면서 재기했다. 1925 년에 흑색 청년 연맹이 조직되어 불과 1 여 년 만에 해체된 이후에 사실상 상처음으로 조직된 전국적 조직이었다. 각 지역에서 다양하기는 했지만 퍼졌지만 느슨한 조직 형태여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한 아나키스트는 전후 아나키즘의 특색에 대해 전전과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들이 이론을 경시하는 경향이 농후했고, 아나키즘의 이론이 너무 다양해 조직의 통일과 단결이 어려웠으며, 자칭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조직에 받아들여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sup>84</sup> 비록 1968 년 11 월에 연맹은 해산되었지만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일본의 패망 직후 중국에 남아 있던 한인 아나키스트 유림과 정화암, 허열추 (許烈秋), 유자명, 유서 등은 상해에서 중국인이 석증, 주세 (朱洗), 파금, 필수작 등과 함께 한중 무정부주의자 대회를 열어 국제적 유대 관계를 다시금 확인했다. 특히

<sup>50</sup> 유림은 1919 년 상해에 망명하여 봉천과 북경 등지에서 활동하다 성도 대학에 유학했다. 아나키스트로서 신민부 新民部 와의 연결을 시도했으며, 조선 공산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고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의성숙 義誠塾 을 경영하다 체포되었다. 6 년간의 투옥 후 석방되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중경에서 임시 정부에 참여했다. 이즈음 원론적인 아나키즘 노선에서 민족 전선의 참가로 생각을 바꾸었다 (김희곤 〈단주 유림의 독립 운동〉, 『한국 근대사 연구』 제 18 집, 2001 가을 참조).

<sup>51</sup> 항일 전쟁이 한창이던 계림과 중경 시절에도 파금과 유자명의 우정과 교류는 이어졌다. 일본의 패전 후 유자명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중국 대륙에 남아 있었다. 그는 호남성에서 원예 학자로서 제 2 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국제 우인 國際友人’ 이라는 칭호가 붙여 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훗날 유자명에게 자서전을 집필하도록 권유한 사람도 바로 파금이었다.

<sup>84</sup> 向井孝 〈戰後日本のアナキズム運動〉, 『アナキズム』 제 7 호, 2006 (1976), 77~79 면.

<sup>50</sup> 不可殺 〈善의勝利는民衆의暴力에在하다〉, 『鬪報』 제 2 호, 1922. 3. 25.

<sup>51</sup> 燒也 〈排日思想論〉, 『鬪報』 제 2 호, 1922. 3. 25.

<sup>52</sup> 나할은 중국 사천성에서 태어났다. 1918 년경 일본에 유학을 가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후 활동한 사회 운동가였다. 당시 재동경 중국인 위험 인물 가운데 가장 격한 인물로 나할을 지목하고 있었다. 일본 사회주의자 동맹 日本社會主義者同盟 결성 대회에 정식 참가했고, 다음해 제 2 회 대회에도 참석했으나 해산 명령을 받았다. 결국 자신에 대한 퇴거 명령을 예상하고 귀국했다. 그는 1924 년 3 월 상해에서 대만인, 한인 과 함께 평사를 조직하고, 다음달 「平平」 순간을 발행했다.

민족모순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태도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혁명운동은 시간과 지점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1880 년대의 러시아와 1920 년대의 조선은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시대라도 일본의 아나키스트와 조선의 아나키스트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당시 유자명은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을 토대로 중국 항일 전쟁을 발판으로 삼아 한인 독립운동을 국제적 반파시즘 투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 했다.<sup>78</sup> 이 과정에서 중한인 아나키스트의 국가관에 변화가 찾아왔다. 과거 타도 대상으로만 삼은 국가와 정부 존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 전선을 수용하면서 사유 재산제와 중앙 집권적 조직체를 일부 인정했다. 이는 민족 전선의 결성을 통해 민족 혁명을 일차적으로 달성하고, 그 다음에 아나키즘 사회를 건설한다는 단계론적 구상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자는 이런 국가관의 변화를 아나키즘 본령에서의 일탈 현상으로 이해하며,<sup>79</sup> 다른 연구자는 민족 전선이 아나키즘의 '자유 연합' 조직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입장 차이를 보인다.<sup>80</sup> 그런 데 민족 전선론은 일본과 조선에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일 전쟁이 발발한 시점은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의 한인 운동이 쇠락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 한 구에서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 朝鮮義勇隊 (1938년 10월)를 조직하고 김원봉을 단장으로 선출했다. 유자명은 지도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 전시대 일선 전 공작 담당을 맡았다. 당시 김원봉은 "외국 각지에 있는 민족 무장 부대를 연합하여 통일적인 민족 혁명군대를 창건하여 민족 해방 전쟁을 실행한다"는 취지 아래 국민 정부에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선의용대 창건식이 열렸다. 조선의용대는 기관지 「조선의용대」를 발간하여 각 전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용대의 소식을 전했다. 유자명은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기초로 좀 더 민족 통일 전선을 확대하고자 했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를 부담 없이 왕래할 수 있었던 그는 중경에서 한국 임시 정부와 조선 민족 전선 연맹과의 통일 문제를 놓고 협상을 했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정화암 등 일부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안휘성 남부로 이동해 한중 합동 유격대를 조직해 유격전을 폈다. 그들은 한간제거 공작과 학도 병귀순 공작, 구미 인포로 구출 공작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같은 시기 중국 관내에는 좌익 계열의 조선의용대와 우익 계열의 광복군 말고도 비록 소수이지만 아나키스트 중심의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 韓國青年戰地工作隊가 있었다. 전지 공작대는 나월환 (羅月煥) 등 아나키즘 계열의 청년이 중심이 되어 1939년 10월 중경에서 조직했다.<sup>81</sup> 이 조직은 「한국 청년」을 간행했는데, 여기서 한중 양 민족이 연합해 공동으로 항일의 기치를 걸고 공동의 적을 타도하자고 주장했다. 전지 공작대의 주요 임무는 중국 항전에 대한 협력과 선전 활동, 첩보 활동,

평화영, 채병요 (蔡炳耀) 및 상해 대만 청년회 간부 허내창,<sup>53</sup> 임요곤 (林堯坤), 장목진 (張沐眞), 유금수 (游金水), 오패법 (吳沛法), 진전지 (陳傳枝) 등이 만 들었다. 이 조직은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위한 동아시아 연합 조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만 사회 운동사에서 평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초기의 대만 좌익 단체의 하나로 북경의 신대만 안사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 두 단체가 동시에 출현한 것은 우연으로 보이며, 양자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단체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평사도 신대만 안사 처럼 아나키즘적 색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평사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

평사는 「평평 평평」(1924년 4월)을 발행하여 같은 해 6월까지 총 9호를 출판했다. 현재 다른 아나키즘 잡지에 비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sup>54</sup> 「평평」 창간호에는 〈발간사〉와 더불어 일본 공산당 원좌야학 (佐野學)의 〈상해를 경유하며〉, 허내창의 〈대만의 회에서 혁명 운동으로〉, 진일 (眞一)의 〈대만은 어찌 해야 할까?〉, 윤소야 (尹蘇野)의 〈조선의 민족 운동〉 등이 실렸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잡지는 주로 대만과 조선에서의 일제 식민지 통치를 비판하고 독립과 해방을 주장하는데 주력했다. 비록 대만 관련 기사가 많지만, 조선 관련 기사도 몇 편 있다.

일본은 자본 제국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대만과 조선을 점령한 것이다. 조선에는 육군이 발전할 근거지를 마련해 만주와 몽고를 침략하려는 것이고, 대만은 해군으로 태평양을 넘보려는 것이므로, 열강과 제국주의 경쟁을 전개하는 근거지인 것이다. ... 이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대만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만인은 동양 피압박 민족의 일원이다. 인도, 조선, 필리핀 등 여러 약소 민족이 현재 독립 운동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때, 만약 대만이 그들을 따라 일어나 동양 약소 민족이 대단결한다면, 동양의 사회 혁명은 눈앞에 있는 것이며, 세계 혁명역시 성취될 것이다. 동양 혁명은 우선 일본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다.<sup>55</sup>

위의 글은 〈대만 문제를 다시 논함〉(제 2호)의 일부인데, 여기서 작자는 나름대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면서, 대만과 조선을 비롯한 약소 민족의 단결을 통한 동아시아 혁명을 제안하고 있다.

「평평」은 대만의 회 운동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만의 회가 개설되더라도 대만인의 해방을 이루어 지지 않으며, 단지 자산 계급만의 해방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은 대만 이익을 독점하는 일본 자본주의와 친흥 대만 자본가의

<sup>53</sup> 허내창 (필명 沫云)은 1923년 9월 상해 대학 사회학과에 들어갈 때부터 1924년 8월 (혹은 10월) 소련에 유학하기까지 1년 정도 상해에 거주했다. 그는 대만인과 한인이 조직한 '평사'와 '대한동지회'에 참가했으며, 「평평」에 〈自臺灣議會到革命運動〉 〈印度獨立運動的發展〉 〈第二次限制軍備會議〉 〈日本對臺灣的武裝大示威〉 등을 발표했다. 얼마 후 허내창은 진독수의 추천으로 소련으로 유학갔다 (邱士杰 〈從「黎明期的臺灣」走向「中國改造論」〉, 「批判與再造」第 20~21 冊, 2005).

<sup>54</sup> 「平平」순간은 坂井洋史·嵯峨隆編 『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 第 7 卷, 綠蔭書房 1994 年 9 月 9 日 發行.

<sup>55</sup> 『警察沿革誌』 143~47 頁.

<sup>78</sup> 한상도, 앞의 글 152 頁.

<sup>79</sup> 이호룡, 앞의 글 245~46 頁.

<sup>80</sup> 김성국 〈유자명과 한국 아나키즘의 형성〉, 『한국 사회사상 연구』, 나남 2003, 311 頁.

<sup>81</sup>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 대해서는 박환, 앞의 책 187~225 頁 참조.

타협일뿐이므로, 대만무산계급에대한착취는더욱강화될것이라고보았다. 이잡지에서는대만의정세를다음과같이분석했다. 첫째, 식민지의경제상황은일본자본주의의결정과지배를받으므로자력으로자본주의를발전시킬수없다. 둘째, 식민지의자본가와무산자간의차이는매우적다. 따라서자신의역량으로독립적인계급을형성할수없으며, 서로간에계급투쟁도나타날수없다. 셋째, 비록식민지의자본가와무산자간의차이가매우적지만, 대만에서의일본자본주의발전에따라더욱적어질수도있다. 넷째, 계급운동과민족운동을서로합쳐사회주의혁명과연계할수있다.<sup>56</sup> 이런분석에따라식민지모국일본과식민지대만과의관계는극단적으로양극화된하나의구조로, 민족자산계급은장차무산계급화할운명이라고보았다. 따라서대만이민족운동을진행할수있는이론적근거를「전체민족의무산계급화」에서찾았다. 「평평」은사회주의혁명을추구하는데, 그방법은식민지인민이단결해반일·반제의민족운동을전개하는것이다. 이에따라“첫째, 대내적으로는전체민족의단결을매우공고히한다. 둘째, 대외적으로는노농러시아와일본의피압박계급및중국, 한국등의피약탈민족간에국제적연합을맺어, 반제국주의적동맹단체를형성해최고의혁명투쟁을전개한다”<sup>57</sup>는방법을제시했다.

「평평」은「신대만」같은순수한아나키즘잡지가아니다. 왜냐하면이잡지에는한인공산주의운동가여운영, 공산주의경향의대만인허내창, 일본공산당의지도자좌야학의글이교루보이고, 심지어마르크스주의정당을건설하자는번역문조차나타나기때문이다. 그래서인지일경의기록에“이단체는공산주의색채가매우농후하다”라는평가에근거해평사를공산주의자의활동으로보는견해가있다. 하지만좀더세밀히살펴보면아나키즘적색채가더욱강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예를들어이단체의핵심인물이나탈은사천출신의아나키스트이며, 노검파(盧劍波) 같은중국인아나키스트의글이잡지에실려있다. 비록일부내용이아나키즘의주장과일치하지는않으나, 대체로“인류호조를실행할것을중지로한다”든지혹은프롤레타리아독재를비판하고러시아혁명의오류를지적하는것등은아나키즘과의깊은관련성을보여준다.<sup>58</sup> 게다가의회제도를철저히부정하는구절등도그런증거이다.<sup>59</sup> 「평평」은적어도아나키즘과초보적공산주의의혼합성격을띤잡지로보아야할것이다. 이런사례는 1920년대초반에는흔히볼수있는현상이다. 「평평」의의의라면무엇보다도식민지상황에놓여있던대만과조선의

대라고부르는이시기에는자본과노동은물론사상과문화까지도다양하고복잡하게‘이동’하면서그물처럼얽혀있었다. 그후 20 세기에들어와서도제국주의침략에맞서아나키스트와민족주의자가심각한갈등없이상호결합하는사례가종종나타난다. 여기에는있다. 이경우민족주의와아나키즘의관계설정문제는국가적·지역적·정치적·문화적맥락에따라섬세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거꾸로아나키즘과공산주의의관계는양자모두국제주의를지향한사회주의사조임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혁명의헤게모니를놓고초기의합작관계가단절되자분열과논쟁을거쳐화해가능상향으로까지나아간사실은앞에서이미언급했다.

때마침중일전쟁이발발하자민족전선결성의요구가더욱강해졌다. 전쟁발발 직후인 1937년 9월순수한중아나키스트들이결성한중청년연합회(中韓青年聯合會)라는단체는「항전시보抗戰時報」를창간하고테러활동을추구했으나민족전선론이제기되면서테러를중지했다. 그리고남화한인청년연맹은조선혁명자연맹으로개조하여민족전선을실행으로옮기기위해여러좌익계열독립운동세력과협상을계속했다. 조선혁명자연맹은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운동자동맹등과함께몇차례회의를거친후에마침내같은해 12월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결성했다. 유자명은조선혁명자연맹의대표로선출되었고기관지「조선민족전선」의주필겸편집인을맡았다. 〈창간사〉에서“중국의항전이만약실패한다면, 조선민족의해방은기대할수없을정도로막막하게될것이고, 조선민족의노력여하도또한중국민족의최후승리에영향을줄것이다. 과거중국과조선양민족이받은치욕과손실은반드시우리가공동으로책임져야하므로, 공동의적을타도하고동아시아의평화를정립시켜야하는것도중국과조선양민족의공동적인사명”<sup>75</sup>이라고했다.

유자명은〈조선민족전선연맹결성과정〉에서“연맹의성립배경을민족의총단결을강조하게된역사적조건의변화때문”이라고설명하면서, “이연맹을조선혁명대중의상위영도단체로만들려는것이아니고, 단지연맹을가장완전하고만족할만한통일전선의한출발점으로만들생각”이라고했다.<sup>76</sup> 그리고〈조선민족전선연맹창립선언〉에서는“조선혁명은민족혁명이고, 그전선은‘계급전선’이나‘인민전선’이아닐뿐아니라, 프랑스나스페인의이른바‘국민전선’과도엄격히구별되는민족전선”이라면서, “조선민족은자연적으로특수한형상을갖고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조선의혁명도반드시그특수성이있는것이다. 이것은누구도부정할수없는바이다. 그러나조선문제도세계문제의일환에불과하다. 그래서조선의혁명에도반드시국제적인공통성이있다는것이다. 이또한누구라도부인할수없는것”이며, “그렇기때문에모든피압박민족의연합전선이필요한것이고, 필연적이여야한다”<sup>77</sup>고했다. 여기서유자명이조선사회의모순을계급모순이아닌

<sup>56</sup> 구사걸(邱士杰)의〈從‘黎明期的臺灣’走向‘中國改造論’〉에서분석내용을인용.

<sup>57</sup> 沫雲〈自臺灣議會到革命運動〉, 「平平」創刊號, 6면.

<sup>58</sup> 당시「國風日報」의부간「學彙」에이잡지를소개하면서남방동지가발행하고대만·조선동지가수령가입했는데, 그내용에는아나키즘이론이많은기사가있다(「學彙」第379號, 1923. 12. 20). 아나키스트잡지「春雷」에도이잡지는상해동지가발행했다는기사가남아있다(「春雷」第3號, 1924. 5. 1). 〈五四時期無政府主義報刊一覽表〉에서도이잡지를아나키즘잡지로분류하고있다(張允侯·殷叙彝·洪清祥·王雲開編『五四時期的社團』第4卷, 三聯書店1979).

<sup>59</sup> 판정양사(坂井洋史)는평사동인들이대만의회개설청원운동에반대하는태도를아나키스트들이의회제도에반대하는시각에서바라본다(坂井洋史·嵯峨隆編『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別冊), 綠蔭書房1994, 47~50면).

<sup>75</sup> 〈창간사〉, 「조선민족전선」창간호, 1938. 4. 10(위의자료집 56~58면).

<sup>76</sup> 〈조선민족전선연맹결성과정〉, 「조선민족전선」창간호(위의자료집 59~62면).

<sup>77</sup> 〈조선민족전선연맹창립선언〉, 「조선민족전선」창간호(위의자료집 51~55면).

제적, 사회적자유평등을탈환하고만인공영의이상적사회를건설하는데에있어서도먼저최대의적일본제국주의를타도하지않고서는어떠한운동도전개할수없다”<sup>72</sup>면서민족전선결성을촉구했다. 그리고같은호의〈민족전선에관하여〉라는글에서도김구가이끄는한국국민당과김원봉(金元鳳) 중심의민족혁명당이연합할것을촉구하면서, 두당의통일전선에걸림돌이되는“당파적미움”“각정당의배경문제”그리고“감정문제”등을거론하면서나름의해결책까지제시했다. 여기서알수있듯이스페인이나키스트의노선변화가중국에소개되면서한인이나키스트의노선변화로이어졌고, 민족해방을달성한후어나키즘사회혁명을추구한다는단계론적발상을받아들이면서민족전선의필요성이제기된것으로보인다.<sup>73</sup>

유자명을비롯한한인이나키스트의제국주의비판은반파시즘투쟁을위한민족전선운동로나아갔으나, 국제사회를구성하는단위주체로서민족을인정하는것이저배타적민족주의에대해서는여전히반대했다. 어쨌든이런행보는어나키즘의새로운발전이나, 아니면변질이나라는문제를남겼다. 유자명의민족전선결성주장에대해조선민족혁명당이동조하고나섰다. 그결과 1937년 10월남경에서남화한인청년연맹은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聯盟(일명조선부정부주의자연맹)으로개조하고일차적으로조선민족혁명당과의연합을추진했다.

한편민족전선움직임에대해한국국민당의냉심군(冷心君)은어나키스트가스페인같은인민전선을만들려는시도라고보고문제를제기하자유자명은“인민전선이결성되었다고의심하는것은지나치게신경이과민한의문이다. 왜냐하면민족혁명당을어나키스트가원조했다고말하기보다는양당이연합한것이므로이것만으로인민전선의요소가될수없기때문”이라고했다. 그렇다고유자명이인민전선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가졌던것은아니다. 그는“냉심군이‘혁명은전투이고, 전투에는조직규율통제및신념이필요하다. 그러나현재유럽의인민전선에는그것이없다’고말하고있지만, 이를인정할수는없다. 왜냐하면인민전선자체가조직의형식이고, 통제의방법이며, 인민전선정강자체가바로일종의신념이기때문”이라면서, “인민전선운동이코민테른의책동에의해진전되고있다는듯이단정하는것도곧 3·1 운동이월슨의자결주의주장에의해일어난것이라고하는것과마찬가지로피상론”이라고답변했다.<sup>74</sup>

여기서기억해야할사실은어나키즘이‘Internationalism(국제주의)’을추구한다고해서반드시‘Nationalism(국민(민족)주의)’의정반대에서있었다고도식적으로판단하면곤란하다는점이다. 동아시아사회에서사회주의(어나키즘)가수용되던 19세기말과 20세기초는바로근대적자아와공동체의식에기초한국민(민족)주의가형성하던시기와의일치한다. 이른바첫번째‘세계화’의시

<sup>72</sup> 〈민족전선결성을촉구한다〉, 『남화통신』 제 12 호, 1936. 12.

<sup>73</sup> 최해성 〈1930년대스페인인민전선과한국독립운동의민족협동전선〉, 『스페인어문학』 42 호, 307, 310 면.

<sup>74</sup> 『남화통신』 제 11 호, 1936. 11(충주시·충주 MBC 『유자명자료집』 1, 耕慧畝 2006, 48~50 면).

사회주의자들이함께만든잡지라는점이다. 이잡지는비밀리에대만으로도운반되었는데, 현지에서는장위수(蔣渭水) 등과연락했다.

한편평사의활동이주춤하던 1924 년가을북경에서상해로내려온한인이나키스트이을규와이정규, 정화암등은영국인이경영하는주물공장에들어가노동운동에참여했다. 정화암의회고에따르면“(이때) 중국동지노갑파·진위기, 대만동지범봉량·장홍수(莊弘秀) 등이만든화남이나키스트연맹이노동자에대한사상계몽운동을벌이고있었다. 그리고한편으로는지하로만연하는이립삼(李立三) 일파의적색노동운동을저지하기위하여육불여(陸不如)·모일파(毛一波) 등이교통노조와인쇄공노조를중심으로상해공단연합회를조직하고있었다. 우리는이들과협력하여그들의노동운동을적극적으로후원했다”<sup>60</sup>라고기록하고있다. 얼마후민국대학이나그룹의유서(柳絮) 등도남하해이들과합류했다. 하지만당시상해에거주하던한인교대만인운동가간에어떤구체적인연대활동을펼치는지는더이상분명하지않다.

대한동지회臺韓同志會는 1924 년 6 월 29 일상해남방대학에서상해임시정부요인등과상해대만청년회, 상해자치협회등의성원들이만들었다. 〈대한동지회규약臺韓同志會規約〉에는, “본회는대만과한국의독립을오나상하여자유연방을건설하는것을유일한목적으로삼는다. 본회에가입하려는사람은반드시아래에기술한규약을절대적으로지켜야한다”면서그첫째로“본회는대만과한국의상호주의를채택하여민족해방의실현을추구한다. 무의미한자치운동에찬성하지않기때문에, 위협으로인해굴복하거나우약해지는것을배격한다. 희생정신을가지고행동에옮기는것을추구하므로, 승패여부를생각하지않고, 어떠한수단을불문하고우리들의목적달성할수있다면, 어떤어려움이라도물리치고이를강력히실행한다”<sup>61</sup>라고적고있다. 이처럼대한동지회의목적은대만인교대한인의호조합작을통해“대만과한국의독립을완성하고, 자유연방을건설하자”는것이였다. 그리고“무의미한자치운동에찬성하지않는다”는구절에서나타나듯이대만과조선에서의참정권운동에반대를표시했다. 또한규약중에는“회원은절대적으로비밀을엄수해야하며, 비록친족이나어떤가까운사람에게도누설해서는안된다”는규정도있어비밀결사의성격을보여준다.

대한동지회는상해법조계에있던상해상과대학강당에서대선인대회臺鮮人大會(1924 년 7 월 29 일) 를가졌는데, 한인 120 명, 대만인 30 여명, 중국인 20 명, 러시아인몇사람이참석했다. 모임후 〈우리는중화국민에게질문함〉을발표해중국인들이대만과조선의독립운동을지원할것을호소했다.<sup>62</sup> 이단체는참가인원에서도알수있듯이한인주도로이루어졌으며급진적인성격을띠고있었

<sup>60</sup> 정화암 『이조국어디로갈것인가』, 자유문고 1982, 66~67 면.

<sup>61</sup> 〈臺韓同志會規約〉, 1924. 6. 27(『警察沿革誌』, 150~51 면인용).

<sup>62</sup> 같은책 148 면.

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직의 활동 범위는 상해를 벗어나지 못했고, 행동역시선 전물을 배포하는 수준에 그쳤다.

## 4. 광주지역

### 중한호 조사와 「광명」

광주의한인혁명가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열단원 같은 급진주의자들이 많았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자·공산주의자·아나키스트들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불완전하나 중한호 조사라는 단체와 「광명光明」이라는 잡지를 통해 그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1921년 초부터 중국 각지에서 중한(국민) 호 조사라는 이름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단체들은 장사·안경·한구·귀주·운남 등에 만들어졌으며, 중국과 조선의 운동가들이 항일운동 차원에서 결합한 전국적인 활동이었다. 이 단체에 참여한 중국인 청년들 가운데는 훗날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청년 모택동(毛澤東)은 하숙형(何叔衡)과 함께 호남 장사에서 한인혁명가들과 중한호 조사를 만들어 자신은 통신부주임을, 하숙형은 선전부주임을 맡았다. 같은 해 5월에는 그 본부에 해당하는 중한호 총사가 상해에만 들어졌다. 상해의 경우 조선측은 임정 요인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측은 국민당인사나 혁명적 청년들이 주요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3</sup> 본래 호조라는 용어부터가 아나키스트들의 개념이 일반화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활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이름의 단체가 먼저 등장해 이채롭다. 1921년 1월 아나키즘 색채가 강한 군벌인 진형명(陳炯明)의 군대가 광주를 회복하고 손문이 광둥에서 비상대 총통에 당선되었다. 상해 임정은 여운형을 광주에 파견하여 군 정부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곧이어 박은식과 여운홍 등도 광주로 파견했다. 이런 임정 대표들이 광둥 지역의 유력자들과 중한협회 中韓協會라는 단체를 만든 것이다.

중한협회는 정식으로 성립대회(1921년 9월 27일)를 열어 선언문에서 20세기를 군群的 세계로 규정하고 근의 진화는 호조를 근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중한 양국의 상호 협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국민당인사화상해 임정인사가 주축이 되어 결성 한 듯하나, 기본적으로는 중한호 조사와는 다른 별개의 조직이었다. 손문은 중한 협회에 소속된 한인 청년들을 이용하여 각지에서 암살 활동을 실행하려 했다. 암살대 100여명과 운영 경비를 마련하게 하고, 필리핀인 한 명을 고용해 폭탄 제조술과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암살대는 총 140여명이었는데 중국인 한 명과 한

1936년에 들어오면서 남화한인 청년 연맹은 기관지 「남화통신」의 발간을 통해 민족전선 결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자명은 이 잡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실어 자신의 정치 주장을 밝혔으며 이론가로서의 명성을 쌓아갔다. 「경칩」을 통해 중국인 아나키스트의 항일전쟁관의 변화 추이를 읽을 수 있다면, 「남화통신」을 통해 재중한인 아나키스트의 항일전쟁관을 읽을 수 있다. 현재 「남화통신」은 1936년에 나온 불과 몇 호만 남아 있다. 창간 초기의 「남화통신」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모두 비판했고, 조선의 독립 문제는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이자 사회혁명의 일부라고 선전했다. 창간호에서는 “민족독립운동 그 자체의 정신이 고상하고 수단 방법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이것이 정치운동이 상정치의 근본적 모순과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운동가 제군! 사리사욕을 떠나 진실로 민족독립과 피압박민중의 해방을 위해 운동하려 한다면 정치운동을 버리고 민중해방운동인 사회혁명운동으로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sup>68</sup>고 주장했다. 이처럼 처음에는 남화한인 청년 연맹이 김구의 한인애국단과 합작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민족주의자와의 연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남화통신」은 1936년 여름부터 민족전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sup>69</sup> 〈우리 청년의 책임과 사명〉(1936년 6월)에서 “피압박민중의 해방은 정치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운동(혁명적 수단으로 기성제도를 무너뜨리고 전민중을 기반으로 한 혁명적 건설)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식민지운동에서는 내부의 세력 대립보다는 내부가 일치 단결하여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취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sup>70</sup>고 언급했다. 〈민족전선의 가능성〉(1936년 11월)에서는 “우리들 조선혁명운동의 현 단계에 있어서 민족전선의 필요와 확대에 통감한다. 그것은 민족전선만이 민족해방운동의 진로를 타개하는 지침이기 때문”이라면서, “유럽에서의 인민전선의 승리는 국제적인 반항을 일으켰으며,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에서는 민족의 총단결이 민족해방운동의 최선의 책략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동시에, 각당 각파의 반성과 각오를 축성하고 있다”<sup>71</sup>고 민족전선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곧이어 〈민족전선 결성을 촉구한다〉(1936년 12월)라는 글에서는 “현재 구라파에서는 파쇼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인민전선의 신기운이 폭발하고 있다. 이 인민전선의 형태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에서는 민족전선 형식으로 표현되어 그 민족의 총역량을 연합 단결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지에서 인민전선이 승리를 거두고 민족중안에 뿌리를 내려 맹렬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례를 봐도 인민전선은 민족전선은 가장 현실에 적합한 투쟁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나 정치적, 경

<sup>68</sup> 有何 〈정치운동의 오류〉, 「남화통신」 제 1호, 1936. 1.

<sup>69</sup> 한 연구자는 민족전선 출현 배경을 국제정세의 인식 변화, 스페인 인민전선의 승리, 조선의 내부 조건 성숙, 각당파의 이해관계 등에서 찾고 있다 (박환, 앞의 책 151~55면).

<sup>70</sup> 何 〈우리 청년의 책임과 사명〉, 「남화통신」 제 6호, 1936. 6.

<sup>71</sup> 舟 〈민족전선의 가능성〉, 「남화통신」 제 11호, 1936. 11.

<sup>63</sup> 배경한 〈손문과 상해한국임시정부〉, 「동양사학연구」 56호, 1996, 82면.

아나키즘운동의지도자이회영이밀정의밀고로체포되어고문끝에사망했다. 이에유자명의남화한인청년연맹은남은여력으로밀정들을입달학원등에유인해처형했다. 그후에도한인아나키스트들은육관빈과이용로같은친일부역자에대한처단사업은계속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은일본공사유길명이국민당정부요인을매수하려고육삼정六三후이라는음식점에서연회를베폰다는정보를입수하고, 그에대한암살을시도한이른바유길공사사건(혹은육삼정사건, 1933년 3월 17일)을일으켰다. 이거사는계획의유출로실패했으며현장에서체포된백정기와원심창두명은무기징역, 이강훈은 15년을언도받았다. 그후유자명은상해의입달학원을떠나남경으로가서새로운사업을준비했다. 한편김창근(金昌根) 과오면직(吳冕植) 등이결성한상해혈맹단上海血盟團이라는조직도아나키즘계열의단체로 1936년 3월일본요인을암살하려다발각되어치열한시가전끝에체포되어주모자들이처형되었다.<sup>66</sup>

일본내의사상운동과노동운동이한계에부딪히자일부한인아나키스트들은적극적인항일투쟁을전개하기위해중국으로진출하기시작했다. 대표인물로는이달(李達) 과원심창등이있다. 이달은가장먼저중국에진출한인물로이미 1920년대에중국에건너왔고, 남화한인청년연맹에가입해흑색공포단의단원으로활동했으며, 뒤에서언급할 「남화통신」의주요논객으로도활약했다. 그리고원심창은동경의흑우회와흑우연맹, 조선동흥노동동맹에서활동한유명한재일한인아나키스트였다. 그는여러차례구속과석방을반복하다 1931년 4월일본을탈출해상해로망명했다. 그역시남화한인청년연맹에가입하고흑색공포단의단원으로활동했다. 원심창은남화한인청년연맹에의해시도된유길공사사건에백정기, 이강훈등과함께참가해재일한인아나키스트들을열광시켰다.<sup>67</sup> 이들의중국진출은 1930년대항일무장투쟁에활기를불어넣었다.

### 한인아나키스트의민족전선참가

1930년대전반기의한인아나키즘운동은항일테러활동으로규정할수있는데, 일제의대륙침략이본격화되자투쟁방식에변화가찾아왔다. 한번의극적인테러나폭동만으로일본제국주의를전복시킬수는없으며, 오히려자본주의의붕괴과정은오랜세월이걸리는지루한과정이라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 이제테러리즘의시대가지난것은분명했으며, 조직과질서의필요성이명백해진것이다.

<sup>66</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363~76면.

<sup>67</sup> 이달은 1932년에는조선혁명간부학교의교관으로있었고 1938년에는조선혁명자연맹과조선의용대가입해중앙위원으로활동했다. 그리고원심창은유길공사사건으로사형판결을받았으나형무소복역중해방을맞았다(김명섭 『재일한인아나키즘운동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197~98면).

인세명이한팀을이루어각지에파견할계획이었다고한다.<sup>64</sup> 대중적기반이없는한인독립운동가들의경우테러라는방법을선호하는것은어쩌면당연한현상이며, 중국의정치가들이한인의절박한심리를이용해자신들의정치적목적에이용하려했던것이다. 어쨌든암살대에다수의한인이가입했고, 중한협회가그중요한기반의하나였다면중한협회의한인들가운데아나키스트가존재했을가능성이높다.

그러던중김진용(金晉鏞)은「광주일보」사장사영백(謝英伯) 과모임을갖고중한호조사(1921년 11월 10일)를따로창립했는데, 사영백을사장으로선출하고잡지를발행할것을결정했다.<sup>65</sup> 당시광주에파견되었던상해임정의대표들도성립대회에참가했다고한다. 중국각지의중한호조사(혹은중한협회)에소속된한인들은중국인과별도로몇가지간행물을출판했는데, 우선「신한청년新韓青年」(1920년 3월 1일) 과상해에서창간된「진단震壇」(1920년 10월 10일) 및광주에서창간된「광명光明」(1920년 12월 1일) 이남아있다.<sup>66</sup> 앞의두잡지는민족주의색채가강한반면, 「광명」은정치성향이조금다르다. 이잡지는조선독립과반일운동에관한기사들과함께아나키즘적사회혁명의색채를강하게드러냈다. 중한협회와중한호조사가깊은관련을가진것으로는보이지만, 「광명」을출판한단체는분명하지않다.

「광명」은〈발간선언〉에서“우리광명월보는중한인민이조직한유일한언론기관이다. 바꾸어말하면중한양국의의사를교환하고민치를촉진하기위한언론기관이다. 우리의이월보는평민적이고공리적이며유산계급의신문이아니다”라고주장하면서“강권을배제하고인도주의를고취한다”는아나키즘특유의관용구를사용했다. 여기서잡지의기본적인성격은공리적이어야하며, 유산계급의언론이되어서는안된다고규정하는점은사회주의경향을뚜렷이드러낸것이다.<sup>67</sup> 또한〈발간사〉에서는“광명월보를발간하는것은세계혁명을위해여러분의의견을종합하고강권을소멸시킬방법을연구하기위한것이다”라고하여혁명잡지임을천명했다.<sup>68</sup>

이잡지는조선민족의독립과자주의쟁취를염원하는것말고도여기저기서아나키즘의경향이나타난다. 예를들어반드시강권정부를전부터도해야만진정한자유를얻을수있다는지, 민족주의혁명의현실의의를부정하고“세계주의적무강권운동”을고취하는대목등이그렇고,<sup>69</sup> 우리의적은일본반동통치자이지일본인민들은아니라든지세계각국의여러사회주의혁명당과의연합을주장한것도그렇다.<sup>70</sup> 특히노동운동을포함한사회주의운동혹은사회혁명에대해특별히강조한

<sup>64</sup> 楊昭全等編, 앞의책 1480면.

<sup>65</sup> 石源華編著, 앞의책 118면.

<sup>66</sup> 中共中央編譯局研究室編 『五四時期刊紹介』 第3卷, 三聯書店 1979, 179면.

<sup>67</sup> 新甫 〈發刊宣言〉, 「光明」 第1卷第1號, 1921. 12. 1.

<sup>68</sup> 隱貞 〈發刊詞〉, 같은책.

<sup>69</sup> 李大能 〈告韓國的朋友〉, 같은책.

<sup>70</sup> 劍耕 〈壯烈哉韓國的人民〉, 같은책.

것도 주목할만하다. 지평(志平)의 〈직접행동〉에서 말하는 직접행동론은 마르크스주의자의 혁명방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적이나 키스트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노동수단과 생산원료의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나,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유생산과 자유소비를 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이나 키스트의 경제논리이기 때문이다. 본래 직접행동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행덕 추수가 제창한 이래이나 키스트의 혁명방법으로 채용된 것이다.<sup>71</sup> 비록이나 키스트·공산주의자·국민당원의 글이 혼재하지만, 적어도李大能(李大能)과 경매구, 지평이라는 작자는이나 키스트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국민당원 진공박(陳公博)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보다는 경제 건설에 주력하고자 주장한 것이 잡지의 기본 논조와는 다른 이질적인 글에 속한다.<sup>72</sup>

그런데 잡지가 중국인과 한인이 함께 출판한 잡지이지만, 주로 중국인 필자가 많고 한인 필자가 소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sup>73</sup> 더구나 「투보」처럼 한호박에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이 쉽지 않다. 하지만 광주의 중한호조사나 「광명」을 매개로 한 중혁명가들의 연대가 한인 운동가들에게이나 키즘을 전파하는 연결고리가 되었을 것이다.

한인들은 손문과 장개석의 도움으로 광둥 대학이나 황포군관학교에 다수 입학해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손문 사후 장개석의 국민정부가 북벌 北伐을 개시하자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전에 동원되었다. 얼마 후 다시 국공내전 國共內戰이 일어나자 여기에도 동원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 후반부터 중국 사회에서 계속된 북벌과 국공내전 같은 전쟁 상황은 한인 독립 운동가로 하여금 항일 독립 운동 이외에 중국의 정치 문제에 깊이 휘말리게 만들었다. 재중국 한이나 키스트들도 이런 운명은 피해갈 수 없었다.

## 대만 혁명 청년단

동경에서 공부하던 급진적인 청년 장심절은 팽화영, 범본량, 임정록 등과 교류하면서 사회 운동에 발을 들여 놓았다. 장심절은 상해로 건너간 후에 “대만은 대만인의 대만”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대만에서 전개되던 대만의 회청원 운동이 지나치게 온건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광주로 옮겨가서 중산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때 광둥 대만 청년단 선전 부장을 역임했다. 광주의 대만 청년은 불과 40여 명으로 한인 혁명가들처럼 대부분은 황포군사학교나 중산 대학에 있었다.

광둥에 있던 대만 유학생은 국공합작 이래 북벌이 진행되자 중국 혁명을 목격했다. 공산주의자 신문 달과이나 키스트 장심절 등 20여 명은 중산 대학에서 광둥 대만

<sup>71</sup> 志平 〈直接行動〉, 같은 책.

<sup>72</sup> 陳公博 〈對於韓國新建設的我的希望〉, 같은 책.

<sup>73</sup> 「光明」이이나 키스트 잡지가 낡다는 사실은 당시 「互助」第2期(1923)에서 중국의이나 키즘 잡지를 열거한 목록에 「光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五四時期刊紹介』에서이나 키즘 잡지 항목에 「光明」이 분류된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남화한인 청년 연맹의 활동 중 주목되는 것은 국제 연합 전선 결성에 박차를 가한 점인데, 특히 중 연 합 투쟁이 두드러진다. 동방 무정부주의 연맹 회원인 중국인 왕아초(王亞樵) 화화균실(華均實) 이이회영(李會榮) 과정화암(鄭華岩)에게 항일 공동 전선을 제의해 왔다. 이에 호응해 1931년 10월 말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한이나 키스트 일곱 명(이회영·정화암·백정기 등), 중국이나 키스트 일곱 명(왕아초·화균실 등) 및 일본이나 키스트 전화민(田華民, 佐野)·오수민(吳秀民, 伊藤) 등이 모여 항일 구국 연맹 抗日救國聯盟을 조직했다. 이 연맹은 (1) 적군 경기 관 및 수용 기관의 조사, 파괴, 적 요인 암살, 중국인 친일 분자 숙청, (2) 중국 각지의 배일 선전을 위한 각 문화 기관의 동원, (3) 이상에 관한 인원 및 경비의 구체적 설계 등을 목적으로 삼았다. 항일 구국 연맹은 선전 부와 연락 부, 행동 부, 기획 부, 재정 부의 5 부를 설치하고 우선 조선을 해방시킨 후 일본과 중국 각지에이나 키스트 사회를 건설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활동 계획을 세웠다.<sup>64</sup> 이때 유자명은 연맹의 기관지 「자유」 발간에 참여했으며, 파금도 이를 도왔다고 하나 분명하지 않다.

항일 구국 연맹은 1931년 11월 중순 흑색 공포 단 黑色恐怖團이라는 테러 단체를 조직했다. 흑색 공포 단은 “현 사회의 모든 권력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적 인류가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강령으로 삼았다. 이 조직은 국제 연대의 취지에 맞게 조선 인부·중국 인부·일본 인부를 두었고, 후에 대만 인 임성재(林成材)와 미국인 존슨이 합류하면서 국제적 연합 조직으로의 확대를 꾀했다.<sup>65</sup> 흑색 공포 단은 잠시 사용한 명칭으로 비록 외국인들이 참가했으나 사실 상 항일 구국 연맹 같은 단체였으며 남화한인 청년 연맹의 멤버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국 측의 정화암과 이회영이 지휘했으며, 중국 측의 왕아초가 재정을 담당했다. 이들은 민족주의나 공산주의 계열보다 소수였으나 테러라는 방식을 통해 압도적으로 무력이 우세한 일본에 저항했다. 항일 구국 연맹은 하문과 천진의 일본 영사관에 폭탄을 던졌으며, 일본 국적의 대형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던 남경 저부의 외교 부장 왕정위(王精衛)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제 1차 상해 사변(1932년 2월)이 일어나고, 왕아초와 화화균실이 장개석의 처남 송자문(宋子文) 암살 미수 사건의 주모자임이 드러나 홍공으로도 피하자 연맹은 무력화되었다.

상해 홍구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천장 절벽 축 행사에서 윤봉길(尹奉吉)의 폭탄 테러(1932년 4월 29일)가 있었다. 김구(金九)가 윤봉길을 시켜 홍구 공원 폭파 계획을 준비하던 것은 시기에 남화한인 청년 연맹의 유자명과 정화암도 비슷한 계획을 준비했다. 그런데 일을 맡은 백정기가 왕아초로부터 폭탄은 구입했으나 천장 절벽 기념식에 들어가려는 입장권을 얻지 못하면서 발발로 끝났다. 유자명은 홍구 공원 거사이후에도 살벌한 상해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을 계속했다. 그해 말 한인

<sup>64</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340면.

<sup>65</sup> 박환, 앞의 책 136면; 김명섭 〈한이나 키스트들의 사상 교류와 반제 연대 투쟁〉, 『한국민족 운동사 연구』 제 49집, 2006, 60면.

피압박민족연합회<sup>58</sup>에조선대표의한사람으로참여했다. 유자명은인도인의밀고로한때무한감옥에 6 개월간억류되었다.

1928 년 8 월남경으로돌아온유자명은마침이곳으로 옮겨온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에서활동하면서중국인사들을만났으며, 저명한교육가인광호생(匡互生)<sup>59</sup>과도친분을쌓았다.<sup>60</sup> 그는중국인동지진범예(陳範預)의초청으로천주여명중학에서한학기정도수업을했는데, 앞서언급했듯이당시천주에는아나키스트들이만든민단훈련소가있었다. 다음해초광호생이창립한상해입달학원으로 옮겨가교육과노동을결합하는아나키즘적교육방식에따라학생들을가르쳤다.

중국내한인아나키스트지도자들이다수죽거나체포된상태에서일본이나국내에서젊은아나키스트들이중국, 특히상해로모여들었다. 북만주에서활동하던한인아나키스트들도중국대륙으로철수했다. 그리고재중국한인아나키즘운동의분수령이된북경회의가개최되었다. 여기서는점증하는일제의압력, 위기에처한운동의진로, 민족주의자및공산주의자와의관계설정등운동이당면한주요문제들을각지에서모인운동가 20 여명이오랜시간논의했다. 만주사변이일어날즈음상해에서남화한인청년연맹<sup>61</sup>이결성되어유자명을의장으로선출했다.<sup>62</sup> 남화한인청년연맹은 1930 년대중국에서조직된대표적인한인아나키즘단체로“(1) 우리조직은절대적으로자유연합에기초한다, (2) 일체의정치운동과노동조합지상주의운동을부인한다, (3) 사유재산제도를부인한다, (4) 거짓도덕적종교와가족제도를부인한다, (5) 우리는절대적으로자유평등의이상적신사회를건설한다”<sup>63</sup>라는강령을걸고자유연합사회의실현을추구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은산하단체로남화구락부를두었다. 이때부터한인아나키즘운동의중심이북경에서상해로 옮겨졌으며, 유자명이일하던입달학원이연맹의근거지역할을했다.

<sup>58</sup> 이단체에대해국제적아나키즘단체라는설(金柄珉·朱霞〈國際友人柳子明의生平與意識世界〉, 『東疆學刊』, 2004. 3) 과중국정부가생활이곤란한외국인을지원하기위해만든난민단체라는설(安奇〈采寫『柳子明傳』的緣起與經過〉,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2005. 1) 이있다.

<sup>59</sup> 광호생은호남성출신으로 1915 년북경사범대학에입학해아나키즘성격의공학회工學會를조직하고, 5·4 운동에참가해조여림(曹汝霖)의집담장을넘은이른바조가루방화사건의주인공이다. 대학졸업후장사에서청년들을교육하다상해강만에서입달학원을창립했다.

<sup>60</sup> 유자명 『나의회억』, 요녕인민출판사 1984, 11 면.

<sup>61</sup> 남화한인청년연맹에대해서는박환 〈남화한인청년연맹의결성과그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총론』 1992; 이호룡 〈일제강점기재중국한인아나키스트들의민족해방운동 — 테러활동의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35 집, 2003 등의연구가있다.

<sup>62</sup> 남화한인청년연맹은 1930 년 4 월 20 일결성되었고 1931 년 9 월만주사변이일어나자조직개편작업을벌였다고한다(이호룡, 〈유자명의아나키스트활동〉, 『역사와현실』 53 호, 2004, 235~37 면).

<sup>63</sup> 〈재상해남화한인청년연맹의강령규약과선언〉(박환 『식민지시대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162 면재인용).

유학생연합회(1926 년 12 월) 를결성하고, 홍소담(洪紹潭) 과장심절, 광덕금(郭德金), 장월징(張月澄), 임문등(林文騰) 을위원으로뽑아매달연구회와강연회를가졌다.<sup>74</sup> 연합회성립대회에서한대만학생은“대만은중국의토지이며, 대만인역시중국인이다. … 우리들은고뇌하는대만인을위해비로소혁명을연구했고, 혁명을완성하기위해서는대만의일치협력을깨닫는것이가장필수적인조건”이라고주장했다. 이렇게중국과대만을하나로인식하는것은대만청년의사고를보여주는한대목이다. 그런데연합회는오래지않아주도권다툼이일어났고, 결국장심절의제안으로대만혁명청년단이라고만들어졌다.

대만혁명청년단은임문등과광덕금, 장심절 3 인이강령을기초한비밀결사단체로, 임문등의책임아래 「대만선봉」 이라는잡지를펴냈다. 창간호에는손문의초상과유언, 대계도(戴季陶) 가대만학생에게강연한 〈손중산과대만〉 등을 실어대만에대한손문의생각을게재했다. 같은호에장심절이쓴 〈대만은어떻게혁명할것인가〉 라는글이실렸는데, 여기서“혁명이어떠어나라! 우리들은혁명이아니면황로가없다. 우리들은맹목적으로주저앉아최면상태에서다른사람의통제를받을수없다!”라고질규했다.<sup>75</sup> 그리고한인이영주(李英駿) 이쓴 〈한한국청년시대만혁명동지에게고하는글〉 이라는짧은글도있다. 〈대만선봉〉 의구호가운데“고려독립혁명을원조한다”는항목이있는것으로보아광주에있던한인청년들과접촉이있었음을추측케한다.<sup>76</sup> 이단체는대만의회개설청원운동을소극이론이라고철저하게비판하고, 일본제국주의와의어떠한타협도배척하면서대만독립을위한혁명운동의기발을내걸었다. 청년단원들은중국혁명의성공이전세계피압박민족의혁명과밀접한관련을가지므로, 중국혁명이성공해야만일본제국주의지배하의대만민중해방도희망을가질수있다고보았다. 훗날장심절이“북경의「신대만」, 상해의「평평」, 광주의「대만선봉」이계속출판되어해협을사이에두고혁명의바람이대만으로불었다”라고회고한것은중국에서의대만좌익활동이대만사회에영향을미쳤음을보여준다.<sup>77</sup>

1927 년 5 월장심절은대만으로돌아와혁명기금을모집했다. 이무렵장개석이반공청당反共清黨을시작하자국민당은대만혁명청년단을좌익단체로규정해, 대륙은물론대만과일본등각지역의청년단원들을무려 64 명이나체포했다. 법원판결에따르면임문등은 4 년형, 광덕금은 3 년형, 그리고장심절은 3 년형(2 년으로감형) 을받았다.<sup>78</sup> 장심절은투옥시절에전향성명을요구받았으나단

<sup>74</sup> 『警察沿革誌』, 210~11 면.

<sup>75</sup> 莊永明 『臺灣百人傳』 第 1 卷, 時報出版 2000, 202 면재인용.

<sup>76</sup> 『警察沿革誌』, 225~27 면.

<sup>77</sup> 許世概 『日本統治下的臺灣』, 玉山社 2005, 364 면.

<sup>78</sup> 楊碧川, 앞의책 101~102 면.

호하게 거절했다. 그 후 그는 어떠한 주의나 정당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럼에도 각종 사회운동과 희극운동에는 열심히 참여했다.<sup>79</sup>

한편 장지락의 회고에 따르면 1925년 광주에 갔을 때 한인인 60여 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열단의 테러리스트였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의 기록은 대만인과 한인 아나키스트의 접촉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주에서) 1926년에 우리들은 '동방피압박민족연합'을 조직했다. 여기에는 조선 청년연맹, 인도지나민족당, 대만인,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인도인 등이 들어 있었다. 이 연맹은 대회를 열었다. 대만 대표들은 돌아가자마자 일본 측에 체포되었다. 그중 임손기(林孫記)는 아직도 옥에 갇혀 있다. 그는 대만에서 '노동자농민해방동맹'을 조직했던 것이다. 당시 대만에는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 한국인들과 밀접한 연락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왜냐하면 일본이 공동된 지배자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동양 여러 국가의 모든 혁명 단체들이 서로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sup>80</sup>

여기서 등장하는 동방피압박민족연합은 아마도 1927년 2월 한인 김규식(金圭植)·유자명·이광제(李光濟)·안재환(安載煥), 중국인 육광록(陸光錄), 인도인 간다신·비이신 등이 남경에 모여 만들었다는 단체 같은 조직일 것이다. 하지만 시기(1926년 혹은 1927년)나 장소(광주 혹은 남경)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문제의 여지가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동방민족이 제국주의 침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양의 각 피압박민족의 연합체를 결성하고자 했다. 회장에는 김규식이 선출되었고 기관지로 「동방민족」을 발행했다고 전하는데, 이 단체내에 한인과 대만인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위의 글에 등장하는 대만인 임손기라는 인물이나 노동자농민해방동맹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sup>81</sup>

## 5. 1920년대 후반 한인과 대만인 아나키즘 운동

중국과 일본에 비해 조선과 대만의 아나키즘 운동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뎠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식민지적 상황은 한인과 대만인들에게 강력한 민족주의적 열망과 독립 국가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정부와 국가의 존재를 비판 부정하는 아나키즘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

<sup>79</sup> 장심절은 1929년 수감되어 1930년 8월 출옥했다. 출옥 후 문화운동으로 전향해 1930년 대만 연극연구회를 조직하고 1934년 대만 문예연맹의 위원장을 지냈으며, 『臺灣文藝』를 발행했다(林慶彰 『日治時期臺灣知識分子在中國』, 臺北市文獻委員會 2004, 151면).

<sup>80</sup> 김산·남웨일즈, 앞의 책 130~31면.

<sup>81</sup> 장지락의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1921년부터 1922년까지라는 회고는 설득력이 있다(김산·남웨일즈, 앞의 책 94면).

## 3. 항일전쟁 중의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

### 유자명: 테러 활동에서 무장 투쟁으로

1920년대 말 재만 한인 무정부주의 자연맹과 한족총연합회의 활동이 좌절되어 만주에서의 이상촌 건설 운동이 실패하자 중국 대륙에서는 급진적인 항일 투쟁으로 노선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만주 사변이 터지자 한인 아나키스트는 화북 지역에 항일 무장 근거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북경 민족대학 아나키스트 그룹의 활동이 전해지는데, 유서는 중국 동지들과 항일 선전 공작과 동시에 암살 단을 조직해 활동을 벌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sup>54</sup> 그리고 1932년 말 중한의 용군 연맹 中韓義勇軍聯盟을 만들었으나 열화가 함락되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한인 운동가들은 사람을 파견해 만주국의 괴뢰 황제 인부의(溥儀)를 암살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한다.<sup>55</sup> 1930년대에 들어 오면서 한인 아나키스트는 민족주의 세력 예비해소수이고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영향력이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대해 다양한 중립 투쟁을 전개했다. 여기서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한인 아나키스트인 유자명<sup>56</sup>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유자명은 1919년 6월 중국 상해로 망명했다가 같은 해 12월 잠시 서울로 귀국했는데, 이 즈음 크로포트킨의 서적을 탐독했다고 알려져 있다. 1920년대 초에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그는 1924년 봄의 열단에 가입해 조직 내 연락과 선전을 책임지는 이론가로 활동했다. 그가 신채호(申采浩)에게 부탁해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의열단 선언)은 대표적인 항일 선언문으로 아나키즘적 급진 이론을 의열단에 접목한 것이다. 같은 시기 유자명은 중국 내 최초의 한인 아나키즘 조직인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 자연맹에도 참여했다.<sup>57</sup> 그런데 의열단의 테러 활동은 다른 독립 운동가의 반대와 직면했으며, 점차 공산주의 색채가 강화되었다. 본래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테러 같은 폭력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제도의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의열단이 상해에서 광주로 이동하면서 개조 회의가 열렸지만, 유자명은 아나키스트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광주에서 상해로 돌아가는 배를 탔다가 해적을 만나 총상을 입기도 했다. 상해에 잠시 머물다가 1927년 6월 무한으로 옮겨 중국인과 인도인, 한인 등이 참여한 동방

<sup>54</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386~87면.

<sup>55</sup> 〈訪問 范天均 先生の 紀録〉,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46면.

<sup>56</sup> 중국에서 간행된 유자명의 『나의 회억』과 국내에서 원고 그대로 간행된 『한 혁명자의 회억』은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략 1945년까지는 대동소이하다. 『나의 회억』은 독립운동 관련 내용만 편집해 발간한 것으로 1945년 이후 대만에서의 활동과 1950년 이후 대륙에서의 농학자로서의 활동 등이 생략되었다(오장환 〈해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한 혁명자의 회억록』, 1999).

<sup>57</sup> 당시 유자명이 상해에 있어 가입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이호룡 〈유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 현실』 53호, 2004, 231면).

인내전은이제유럽뿐만아니라아시아문제이기도했다.<sup>50</sup> 파금은스페인전쟁을 보통내전이아니라파시스트독재에대한전체인민의자유를쟁취하기위한혁명이 라고판단해스페인이나키스트의영웅적투쟁을선전함으로써중국인의항일정신을 격려했을뿐만아니라어떻게항전해야하는지방법을제시하고자했다.<sup>51</sup> 특히이혁명은전쟁상황속에서도아나키스트들이생산을효과적으로지속했을뿐만 아니라, 농민과노동자들이상호부조의정신으로자신의일을잘관리한모범사례를보여주어그로서는아나키즘의실현장으로인식되었을것이다.<sup>52</sup>

전쟁의와중에도파금은『크로포트킨전집』과바쿠닌의저작등을출판하여전히아나키즘이론을소개하는데열정을쏟아부었다. 1938년에는크로포트킨의『청년에게고함』〈만인의안락〉을번역했고, 1940년에는『크로포트킨 자서전』『러시아·프랑스옥중기』『빵과자유』『전원·공장·작업장』『윤리학 의기원과발전』등을출판했다. 이시기에나온‘크로포트킨전집’(10권)가운데 파금이직역한책이무려다섯권이러는사실은얼마나그가크로포트킨을존경하고 크로포트킨주의자임을자부하는지알수있다.

1920년대의청년파금은애국주의야말로인류진화의장애이며정부는인민의 고난의근원이라고여겼다. 하지만프랑스에서귀국한이후 1930년대에들어와 점차현실에대한객관적인식을하게된것으로보인다. 특히중일전쟁 8년동안 중국의각지를전전하며목격한파괴와살육은국가와전쟁에대한더욱현실적이고구 체적인인식을갖게했다. 그러나민족주의가최고로고양되던전쟁의와중에도파 금은아나키스트로서국제주의자의면모를잃지않았고, 각민족이자유흥고독립 적인삶을향유하는것이야말로인류의궁극적이상이라여겼다.<sup>53</sup> 그는인류역사 의발전은정의를위한투쟁의역사라는인식아래항전의정당성을역설했다. 그래서우리는파금을아나키즘의보편성과국제주의를죽을때까지유지한인물로평가 한다.

<sup>50</sup> 齊藤孝編 『스페인내전연구』, 형성사 1981, 328 면.

<sup>51</sup> 박난영, 앞의책 169 면.

<sup>52</sup> 아나키스트에게스페인내전은산업단체로정부를대신할수있는여부를실험하는기회이 기도했다. 스페인내전에서노동조합적아나키즘을연구한루돌프록커는“아나키즘은사회주의와자유주의라는위대한두가지사조가합쳐진것”이라고평가했다 (Rudolf Rocker, Anarcho-Syndicalism, Pluto Press 1989(1938년초판)).

<sup>53</sup> 박난영, 앞의책 177~78 면.

을것이다. 1920년대에본격화한조선과대만의아나키즘운동은 1920년대후반 에도일본과중국대륙및국내에서계속이루어졌다. 이시기와관련한기존연구가 있으므로여기서는간단히정리소개하고자한다.

박역의대역사건으로침체되었던흑우회는소규모활동을지속하다 1926년 2월다시활동을재개했다. 순정아나키즘을표방한일본아나키스트들이조직을 재정비해흑색청년연맹을발족시키고「흑색청년」을발행하자,<sup>82</sup> 흑우회회원 최규중(崔圭中)과장상중, 정태성등은흑색청년연맹에도가입했다. 그리고흑우회가개최한조선문제강연회에암좌작태랑과근등헌이, 팔태주삼, 망월계(望月桂)등을초청하기도했다. 이는한일아나키스트의꾸준한교류의한단면을보여준다. 흑우회의오랜전통은국내의흑로회, 흑기연맹(1925년 3월), 진우연맹(1925년 9월)등과같은조직결성에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흑우회는국내는물론만주와중국에도연락망을가지고있었다.

흑우회는흑색전선연맹으로이름을바꾸었다가다시흑풍회黑風會(1927년 2월)로개명했다. 흑풍회는노동계로진출해조선자유노동자조합朝鮮自由勞動者組合을결성하는데성공했다. 이조합은“노동자의해방은노동자자신의힘으로한다”는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오랜전통을따르고있었다. 그리고흑풍회는재일한인노동단체가운데최대규모였던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과도밀접한관계를맺었다. 이동맹은 1927년 9월중앙집권주의를비판하고자유연합의조직으로나갈것을결의했다. 당시동경말고대판大阪에도조선계자유노동연맹朝鮮塚自由勞動聯盟, 대판자유노동연맹大阪自由勞動聯盟, 동방노동연맹東方勞動聯盟등과같은한인노동조합활동이활발했다.<sup>83</sup> 이곳은이념투쟁보다는노동운동과일상투쟁이주류를이루었고고순흙(高順欽)과최선명(崔善鳴), 김태업(金泰燁)등에의해주도되었다.

흑풍회는얼마후또다시흑우연맹黑友聯盟(1928년 1월)으로재편했다. 1927년봄부터신간회新幹會결성과민족협동전선운동이나타나자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간의갈등이고조되었다. 아나키스트는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의연합에대해민족해방이아닌자신들의권력욕때문이라고비난했다. 흑우연맹은상애회相愛會같은친일노동단체나공산주의자의노동단체와무력충돌을일으켰다. 이들은조선동흥노동동맹, 자유청년연맹과연합해「흑색신문」을발행했다.<sup>84</sup>

<sup>82</sup> 1927년을전후해일본의「黑色青年」에는중국아나키즘관련기사가급증했다. 이잡지는중일연합을통한군벌자본가타도및자주자치사회의건립을호소했다(玉川信明, 앞의책 255~59면).

<sup>83</sup> 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124 면. 그밖에도재일조선인노동단체로는조선본소자유노동조합朝鮮本所自由勞動組合(1927), 흑색노동자연맹黑色勞動者聯盟(1928), 극동노동조합極東勞動組合(1929)등이있다.

<sup>84</sup> 김명섭, 앞의책 179~210 면.

중국관내에남아있던아나키스트들은코민적이나키즘을본격적으로지향하기위해 1928년 2월(혹은 3월)경에상해프랑스조계화광병원에서유명무실해진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개편해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在中國朝鮮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을만들었는데, 이회영과이을규, 이정규, 정화암, 유서, 한일원(韓一元), 윤호연(尹浩然), 안공근(安恭根) 등이참여했다. 그해 6월부터「탈환奪還」이라는잡지를간행했는데, 탈환의영문표기가‘Conquest’라는사실에유의한다며크로포트킨의저서『빵의쟁취 The Conquest of Bread』에서따온것임을추측할수있다. 이잡지의출판목적가운데하나는국제노동자협회를통해세계각국의아나키스트에게한국아나키스트의활동상을알리고자한것이었다.

만주에서는한인사회를기초로이상사회건설이시도되었다. 아나키스트김종진(金宗鎭)은만주로가서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1927년 7월)을조직했다. 그는김좌진(金佐鎭)을설득해신민부新民部를이용한아나키즘적코민사회를건설하기로결정하고,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를만들어자유연합원리를기초로한인사회를개편했다. 이단체는혁명근거지를건설하기위해의욕적인사업들을추진했다. 하지만공산주의자에의해김좌진과김종진이차려로암살되자급속히와해되었다. 당시중국본토에서는다수의한인아나키스트들이김종진의활약에고무되어만주지역으로이동하려는계획을세웠으나결국불발로끝났다. 하지만이런통합의흐름은나중에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의참여로이어졌다.

1920년대후반국내에서조직된대표적인아나키즘단체는원산의본능아연맹本能兒聯盟(1926)과노동자유동맹勞動者自由同盟(1927년 9월)을들수있다. 본능아연맹은공산주의자와청년운동의주도권을둘러싸고무력투쟁이있었으며, 신간회결성과맞물려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간에격렬한논쟁이일어나자신간회에반대했다. 국내최초의아나키스트노동조합으로평가받은노동자유연맹역시원산에서만들어졌는데, 일본의영향을받아코민적이나키즘과노동조합적이나키즘을국내노동운동에적용하려했다. 하지만이들공산주의자와같은갈등을빚었다. 한인의경우는 1920년대초에아나키즘과불세비즘을거의동시에수용했기때문에양자사이에협력기간이무척짧았고, 곧바로민족해방운동의방법을둘러싸고대립충돌했다. 국내에서는조선노동공제회가분열하여흑회와조선노동동맹회로, 일본에서는흑도회가분열하여흑우회와북성회로, 중국에서는의열단이분열한것이대표사례이다. 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들을가리켜혁명이라는간판을내걸지만소련의지원을받아공산독재를획책하는또하나의사대주의자라고비난했다.

특히국내에서 1927년을전후해아나키즘계열과공산주의계열의논쟁이불거지자문학계에서도이루어진이나-불논쟁은비교적알려져있다. 이른바김화산·권구현·이항을중심으로한아나키스트와한설화·윤기정·임화등카프 KAPF 동

해전쟁에참여하므로말할필요도없이전쟁중에약간이라고‘민족영웅’을만들어대중을노예화하거나대중을압박하지않을것이다. 더욱이우리들은일본제국주의를악마의궁전에서축출한후에도중국의마왕을다시제위에올리고대중들로하여금그에게칭신하거나공납하도록만들지않을것이다.”<sup>44</sup> 이처럼그들은항일민족해방전쟁과아나키즘혁명을통일시켜인식했다.

‘전면항전’은전민이항전을실현해야만전민이자유로울수있다는것이다. 이것을항일전쟁이정부간의전쟁이아니라전인민의항전이라는전제아래“항전의승리는인민에게자유를주기위한것이며, 적어도민주의자유를실현하는것”<sup>45</sup>이라고정의했다. 그들은전쟁시기에는“민권을강화한조직만이험난한혁명공작을담당할수있으며, 이것이우리아나키스트들이항전투쟁에서투쟁의일원으로서최대의임무”라고말했다. 어떠한혁명공작도민중으로부터분리된다면, 더욱이무산의노동민중으로부터분리된다면성공할수없다고보아조직강화를아나키스트의최대임무라고인식했다. 「경칩」의편집자들은자신들이국가주의자들과는다르고공산당의정책에도불만이있다고말하지만항일민족통일전선의일원임은기꺼이인정했다.<sup>46</sup> 아울러국민당도정책을바꾸어항전을추진하라고주장했다. 당시일부아나키스트들은여전히반전입장을고수했고, 다른일부아나키스트들은국민당과의합작을견지했다. 「경칩」은 1939년에정간되었다.

노검파는성도에서다시「파효破曉」잡지를펴내어 1941년까지출판했다. 「경칩」이주요항전을주장했다면, 「파효」는사회계량특히부녀해방을주장했다. 「파효」에서는아나키즘의이론과현실의차이를일부인정하면서아나키즘혁명의즉각적인실행을유보하고사회개조와정치자유를주장했다. 「경칩」과「파효」는 1949년이전에나온중국아나키스트최후의영향력있는잡지로알려져있다.<sup>47</sup>

한편파금은 1937년말부터 1939년초까지대여섯종의‘스페인문제총서’<sup>48</sup>와스페인내전을소개한화보『스페인의여명』『스페인의피』『스페인의고난』『스페인의서광』<sup>49</sup>을번역출판했다. 이처럼스페인문제에주목한까닭은당시의국제정세와관련이있었다. 즉 1936년 10월부터 1937년 11월사이에일본과독일및이탈리아는방공협정을체결했고, 스페인내전에서승리한프랑코정권도이에게사하면서세계적인차원에서파시즘의결합이나타났다. 따라서스페

<sup>44</sup> 尹立芝 〈以戰爭去反對戰爭〉, 「驚蟄」第 2 卷第 1 期, 1938. 1(위의자료집 877~78 면).

<sup>45</sup> 吳灑 〈抗戰諸局面〉, 「驚蟄」第 2 卷第 4 期, 1938. 4(위의자료집 879 면).

<sup>46</sup> 胡慶雲, 앞의책 328~29 면; 路哲, 앞의책 327~33 면참조.

<sup>47</sup> 蔣俊·李興芝 『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 山東人民出版社 1991, 84~87 면.

<sup>48</sup> 스페인문제총서에는『스페인의투쟁』(1937), 『전사두루티』(1938), 『스페인』(1939), 『한국제지원병의일기』(1939), 『스페인의일기』(1939), 『바르셀로나의 5 월사변』(1939) 등이있으며, 대부분파금이번역했다(李濟生編著, 앞의책 82 면).

<sup>49</sup> 加斯特勞等 『巴金選編配文反去法西斯畫冊四種』,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5 참조.

었다. 민봉시절노검파는아나키스트들의원칙주의를겨냥해“야심을가진정당들은서로정권을투쟁하고있는데, 그들(아나키스트)은이른바고답파로정치권을지않는다. … 또한정치투쟁에도참가하지않는다. 실제로정당들이서로정권을다투는시대에그들은여전히하무리의방관자”일뿐이라고자기비판한바있다.<sup>41</sup>

민봉사는미국의엠마골드만, 프랑스의장그라브·폴르클뤼, 일본의산록태치·암작작태랑등과연락하고있었다. 그히장그라브는아나키스트가실제문제에주목하도록제안하는글을써서‘아나키즘과실제문제’란토론이일어나는게기를제공했으며, 결국일부아나키스트들이국민혁명에참가하는결과를가져왔다. 노검파는민봉사말고도중국소년무정부주의자연맹과공단주의연구회를조직했으며, 파금처럼다수의아나키즘관련저작들을번역했다. 「민봉」이장개석과국민당에대한반대와안국합작비판으로 1928년말금지당하자노검파는성도로이주하여활동을계속했다.

노검파는사천성에서항전시기아나키즘운동의대표적간행물인「경칩驚蟄」(1937년 4월)을장이검(張履謙), 모일파(毛一波)등과함께간행했다. 이잡지는전쟁중아나키스트의정치적관점의변화를읽을수있어유용하다. 오랫동안아나키스트들은그들의이상을현실에어떻게적용할것인가에대해고민해왔는데, 「경칩」의내용을살펴보면이와같은논란에대한초보적인결론을발견할수있다. 노검파는“아나키스트는그들의원칙을사회각계층에침투시키기위해, 각방면의구사회의세력을일소하기위해수수한아나키스트조직내에서만국한해공작해서는안된다. 아나키스트들은반드시암흑의세상으로나아가야하며, 반드시시대중에게로나아가야한다”<sup>42</sup>고주장하면서, 정치투쟁을반대하는구호를거두어들이고정치투쟁을이용해자유를쟁취해야한다고선전했다.<sup>43</sup> 사천의아나키스트들은당면한가장절박한문제가민족의생존이라는데에인식을같이하면서, 과거의원론적인태도를버리고현실투쟁에투신할것을역설했다.

「경칩」은항일전쟁에대해서도적극적인입장을취했다. 여기서아나키스트는모든전쟁과군대에반대하는것이아니라단지침략자와압박자가발동한전쟁에대해서만반대할뿐, 반침략과반압박의전쟁에는찬성한다고했다. 따라서각정파가연합해항전하는것에동의하면서전쟁으로전쟁을반대한다는전략을채용했다. 이에따라「경칩」은‘항전제일’과‘전면항전’이라는두가지구호를제창했다.

‘항전제일’은혁명전쟁으로침략전쟁을반대하자는것이다. 그들은자신들의항전이민족주의자의항전과는분명히다르다고구분했다. “첫째, 우리들은이번일본의중국에대한침략은완전히자본제국주의사회발전의필연적인추세라고인식한다. 따라서중국사회가자본제국주의의길로나아가지않도록해야한다. 우리들의항전은세계혁명을위한항전인것이다. 둘째, 우리들은분명히세계혁명을위

<sup>41</sup> 〈無政府黨人在時代中〉, 「民鋒」第3卷第2期, 1928(蔣俊〈盧劍波先生早年的無政府主義宣傳活動記實〉,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20면재인용).

<sup>42</sup> 盧劍波〈工作的態度〉, 「驚蟄」第3卷第1期, 1939(위의자료집 1021면재인용).

<sup>43</sup> 黎民〈無政府主義與中國抗戰〉, 「驚蟄」第3卷第5期(위의자료집 889~96면).

인과의프롤레타리아문예논쟁이그것이다.<sup>85</sup> 상호부조의이상으로적자생존의현실을넘어서려는아나키즘은개인의자율성을기본으로삼는예술분야에서지지지자들이많았다. 그래서일제시대한국문학에서김하산과권구현같은아나키스트문인말고도아나키즘의영향을받은문인들을찾는것은그리어렵지않다. 우리가민족주의자로알고있는여러문인들이나심지어카프의공산주의자 가운데에서도아나키즘문예론의영향을받은사람이적지않았다. 1930년대의농민문학에서도아나키즘의영향력은그대로남아있었다.

그리고평양에서는관서흑우회關西黑友會(1928년 4월)가관서동우회를기초로만들어졌다. 관서흑우회는공산주의자의중앙집권노선에반대해자유연합노선을주장했으며, 생디칼리즘을받아들여순정아나키즘을비판했다. 그들의주도로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朝鮮共產無政府主義者聯盟(1929년말)을만들기위한준비작업이진행되었으나순정아나키스트와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사이에서분열이일어났고, 여기에경찰의압력이더해져실패로끝났다. 아나-불합작의붕괴이후한인아나키스트는전국적인조직결성에노력했는데, 국내에서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이만들어진것도이런맥락에서바라볼수있다. 그밖에도다양한아나키즘조직이생겨났다사라졌다.

한편 1920년대후반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들은국가별독자적인조직구축은물론국제적인아나키스트단체를결성하려고시도했다. 한인과대만인아나키스트가합작한대표적인사건으로는앞장에서언급한바있는 A 동방연맹과그회원인신채호와임병문이일으킨국제위체사건(1928년 4월) 등이있다.

신채호는 A 동방연맹의활동자금을마련하기위해당시북경우편관리국외국위체계에근무하던임병문과함께외국위체를위조하기로했다. 임병문은외국위체 200매(총 6만 4천원)를위조인쇄해북경우편관리국을통해일본과대만, 조선, 만주등지에있는주요 32개의우편국으로발송했다. 신채호와임병문, 이필현(李弼鉉)이각지역에서돈을찾아오기로했는데, 임병문이조선과만주지역을맡고, 이필현은일본지역, 신채호는대만지역을각각맡기로역할분담을했다. 임병문은만주의대련은행에서위체 2천원을장동화(張同華)라는가명으로찾아서북경의이필현에게부치는데성공했다. 이에게무뎀그는계속해서일본신호神戶로가서일본은행에서 2천원을찾으려다일본경찰에게체포되었다. 신채호도자신이책임진 1만 2천원을찾기위해일본을거쳐대만의기룡항에도착했으나, 이미그를기다리고있던경찰에게체포되어대련으로압송되었다.<sup>86</sup>

이것이널리알려진국제위체사건으로신채호와임병문, 이필현말고도의열단원이종원(李鐘元) 등네명이체포되었다. 신채호는공판에서동방연맹에“이필현의소개로가입했는가?”라는질문에“아니다”라고하면서 1926년여름대만인

<sup>85</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202~14면참조.

<sup>86</sup> 신용하『신채호의사회사상연구』, 한길사 1984, 205~206면.

임병문의소개로가입했다고대답했다.<sup>87</sup> 그가임병문에게혐의를미룬까닭은임병문이체포된지넉달만에옥중에서폐병으로이미세상을떠났기때문인듯하다. 어쩌면“동방연맹의주장이임병문의것이였다”는신채호의증언을그대로따른다면, 실제로이조직에서임병문이중요한역할을담당했을가능성도높다. 이사건은 1920년대말한인과대만이나나키스트의연대활동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다음으로 1920년대후반대만의상황을살펴보자.<sup>88</sup> 대만문화협회는급진파의영향아래사회사상을연구하다점차아나키즘과공산주의의영향력이증가했다. 그러던중대북무산청년들은「대만민보」(1926년 8월 1일)에〈공개장〉을실어문화협회의대만의회개설청원운동을비판하면서문협과의정치적갈등을드러냈다. 무산청년파는청원운동을비판하며, “실현불가능한항동을사실로여기게하지만실은자본주의와제국주의를인정하는것에불과하므로, 우리무산계급당은이와같은불철저한주장에반대한다”고했다.<sup>89</sup> 아나키즘경향의무산청년들은연운경과왕민천(王敏川)<sup>90</sup>의지도아래문화협회에가입해문협을좌경화했다. 연운경의무산청년파는 1927년 1월임시대대표대회에서문화협회의주도권을장악함으로써협회는사상과조직, 행동면에서좌경화에성공했다. 이른바대만근현대사에서의‘문협文協의 1차전향’이이것이다.<sup>91</sup> 당시총독부의〈문화협회대책〉에따르면, 문화협회의 1차분열과정중대만인의사상파벌은온건파, 온건파중사회주의경향, 민족자결파, 무정부주의자, 망동파, 투기파등여섯가지로분류했다. 여기서아나키스트그룹가운데대표인물로는평화영과연운경을꼽고있었다.<sup>92</sup> 바로이무렵대만흑색청년연맹사건이터진다.

앞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일본의흑색청년연맹의영향아래대만흑색청년연맹이만들어져세력의확장을시도했다. 이연맹은대만에거주하던일본인소택일(小澤一)이일본에서아나키스트와접촉한후대만의대북무산청년을중심으로만들었다. 얼마후〈대만흑색청년연맹선언〉을발표해다음같이주장했다.

권력은곧법률이고, 법률은곧통치이며, 통치는곧국가이다. 권력이있기에 통치자와피통치자가나뉘어졌다. 권력은인류자유를말살하는기계이다. 모든죄

<sup>87</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315면.

<sup>88</sup> 대만내의아나키즘운동에대한소개로는줄고〈1920년대대만내아나키즘운동에대한사론〉(「동북아문화연구」 13호, 2007)이있다.

<sup>89</sup> 連溫卿『臺灣政治運動史』, 稻鄉出版社 1988, 137~38면.

<sup>90</sup> 왕민천은일본으로유학가서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법학과를졸업한후, 대만으로돌아와사회운동에헌신했다. 대만문화협회창립멤버이자대만흑색청년연맹에도가입한바있어, 초기에는연운경과더불어아나키즘경향을띠었다. 그는사회교육과부녀운동에관심이많았다(楊碧川〈王敏川〉, 「臺灣近代人物集」 第1卷, 1983, 73~87면).

<sup>91</sup> 연운경은문화협회의주도권을장악한후농민운동과노동운동의조직화에주력했다. 그러나 1929년 11월대만공산당의반대로문화협회에서제명되었고, 그의영향력이강한대북지부가폐쇄되었다. 그후정치무대에서물러났지만산록태치와석전삼사랑같은일본아나키스트와지속적인우정을나누었다(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名事典編輯委員會『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名事典』, 株式會社ほる出版 2004, 715~16면).

<sup>92</sup> 楊碧川, 앞의책 180~81면.

은아니다. 이전쟁이강권에반대하고침략에반대하기위해일어난것이라면, 이무력이민중을옹호하고민중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면, 아나키스트도전쟁에참가하고, 무력을사용해야한다”<sup>38</sup>고선언했다. 파금은식민지가제국주의로부터해방되기위한전쟁, 약소민족이강대국에반항하는전쟁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는다면서일본민중들도적을분명하게인식해야하며중국의형제와전쟁을해서안되고먼저국내의적을타도해야한다고주장했다.

파금은일본의저명한사회주의자산천균(山川均)이석방된뒤갑작스레전향한후발표한〈지나군의야만성〉(1937년 9월)을읽고분개했다. 그는〈산천균선생에게〉라는글을통해일본군이중국에서일으킨만행들을열거하면서, 산천균이사회주의의외투를벗고낭인의본모습을드러냈다고비판했다. 또한친구인무전박(武田博)에게보내는〈일본친구에게〉, 석전삼사랑에게보내는〈존경하는벗에게〉등의글을연달아써서일본식인자의자기반성을촉구했다. 뿐만아니라중국의항전과조선의독립을동일한문제로여겨한인아나키스트와독립운동가들에게아낌없는성원을보냈다.

상해를침략한일본인은“하나도남김없이중국을타도하자”라고했다. 그러나우리는침략자를우리의국경밖으로쫓아내기만하면된다. 또한조선은자유를얻어야하며조선의독립은우리항전의결과가운데하나가되어야한다. 현재조선의형제들이우리의항전에참가하고있기때문에장차우리도그들이자유를얻는것을도와줘야한다. 조선을다시중국의보호에두려고생각하는것은극단적국가의자의몽상이다. 극단적국가의자의견해는침략자나다를바없기때문에우리는그들의관념을바로잡아주어야한다.<sup>39</sup>

파금이쓴‘항전삼부곡’의제 1부인『불』에서도유자명을비로한상해한인독립운동가의잔영이질게깔려있다. 이미오랜동지적관계를맺고있던유자명도파금이항전간행물「놀함吶喊」「봉화烽火」를창간했을때〈중국동포에게고하는글〉을게재했고, 여기에는남화한인청년연맹의간행물「남화통신」의내용들이소개되었다.<sup>40</sup> 파금은중국이라는국가의한계를넘어서일제에저항하던한인아나키스트들과연대를도모했다. 그는 1930년대의국제정세를파시즘대반파시즘의구도로읽고있었다.

항일전쟁시기중국아나키스트의전쟁관을알기위해파금말고도주목할만한또다른사람으로는노검파가있다. 파금과매우절친했던노검파는사천출신으로 5·4 운동시기에아나키즘을받아들인후남경에서「민봉」(1923)을창간했다. 남경시절의「민봉」은주국제아나키즘을선전하고군벌정부를비판했다. 얼마후상해에정착해다시「민봉」(1926)을부활시켰는데, 이시절의「민봉」은아나키즘을선전하면서도정치적으로국민당과공산당으로부터일정한거리를두

<sup>38</sup> 巴金〈只有抗戰這一條路〉, 『巴金全集』 第12卷, 544면.

<sup>39</sup> 巴金〈國家主義者〉, 『巴金全集』 第13卷, 240~43면.

<sup>40</sup> 류연산, 앞의책 312면.

1935년 8월 일본에서 귀국한 파금은 문화생활출판사<sup>36</sup>의 편집을 맡아 ‘문학공간’과 ‘문화생활공간’을 출판했다. 특히 문화생활공간 시리즈의 초기 책들은 아나키즘과 관련 있는 것이 많다. 본인이 저술하거나 번역한 『옥중기』 『러시아허무주의운동사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파금은 버크먼의 『옥중기』 같은 저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야기를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았다. 즉 “진정한 혁명가의 일생은 그의 생명으로 인민의 희생을 대신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은 없다. … 혁명가의 생명은 인민에게 속한 것이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생활과 향락을 즐길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파금은 버크먼의 순교자적인 숭고한 희생 정신과 인격에 크게 감화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 중국인 아나키스트의 항일전쟁관

193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각종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스페인 내전이었다. 이 내전의 특징이라면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이 함께 인민 전선을 형성해 반파시즘 투쟁에 참가하면서 공화파 내각을 수립한 사실이다. 아나키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 내전은 대규모 아나키즘 이상을 실험해 볼 수 있었던 장이었다. 일반적으로 아나키스트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통일 전선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1935년 제 7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국제 반파시즘 노선과 인민 전선 전술이 채택되고 1936년 2월 스페인에서 인민 전선이 선거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6월 프랑스에서도 인민 전선 정부가 수립되자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sup>37</sup> 특히 스페인 내전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인민 전선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고무되었다. 스페인 아나키스트의 노선 변화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던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에게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배격하던 태도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했다.

스페인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 아래 프랑코(F. Franco) 가군 부쿠데타를 일으키자 내전으로 발전했다. 이 내전에 다수의 아나키스트가 참가했다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반전의 입장을 지지하던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이 항일전쟁에 참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나키스트는 원칙적으로 전쟁에 반대하지만 약소민족의 제국주의에 대한 해방전쟁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변화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아나키즘의 반전 원칙을 순식간에 바꾸어버린 것이다. 파금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1937년 노교사건이 발발하자, 파금은 “나는 아나키스트이다. 어떤 사람은 아나키스트가 전쟁에 반대하고 무력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반드시 옳은 일

<sup>36</sup> 문화생활출판사에 대해서는 李濟生 編著 『巴金與文化生活出版社』, 上海文藝出版社 2003 참조.

<sup>37</sup> 한상도 <유자명의 아나키즘 이해와 한중연대론>, 『동양정치사상사』 7권 1호, 2008, 150~51면.

악과 근심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은 권력이므로 일체의 권력을 소멸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 … 우리들은 오직 직접 행동만이 인간 해방의 유일한 수단이며, 폭력과 암살이 가장 뛰어난 혁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장차 흑기 아래서 죽기를 맹세한다.<sup>93</sup>

이연맹은 위의 글처럼 “우리들은 오직 직접 행동만이 인간 해방의 유일한 수단이며, 폭력과 암살이 가장 뛰어난 혁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장차 흑기 아래서 죽기를 맹세한다”라고 하며 순수 아나키스트임을 자처했다. 이러한 무산청년의 결집은 대만 남북을 상호 연결해 ‘중남부선전대’(1926년 12월)의 성립을 가져와 사방으로 혁명을 선전하려고 시도했다.<sup>94</sup> 그러나 일본 경찰은 조직이 창설되자마자 다수의 관련자를 체포해와 해시켰다. 특히 대만 흑색청년연맹의 지도자였던 소택일은 형기만료 후 출옥해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자살했다. 이연맹은 대만 좌익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만 아나키스트들이 연극 운동에 종사하며 아나키즘을 선전한 사실은 특색 중의 하나이다. 장유현(張維賢)은 성광사 星光社(1925)를 중심으로 신극을 통한 학습제거와 풍속 개량에 힘썼다. 성광사를 이끈 장유현은 대만 신극의 대표 인물로 젊은 시절부터 아나키즘을 신앙했으며, 희극 운동을 통해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1927년 성광사가 경비 부족으로 해체되자 일본에 건너가 동경에서 연극을 공부하던 중 산록 테치 등 과 접촉했다. 그는 일본 아나키스트 노동 운동을 목격했으며, 특히 공산주의 노동 조합과의 대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후 대만으로 돌아와 다시 민봉사 民烽社를 세워 아나키즘적 예술론을 추구했다. ‘민봉극단 선언’을 보면 극단의 목적이 새로운 사회를 창조 발전시키고 “인류가 마땅히 지녀야 할 진정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95</sup>

그리고 대만에 거주하던 일본인 도원 등 병위(稻垣藤兵衛)를 중심으로 고혼연맹 孤魂聯盟(1926) 같은 독특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고혼연맹은 ‘인류의 집’을 만들어 사회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특징이라면 허무주의가 충만한 단체라는 사실이다. 성광사도 고혼연맹의 소속 극단이 되었는데, 장유현은 “고혼이란 생전에는 고독하고 사후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영혼을 말한다. 그 비참과 슬픔이 마침 우리들 무산계급 민중의 현실과 같다. 우리는 고혼연맹을 조직해 광명과 무산계급 해방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sup>96</sup>라고 말했다. 이연맹은 「비대만 非臺灣」(1928년 3월)을 간행했다. 일본의 아나키즘 단체와 연락하며 활동을 강화하던 중 1928년 7월

<sup>93</sup> <臺灣黑色青年聯盟宣言> (王乃信等譯 『臺灣社會運動史—1913~1935年』 第4冊, 19면 재인용).

<sup>94</sup> 흑색청년연맹은 대북, 신죽, 창화지부와 ‘중남부선전대’로 나누어져 있었다. ‘대만 흑색청년연맹 조직표’는 같은 책 169면에 나와 있다.

<sup>95</sup> 대만 희극 운동 연구자 양도는 “장유현의 일생은 ‘흑색청년’ 아나키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방불케 했다”고 평가했다 (楊渡 『日據時期臺灣新劇運動(1923~1936)』, 日報出版 1994, 6면).

<sup>96</sup> 같은 책 75면.

연맹관계자가 조사받고자 택수색을 당했다. 연구이외에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흔계 석방되었지만 이때 사실상 소멸되었다.<sup>97</sup>

그후 창화지역의 아나키스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재건하고 중국, 일본과의 연락망을 갖추면서 대만 노동 호조사 臺灣勞動互助社 (1929) 를 만들었다. 대만 노동 호조사는 범본량 의신대만안사와 대만 흑색 청년 연맹 이래 대만 무산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창화 무산 청년파는 본래 아나키즘과 공산주의 두 가지 사회혁명 사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창화 천공묘 天公廟에서 열린 문화 협회 강연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아나키스트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자 서로 간에 대립이 고조되었다. 1928 년 말 창화 천공묘에서 공개적인 이론 투쟁 대회를 열었는데, 아나키스트는 상호 부조를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계급 투쟁을 반대했고, 거꾸로 공산주의자는 계급 투쟁을 가지고 상호 부조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의 격렬한 논쟁은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성과없이 끝났다.<sup>98</sup> 다음해 9 월 대만 문화 협회가 창화에서 연 특별 지부 대회에서 공산주의자 오석린 (吳石麟) 등은 고의로 무산 청년 파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했다. 결국 주천계 (周天啓) 와 채정상 (蔡禎祥) 등은 문협을 탈퇴하여 자유 연합 방식에 따라 별개의 아나키즘 단체인 대만 노동 호조사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노동 호조사 참가자 대부분은 창화 무산 청년 파로 옛 흑색 청년 연맹의 구성원이었다. 호조사의 이론은 비교적 정교하여 대만 민중에게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고 전하는데, 과거의 흑색 청년 연맹과 호조사의 구성원이 대체로 일치하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두 조직간의 인과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호조사는 중국 대륙과 일본 내지의 아나키스트 단체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대륙과는 상해와 하문, 복주 등지의 아나키스트들과 연락하고 있었는데 그들간의 교류는 문건으로도 남아 있다.<sup>99</sup> 예를 들어 재중국 대만 무정부 공산주의 연맹 在中國臺灣無政府共產主義聯盟의 이름으로 뿌린 〈6·17 대만도치정 기념 선언 六·一七臺灣島恥政紀念宣言〉 (1931 년 6 월 17 일) 에서는 대만 자치 지방 연맹의 주장을 사기라고 비난하고, 민중당이 주장하는 전민 운동도 기회주의 정치 운동이라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문화 협회는 이미 타협적인 정당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의회 정치 아래의 무산 계급 정당 주장은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문협 내 공산주의자들은 비록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한다지만 또 다른 제국주의자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즉 공산주의자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주장은 실제로는 독재 정치를 낳을 것이라 했다. 이 선언문은 아래와 같은 글로 마무리한다.

<sup>97</sup> 당시 일본에서 발행한 「自由聯盟」의 〈臺灣之無産運動〉 (1928. 9. 1) 이라는 기사에는, “대만에는 자유 연합주의를 신봉하는 조합은 없으며, 오직 대북인쇄 공회에 약간 그 색채가 있지만 그렇다 고 무정부주의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극소수이지만 박해와 폭압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고혼 연맹이다”라고 보도했다 (連溫卿, 앞의 책 222 면재 인용).

<sup>98</sup> 王乃信等譯 『臺灣社會運動史 — 1913~1935 年』 第 4 冊, 30 面.

<sup>99</sup> 같은 책 37 面.

에 참가했으며 국제적인 아나키스트와도 교류가 있었다.<sup>32</sup> 이들이 편집한 「시대 전」은 1931 년 초 상해에서 창간되어 불과 6 호만을 출판하고 정간되었다.<sup>33</sup>

파금의 다양한 문학 창작 활동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의 대표작 『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학 작품 속에 아나키즘의 영향이 짙게 배어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에스페란토 작품의 번역과 소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프랑스에서 귀국하자마자 상해 에스페란토 학회에 가입한 그는 얼마 후 이 학회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대표적인 에스페란토 잡지 「녹광」에 〈에스페란토 문학론〉을 발표한 바 있는 파금은 1932 년 2 월에 이 잡지의 출판을 맡았다. 이 시기에 에스페란토로 많은 글과 작품을 번역해 발표했다.

1930 년대에도 에스페란토 운동은 여전히 아나키즘 운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상해에서 육식회와 구성백, 황존생 (黃尊生) 등은 중국 세계 어학회 (1931 년 말) 를 만들어 전국 규모의 아나키스트 조직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오치휘와 이석중, 채원배 (蔡元培) 의 지원을 받아 각 지역 대표자 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세계 어학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단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 1930 년대에 광주 지역의 에스페란토 운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광주 세계 어학회는 답록 단階 隊團과 소식회 素食會, 윤교단 輪教團 등을 만들어 에스페란토 선전과 동시에 아나키즘 활동을 펼쳤으며,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국민당과 연계해 에스페란토 번역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1931 년에 광주에 온 일본 아나키스트 원내량인 (原奈良人, 중국명 林盛之) 의 에스페란토 전파 활동도 전해진다.<sup>34</sup>

1934 년 11 월 일본에 건너간 파금은 잠시 석천 삼사랑을 만나기도 했다. 석천 삼사랑은 1927 년 상해 노동 대학 부교장이었던 심중구<sup>35</sup>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상해 노동 대학에서 산록 태치 (山鹿泰治), 암작 태랑 등과 함께 강의했다. 상해 노동 대학에 3 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서양 사회 운동사를 가르쳤으나, 당시 파금은 프랑스에 있었기에 그를 만나지 못했다. 1933 년 석천 삼사랑이 두 번째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파금은 처음 그를 만나 인연을 맺었다. 혹자는 중국의 양심을 대표하는 파금과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석천 삼사랑의 이 만남을 주목하기도 한다.

<sup>32</sup> 위헤림은 「學彙」와 「民鋒」 등에 많은 글을 투고했다. 1928 년 북건성 천주의여명 고종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30 년대 초 파금과 「時代前」을 편집했다. 그는 중앙 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항일 전쟁 시기에는 국민당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변정학 연구에 몰두했다.

<sup>33</sup> 鄭佩剛 〈無政府主義在中國的若干事實〉, 葛懋春·蔣俊·李興芝編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 (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70 面.

<sup>34</sup> 王炎 〈無政府主義與世界語〉, 『廣州文史資料』 第 5 輯, 1962, 549~52 面.

<sup>35</sup> 심중구는 5·4 운동 시기부터 절강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였으며, 국공합작 시절에는 아나키스트의 국민당 가입에 불만을 품고 오치휘와 논쟁을 한 바도 있다. 그는 일본과 독일 유학을 하고 귀국해 상해 대학, 상해 노동 대학, 입달 학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석중이 지원하던 「革命週報」가 창간되었을 때 잠시 주편을 맡았다. 그는 유자명과도 친분이 깊었던 인물이다.

그후파금은입달학원에정착한유자명을논설을통해알게되었고, 유자명도소설을통해파금을알게되었다. 어쩌면파금은유서와심여추등을통해간접적으로유자명을알고있었는지도모른다. 당시유자명은같은학교의숙소에서머물던파금의동생인이채신(李采臣), 파금의친구인여류작가나세미(羅世彌), 그의남편마종용(馬種融)과절친한관계를맺고있었다.<sup>30</sup> 특히이채신은유자명의극적인인생이야기를파금에게전해주어〈머리칼이야기〉(1936년 6월)라는단편소설의주인공으로삼는게기가되었다고전한다.

파금은 1930년대로들어와본격적인창작의길로나아가문학가로서의명성을쌓아갔다. 그는노동운동이나농민운동에직접참여한적이없고, 아나키즘계열의비밀결사에참여한적도없었다. 파금은주저작과번역활동을통한사상선전에주력했는데, 중국현대문학에서테러리즘에관한가장많은글을쓴작가라는데에서도알수있다. 하지만공개적으로는테러를찬성하지않아서아나키즘과테러리즘을직접연결하는시도에는반대했다. 물론소설속테러리스트의영웅적희생정신에강한애정과동정심을품은것은분명하다. 이로인해행동이결여된아나키스트라는자책과고통이파금의전반기인생을관통하고있었다.

일본본토의경우일본무정부공산당같은활동이 1930년대중반까지전개되었으나중일전쟁의발발과더불어거의자취를감추었다. 이와달리중국대륙에서는비록세력이약화되었지만꾸준한활동이이어졌다. 전시상황에서국민당정권의사상통제가강화되자대부분의아나키즘잡지들은출판금지처분을받았다. 아나키즘을선전했다는이유로금지된서적이나잡지로는「동방」『최근베를린에서열린제 4 인터내셔널에대한연구』「무정부공산월간」및파금이번역한『자본주의에서아나키즘으로』등이있다.<sup>31</sup> 그럼에도불구하고 1930년대의운동은“실과같이끊어지지않은채”계속이어졌다. 양빙현(梁冰弦)과정패강(鄭佩剛)은상해에서「회명월간晦鳴月刊」(1930년 8월)이라는사회문화잡지를출간했으나곧정간당했다. 같은해여름정패강과노검파(盧劍波), 파금, 위헤림등중국리아나키스트 10~20여명은항주서호에모여아나키즘선전문제를고민했다. 이회의를통해「시대전時代前」이라는문학을위주로하되아나키즘도선전하는월간지를출간하기로결정하고, 파금과위헤림이주편을담당했다. 파금의친구위헤림은산서출신으로일찍이일본으로유학가서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문학부사회철학과를졸업했다. 그는파금과함께프랑스유학중‘아나키즘과실제문제’토론

田恭子〈巴金과한국아나키스트들〉, 『한국아나키즘운동의궤적과 21세기전망』, 1995, 26면).

<sup>30</sup> 류연산 『류자명평전』, 충주시에성문화연구원 2004, 302~304면.

<sup>31</sup> 胡慶雲 『中國無政府主義思想史』, 國防大學出版社 1994, 314면.

우리들은반드시민중의용감하고자발적인역량에의존해일체의재야의야심가들을소멸시키고, 어떠한일체의강권과착취가없는진실한공산적자유사회즉무정부공산사회를만들것이다. 이것이야말로진정으로대만민중을해방시키는것이다. 우리들폭탄의폭음소리는일본강도의각종정치와경제기구에울릴것이며, 반드시자본가들은모두총에맞고칼에죽는운명을맞이할것이다. 미래의 6월 17일은반드시강권계급이공포에떨며죽음을맞이하는날일것이며, 우리들피압박노동자계급이직접행동과폭동시위를실행하는날이될것이다. … 6·17은우리들의행동개시의날이며반항의날이다! 만인이행복한사회를건설하는날이다!<sup>100</sup>

총독부가 1931년 8월대만공산당을일제히거할때, 채추종(蔡秋宗)이라는청년을체포하면서그에게서권총과실탄및대량의아나키즘문서들을발견했다. 이에일경은대만노동호조의주요인물 14명을체포하여법원으로이송했다. 이때채추종은옥중에서고문으로사망했다. 결국이사건을계기로노동호조조직은와해되었고, 대만내아나키즘세력은급속히쇠퇴했다.

일제의식민지였던대만이나조선모두 1920년대가아나키즘운동의전성기였다. 1920년대후반의한인과대만인아나키즘운동은반전에대한깊이있는논의, 민족주의와공산주의에대한체계적인비판등이나타났다는점에서 1920년대초반의사상보다는진일보한측면이있다. 그리고공산주의운동에비해상대적으로활발하지못했고, 공산주의자와의투쟁과정에서더욱세력이약화되어 1930년대에이르러서는거의소멸상태에놓였다는점도외형상유사하다. 하지만대만의경우는일부급진청년들만이참여한데비해, 조선의경우는상대적으로더욱활발하고전투적이지않았나싶다. 대만아나키스트는무장투쟁보다는선전활동에주력했고단체가조직된후에는곧바로탄압을받았는데, 이는망명하기힘들지리적특성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특히대만은근등헌이·암작작태랑·산록태치등과같은일본인아나키스트의영향은물론, 소택일·도원등병위등과같은대만거주일본인의역할이두드러졌다는특징이있다.

<sup>100</sup> 〈六·一七臺灣島恥政紀念宣言〉(1931. 6. 17)(王曉波編『(新編) 臺胞抗日文獻選』, 海峽學術出版社 1998, 313면).

## 제 6 장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반파시즘 연대 투쟁과 운동의 굴절

### 1. 파시즘 통치하의 일본인과 재일한인 아나키스트

#### 일본 무정부 공산당의 건설과 붕괴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 일본 아나키즘 운동은 순정 아나키즘과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순정 아나키즘은 원칙에 반하는 불순요소를 제거하는 부정의 논리로서, 마르크스주의 뿐만 아니라 생디칼리즘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은 자치와 자유연합을 통해 개량주의적 조합을 혁명적 조합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이었다.<sup>1</sup> 대체로 순정 아나키스트가 산업 사회 이전의 목가적인 농촌에서 이상 사회의 모델을 발견했다면,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는 산업 사회의 생산력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를 긍정하고 미래의 이상향을 찾을 것이다. 물론 이들 모두 중앙 집권화된 정부와 대규모의 자본에의 해역 압박을 극도로 경계했다. 만주 사변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침체하자 아나키즘 계열의 전국 노동조합 자유연합회(自聯)와 일본 노동조합 자유연합 협의회(自協)는 모두 분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양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도시의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된 것과 달리 농촌에서 아나키스트 농민 운동이 활발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본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개인간 투쟁을 강조하는 사회 다윈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크로포트킨주의의 특성은 동아시아의 사회 풍토에 걸맞았으며, 특히 도시보다 농촌을 이상화하는 경향은 일본에서 이른바 ‘농본적農本의 아나키즘’을 출현하게 만들었다. 보통석천삼사랑(石川三四郎)의 사상을 농본적 아나

<sup>1</sup> 일본의 아나키즘을 테러리즘, 크로포트킨주의,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게 도식화한 견해가 있다. 그래서 대삼영(大杉榮)의 사상을 좌파 크로포트킨주의라고 하고, 암좌작태랑(岩佐作太郎)·팔태주삼(八太周三)의 사상을 우파 크로포트킨주의라고 구분하기도 한다(大澤正道 『アナキズム思想史』(龜田博 <アナキズム運動史, 參考文獻・讀む> 14 면제 인용)).

1928년 12월 말 프랑스에서 상해로 귀국한 파금은 자유서점에서 일했다. 이 서점은 프랑스 유학생 출신인 주영방(朱永邦)을 중심으로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모여 만든 곳으로 아나키즘 관련 서적들을 전문적으로 출판했다.<sup>25</sup> 여기서 첫 번째로 출판한 책이 파금 자신이 번역한 크로포트킨의 저서 『빵과 자유』였다. 이 책은 프랑스 유학가기 전에 이미 『빵의 약취』라는 제목으로 초벌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본래 『전원·공장·작업장』 『현대 과학과 아나키즘』 『상호부조』 등과 더불어 크로포트킨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였다. 파금은 크로포트킨주의 자임을 자처했으며 자유서점에서 크로포트킨 전집(10권)을 계획하고 자유소총서출판을 준비했다. 같은 시기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작업은 미국 아나키스트 알렉산더 버크먼의 『아나키즘 ABC』에 근거해 『자본주의에서 아나키즘으로』(1930년 7월)를 완성한 일이다. 버크먼의 책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아나키즘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쉽게 쓴 글로, 파금은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이 책을 원본으로 삼아 중국 현실에 맞추어 아나키즘 이론을 소개하고자 준비했다.<sup>26</sup> 1929년 귀국 후 1930년 말까지 그는 문학 창작보다는 번역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sup>27</sup>

파금은 청년 시절부터 유서(柳絮), 심여추(沈茹秋), 유자명 등과 같은 한인 아나키스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다.<sup>28</sup> 대표적인 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파금이 1925년 경 경북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북경에 갔을 때 「학취」의 편집자인 심여추를 알게 되었는데, 그의 소개로 유서도 알게 되었다. 그 후 폐병에 걸려 입시를 포기하고 상해로 내려온 파금은 유서의 요청으로 <공개적 편지>(1926년 3월)를 쓴다. 여기서 그는 한인 아나키스트에 대한 깊은 우정과 함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의 민중이 연합해 정부와 자산계급을 타도하자는 내용을 담은 글을 실었다.

다음으로 상해에서 파금은 한중일 아나키스트들이 교류하던 등몽선(鄧夢仙)의 화광병원을 치료차 자주 찾았다. 화광병원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7개국 대표 20여명의 아나키스트들이 1928년 6월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고 기관지 「동방」을 간행한 사건은 앞서 언급했다. 여기서 파금과 유자명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지지만 분명하지 않다.<sup>29</sup>

<sup>25</sup> 陳丹晨 『巴金的夢』, 中國青年出版社 1994, 90면.

<sup>26</sup> 중국 문학계에서 『巴金全集』을 출판할 때 파금의 대표적인 아나키즘 저작인 『자본주의에서 아나키즘으로』를 전집에서의 도적으로 뺀 사실만 보더라도 파금과 아나키즘과의 관련성을 얼마나 불편해하는가를 알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중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아나키즘을 선전한 책 가운데 하나였다. 그 밖에도 파금이 광말약(郭沫若)의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 논문도 빠져 있다(陳思和 <巴金的意義>,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2000. 4).

<sup>27</sup> 한연구자의 통계에 따르면, (1933년 이전) 파금이 번역한 20여종의 단행본 가운데 무려 17종이 아나키즘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한다(陳思和·李輝, 앞의 글).

<sup>28</sup> 박난영, 앞의 책 403~34면 참조.

<sup>29</sup> 유자명 이은 『나의 회억』에는 화광병원에서 파금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파금은 “등몽선의 병원에서 조선인 망명자를 만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여 아마도 친구로서의 교류는 아닌 듯하다(嶋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니까 닭은 중국 학계의 경우 중국 공산당 사중심의 시각에서, 한국 학계의 경우 민족해방운동 차원에서 아나키즘 운동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전쟁에 따른 사상 운동의 압살이라는 1930 년대의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쟁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아나키즘 운동이 약화되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적지 않은 아나키스트들이 더욱 격렬한 투쟁 양상을 띠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국 내 아나키스트들의 테러와 무장 활동은 한중 연합 투쟁이란 국제 연대 활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한중 아나키스트의 반파시즘 연합 전선의 활동을 양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파금(巴金) 과유자명(柳子明) 이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파금 과유자명은 동아시아 아나키즘 역사의 후반부에 가장 오랫동안 변함없이 아나키스트로서 활동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술들을 통해 각자 나름의 전쟁관을 피력하고 있었기에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두 사람은 오랜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27 년 4 · 12 쿠데타 이후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했다. 이때 오치휘(吳稚暉) 와 이석증(李石曾) 등 원로 아나키스트와 유석심(劉石心) 과 구성백(區聲白), 황릉상(黃凌霜) 등을 비롯한 일부 아나키스트가 국민당에 협력했고, 이에 반대한다수의 아나키스트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했다. 이 시기는 5 · 4 운동 이래 새롭게 성장한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출현했다. 파금을 비롯해 위혜림(韋慧林), 심중구(沈仲九), 필수작(畢修勺) 등이 대표 인물들이다.<sup>23</sup> 이들은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 체제로 개편되면서 침체한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주로 국민당의 검열과 통제를 피해 국외 아나키즘 저작을 번역 출판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파금은 중국 아나키즘 역사의 후반부에 가장 오랫동안 선전 활동을 전개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로 여러 차례 자신이 변함없이 아나키스트임을 표명한 작가이다.<sup>24</sup> 그런데 대륙 학계에서 나온 파금 관련 글에서는 1930 년대부터 그가 아나키즘 활동을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청년 파금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1920 년대 중반 무렵은 공산주의 노동 운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노동 조합적 아나키즘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던 시기였다. 그래서인지 파금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서 아나키즘 이론을 선전하면서 테러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졌다. 프랑스 유학 시절(1927 년 1 월부터 1928 년 12 월까지) 에는 좀더 중국의 현실에 주목했지만 여전히 순수한 아나키스트임을 자부했다. 그는 단편적인 논문 말고도 동료들과 함께 『아나키즘과 실체 문제』 같은 저서를 저술해 아나키즘과 국민 혁명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sup>23</sup> 파금의 아나키즘에 대한 연구는 陳思和·李輝 〈怎樣認識巴金早期的無政府主義思想〉, 『文學評論』, 1983. 3; 山口守·坂井洋史 『巴金の世界』, 東方出版社 1996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연구로는 박남영 『혁명과 문학의 경계에선 아나키스트 바진』, 한울아카데미 2005 등이 있다.

<sup>24</sup> 담조음(譚祖蔭) 은 중국에서 “아나키즘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황릉상과 파금이다. 그들은 적지 않은 아나키즘 관련 문장을 쓰고 번역했다”고 회고했다(路哲 『中國無政府主義史稿』, 福建人民出版社 1990, 275 면).

키즘이라고 부르며, 혹은 토민 철학 土民哲學이라고도 불렀다. 그는 “진화론, 생존 경쟁론이 생겨난 이래 문명인의 이상은 ‘자연의 정복’에 있었다. 자연의 정복은 곧 땅의 파괴이다. 땅의 파괴는 곧 우리 자신의 파괴이다. 문명 생활이 인간 생활의 퇴폐를 초래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문명 생활은 바로 땅에 대한 반역이다”<sup>2</sup>라고 말하면서 “토민의 최대 이상은 자신과 동료의 자유이다. 평등의 자유이다”라고 선언했다.<sup>3</sup> 이런 경향은 암좌작태랑이나 다른 아나키스트에게서도 나타났다.

그런데 1920 년대 후반 아나키스트의 농민 운동은 순정 아나키즘의 영향으로 매우 급진적이었다. 예를 들어 도시의 노동자를 포함해 도시 농촌을 착취한다고 본다든지, 혁명 운동의 주력을 농민으로 보고 장래 사회의 기초를 농민으로 삼는다든지, 자급 자족을 추구하고 도시의 폐지를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팽배했다.<sup>4</sup> 이런 생각은 크로포트킨이 말한 지주와 국가, 은행가, 상공업자들이 농민을 착취한다는 주장을 더 극단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로포트킨은 도시 노동자에 대한 반감은 없었으며, 농업과 공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낙관했다. 1930 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농본적 아나키스트 가운데 일부가 기존의 반도시적 태도를 비판하고 대중 투쟁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영목청지(鈴木晴之) 를 비롯한 14 명의 아나키스트가 1931 년 2 월 농촌 청년사제 1 차 회의 열고, 그해 6 월 「농촌 청년」 을 창간했다. 이들은 순정 아나키스트를 관념론자라고 비판하고 운동가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토지를 접수하고 지주를 추방한 후 도시의 자본주의 경제와 관계를 끊자고 했다. 지방에서 자치 조직을 결성한 후 국가 권력과 싸우는 것이다. 농촌 청년사의 아나키스트는 기존 조직론에도 비판적이어서 자주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이미 결성된 조직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른바 “필요에 따라 모이고 끝이면 해산하자”는 것으로, 이것을 “아래에서 위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부정! 결성에서 분산으로! 집중에서 자주 분산 행동으로!”라는 명제로 요약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연대와 동시 다발적 봉기를 통한 혁명을 추구했으나, 제 1 차 농촌 청년사 사건(1932 년 초) 이 일어나자 그해 9 월 자진 해산했다.<sup>5</sup> 이 사건 후 농촌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시 노동자 중심으로 운동 방향이 전환되었다.

일본 아나키즘 문예 운동도 비교적 활발했다. 공산주의자와 프롤레타리아 문예 논쟁을 벌인 아나키스트들은 신거격(新居格) 과 추산청(秋山淸) 등을 중심으로 「문예 해방」 을 통해 정치 운동을 배격한 문예 해방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볼셰비키의 정치주의 문학이나 부르주아의 탐미주의 문학도 아닌 인간의 근본에 입각

<sup>2</sup> 가노 마사나오, 김석근 옮김 『근대 일본 사상 길잡이』, 소화 2004, 231~32 면 재인용.

<sup>3</sup> 三原容子 〈農本的アナキズムと石川三四郎〉, 『日本教育史論叢 — 本山幸彦教授退官記念論文集』 1988, 487 면.

<sup>4</sup> 三原容子 〈戰前アナキズム運動の農村運動論 1 — 自連派〉, 『京都大學教育學部紀要』 第 31 號, 1985, 98 면.

<sup>5</sup> John Crump, 碧川多衣子譯 『八太舟と日本のアナキズム』, 青木書店 1996, 198~206 면.

한인간성해방의문학을제창했다. 전국적인조직망을갖춘해방문화연맹(1933년 12월)을결성하여다른아나키스트진영에적지않은자극을주었는데, 이연맹은아나키스트세력의통합과농촌운동의자립화에노력했다.<sup>6</sup>

한편일본아나키즘단체의통합움직임이 1932년여름부터나타났다. 자련은일상투쟁의강화를통해관념적전향을극복하고경제투쟁의중요성을다시강조하는쪽으로노선이정리되었고, 자협역시노동조합제일주의의한계때문에운동이침체된점을인정했다. 이들은자유연합주의를재확인하고, 전략전술의확립이필요하다는데공동의인식을가지고통합작업에박차를가했다. 결국 1934년자협이자련에정식복귀하는것으로일단락되었다.<sup>7</sup> 그런데자협의자련으로의복귀선언으로노동운동의활성화를기대했으나여전히통합조직은노동자로부터고립되어고전을면치못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15년간은전쟁시기이다. 일본의파시즘세력은 1931년의만주사변을시작으로 1937년의중일전쟁을거쳐 1941년의태평양전쟁까지전쟁을계속확대해나갔다. 특히만주사변의발단은일본의군국주의가본격화하는사건으로일본아나키즘운동의전환을가져오는중요한사건이었다.<sup>8</sup> 일본의식민지였던조선이나대만에서의아나키즘운동도만주사변의전개와더불어쇠퇴했다. 1929년 11월조선국내에서비밀리에결성된전국적아나키스트조직인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동맹은 1931년초일경에의해동맹의존재가발각해체되면서운동은급속히쇠퇴했다. 1930년대이후에는아나키스트와볼셰비키의잡은총돌이일제당국에게탄압의비미로작용했으며, 독서회활동및출판활동으로겨우명맥을유지했다. 대만역시대만총독부가 1931년 8월 30일대만공산당을일제히검거할때, 한청년을체포수색하는과정에서대만노동조합의존재를알아냈다. 이때일경은대만노동조합주요인물을일제히검거하여사실상대만내아나키즘운동은소멸했다.<sup>9</sup>

일본본토의아나키스트가운데일부는운동의침체원인을강력한지도조직의부재에있다고판단하고노동운동과농민운동, 문예운동등을통제할중앙집권적조직이있어야한다고생각했다. 특히테러리즘경향이강했던이견민웅(二見敏雄)은무조직과무계획의방침은낡은방법이라며방법론적수정을제기했다. 이에따라 1933년 12월초이견민웅과상택상부(相澤尙夫), 입강범(入江汎), 식촌체(植村諦), 사미실(寺尾實) 등은일본무정부공산당日本無政府共産黨(1934년 1월 30일) 의전신인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日本無政府共産主義者聯盟을결성했다. 이단체는중앙집권적조직을추구하고민중독재론을인정

<sup>6</sup> 김명섭 『한국아나키스트들의독립운동 — 일본에서의투쟁』, 이학사 2008, 258~59면.  
<sup>7</sup> 小松隆二 『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靑木書店 1972, 217~19면.  
<sup>8</sup> John Crump, "The Anarchist Movement in Japan", ACE Pamphlet, No. 8, Pirate Press 1996, 8면.  
<sup>9</sup> 줄고 〈1920년대대만내아나키즘운동에대한시론〉, 『동북아문화연구』 13호, 2007, 293~94면참조.

고급엘리트였다. 1931년여름원심창을찾아상해로건너가남화한인청년연맹에가입했으며, 이연맹에서외국문헌의번역, 기관지사설의집필, 내외운동의소개및연락등다양한활동을펼쳤다. 그는원심창과백정기에게자금제공했으며, 원심창의부탁으로일본에잡입해제일한인아나키스트와연락을가졌다. 국내에돌아와서도상해와계속소식을주고받았으며, 다시 1933년말일본으로건너가아나키즘선전에힘썼다. 그런데 1935년 11월동경경시청에체포되어조사받다가무혐의로풀려난이후갑작스레변절한것이다.<sup>21</sup> 현영섭은 〈정치론의한토막〉(1936년 8월)이라는글을통해사상전향을밝혔으며 1938년 1월친일단체인녹기연맹綠旗聯盟에가담해본격적인친일활동을벌였다. 그는 『조선인의나아갈길』이라는책에서조선역사에대한반성, 민족주의및공산주의에대한비판, 조선인의일본인화와조선어의폐지등을주장했다. 그밖에도여러친일단체에참가해내선일체의이론가로활약했다.<sup>22</sup>

심지어제일한인아나키스트를상징하는박열조차전향의혹에쌓여있다. 1934년 5월이후사상적동요를가져와모두세차례의감상문을통해전향을선언했다고알려져있으나, 이에관한적지않은반론이존재한다.

중일전쟁이전에합법적인아나키즘계열의노동운동이나농민운동은거의괴멸되었다. 우선자유청년연맹이 1935년 11월해산했고, 오랜전통을자랑하는흑우연맹도 1936년 3월해산했다. 조선동흥노동동맹시바지부도 1936년 4월해산을결의했다. 중일전쟁이후일본과조선에서의활동이어려워지자제일한인아나키스트들은중국으로진출해테러및무장투쟁에합류하든지, 일본에잠복해비밀결사나학생운동으로명맥을유지했다. 결국조선동흥노동동맹에서활동했던문성훈(文成勳) 과이종문(李宗文) 등이비밀결사를통한운동의재건을준비했으나 1940년 12월건달회建達會사건이일어나면서모두검거되었다. 일경은남아있던한인아나키스트들이자금과무기를구입해폭력봉기계획을세운‘폭력혁명모사건’이라고발표했으나다소신빙성이부족하다. 이사건을마지막으로사실상제일한인아나키스트운동은막을내렸다.

## 2. 일본의대륙침략과중국인아나키스트

### 파금: 혁명과문학사이에서

중국학계에서는중국아나키즘운동의범주를보통 1900년대초부터 1930년대까지로잡아 1930년대를‘몰락기’로보는데반해한국학계에서는 1920년대를한인아나키즘운동의‘조직기’로보고 1930년대이후를‘전투기’로설정하여

<sup>21</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415면.  
<sup>22</sup> 김명섭, 앞의책 279~81면참조.

져 「자유코뮤」(1932)을 발행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자금난으로 폐간되었다.

1920년대 후반 재일한인이나 키즘 단체는 노동조합적이나 키즘이 아니라 주로 순정이나 키즘의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자력이 모든 노동자가 협력하여 자본가 계급에 대한 대중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상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재일한인 사상단체의 세력은 과거보다 약화되었지만 한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했는데, 조선동흥노동동맹 朝鮮東興勞動同盟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 동맹은 중앙집권조직을 배격하고 자유연합주의를 고양했으며 정치운동을 배격한 노동계급의 해방을 추구했는데, 점차 노동조합적이나 키즘의 색깔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순수 사상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후회와 후우연맹 및 조선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한 한인들은 순정이나 키즘의 입장에서 있었다. 일본노동단체의 통합분위기에 힘입어 한인노동단체들도 통합운동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sup>19</sup> 1934년 1월에는 재일한인의 대표적인 키즘 단체 '조선일반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재일한인 노동운동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 한인사회에도 조직을 확대했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 조선인부를 설치하고 조선동흥노동동맹과 조선일반노조, 조선합동노조 등 3개의 노동단체를 통일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한인노동단체의 통합은 실패했다. 그나마 조선동흥노동동맹의 한국동(韓國東) 과이동순(李東淳)이나 후우연맹의 홍성환과 진록근(陳綠根) 등이 일본무정부공산당에 가입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재일한인이나 키스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중앙집권론적 조직론과 민중독재론이 출현한 것이다. 그들은 일본무정부공산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집권적 조직의 지도 아래 정치투쟁을 전개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민중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할 동안 반혁명세력의 반격을 분쇄하기 위해 민중독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것은 키즘의 기본원리에서는 상당히 이탈한 것이지만 한인이나 키스트들은 일본무정부공산당 조직이 볼셰비키와는 다르다고 믿었다. 조직운영에서 자유연합과 자유발의 원칙을 인정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도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한 연구자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재일한인이나 키스트 운동이 "키즘 본령에서의 이탈이 일어났다"고 평가한다.<sup>20</sup>

한인이나 키스트도 일본사회주의자의 연이은 사상전향 사태에 영향을 받아 일부가 전향했다. 대표 인물로는 현영섭(玄永燮) 과 장상중(張祥重), 최학주(崔學柱), 고부득(高富得) 등이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조선으로 가며 연락책을 담당하던 현영섭의 변절은 충격적이었다. 현영섭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출신인

하는 등이 전에 없었던 조직 형태를 취했다.<sup>10</sup> 이런 변화에는 1930년대 초 유럽에서 반파시스트 전선으로 결성된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민전선 활동이 알려지면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 연맹은 곧이어 일본무정부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연맹은 자율자치적이상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집중화된 지도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종래의 무조직, 무계획적인 활동 방침과 종파주의 활동을 비판하고, 강제력 있는 중앙조직과 계획적 전술을 채용하는 이른바 방법론의 수정을 제안했다. 현재의 정치상황이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봉쇄된 파쇼시대가므로 혁명운동에 필요한 강력한 비밀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무정부공산당은 평상시에는 키즘 사상을 선전 계몽하고 노동자 농민의 경제투쟁을 지도하여 이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리고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하면 지도부를 결성해 무산대중들을 일거에 무장봉기시켜 혁명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들은 모든 권력은 경제적 기초와 대중적 지지가 필요한데, 권력이란 꾸준히 강화되고 영구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권력의 강화란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프롤레타리아 국가도 권력의 강화로 소수자에게 집중하며, 경제적 발전을 기초로 영구화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권력의 모순은 점진적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레닌의 말처럼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 폐기된다고 했다. 비약 없는 권력의 소멸은 없다는 것이다.<sup>11</sup>

중앙집행위원회가 만든 당의 강령(1934년 9월)에는 여덟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1) 권력정치와 자본제의 폐지, (2)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확립, (3) 사유제의 폐지, (4) 생산수단과 토지의 공유, (5) 은행제도의 철폐, (6) 노동자 농민의 생산관리, (7) 교육문화의 향유, (8) 인위적인 국경의 철폐 등이 그것이다.<sup>12</sup> 이들은 중앙집행위원회-지방위원회-지구위원회 순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중앙집행위원회 내에는 서기국과 정치국, 조직국, 군사국, 재정국을 설치했다. 비록 중앙집권조직을 만들었지만 조직내의 자유로운 발언은 허락되었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다른 조직에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 자율 원칙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 관동지방위원회와 관서지방위원회를 차례로 결성하고, 합법적 조직활동 이외에도 비합법적 자금모집 활동도 전개했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운동자금과 무기 구입을 위한 비합법 운동을 위해 특무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당원들은 은행과 우체국을 습격했다. 중국에서 간행한 「남화통신南華通訊」(1936년 1월)에는 <일본무정부주의사건>이라는 제호 아래, "(일본무정부공산당은) 첫째로 자

<sup>19</sup> 구승희의 『한국이나 키즘 100년』, 이학사 2004, 245면.

<sup>20</sup> 이호룡 『한국의 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294면. 이에 대해 일본무정부공산당이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받아들인 적은 없으며, 여전히 기존의 키즘적 원칙에 충신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김명수, 앞의 책 264~65면).

<sup>10</sup> 小松隆二, 앞의 책 232~34면.

<sup>11</sup> <日本無政府共產黨> (1935).

<sup>12</sup> 秋山清 『日本の反逆思想』(秋山清著作集) 第2卷, 株式會社ぼる出版 2006, 190면.

금조달을위해동경, 대판등의은행과우체국을습격하고, 둘째로일본, 중국각중요도시를활동무대로하여국제조직을결성한후자본주의제국주의타도와민중혁명을촉성할것등을결정했다. 이에따라작년 11 월 1 일일본동경의신정은행과대판은행을습격했으나실패하여많은무정부주의자들이검거되었다. 이사건으로인해극비에준비중이던대사건이사전에발각되었다”<sup>13</sup>라고전하고있다. 이처럼일본경찰은일본무정부공산당의존재를파악하고 1935 년 11 월부터관련자 400 여명을일제검거하면서조직이와해되었다.<sup>14</sup>

한편 1935 년 11 월부터 1937 년까지몇차례에걸쳐 2 차농촌운동사건이일어나약 300 여명의농민운동관련아나키스트들이구속되었다. 이들은과거와달리‘아래로부터위로’혹은‘주변에서중심으로’라는자유연합의원리를비판하고, ‘현縣의일은현縣에서’혹은‘마을의일은마을에서’라는자주분산을주장했다. ‘농민속으로’가아니라‘농민속으로부터’라는그들의생각은비밀결사같은조직형태를부정했음에도불구하고, 일본정부로부터전국적인비합법결사로규정되어대대적인탄압을받았다.<sup>15</sup>

1930 년대에들어와도시의노동운동, 농촌의농민운동및일본무정부공산당의건설과붕괴는전반적인일본아나키즘운동의쇠퇴를가져왔다. 특히일본에서나타난충격적인현상은공산주의자와아나키스트의대량사상전향사태였다. 1933 년 6 월일본공산당의지도자좌야학(佐野學) 과과산정친(鍋山貞親) 의전향성명이후일본공산주의자의이른바‘전향의논사태현상’이나타났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의궤멸후아나키스트의대표인물가운데한사람인암좌작태랑의전향선언도큰충격을주었다.

암좌작태랑은대삼영을이은순정아나키즘의지도자였으나 『국가론대강』(1937 년 2 월) 을발간하기전사상에서크게변화된인식을드러냈다. 그는우선국가와천황을부정했던종래의입장을공개비판하고, 일본은서양이나중국과달리통치자와피통치자의관계가절대적으로“자연생성적인”특수한관계라고인정했다. 때문에통치자인천황과피통치자인국민은서로협력하는관계에있으며, 이를통해이상적인일본국가형성된다는주장을 폈다.<sup>16</sup> 개인의자유를강조하여천황제이데올로기를체계적으로비판했던아나키스트가가족제도의외연적확대로천황체제를받아들이는사실은놀라운일이었다. 혹자는암좌작태랑이적극적으로친정부적인활동을하지않았고전후일본아나키스트연맹에참가한사실을들어

<sup>13</sup> 〈일본무정부주의사건〉, 『南華通訊』 第 1 號, 1936. 1.

<sup>14</sup> 김명섭 〈한일아나키스트들의사상교류와반제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49 집, 2006, 57~58 면.

<sup>15</sup>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篇)』, 형설출판사 1978, 422 면.

<sup>16</sup> 김명섭, 앞의책 278 면.

그의전향은위장된것이라는주장이있으나, 어쨌든그가국가의존재를인정한사실은분명하다.<sup>17</sup>

그밖에일본의저명한문학가이자한때아나키스트였던가등일부(加藤一夫)의전향이있었다. 그는 1920 년대전반일본사회주의동맹의발기인이자아나키스트단체자유인연맹自由人聯盟의중심인물이었는데 1920 년대후반부터농본주의를주장하다가갑작스레 1930 년대중반에는천황을숭배하기시작했다. 가등일부는서양의물질문명보다일본의정신문명이우월하다며, ‘일본신앙’과 ‘천황신앙’을제창했다. 여기에는농촌농업중심의일본적특징으로도시공업적서양문명을비판하는농본주의의논리가작용하고있었다.<sup>18</sup> 즉농촌자치공동체에대한향수가전향의논리로기능했다는것이다.

일본의아나키즘운동은정부의무자비한탄압으로중일전쟁이발발하기전에이미일본무정부공산당과농촌운동사및해방문화연맹의해체로사실상붕괴상태에놓였다. 일본정세의영향을강하게받고있었던재일한인아나키스트의경우도상황은마찬가지였다.

## 선택의기로에선한인아나키스트

일본은구미제국주의와소련공산주의에대항해아시아를수호한다는명분아래대동아공영권을선전했다. 이러한파시즘적인아시아주의에대해일본과전쟁중이던중국은물론식민지한국과대만의민족주의자들가운데일부가현혹되어동참했다. 하지만아나키스트들은일본의아시아주의와정반대의입장에서서투쟁했다.

재일한인아나키스트단체혹우연맹은일본은물론중국의아나키즘운동과도유대를강화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양여주(梁汝舟) 의요청에호응해혹우연맹회원인이종봉(李鐘鳳) 을상해로파견하기도했다. 그들은 「흑색신문」 창간호(1930 년 8 월 1 일) 에 “불합리한현사회에대하여혁명적행동으로돌진하라”는표제를달았으며, 중국의한인아나키스트활동에대한기사를자주게재했다. 혹우연맹과아나키즘계열의사상단체들은만보산사건(1931 년 7 월) 이발생하자일의중국침략을규탄했다. 상해에서유길명(有吉明) 암살미수사건(1933 년 2 월) 이발생해원심창(元心昌) 과백정기(白貞基), 이강훈(李康勳) 등이체포되자이들에대한구원운동도전개했다. 「흑색신문」 은일제의아시아침략을규탄하고한중양민족의궤기를촉구하는등다양한선전사업을전개했으나, 신문을출판하는즉시압수되는과정을반복하다가결국 1935 년 5 월폐간되었다. 비슷한시기홍성환(洪性煥) 과한하연(韓何然) 을중심으로자유코문사가만들어

<sup>17</sup> 秋山清 『反逆の信條』, 北冬書房 1973, 259 면.

<sup>18</sup> 三原容子 〈加藤一夫の思想 — アナキズムから天皇信仰への軌跡〉, 『社會思想史研究』 第 14 號, 1990 참조.